2010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Social Cohesion Policy for Foreigner in Seoul

홍 석 기 · 김 선 자 · 이 혜 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홍 석 기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선 자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이 혜 숙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 철 민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정 은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보조원
	김 화 진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보조원
	최 진 영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연구보조	권 희 서	• 해외자료 수집 및 정리, 외국인 인터뷰 및 정리
	김 기 범	• 외국인 분포 현황 GIS 작업
	김 영 래	• 내국인 설문조사, 외국인 관련 기관 현황 정리
	김 운 혁	• 내국인 설문조사
	끌로띨드	• 외국인 설문조사, 해외사례 수집(Clothilde)
	냠델게르	• 내외국인 설문조사, 자료 정리(Ochirbat Nyamdelge)
	아 니 자	• 내외국인 설문조사, 자료정리 (Karen Anisa Fernandes Pinhel)
	장 성 일	• 내국인 설문조사
	한 정 희	• 내국인 설문조사, 국내 사례 및 이민사 자료 정리
	한 지 혜	• 해외자료 수집 및 정리, 외국인 인터뷰 정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총 론

서울은 규모적 측면으로나 경제적 측면으로 이미 글로벌 도시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동안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규모, 물리적 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면, 나아가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지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등의 배경을 통해 사회적 융복합 시너지를 도출함으로써 미래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30만 명이 넘은 외국출신 주민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출신 국가,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등의 이주 배경에 관계없이 내국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공존하며 살아갈 이웃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은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에 대해 베품과 나눔, 그리고 포용할 자세를 갖출 때가 도래하였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성장기를 맞기까지 700만 명이 넘은 국민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학업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적 발전을 이끈 측면이 적지 않다. 본국을 떠나 서울을 향하는 외국출신주민들도 역시 이러한 삶의 희망을 갖고 서울을 찾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 외국출신주민들에게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위해 서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삶의 풍요를 위해, 더 나아가 출신 국가와 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왔다. 즉, 서울은 외국출신주민들에게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인 것이다. 이에, 향후 서울은 글로벌 도시 서울을 찾아온 이들이 안정된 정착, 사회적응,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서울시는 국가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국가가 외국출신 이

주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출신주민에게 정착과 안정, 그리고 참여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서울은 모든 세계인의 희망의 땅,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인 '사회통합'을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로 연대하는 국민적 결집력'이란 의미로 해석하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주민과 외국출신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위한 연구로 공간적 변화, 사회제도적 변화, 인식적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1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역사적인 접근으로서 시대별로 서울시 정착 외국출신주민들의 배경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분포된 외국인 밀집 지역 커뮤니티의 기원과 발달과정 및 물리적 특성을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는 법과 사회제도 및 지원기관별 제공 프로그램 내용과 추진체계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때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글로벌 문화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내·외국출신 주민들의 지역 내 공존의식을 탐색하는 설문조사와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인터뷰 조사, 관련 기관 실무진 인터뷰 및 간담회 결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울이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대상 및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서울이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지원과 교육은 물론,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한다면, 서울드림

을 갖고 찾아온 외국출신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울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최근 서울에 외국출신주민이 급증하면서 서울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문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공간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출신주민 또는 외국출신주민 간의 상호 갈등과 더불어 공간적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해있다.

○ 21세기 중·후반에 세계화가 보다 급속도로 진전되어, 지구촌의 인구이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도시 서울은 세계인이 선호하는 도시로 발전될 것이며, 서울에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찾아올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외국출신 주민을 위한 정책이 갖는 한계와 다문화 가족 중심의 '한울타리 정책'에서 뛰어넘어 서울드림을 실현시키기 위해 찾아올 수많은 세계인들을 맞이하고 이들에 의해 나타날 각종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 외국출신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활동뿐 만 아니라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서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인 중심사회로 구축된 기존의 체계를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정책을 펼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이를 통하여 서울이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도록 한다.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출신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위한 연구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공간적인 변화이다. 외국출신주민 수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커뮤니티의 형성이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외국출신주민의 분포 현황과 그 변화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서울의 공간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 제도의 변화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법, 제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할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인식의 변화이다. 내·외국출신주민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의 글로벌사회에 직면한 시민의 인식 수준 및 공공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 문헌 및 자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내국인의 해외진출 역사와 외국출신주민의 한국 정착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종 행정자료 조사를 통하여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장조사를 통하여 서울에서 발전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외국출신주민의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5. 개념정의

○이 연구의 핵심적 용어인 '사회통합'의 의미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민적 결집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은 내·외국출신 주민을 통칭하는 것이며, 외국출신주민은 근로, 유학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국적상 외국출신주민으로 이민, 혼인 귀화자 등 외국출신 문화 배경의 서울 거주민을 의미한다.

Ⅱ. 서울에서 외국출신주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외국출신주민이 본격적으로 서울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말이다. 조선말기와 일제 강점기에 주로 청국인과 일본인 등 인접지역 강대국

출신이 주로 서울에 진출하였다. 이후 해방과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 미국과 유럽출신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비OECD국가 출신의 노동자 계층이 진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2009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은 서울시민 전체의 3.3%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내국주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외국출신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68.5%, 중국출신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타이완출신이 3~5%, 기타 국가 출신은 2% 미만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 커뮤니티 조사결과, 서울에 총 26개의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출신국에 따라 OECD국가 출신과 비OECD국가 출신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커뮤니티 내 주요거리에 외국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 외국출신주민의 미래 인구 추계결과, 적어도 2030년에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수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서울에서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서울의 주요한 도시 사회적 자원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외국출신 주민관련 정책의 문제점

○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국내·외 관련규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제법은 외국출신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국내법은 외국출신주민의 안정적 정착

과 보호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지원기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는 국내의 법질서 유지와 외국출신주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 문화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지원과 진료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다.

○ 서울시는 글로벌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강화본부 내에 글로벌센터 운영팀을 설치하고 서울글로벌센터와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외국출신주민들의 비즈니스 및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외국어 종합 상담, 국제교류 행사, 한국어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및 커뮤니티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 총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지역에서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의약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각기 다르다. 프로그램은 각 지역(구)마다 1~12개로 매우 다양하며 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별 대상이 아닌 가족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 내부의 정서적 적응을 돕는 데 주요한 특성이 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정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특화되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Ⅳ. 서울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 시민 권리의 평등,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자기개발과 자율성, 참여와 헌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출신

주민의 체류 유형에 따라 서울에서의 삶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

○ 내국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경험,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이나 가치관 또는 태도, 일생생활에서 느낀 점, 사회적문제와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출신국가나 인종 등 출신 배경에 따라 내국주민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서 거주 및 생활하는 내·외국출신주민들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낯설고 어색하지만 상호 소통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의 장벽에 따른 상호 간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를 습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 것이다.

○ 그룹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외국출신주민으로 겪게 되는 경험적 사실과 사회적 관계의 유형, 그에 따른 향후 정책적 지원에 대한 희망사항을 다루었다. 외국출신주민이 서울에서 내국인과 공존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서울시민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Ⅴ. 결론 :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향

○ 외국출신주민의 집단적 정착역사가 20년 가까이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성격의 다문화 정책에 일관하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 외국출신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다양한 인적구조의 외국출신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정착과 발전단계에 필요한 생활지원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서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서울드림을 갖고 찾아온 외국인이 더 이상 외국인으로 머물지 않고 서울의 발전을 이끌어갈 서울시민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목 차

제1장 서론 : 서울시 외국출신주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3절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7

제4절 연구방향 설정 ·····10

제2장 외국출신주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5

제1절 외국출신주민의 진출역사 ·····16

1. 근대 이후 아시아 중심 외국인의 진출 ·····16

2. 해방 이후 서방국가출신 외국인의 진출 ·····17

3.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촌 이주민의 시대 ·····18

4. 외국출신주민 정착 성격의 변화 ·····18

제2절 외국출신주민과 커뮤니티 ·····20

1. 출신국가별 이주민 현황 ·····20

2. 체류자격별 이주민 현황 ·····24

3. 국적취득 및 유형별 이주민 현황 ·····26

4.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 ·····31

5. 주요 커뮤니티 ·····34

6. 커뮤니티 발전 방안 ·····52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3절 외국출신주민의 미래 삶 ·····54
1. 2030년 외국출신주민의 인구변화 예측 ·····54
2. 2030년 외국출신주민들의 생활공간 ·····57
제4절 소결 ·····59

제3장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의 문제점 ·····63
제1절 외국출신주민 관련 법 ·····63
1. 외국출신주민 시민권리보장의 근거 ·····63
제2절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78
1. 중앙정부 ·····79
2. 지방자치단체 ·····85
3. 구별 프로그램 ·····98
4.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104
5.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8
제3절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 ·····114
1. 정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 및 현황 ·····115
2. 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118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22
제4절 소결 ·····124

제4장 서울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131
제1절 내·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설계 ·····131
1. 실태조사 방법 ·····131
2.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 구성 ·····135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2절 내·외국출신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38
1.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 ·····138
2. 내국주민 ·····151
제3절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조사 결과 ·····163
1. 체류 유형별 ·····163
2.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거주 및 활동 내·외국출신주민 ·····167
제4절 소결 ·····172

제5장 결론 : 글로벌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177
제1절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의 한계점 ·····178
1. 주요 문제점 ·····178
2. 정책의 한계점 ·····179
제2절 보다 큰 가치 지향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180
1.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180
2.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181

참고문헌 ·····189
부 록 ·····199
영문요약 ·····395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목 차

〈표 1-1〉 연구방법 ·····7
〈표 1-2〉 사회통합 관련 개념 정의 ·····10
〈표 2-1〉 서울시 국적별 등록외국출신주민 수 ·····21
〈표 2-2〉 전국의 외국출신주민 다수 거주 지역 및 5% 이상 지역(2009년) ·····22
〈표 2-3〉 자치구별 외국출신주민 인구 비교(2009년) ·····22
〈표 2-4〉 주요 국적별 거주 밀집지역 인구 ·····24
〈표 2-5〉 외국출신주민 유형별 주민 현황 ·····26
〈표 2-6〉 주요 유형별 밀집 거주 지역 분포(2009년) ·····28
〈표 2-7〉 외국출신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29
〈표 2-8〉 외국출신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30
〈표 2-9〉 구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32
〈표 2-10〉 가리봉동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38
〈표 2-11〉 광희동 커뮤니티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42
〈표 2-12〉 무슬림 커뮤니티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47
〈표 2-13〉 '서래마을' 주요시설 분포 현황 ·····51
〈표 2-14〉 커뮤니티 개선 방안 ·····53
〈표 3-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과 제28조 ·····66
〈표 3-2〉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법의 주요내용 ·····71
〈표 3-3〉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주요 내용 ·····73
〈표 3-4〉 서울특별시 외국출신주민 관련 조례 ·····75
〈표 3-5〉 서울시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76
〈표 3-6〉 서울특별시 관내 구별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조례(지원대상별 내용) ···78
〈표 3-7〉 주요 정부 부처별 업무현황 요약 ·····79
〈표 3-8〉 법무부 2010년도 추진 프로그램 ·····81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추진 프로그램 ·····83
〈표 3-10〉 보건복지부 2010년도 추진 프로그램 ·····84
〈표 3-11〉 2010년 서울시청 내 부처별 조직도 및 업무현황 ·····88
〈표 3-12〉 서울시 추진체계(서울시 100%인 경우) ·····91
〈표 3-13〉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시 ⇒ 민간 수행기관 경우) ·····92
〈표 3-14〉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시 ⇒ 구) ·····92
〈표 3-15〉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시 ⇒ 구 ⇒ 민간 수행기관) ·····92
〈표 3-16〉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92
〈표 3-17〉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 민간 수행기관) ·····92
〈표 3-18〉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 구 ⇒ 민간 수행기관) ·····92
〈표 3-19〉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구 ⇒ 민간 수행기관) ·····93
〈표 3-20〉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비 예산 프로그램) ·····93
〈표 3-21〉 서울 글로벌센터,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현황 ·····93
〈표 3-22〉 빌리지센터별 운영 사업 ·····95
〈표 3-23〉 2010년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97
〈표 3-24〉 구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공통사항 ·····99
〈표 3-25〉 특정 국가출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발달한 구 ·····100
〈표 3-26〉 보건소 외국출신주민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 ·····101
〈표 3-27〉 기타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특이사항 ·····103
〈표 3-28〉 정부 부처별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105
〈표 3-29〉 서울시 부서별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106
〈표 3-30〉 구별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107
〈표 3-31〉 민관단체의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108
〈표 3-32〉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의 행사프로그램 ·····111

〈표 3-33〉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12
〈표 3-34〉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의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113
〈표 3-35〉 교과부 2006~2009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계획 ·····116
〈표 3-36〉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계획 ·····117
〈표 3-37〉 연도별 전국 국제결혼가정 학생(청소년)의 재학현황 ·····118
〈표 3-38〉 전국대비 서울의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119
〈표 3-39〉 서울시 교육청 2010년 정책내용 ·····120
〈표 3-40〉 서울시 구별 외국출신주민 자녀 지원 프로그램 ·····121
〈표 3-41〉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자녀교육지원 단체 및 프로그램 ·····122
〈표 4-1〉 조사대상자 및 조사목적 ·····132
〈표 4-2〉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설문조사 대상지 ·····132
〈표 4-3〉 내국인 설문조사 대상지 선정 ·····133
〈표 4-4〉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인터뷰 대상자 국적 ·····134
〈표 4-5〉 결혼이민자 인터뷰 대상자 국적 ·····134
〈표 4-6〉 유학생 간담회 참석자 국적 ·····134
〈표 4-7〉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대상자 구성 ·····135
〈표 4-8〉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유학생 대상 그룹 인터뷰 주요내용 ·····136
〈표 4-9〉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거주 및 활동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내용 ··137
〈표 4-10〉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거주 및 활동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내용 ··137
〈표 4-1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유형 ·····138
〈표 4-12〉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와 출신국 유형 ·····139
〈표 4-13〉 응답자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140
〈표 4-14〉 응답자의 차별 대우 경험 ·····140
〈표 4-15〉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141

〈표 4-16〉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142
〈표 4-17〉 응답자의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142
〈표 4-18〉 응답자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143
〈표 4-19〉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144
〈표 4-20〉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144
〈표 4-21〉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145
〈표 4-22〉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146
〈표 4-23〉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147
〈표 4-24〉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147
〈표 4-25〉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148
〈표 4-26〉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의사 ·····149
〈표 4-27〉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149
〈표 4-28〉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150
〈표 4-29〉 응답자의 성별 ·····151
〈표 4-30〉 응답자의 연령 ·····152
〈표 4-31〉 응답자의 직업 ·····152
〈표 4-32〉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154
〈표 4-33〉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장소 ·····154
〈표 4-34〉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155
〈표 4-35〉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156
〈표 4-36〉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가에 관한 의견 ·····157
〈표 4-37〉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에 관한 의견 ·····158

〈표 4-38〉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160
〈표 4-39〉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161
〈표 4-40〉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162
〈표 4-41〉 외국출신주민노동자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64
〈표 4-42〉 결혼이민자 그룹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65
〈표 4-43〉 유학생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66
〈표 4-44〉 외국출신주민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68
〈표 4-45〉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내국주민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68
〈표 4-46〉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직원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70
〈표 4-47〉 빌리지센터 직원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171
〈표 4-48〉 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 ·····172
〈표 5-1〉 단계별 사회통합 정책 추진 방향 ·····185

그림목차

〈그림 2-1〉 외국출신주민의 정착사 ·····19
〈그림 2-2〉 국적별 진출 현황 ·····20
〈그림 2-3〉 출신국별 집중 거주지역 ·····23
〈그림 2-4〉 주요 체류자격별 서울시 등록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증감률 ·····25
〈그림 2-5〉 외국출신주민 국적취득 및 유형별 이주민 현황 ·····26
〈그림 2-6〉 외국출신주민 주요 유형별 증감 현황 ·····27
〈그림 2-7〉 주요 유형별 밀집 거주 지역 분포(2009년) ·····28
〈그림 2-8〉 외국출신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29
〈그림 2-9〉 외국출신주민 분포 현황 ·····31
〈그림 2-10〉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32
〈그림 2-11〉 특성에 따른 커뮤니티 분류 ·····33
〈그림 2-12〉 한국계 중국인 분포현황과 커뮤니티 중심 ·····35
〈그림 2-13〉 한국계 중국인 인구분포 현황 ·····35
〈그림 2-14〉 '옌볜거리' 건물용도 현황 ·····36
〈그림 2-15〉 '옌볜거리' 건물 노후도 현황 ·····37
〈그림 2-16〉 '옌볜거리'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38
〈그림 2-17〉 몽골인 인구 분포현황과 커뮤니티 중심 ·····39
〈그림 2-18〉 커뮤니티 인근 몽골인 분포 현황 ·····40
〈그림 2-19〉 '몽골타운' 건물용도 현황 ·····41
〈그림 2-20〉 '몽골타운' 건물 노후도 현황 ·····41
〈그림 2-21〉 '몽골타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42
〈그림 2-22〉 무슬림 분포 현황[중동출신(좌), 파키스탄 출신(우)] ·····44
〈그림 2-23〉 커뮤니티 인근 파키스탄인 분포 현황 ·····44
〈그림 2-24〉 '이슬람거리' 건물용도 현황 ·····45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그림 2-25〉 '이슬람거리' 건물 노후도 현황 ·····46
〈그림 2-26〉 프랑스인 인구분포 현황과 커뮤니티 중심 ·····48
〈그림 2-27〉 '서래마을' 프랑스인 분포 현황 ·····49
〈그림 2-28〉 '서래마을' 건물용도 현황 ·····49
〈그림 2-29〉 '서래마을' 노후도 현황 ·····50
〈그림 2-30〉 2030년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인구 예측 ·····57
〈그림 2-31〉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분화과정 ·····59
〈그림 3-1〉 법무부 외국출신주민 관련업무 부서현황 ·····80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출신주민 관련 업무 부서현황 ·····82
〈그림 3-3〉 보건복지부 외국출신주민 관련 업무 부서현황 ·····83
〈그림 3-4〉 서울시 외국출신주민관련 주요 담당부서 조직도 ·····87
〈그림 3-5〉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정책 방향 ·····96
〈그림 3-6〉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지원부서 개편 현황 ·····109

제1장 서론 : 서울시 외국출신주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제4절 연구방향 설정

제1장 서론 : 서울시 외국출신주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운영현황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외국출신주민의 증가와 정부의 정책적 한계

오늘날 자본 및 노동력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출신주민 이주 증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회변화는 전 지구적 추세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으로 더불어 파리, 뉴욕, 도쿄 같은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도시로 발전한 서울 역시 최근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한 정부는 외국출신주민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가 추진해 온 관련 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차별 문제 등 기초적 차원의 지원 노력에만 한정되어 있어 아직 외국 이주민에 대한 초기 문제인식과 그 해결방안 제시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20년 후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주류 그룹과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있는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북한출신 한국인(새터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 요소 증가 및 구성원의 결속력 해체라는 위험성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2)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나 강남 등 도심지역이나 공장 밀집지역인 공단 등을 제외하고 일상 주변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들르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을 쉽게 볼 수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출신주민 현황조사 결과 서울의 외국출신주민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3.5%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최근 외국출신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며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공간적 변화이다. 외국출신주민의 증가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문화를 가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들이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동일 언어권 혹은 동일 문화권 외국출신주민들이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울시는 2007년 '글로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5개 지역을 선정하고 글로벌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2개 지역을 추가하여 현재 총 7개 지역 내에 있는 13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센터가 OECD 국가 출신의 외국출신주민들의 커뮤니티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OECD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늘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중심 지자체로서, 외국출신주민 거주 증가 및 집중화로 인한 사회·문화·공간적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국적상 또는 출생 문화적 배경상 외국출신주

민과 주류사회를 구성하는 내국주민 간의 사회통합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다문화가정 및 교육에 집중한 제한적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내국주민과 외국출신주민 간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에는 근본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서울의 외국이주민 증가 현상에 따른 미래 사회갈등 및 분열 현상을 예상하고,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개념을 수용해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이 국적, 종교,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서울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누리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리더급 글로벌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급하게 도입되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출신 주민 대상 지원정책의 한계점들을 검토해보고,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 정책을 보다 넓은 장기적 관점의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는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제도, 행정, 사회문화 및 도시정책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외국출신주민과 현재 외국출신주민 커

뮤니티 인근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내국주민으로 한정한다.

대상적 범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서울시민의 정의

–외국출신주민 : 근로, 유학 등의 이유로 이주한 국적상의 외국출신거주민 및 이민, 혼인귀화자 등 국적상 한국인이지만 외국출신 문화 배경의 거주민

–내국주민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내국주민

○기타 용어 정의

–한국국적 미취득자 (90일 이상 체류자) :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1], 기타 외국출신주민

–한국국적 취득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귀화자

–외국출신주민 자녀[2] : 외국출신주민부모, 외국출신주민-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중 외국출신주민의 사회통합 정도를 가늠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운영자 및 이용 외국출신주민 면담조사, 외국출신주민 밀집주거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1)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자에 한함.

2) 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유형에 따라 구분함.

〈표 1-1〉 연구방법

방 법	주 요 내 용
문헌조사	각종 통계자료, 학위논문 및 학술지, 세미나 자료, 단행본
설문조사	외국출신주민 설문조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인근 거주 및 생활 내국주민 설문조사
면담조사	글로벌센터, 외국출신주민지원기관 및 단체 관계자,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대표 등
현장조사	외국출신주민 주거·고용·교육·복지 관련 환경조사, 외국출신주민지원기관·단체

제3절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1. 사회통합 개념정의

사회통합이란 사회 질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 공감, 사회적 배제 집단의 포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민적 결집력을 의미한다[3].

2. 사회통합의 종류

국내 연구에서 사회통합이란 서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등 세 가지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면에서 비슷하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3)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societyindex/societyindex_info.asp)

1) Social Inclusion

Social Inclus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제도적 제약들을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4]의 대립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넓은 의미에서는 빈곤과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보호를 뜻한다.

2)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년 UN에서 발표한 정의[5]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단순히 기존 사회관계의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프랑스의 초기 외국출신 이민자 수용기에 공화주의적 전통에 따라 외국출신 이민자들에게도 동일한 공화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동화주의 정책을 펼쳤었던 것들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6]은 '사회통합을 Social Integration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이 용어가 특정한 집단의 가치나 방식에 다른 집단을 강제로 통합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최근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3) Social Cohesion

Social Cohesion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

---

4) 사회적 배제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적용범위 안에 들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들의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사용됨. 이에 해당하는 집단으로는 이주민, 소수인종, 장기실업자, 약물중독자 등이 있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2009, p.21 재인용

6) Ibid., p.21

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7]. 즉,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가치 공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Maxwell, 1996)[8], 동등한 기회와 물질의 불평등 최소화 요건과 사회통합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9].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10]에 의하면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고,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 및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특정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민주적 안정성을 절대적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Social Cohesion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인권, 특히 의료 혜택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소수 집단, 이민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인권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용어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정의된 Social Cohesion은 '시민 간의 연대감, 지역적 협력, 공익을 위한 화합, 연대감 및 헌신을 증진하는 사회를 결속하는 접착제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1]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7) Ibid.

8) William Easterly,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2006, p.6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p.cit., p.3

10) Council of Europe,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2005

11) King & Samii,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Interventions to Promote Social Cohesion in Sub-Saharan Africa, 3IE Synthetic Reviews No. 2 Protocol March 2009
원문 - Social cohesion is variously described as the "affective bonds between citizens" (Chipkin and Ngqulunga 2008), "local patterns of cooperation" (Fearon et al, 2009) and "the glue that bonds society together, promoting harmony, a sense of community, and a degree of commitment to promoting the common good" (Colletta et al, 2001).

〈표 1-2〉 사회통합 관련 개념 정의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의 수준 증진 기회를 막는 제도적 제약들을 제거한 것을 뜻함.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대립 개념으로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보호를 의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개인의 사회규범 수용이라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될 수도 있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민적 결집력을 지칭

제4절 연구방향 설정

앞서 살펴본 3가지 다른 사회통합 개념은 이미 서구의 도시에서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다. 서울시는 이들 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피하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취하여야 할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또 서울시가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앞서 살펴본 개념 중 Social Cohesion 개념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축적의 산물로 최근 대두된 Social Cohesion 개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사회통합 관련 3개의 개념을 종합하여 필요부분을 발췌하는 것도 이상적일 수 있다.

첫째, 기존 사회제도에서 배제된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배려이다. 일례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하여 지원과 도움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외국출신주민을 보호한다. 첫번째 경우 외에 기존의 제도권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출신주민들도 대상에 포함되며, 빈곤, 실업, 질병, 사고, 사망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서 이들을 보호한다.

셋째,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한다. 즉 내국주민과 외국출신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조정·관리함으로써 사회의 균열과 분화를 방지한다. 위의 두 경우처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보다는 사회, 문화 및 도시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개인들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서 동떨어진 개인일지라도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관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를 인식하고, 위 목적 중 두 번째 영역인 전통적 사회보장(기본적 복지)과 함께, 세 번째 영역인 사회구성권 간 갈등(내·외국출신주민 간 갈등) 예방을 중심으로 접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사회적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인 제도권 밖 취약계층(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이민정책과 밀접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통합정책 관점에서 본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2장 외국출신주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1절 외국출신주민의 진출역사
제2절 외국출신주민과 커뮤니티
제3절 외국출신주민의 미래 삶
제4절 소결

제2장 외국출신주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운황21

서울이 세계 주요 글로벌 도시 대열에 합류하면서 외국출신주민이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서울공간에서 160여 개 국에서 온 외국출신주민들은 삶의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 되고 있으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함께하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 곳곳에 아직은 낯설지만 점차 친숙해져 가는 외국출신주민의 커뮤니티가 자생하기 시작하였고, 특색있는 문화가 숨쉬는 공간들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세기 중·후반부터 21세기 초·중엽 사이 다양한 측면에서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하면서 단일민족의 수도에서 세계인이 함께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물론 서울은 오늘의 글로벌 도시에서 만족하지 않고 향후 리더급 글로벌 도시이자 세계인의 수도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국민 중심의 국제도시에서 출발하여 다국적 출신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복합적 사회문화를 건설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글로벌 도시 발전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출신국가 및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인적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국출신주민 인적자원의 진출역사와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들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장래인구의

변화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의 변화와 이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제1절 외국출신주민의 진출역사

1. 근대 이후 아시아 중심 외국인의 진출

외국출신주민의 한반도 유입 역사를 찾아보면 오래 전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격적으로 외국출신주민들이 이주하여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였던 것은 19세기 말 개항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82년 조선과 청국 간의 무역조약[12]이후 인천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청국인들이 진출하면서 집단거주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13] 같은 해에 일어난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국의 군대와 군역상인 40여 명[14]이 국력을 배경으로 한양까지 진출하였고, 이후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기록에 의하면, 1883년에 99명이었던 청국인들이 1893년에는 1,254명으로 10년 사이에 그 수가 12배[15]나 늘어났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중국인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16]

---

12) 한청상민수륙무역장정'(韓淸商民水陸貿易章程)조약 : 1882년(고종 19년) 8월 23일 조선과 청나라 양국 간에 체결된 어로(漁撈) 및 무역에 관한 협약임. 8조로 된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최혜국대우 및 청나라의 상무위원(商務委員)과 조선의 대원(大員)을 서로 파견하고, 허가 없이 어획물을 교환하지 못하며, 양국상인이 상대국 내에서 상행위를 할 때에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 등임.

13)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Ⅰ) :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9, p.37

14)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학회,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2010. 3, p.5

15) 전우용, 종로와 본정 : 식민도시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제40호, 2001, pp.163~193

16) Ibid.

1876년 '조일수교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항구 및 시장 등 일부 지역에만 거주하였으나[17]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본정부가 '조선이민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 도처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국내 일본인 수는 17만 명[18]이 넘었다.

서울지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충무로 및 용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밀집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이 지역에 1930년 중엽 일본의 한 도시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19].

2. 해방 이후 서방국가출신 외국인의 진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일본군 기지가 있었던 용산을 중심으로 미군이 진출하고 그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인과 서방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태원이 서방세계의 커뮤니티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동안 외국의 대사관과 외국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였던 동일 국가 혹은 동일 문화권 출신 외교관과 상사 주재원, 그리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 밀집거주하면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들은 대사관, 학교, 종교시설, 직장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반포동 서래마을, 한남동 독일인 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17) Ibid.

1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서울특별시, 1981, p.156

19) 전우용, op. cit., pp.163~193

3.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촌 이주민의 시대

한국은 1970~1980년대 노동집약산업으로 한강기적을 이룩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20세기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적 단합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였다. 이 시기에 세계화가 확산되고 세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한국 그리고 서울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벗어나 선진국 진입단계에 이르렀으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동북아의 경제, 사회,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빈번해지고 그와 더불어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 대한민국을 선망하는 이웃국가의 젊은이들이 결혼 등을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 점령기 시대 핍박을 피해 떠났던 재중동포들도 감격과 희망을 갖고 역이주하였다. 북한체제를 피해 북한주민들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꿈을 갖고 찾아왔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외국출신 주민들은 자국의 발전과 개인의 성공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학업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국민에게 희망의 국가가 되었으며, 서울은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되었다.

4. 외국출신주민 정착 성격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서울에 정착한 외국출신주민은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한 세기 전에 정착한 청국인이나 일본인은 주변 강대국 출신으로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배를 위한 목적으

로 한 정착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인들이 정착하면서 최초로 서방국가 출신의 외국출신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정치적 목적으로 정착하였으므로 일반시민의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후 1970년대 정착한 외국출신주민들은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지배나 정착의 목적보다 경제적 협력 등을 통하여 두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한 2~3년 정도의 단기 거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2-1〉 외국출신주민의 정착사

1990년 이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의 노동인력을 유입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노동인력을 송출하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에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국가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출신주민 집단이 일반 내국주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제2절 외국출신주민과 커뮤니티

1. 출신국가별 이주민 현황

2009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20]에 의하면, 국내 외국출신주민 수는 총 120만 명이며, 이중 30.3%인 33만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총인구의 3.3%에 해당한다.

2009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66개국의 국적출신 시민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등록 외국출신주민 인구는 255,749명으로 서울시 총 인구 1,064만 명의 2.4%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은 1995년의 0.4%에 비하여 5배나 증가한 것이다[22].

〈그림 2-2〉 국적별 진출 현황

20) 행정안전부의 외국출신주민 인구통계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학생, 기타 외국출신주민)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국적취득자), 외국출신주민 자녀(외국출신주민부모, 외국출신주민-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를 포함한다.

21) 법무부, 2009 출입국·외국출신주민 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정책본부, 2009

22) 등록외국출신주민 통계는 출입국관리소의 장기체류외국출신주민 인구 중 외국출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합법적 체류자만을 포함한다.

서울거주 166개국 출신의 주민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출신이 약 19만 명으로 서울 전체 등록 외국출신주민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13,100명(5.3%), 타이완 8,800명(3.4%), 일본 6,800명(2.7%), 베트남 5,200명(2.0%) 몽골 3,900명(1.5%), 필리핀 3,600명(1.4%) 순으로 아시아국가 출신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서울시 국적별 등록외국출신주민 수

(단위 : 인, %)

국 적	인 구	비 율	국 적	인 구	비 율
한국계 중국인	166,413	66.8	방글라데시	522	0.2
중국	25,778	10.3	뉴질랜드	340	0.1
미국	13,103	5.3	캄보디아	338	0.1
타이완	8,819	3.4	사우디아라비아	318	0.1
일본	6,806	2.7	홍콩	248	0.1
베트남	5,162	2.0	스리랑카	242	0.1
몽골	3,885	1.5	카자흐스탄	232	0.1
필리핀	3,626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231	0.1
캐나다	2,418	0.9	미얀마	219	0.1
우즈베키스탄	1,570	0.6	브라질	207	0.1
인도	1,326	0.5	이란	197	0.1
타이	1,277	0.5	아일랜드	191	0.1
영국	1,223	0.5	싱가포르	175	0.1
프랑스	1,155	0.5	네덜란드	167	0.1
러시아	1,369	0.5	터키	165	0.1
파키스탄	852	0.3	스웨덴	158	0.1
독일	836	0.3	이탈리아	158	0.1
네팔	829	0.3	키르기스스탄	141	0.1
오스트레일리아	796	0.3	우크라이나	115	0.0
나이지리아	720	0.3	스위스	114	0.0
인도네시아	635	0.2	기타	2,090	0.8
말레이시아	583	0.2	전체	249,181	100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출신주민 정책 통계연보, 200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서울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대다수가 한국계 출신과 이웃국가출신 주민이므로 출신국가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외국출신주민 이주 흐름은 초기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출신이 주류를 이루지만 점차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밀집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는 외국출신주민이 2만 명 이상 거주하는 자치구(區)가 4곳,

〈표 2-2〉 전국의 외국출신주민 다수 거주 지역 및 5% 이상 지역(2009년)

(단위 : 인, %)

외국출신주민 다수 거주 지역(2만명 이상)		외국출신주민 5% 이상 지역	
서울 (4개)	영등포(44,677), 구로(34,480), 금천(22,534), 관악(22,201)	서울(6개)	영등포(11%), 금천(9.1%), 구로(8.2%), 중구(8.0%), 용산(7.0%), 종로(6.5%)
경기 (4개)	안산(41,785), 수원(30,139), 화성(24,925), 성남(22,604)	경기(4개)	포천(6.4%), 안산(5.9%), 김포(5.7%), 화성(5.3%)
		전남(1개)	영암(8.4%)
		부산(1개)	강서(7.1%)
		인천(1개)	중구(5.1%)
		충북(2개)	음성(5.9%), 진천(5.4%)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2009

〈표 2-3〉 자치구별 외국출신주민 인구 비교(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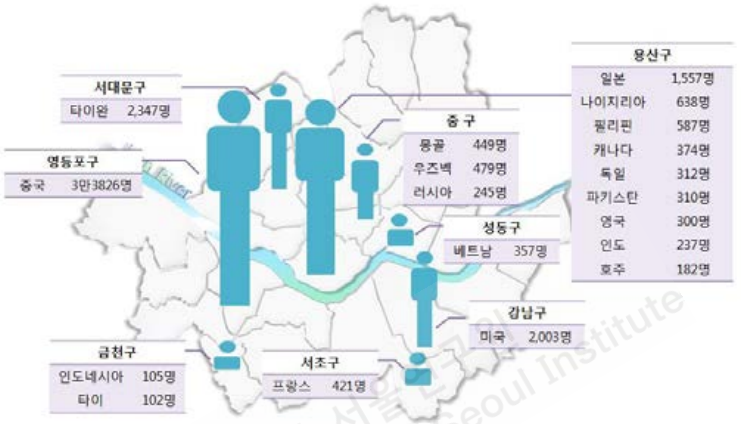
(단위 : 인)

구 분	강남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등록 외국출신주민	7,361	6,360	18,281	4,545	2,665	12,131	10,053	8,300
외국출신주민	12,832	9,090	22,534	6,592	4,090	14,381	13,197	10,882
구 분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합계
등록 외국출신주민	9,198	8,429	12,492	4,887	8,940	8,396	4,939	255,749
외국출신주민	11,539	9,860	16,691	6,920	11,054	10,425	7,014	334,910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2009

자치구 전체 인구 대비 외국출신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자치구가 6곳이 있다.

서울에 진출한 주요 출신국가와 밀집거주 자치구를 살펴보면 중국인(한국계 포함[23])은 영등포구(33,800명)와 구로구(26,200명)순이며, 그다음으로 미국인이 강남구(2,000명)와 용산구(1,800명), 타이완인은 서대문구(2,400명)와 마포구(1,5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서울통계 2009 재구성

〈그림 2-3〉 출신국별 집중 거주지역

출신국별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출신은 서울의 서남권 진출이 두드러져, 서울거주 중국출신 전체 주민의 10.5%가 대림2동, 가리봉동, 신길1동 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 타이완출신은 서울중심부와 중서부지역의 진출이 두드러져, 서울거주 타이완출신 전체 주민의 25.8%가 연희동, 연남동, 회현동 지역에

23) 여기서 괄목할 사항은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외국출신주민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등록 외국출신주민>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적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지난 역사의 굴곡 속에서 부득이 중국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같은 민족인 한국계 중국인을 <외국출신주민>으로 취급하기보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집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출신은 타 서방국가 출신에 비해 밀집 거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서울거주 프랑스출신 전체 주민의 33.0%가 반포4동, 방배4동,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주요 국적별 거주 밀집지역 인구

(단위 : 인)

중국(한국계 포함)		타이완		베트남		몽골	
전 체	192,191	지역	8,819	전 체	5,162	전 체	3,885
대림2동	7,572	연희동	1,292	독산1동	136	신당1동	150
가리봉동	7,563	연남동	711	성수2가1동	99	광희동	147
신길1동	5,023	회현동	268	가산동	93	장안1동	133
필리핀		캐나다		우즈벡		러시아	
전 체	3,626	전 체	2,418	전 체	1,570	전 체	1,369
한남동	173	이태원1동	128	광희동	292	광희동	129
이태원1동	133	용산2가동	94	장충동	111	장충동	61
장안1동	102	연희동	71	신사1동	88	이태원1동	61
인도		타이		영국		프랑스	
전 체	1,326	전 체	1,277	전 체	1,223	전 체	1,155
한남동	80	서교동	66	이태원1동	105	반포4동	211
이태원1동	65	가산동	64	한남동	84	방배4동	99
신촌동	64	양재2동	47	성북동	63	한남동	71

출처 : 서울통계 2009 재구성

2. 체류자격별 이주민 현황

서울 등록 외국출신주민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인력이[24] 146,500명(57.3%)으로 가장 많으나 전문 인력[25]은 11,000명 정도로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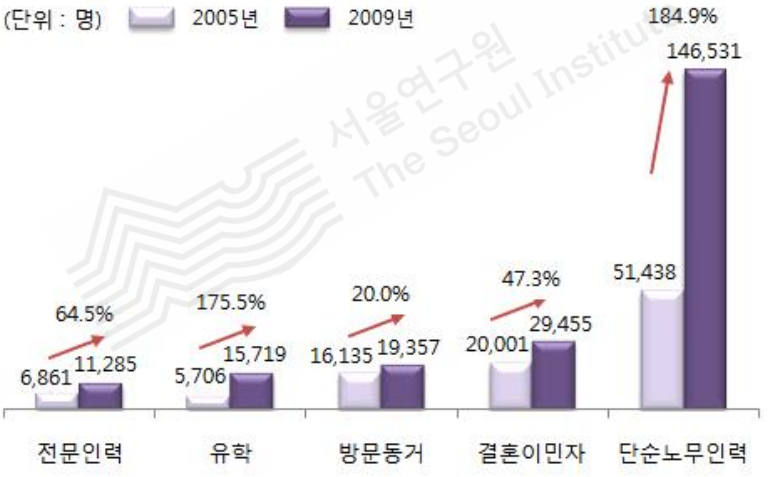
24) 비전문취업, 산업연수, 자진출국 특정활동, 연수취업, 내항선원, 방문취업, 취업관리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출신주민

25)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직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출신주민

단순노무인력은 2005년 51,400명에서 2009년 146,500명으로 4년 동안 2.8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출신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9.7%에서 57.3%로 증가하였다. 전문 인력은 2005년 6,800명에서 2009년 11,300명으로 1.6배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3%에서 4.4%로 감소하였다.

결혼이민자는 2005년 20,000명에서 2009년 29,500명으로 4년 동안 1.5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출신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1.5%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은 2005년 5,700명에서 2009년 1만5700명으로 2.8배 늘어, 단순노무인력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방문동거[26]의 경우 2005년 16,100명에서 2009년 29,500명으로 1.5배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같은 기간 15.4%에서 11.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직업
단순노무인력 : 비전문취업, 산업연수, 자진출국특정활동, 연수취업, 내항선원, 방문취업, 취업관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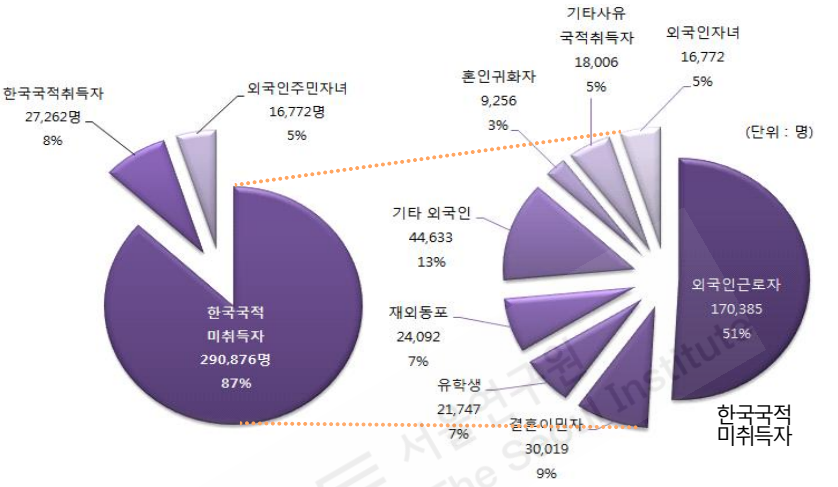
출처 : 서울통계, 2009

〈그림 2-4〉 주요 체류자격별 서울시 등록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증감률(2005년 ~ 2009년)

26)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출신주민

3. 국적취득 및 유형별 이주민 현황

서울 외국출신주민의 국적취득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27,000명으로 전체 외국출신주민의 8.1%,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291,000명으로 전체 외국출신주민의 86.8%로 나타났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그림 2-5〉 외국출신주민 국적취득 및 유형별 이주민 현황

〈표 2-5〉 외국출신주민 유형별 주민 현황

(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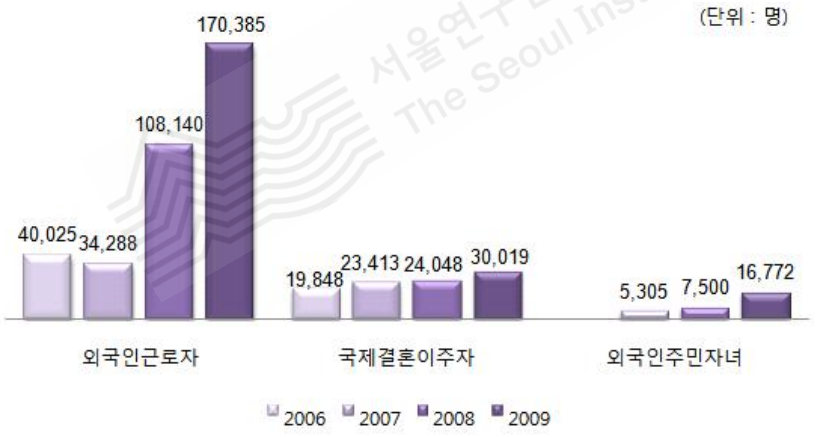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출신주민 자녀		
외국출신 주민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외국 출신주민	혼인 귀화자	기타사유 국적 취득자	외국출신 주민 부모	외국출신 주민-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170,385	30,019	21,747	24,092	44,633	9,256	18,006	1,875	12,664	2,233
소계(A)					소계(B)		소계(C)		
290,876					27,262		16,772		
총계(=A+B+C)					334,910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한국국적 미취득자 중 외국출신주민근로자는 약 17만명으로 전체 외국출신주민의 50.8%, 결혼이민자는 약 3만명으로 전체 외국출신주민의 8.9%에 해당한다. 그 외에 전체 외국출신주민 중 유학생은 약 22,000명으로 6.4%, 재외동포는 약 24,000명으로 7.1%, 기타 외국출신주민은 약 45,000명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같은 동등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외국출신주민은 혼인귀화자 약 9,000명(2.7%), 기타 사유 취득자 약 18,000명(5.3%)에 불과하다.

또한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주요 유형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출신주민근로자는 2006년 대비 325.7%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제결혼이주자는 2006년 대비 51.2%, 외국출신주민 자녀는 2007년 대비('06년 외국출신주민 자녀 계수 안함) 216.2%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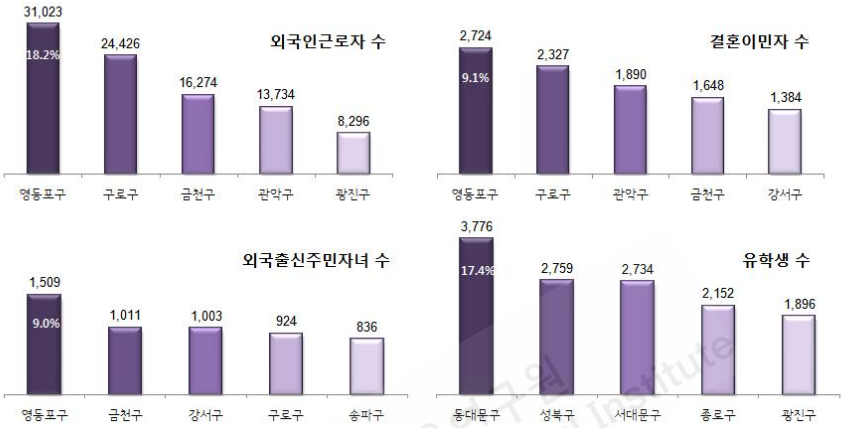


*2006년 외국출신주민 자녀 인구통계 없음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그림 2-6〉 외국출신주민 주요 유형별 증감 현황

외국출신주민의 유형별 거주 지역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

악구를 중심으로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출신주민 자녀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은 동대문구의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성북구의 고려대, 서대문구의 연세대, 이화여대, 종로구의 성균관대, 광진구의 건국대 등 대학가 주변에 밀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주요 유형별 밀집 거주 지역 분포(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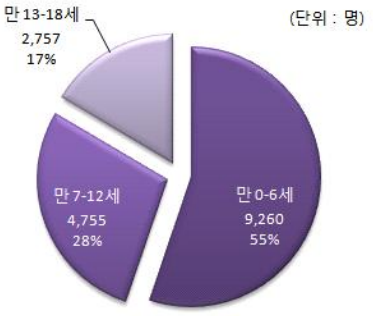
〈표 2-6〉 주요 유형별 밀집 거주 지역 분포(2009년)

(단위 : 인)

구 분	지 역	인구(명)	비율(%)	구 분	지 역	인구(명)	비율(%)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영등포구	31,023	18.2	외국출신 서울 주민자녀	영등포구	1,509	9.0
	구로구	24,426	14.3		금천구	1,011	6.0
	금천구	16,274	9.6		강서구	1,003	6.0
	관악구	13,734	8.1		구로구	924	5.5
	광진구	8,296	4.9		송파구	836	5.0
결혼이민자	영등포구	2,724	9.1	유학생	동대문구	3,776	17.4
	구로구	2,327	7.8		성북구	2,759	12.7
	관악구	1,890	6.3		서대문구	2,734	12.6
	금천구	1,648	5.5		종로구	2,152	9.9
	강서구	1,384	4.6		광진구	1,896	8.7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출신주민의 자녀는 약 17,000명으로 전체 외국출신주민의 5%에 해당한다.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2세 미만이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6세 이하가 약 9,300명, 만 7~12세 이하가 약 4,80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8〉 외국출신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표 2-7〉 외국출신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인)

전체 16,772 명					
유아		초등		중고등	
만0세	827	만7세	872	만13세	547
만1세	1,948	만8세	776	만14세	492
만2세	1,872	만9세	842	만15세	422
만3세	1,338	만10세	794	만16세	425
만4세	1,195	만11세	786	만17세	434
만5세	1,088	만12세	685	만18세	437
만6세	992				
소계	9,260	소계	4,775	소계	2,757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외국출신주민 자녀 중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초등학생 연령대 2,427명(51.0%), 중학생 연령대 389명(26.6%), 고등학생 연령대 125명(9.6%)으로 조사되었으며, 저학력 연령대일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고학력으로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국제결혼이 성행되는 단계에 따라 출산된 자녀의 수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 외국출신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 인)

지역	유아 (만0세~만6세)	초등학생 (만7세~만12세)	중학생 (만13세~만15세)	고등학생 (만16세~만18세)	총계	비율
종로구	132	41	15	15	203	1.2%
중구	156	116	38	44	354	2.1%
용산구	322	199	67	46	634	3.8%
성동구	356	175	63	58	652	3.9%
광진구	403	246	74	64	787	4.7%
동대문구	428	175	23	15	641	3.8%
중랑구	518	237	42	34	831	**5.0%**
성북구	327	96	42	59	524	3.1%
강북구	362	185	63	45	655	3.9%
도봉구	308	174	51	60	593	3.5%
노원구	435	183	49	72	739	4.4%
은평구	344	208	73	54	679	4.0%
서대문구	278	129	43	38	488	2.9%
마포구	253	135	31	37	456	2.7%
양천구	204	158	62	25	449	2.7%
강서구	547	293	87	76	1,003	**6.0%**
구로구	521	303	58	42	924	**5.5%**
금천구	523	318	91	79	1,011	**6.0%**
영등포구	813	431	145	120	1,509	**9.0%**
동작구	366	223	69	47	705	4.2%
관악구	496	121	53	81	751	4.5%
서초구	161	83	38	25	307	1.8%
강남구	176	119	45	34	374	2.2%
송파구	459	218	69	90	836	**5.0%**
강동구	372	189	70	36	667	4.0%
총계	9,260	4,755	1,461	1,296	16,772	100.0%
국제결혼가정 자녀	-	2,427 (51.0%)	389 (26.6%)	125 (9.6%)	2,941 (17.5%)	-

*유아기 연령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인구통계는 없음
출처 : 행정안전부, 2009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4.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27)]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은 출신국가, 민족, 문화, 종교, 언어, 관습 등이 유사한 자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집거 및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도시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서울에는 모두 26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구에 9개, 종로구에 3개, 중구에 2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지역에 각각 1개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그림 2-9〉 외국출신주민 분포 현황

27)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에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를 기초로 하여 일차적으로 국적 및 문화권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이차적으로, ArcGIS Desktop 9.3 프로그램과 2009년 서울시 지번도를 활용하여 외국출신주민 총 238,086명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의 2009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출신주민은 총 255,501명으로 나타났으나,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정책본부에서 제공된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는 2009년 말 현재 258,075명으로 두 자료 간 2,574명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자료 가운데 19,989명의 정확한 주소가 누락되어 있어 총 238,086명의 분포 현황만 도면화하였다.

〈표 2-9〉 구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단위 : 명〉

개수	위 치	주요국적 및 문화권	커뮤니티 수
강남구	역삼동	다국적	1
구로구	가리봉동	한국계 중국	1
광진구	자양동	한국계 중국	1
관악구	봉천동	한국계 중국	1
금천구	독산동	한국계 중국	1
마포구	연남동	타이완(화교)	1
서초구	반포동	프랑스	1
성동구	도산동	베트남	1
성북구	성북동	다국적	1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국계 중국	1
영등포구	신길동	한국계 중국	1
용산구	용산동	인도	2
	이촌동	일본	1
	이태원동	다국적, 아프리카, 무슬림	3
	한남동	독일, 이탈리아, 일본	3
종로구	혜화동	필리핀	1
	창신동	네팔, 중국	2
중구	광희동	몽골, 중앙아시아	2
	명동	중국(타이완)	1

〈그림 2-10〉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4개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11〉 특성에 따른 커뮤니티 분류

첫째, '주거 및 상업 혼재형' 커뮤니티이다. 이는 정주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로서 중심부에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이다. 현재 16개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업 중심형' 커뮤니티이다. 이는 주로 상업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로서 이용대상이 인근지역의 외국출신주민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5개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종교 중심형' 커뮤니티이다. 이는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동일 종교 문화권의 외국출신주민들이 집중하는 커뮤니티로서 요일 및 계절적 요인에 따라 유동인구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현재 3개의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주거 중심형' 커뮤니티이다. 이는 폐쇄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는 커뮤니티로서 외부에서 모든 욕구가 충족 가능하며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밀집 및 결속력이 느슨한 반면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현재 2개 커뮤니티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OECD국가 출신 주민의 커뮤니티는 가로환경과 건축물 등이 잘 정비된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입지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및 카페 등 지역 경제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내국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업지대와 현재 준공업지역의 장소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진출한 기타 외국출신주민의 커뮤니티는 향후 주거 및 생활환경 악화,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 해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방향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5. 주요 커뮤니티

1) 가리봉동 '옌벤거리'

(1) 사회 및 인문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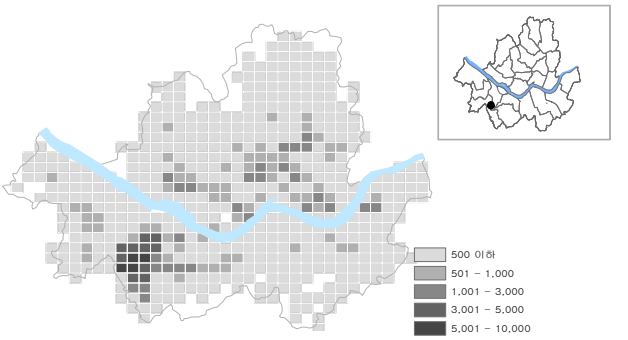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중동포 커뮤니티인 '옌벤거리'는 주거 및 상업 혼합형 커뮤니티로서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60~1980년대에 걸쳐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발달하였으며, 이후 공동화 과정을 거쳤고 1990년대 말 한국계 중국인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28]

(2) 인구분포 현황

서울시를 1km × 1km의 격자로 구분하여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계 중국인은 구로구, 영등포구 등을 중심으로 5천 ~ 1만 명 이상 고밀집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지역에도 대부분 1천명 이상 밀집되어 있어 인구밀집지역과 주거지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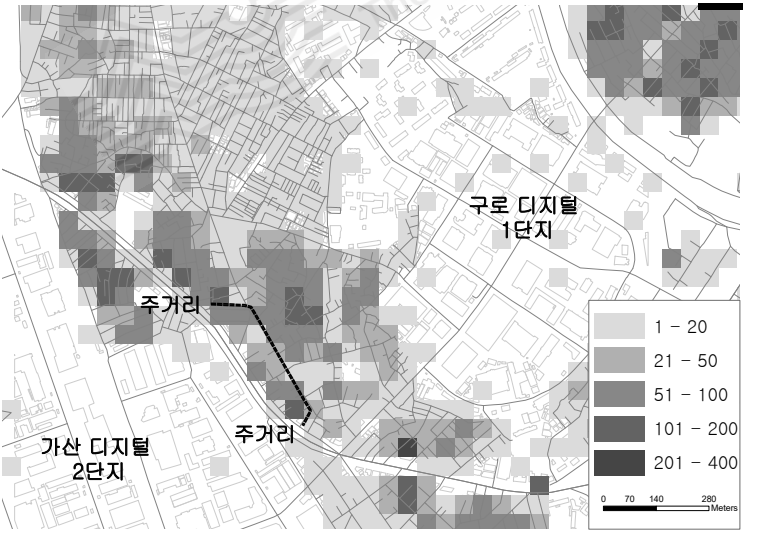
---

28) 박세훈 외 op.cit., p.129



〈그림 2-12〉 한국계 중국인 분포현황과 커뮤니티 중심

커뮤니티 주변지역의 인구를 20m × 20m의 격자형 분석(그리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계 중국인들이 주거리를 중심으로 밀집 거주 및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측 배후 주거지역에 밀집도는 낮지만 분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로디지털1단지'와 '가산디지털2단지' 등 복합업무 단지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한국계 중국인 인구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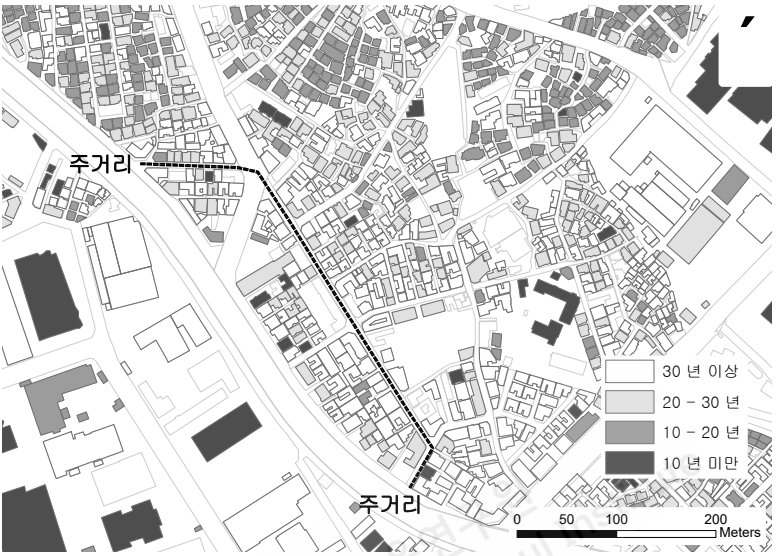
(3) 건물 현황

‘옌벤거리’를 중심으로 상업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에는 주거와 상업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다. 북측지역은 단독 혹은 저층 연립 중심의 주거지로서 양 측면에는 대규모 업무단지인 ‘구로디지털1단지’와 ‘가산디지털2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즉, 주거와 업무의 기능 간 상충으로 물리적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어 공간적 부조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고립되고 주거환경이 계속 악화되어 다양한 사회적, 공간적 문제 즉 도시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14〉‘옌벤거리’건물용도 현황

한국계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커뮤니티를 형성한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이라 판단된다. 대부분의 비OECD국가 출신 주민의 커뮤니티가 그렇듯이 이곳도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었다. 주거리를 중심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살펴보면 주로 30년 이상 된 상업용 건물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동북측 배후지역의 다가

구 혹은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 중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옌벤거리'건물 노후도 현황

(4) 주거리 현황 조사

주가로 조사결과 '옌벤거리'에 모두 97개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은 전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중 4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산업이다. 그 다음으로 '전자게임장 운영업'이 16.5%,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업점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래방 등이 포함된 '전자게임장 운영업'의 경우, 5.32의 높은 특화도를 보여 커뮤니티가 '생활서비스'보다는 '위락과 유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가리봉동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음식점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	합계
가리봉 커뮤니티	43.3	16.5	10.3	29.9	100
전체평균	37.0	3.1	13.7	46.2	100
특화도	1.17	5.32	0.75	-	-

〈그림 2-16〉 '옌벤거리'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2) 광희동 '몽골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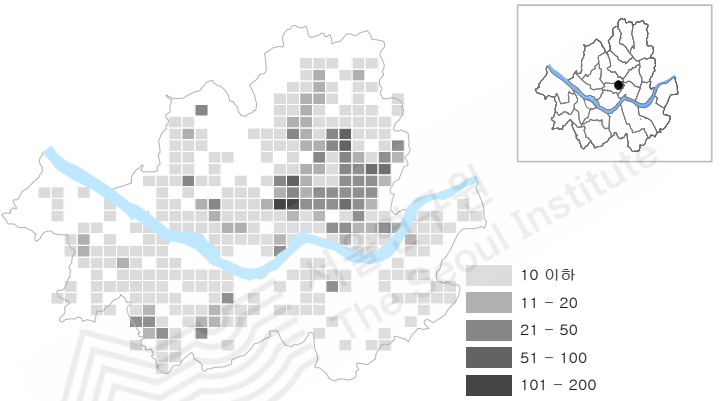
(1) 사회 및 인문적 현황

중구 광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출신 서울주민의 커뮤니티인 '몽골타운'은 상업 중심형 커뮤니티로서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가에 한국산 의류 등을 구매하기 위

하여 몽골과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29]

(2) 인구분포 현황

서울거주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중 주요한 커뮤니티로 발전되고 있는 몽골 커뮤니티는 주거와 활동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서울시를 1km × 1km의 격자로 구분하여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몽골인들은 소규모 영세공장 등이 많이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그리고 광진구 등에 분산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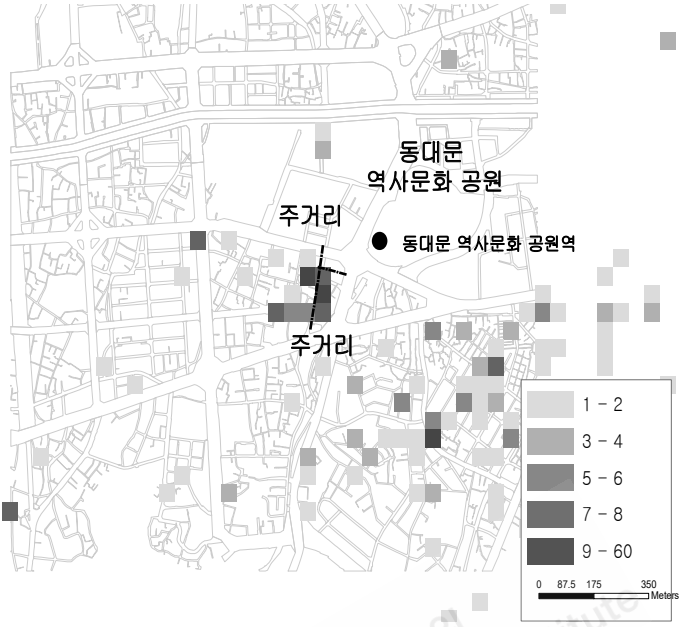


〈그림 2-17〉 몽골인 인구 분포현황과 커뮤니티 중심

'몽골타운'은 동대문시장이라는 상업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역이 없어 이곳에는 몽골출신 시민들이 그다지 많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분석 결과, '몽골타운'의 주거리에는 50 ~ 100여명이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약 300m 이상 떨어진 주거지역에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9) 동아일보, <수도권>우리 동네 작은 외국<4>광화문 몽골타운, 2007.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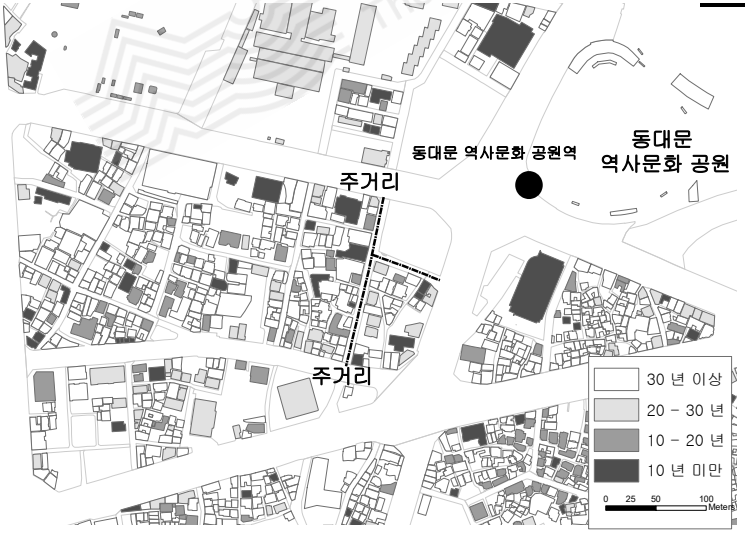
〈그림 2-18〉 커뮤니티 인근 몽골인 분포 현황

(3) 건물 현황

이 지역은 서울시민을 위한 상업시설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즉, 이곳은 몽골출신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이긴 하지만 인근 대형 쇼핑몰들의 배후 상업지역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기능이 서로 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의 주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식당 및 주점 등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커뮤니티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금호타워'(일명 몽골타워) 상가 건물은 몽골출신 시민과 관련된 미용실, 화장품 전문점, 운송업체, 환전 및 송금업체 등이 밀집한 곳으로 건물 하나에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내부의 골목에는 국제무역 및 운송업체, 여행사 등이 밀집하고 있으며 인쇄업 및 영세 제조업 등 일부 도심형 영세공장 등 다양한 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9〉'몽골타운'건물용도 현황

노후도 조사 결과, 주거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인근 상업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0〉'몽골타운'건물 노후도 현황

(4) 주거리 현황 조사

'몽골타운'의 주가로에는 '의복신발 소매업'이 2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업'과 '소화물전문 운송업'이 각각 16%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의복신발 소매업'과 '소화물전문 운송업'은 국제무역, 즉 몽골 및 동구권 국가와 무역을 하기 위한 주요한 기반산업으로 판단된다.

〈표 2-11〉 광희동 커뮤니티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의복신발 소매업	음식점업	소화물전문 운송업	기타	합계
광희동 커뮤니티	24.5	16.8	16.1	42.6	100
전체평균	5.0	37.0	2.8	55.2	100
특화도	4.9	0.4	5.7	-	-

〈그림 2-21〉'몽골타운'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3) 이태원동 '이슬람거리'

(1) 사회 및 인문적 현황

이태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슬람거리'는 종교 중심의 커뮤니티로서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보광 초등학교부터 종교시설인 '서울중앙성원'까지의 200m에 이르는 거리로서 종교시설이 중심이 되지만 일부 상업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곳은 1990년대 이후 외국출신주민 노동자들의 급증과 함께 외국출신주민 무슬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중앙성원'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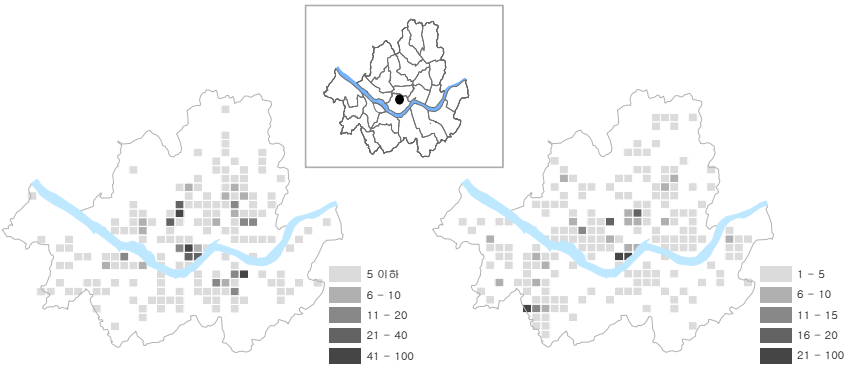
(2) 인구분포 현황

이곳은 아랍권 출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를 1km × 1km의 격자로 구분하여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중동국가 출신보다는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이곳은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이슬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외국출신주민을 중동국가 출신과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동국가 출신은 서울의 전체 외국출신주민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국동,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에 40~100여명 이상 밀집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출신 서울시민 역시 0.3%를 차지하며 도심과 한남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한남동의 경우 20~100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상업 중심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종교중심 커뮤니티도 종교 중심과 주거지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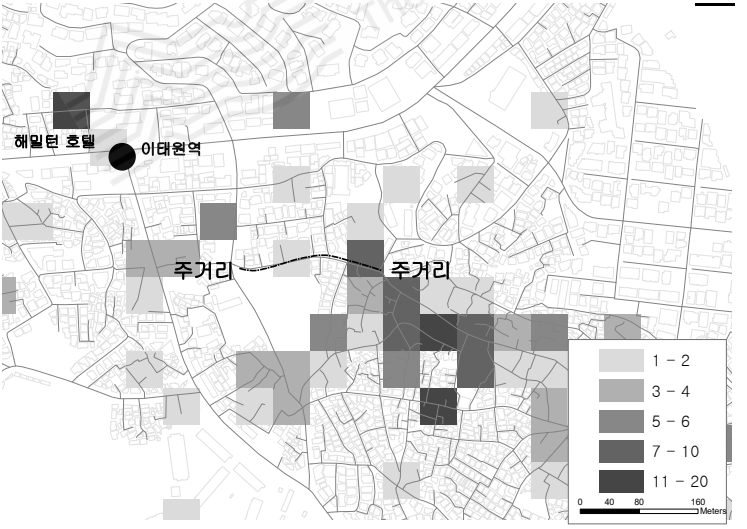
30) 외국출신주민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제공한 출입국자료 분석결과, 이슬람권인 중동국가 출신의 외국출신주민보다는 아시아권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출신 시민이 '이슬람거리'에 밀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출신 시민은 그 수가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 무슬림 분포 현황[중동출신(좌), 파키스탄 출신(우)]

커뮤니티 주변지역의 인구 분포 분석 결과, 무슬림들은 상업건물이 밀집하고 있는 주거지보다는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 커뮤니티 인근 파키스탄인 분포 현황

(3) 건물 현황

'이슬람거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리를 중심으로 이슬람식 식당과 여행사, 의류 판매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을 지나면 낙후된 밀집주거지구가 있으며, 이 지구를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

건물 노후도 조사 결과, 주거리에는 10~20년 미만의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슬람 사원을 지나 배후지역에는 20~30년 미만의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이슬람거리'건물용도 현황

〈그림 2-25〉'이슬람거리'건물 노후도 현황

(4) 주거리 현황 조사

무슬림 커뮤니티 내 주요거리는 한국 유일의 '이슬람 전문서점'과 함께 여러 이슬람 전문여행사가 있어 이슬람거리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대다수 식품점은 여러 이슬람 음식 등 다양한 식료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음식점보다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섬유, 의복 및 신발소매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권을 발매하는 '여행사 및 여행 보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화되어 있다.

〈표 2-12〉 무슬림 커뮤니티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음식점업	의복신발 소매업	여행사 및 여행 보조업	기타	합계
무슬림 커뮤니티	27.8	11.1	11.1	50	100
전체평균	37.0	5.0	4.4	53.6	100
특화도	0.75	2.22	2.5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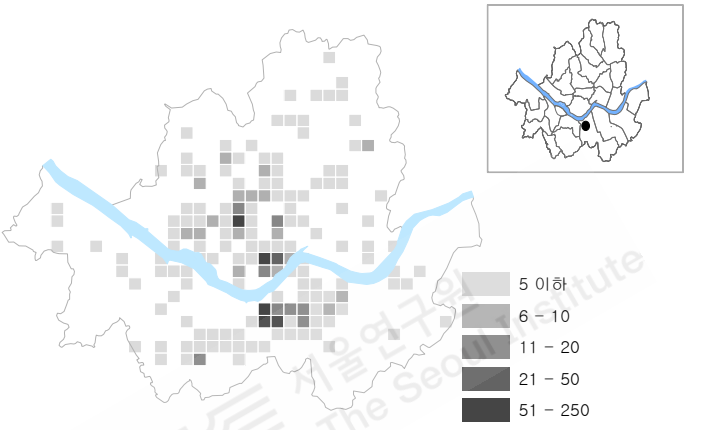
4) 방배동 '서래마을'

(1) 사회 및 인문적 현황

서초구 고속터미널과 서초 중학교를 잇는 '서래로'를 중심으로 발달된 프랑스인 커뮤니티는 1984년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프랑스학교가 이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프랑스 가정이 학교를 따라 이주하여 오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한국과 프랑스 간의 떼제베 및 기타 국책사업 등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프랑스 기술자 및 프랑스 기업이 진출하면서 프랑스인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에 해당하는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 출신 주민들이 이 지역에 모이면서 프랑스어 문화권 형태의 커뮤니티가 확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 인구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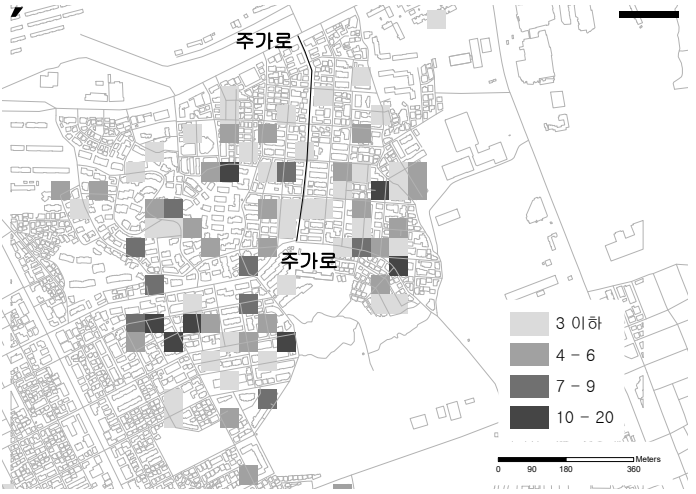
서울시를 1km × 1km의 격자로 구분하여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 전체 외국출신주민[31] 가운데 0.4%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학교를 중심으로 서초구 반포4동과 방배4동, 그리고 방배본동에 1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커뮤니티의 중심과 인구밀집지역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림 2-26〉 프랑스인 인구분포 현황과 커뮤니티 중심

커뮤니티 주변지역의 인구를 20 × 20m의 격자형 분석(그리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학교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등록된 외국출신주민(합법 체류자)를 의미한다. 법무부 자료는 등록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합법, 불법 체류자 모두 포함)과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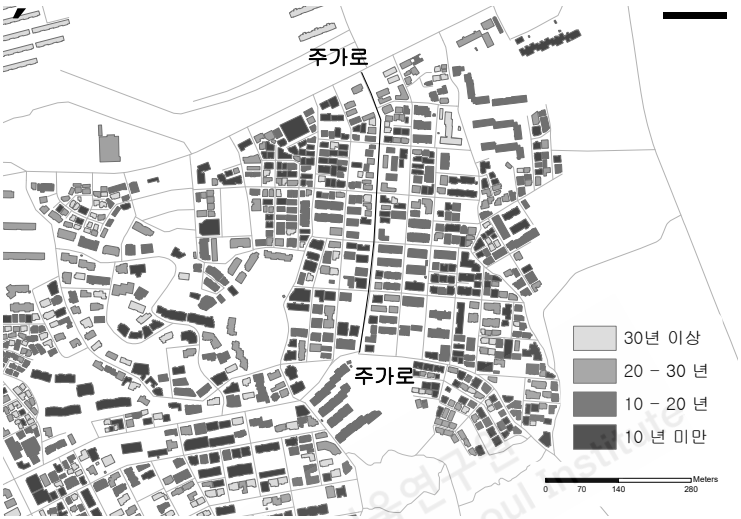
〈그림 2-27〉'서래마을'프랑스인 분포 현황

(3) 건물 현황

'서래마을'은 주거리인 서래로 진입부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면도로로 들어갈수록 주거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8〉'서래마을'건물용도 현황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건물 노후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20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도로 등 도시환경 정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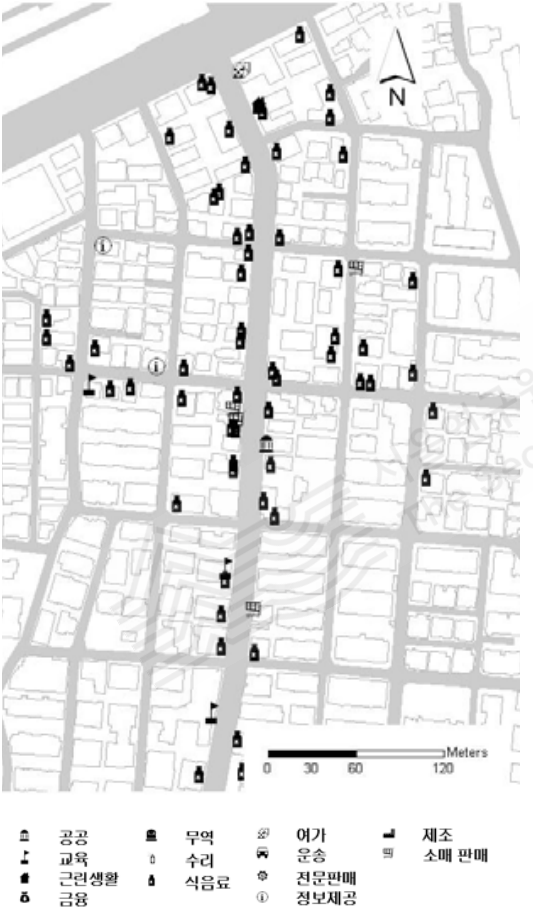
〈그림 2-29〉'서래마을'노후도 현황

(4) 주거리 현황 조사

서래마을의 주가로인 서래로를 따라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시설이 약 70개가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6%가 식음료와 관련되어 있다. 주가로에 분포하고 있는 시설을 분석하여 보면 특정 업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 비해 음식점업이 음료점업보다 3배 정도 높게 특화되어 있으며, 내국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적 명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2-13〉'서래마을'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기타 교육기관	기타	합계
서래마을	45.7	34.3	4.3	15.7	100
전체평균	13.7	37	0.8	48.5	100
특화도	3.34	0.93	5.38	-	-



6. 커뮤니티 발전 방안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활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외국출신주민의 커뮤니티이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비OECD국가 출신주민 커뮤니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주택,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향후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환경이 양호한 외국출신주민의 커뮤니티이다. 여기에는 주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OECD국가 출신 주민의 커뮤니티가 해당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주거 및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설의 개선보다는 외국출신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내국인도 쉽게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1) 기피의 장소에서 매력을 느끼는 장소로 - 비OECD국가 출신 주민 커뮤니티

1990년대 이후 서울에 밀집하기 시작한 비OECD국가 출신 주민들은 대부분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취업 기회가 보장되는 도시 내에서 집단적인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외국출신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물리적으로는 노후 및 불량 주거환경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상당부분의 커뮤니티들이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해체는 서울시에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 외국출신주민에게는 생존권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외국출신주민들의 기존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환경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내국주

민들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개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회적 재개발'(Social Renewal)이라 하며 유형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4〉 커뮤니티 개선 방안

유형	인구분포	건물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주상 혼합형	커뮤니티 중심과 완전 일치	노후화된 상업시설 불량 주거시설	노후화된 주거환경 내외국출신주민 간 갈등	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상업형	커뮤니티 중심과 불일치	노후화된 상업시설	노후화된 시설 주요고객이 제한적	시설 개선 상업시설 활성화 사업
종교형	커뮤니티 중심과 부분적 일치	노후화된 상업시설 불량 주거시설	노후화된 시설 공공서비스 부족	시설개선 종교문화콘텐츠 사업

먼저 '주거 및 상업 혼합형'은 도시기반 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주민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센터 등의 추가적 건립을 통하여 외국출신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말한다. '상업형'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하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외국출신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주민까지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방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교형'은 주상 혼합형과 마찬가지로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하되, 기존의 종교시설과 연계해 '종교와 문화'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뜻한다.

2)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 OECD 국가 출신 주민 커뮤니티

현재 이태원, 한남동, 서래마을, 이촌동 등 OECD국가 출신 주민 커뮤니티는 내·외국출신주민이 즐겨 찾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들은 서울형 건축과 시설이 주를 이루는 공간에서 출신국가의 상업 활동, 즉 레스토랑 및 카페 등이 발달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일 뿐 출신국가의 정체성과 공간적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이 커뮤니티들이 서울의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신국가 고유의 테마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기존의 커뮤니티 내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건물 외관 등을 커뮤니티의 특색에 맞추어 개선하여 '특정 문화권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꼽을 수 있다.

제3절 외국출신주민의 미래 삶

앞서 서울에 정착한 외국출신주민의 역사를 통하여 지난 1세기 동안 외국출신주민의 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출신주민의 인구 변화와 함께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외국출신주민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20년 후의 인구 변화와 공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미래 도시공간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2030년 외국출신주민의 인구변화 예측

2009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출신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은 미등록자를 포함하여 모두 33.4만 명이며, 이는 1998년 「통계연보」의 외국출신주민 수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로 지난 10년간 외국출신주민이 지속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외국출신주민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늘어날 것인가? 물론 국제 경제, 정치,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외부유입 인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외국출신주민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향후 20년 후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예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로, 서울이 글로벌 시티로 목표를 갖고 세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발전보다 인적자원 환경의 변화를 모색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기피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서울이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충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특히 <리더급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외부인적자원은 얼마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민국가가 아니면서 외국출신주민을 많이 포용하고 있는 외국의 리더급 글로벌 도시사례를 살펴보면 런던은 전체 시민의 24%, 파리는 전체 시민의 14%가 외국출신주민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서울 총인구 중 외국출신주민이 10% 정도가 되면 세계 주요 <리더급 글로벌 도시>의 외부인적자원 수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외국출신주민이 이 정도로 충원될 것인가? 이러한 예측은 쉽지 않다. 앞서 피력한 대로 국제적 인구이동은 국제사회의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인구 대비 현재의 자연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초적인 추산을 시도한다. 그러나 미래 한국사회 인구 시나리오 같은 정확한 예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시계획적인 인구변화모델을 활용하여 향후 20년 동안 외국출신주민의 인구

증가 추세를 대략적이나마 예측함으로써, 향후 '2030 글로벌도시 서울'의 공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1) 시나리오 설정과 자료의 선택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나 논문을 살펴보면 향후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인구의 고령화, 혼인시장의 성비 증가 및 3D 직종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외국출신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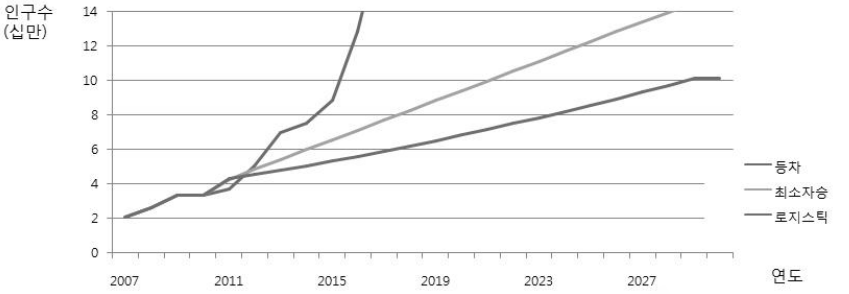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도 외국출신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급격한 증가형, 일반적인 증가형, 완만한 증가형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하여 각각에 적합한 인구예측수식을 입력해 추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급격한 증가형은 연평균 인구증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등차 급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증가형은 최소자승법, 완만한 증가형은 로지스틱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실제치, 즉 합법적 체류자와 비합법적 체류자의 수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등록 외국출신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과 법무부 자료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 시계열성은 부족하지만, 미등록 외국출신주민 수치까지 포함하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의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예측치를 추산하였다.

2) 인구예측 결과

기초 자료를 기준으로 2030년 서울시의 외국출신주민 인구예측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수식모델인 등차 급수법에 따르면 2016년을 전후하여 외국출신주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온다. 둘째,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수식모델인 최소자승법은 2022년 정도에 외국출신주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완만

하게 증가한다는 로지스틱법은 외국출신주민의 수가 2029년에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델에 따라 그 방법은 다르지만 적어도 2030년 정도에는 외국출신주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30〉 2030년 서울의 외국출신주민 인구 예측

2. 2030년 외국출신주민들의 생활공간

1) 커뮤니티의 형태적 변화

3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완만히 증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면, 이들은 어느 곳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것인가?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일부는 내국인과 함께 융합하여 한국 사회로 완전히 흡수될 것이고, 일부는 외형적인 커뮤니티만 형성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동화될 것이며, 나머지 일부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거나 확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3가지 방향의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한국 주류사회 진입에 성공한 이들은 밀집지역을 포기하고 한국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갈 것이며 더 이상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일부는 커뮤니티의 외형을 유지한 채 내부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서대문구의 '연희, 연남 차이나타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즉, 커뮤니티는 존재하지만 생활 및 관습 등에서 내국주민과 다를 바 없이 동화 또는 흡수되어 명목상의 커뮤니티만 남게 될 것이다.

셋째,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일부는 한국 사회에 전혀 동화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새로 형성하거나 확장시킬 것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 채 자신들만의 공간 안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들의 특화된 공간은 외국의 차이나타운처럼 지역의 특화된 공간으로 나타나 독립된 커뮤니티의 성격을 갖고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의 명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이 지역은 관리가 부족한 경우 공동화나 슬럼화 등 도시의 공간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장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2) 커뮤니티의 공간적 변화

2030년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공간관리를 다루기에 앞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탄생과 분화에 관하여 살펴보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는 정착시기와 기간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한 재중동포 커뮤니티 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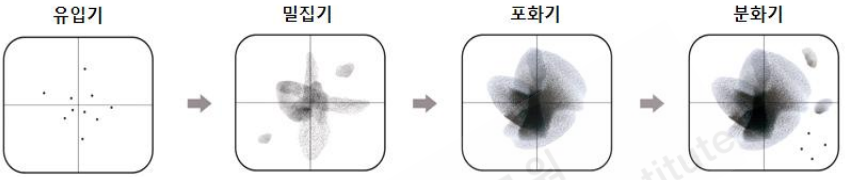
첫 번째 유입기는 최초 극소수의 외국출신주민들이 특정한 지역 내에 입주하는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재중동포들이 입국하여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인근에 정착했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밀집기는 최초의 입국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정착한 이후 다른 외국출신주민들이 밀집되는 시기로, 이들이 1990년대 중후반 가리봉동에 모여들면서 재중동포 타운을 만들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포화기는 기존 범위를 넘어 근거리 지역에 고도로 밀집된 외국출신

주민 커뮤니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커뮤니티가 대규모로 확장되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가리봉시장 인근에 '옌벤거리'가 형성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번째 분화기는 커뮤니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수용 능력이 초과될 경우, 부근에 새로운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기이다. 현재 '옌벤거리'와 한번 분화된 대림역 인근지역이 모두 초과상태를 보이자 인근 신길동과 봉천동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1〉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분화과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4단계의 초기인 분화기에 들어가 있으며, 향후 외국출신주민들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하게 된다면, 다양한 국가출신들의 커뮤니티들 역시 이러한 형태로 번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슬럼화가 진행되고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의 유입과정과 현재 분포 현

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래 예측까지 다루었다. 때로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목적으로, 때로는 협력을 목적으로 정착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하는 노동 이주민까지 지난 130여 년 동안 시기와 국내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국가출신의 서울주민이 서울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외국출신주민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비OECD국가 출신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들은 재개발 예정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의 지속성이 떨어지며, 지역주민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20~30년 이후에도 외국출신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이렇듯 불리한 입장에 있어도 그들의 커뮤니티는 축소되기보다는 점차 확장되고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이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향후 20년 후의 미래에는 지금까지의 외국출신주민 정책과는 달리 외국출신주민들의 정착과 그 후손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3장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의 문제점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1절 외국출신주민 관련 법
제2절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제3절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제1절 외국출신주민 관련 법

1. 외국출신주민 시민권리보장의 근거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법제도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을 비롯한 국제적 기준들은 U.N.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외국출신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인권 그리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효되었다. 이는 국가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일종의 방향성과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법은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보호를 위하여 발효되었다.

1) 국제법

(1) 국제연합헌장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경제·사회·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의 달성을 그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들고 있다(제1조 제3항). 이를 위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으나, 이것은 국내법상 효력을 갖지는 못하였고, 이후 채택된 국제연합 인권규약이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면서 외국출신주민의 권리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32]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법 규범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6)은 인종 간의 차별을 금지하였고, 이를 1966년 국제인권규약 채택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 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명 A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일명 B규약) 및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규약의 당사국은 그 관할권 내에서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A규약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사회보장·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입법조치로 실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B규약은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을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반면,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

32) 김정순, 외국출신주민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9-13. p. 41.

초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인권관련 국제법이다. 대한민국 역시 1990년 관련 규약을 비준 공포하여, 이 규약을 지킬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1965년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78년 이를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인종, 피부색이나 민족, 종족의 기원에 따른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감독할 의무와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협약의 제1조 1항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 2항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 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1980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후, 2년마다 인권현황 및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연수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 및 개선조치, '단일민족국가' 이미지 극복 권고 등이 있었다.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

로, 1989년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 협약의 제2조 1항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8조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 의무화와 함께 중·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약의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해당하며, 그 부모의 법적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표 3-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과 제28조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33]은 1990년 채택되어

3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약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003년 발효된 '21세기형 국제인권협약'으로 현재 세계 42개국이 가입하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약은 그동안 각종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주체인 '시민' 내지 '거주민' 등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가려진 이주민(migrants), 특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제 27조 제1항에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의 경우 그 국가의 법률 및 당사자국가 간 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고용국에서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는 내·외국출신주민 평등대우 원칙과 상호주의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는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제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란 국적을 부여한 나라(모국)가 아닌 국가 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약의 1부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의 및 형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부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부는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는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일시출국의 권리, 이동·주거선택의 자유, 결사에 대한 권리,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 가족의 결합,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인권관련 국제단체 및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통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자국 관할권 내 모든 거주민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제연합(UN)의 관련 협약에도 가입해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2) 국내법

(1) 헌법상 외국출신주민 권리

헌법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보장된다.[34] 따라서 국적을 바탕으로 한 국민 개념이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제1차적 기준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국가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35]

현행 헌법상 외국출신주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일반에게 고유한 가치인 인격주체성은 내·외국출신주민을 불문하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6]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국내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조약이 국내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과 이에 부속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

34) 헌법은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하에서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항은 대부분 '모든 국민은 …의 자유를 가진다.' 또는 '모든 국민은 …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민'이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5) 김정순. op.cit., p.33

36) ibid., p.34

다양한 국제협약 수용에는 폐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헌법의 제6조 2항에서는 '외국출신주민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적 지위가 결정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의 국제법 적용이 국가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의해 판단될 문제이나, 글로벌 시대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추어 개방화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외국출신주민의 법적 지위문제는 동시에 해외 자민족의 법적 지위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인간존엄정신이라는 헌법이념에 맞게 외국출신주민의 지위 및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에서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통한 국적부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인 경우에만 기본권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해외 사례의 하나로 독일 헌법은 '국민'과는 구별되게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 또는 '만인의 권리(Jedermannstechte)'라고 명명하여 헌법에 나타난 권리 주체를 존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의 국가 구성원에도 '국민'만이 아니라, '시민' 내지 '주민'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이들의 기본적 인권 및 자유에 대한 보호를 국적 부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세계화 흐름에서도 무리가 따른다. 특히, 시민권적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 거주 재외동포보다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공동체 편입 정도가 높으므로, 이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 보장에 있어서 내국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은 2007년 5월에 재한외국출신주민과 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출신주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통합지원 업무추진 지침」의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업무지침[37]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출신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과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 적응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 법은 제2조 1항에서 '재한외국출신주민'과 '처우',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재한외국출신주민 등의 처우에 관해, 제18·19조에서 국민과 재한외국출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재한외국출신주민'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면서,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및 문화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국내체류와 경제활동 보장을, 난민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출신주민의 경우 거주 또는 출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재한외국출신주민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19조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에 관한 기본법인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은 제정 목적에

37)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06년 8월

비해 세부적으로는 동화주의적 시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법적 체류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 보편주의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은 또한 추상적인 '노력 의무' 외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특별한 의무규정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향후 입법에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표 3-2〉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법의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출신주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외국출신주민정책의 기본계획 제7조 업무의 협조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 외국출신주민정책위원회
제3장 재한 외국출신주민 등의 처우	제10조 재한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4조 난민의 처우 제16조 전문외국출신주민력의 처우 개선	제11조 재한외국출신주민의 적응 지원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7조 과거 국적 보유자의 처우
제4장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9조 세계인의 날	
제5장 보칙	제20조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민원안내·상담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3) 〈다문화가족〉[38]지원법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구성

38) 세계화와 더불어 이주현상이 빈번하면서 문화적 혼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를 다문화, 다양한 구성원의 사회를 다문화사회, 이러한 현상을 총칭하여 다문화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국제 결혼한 가정을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국제결혼부부에서 출생한 어린이를 <다문화 아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에 많은 부담을 갖는다. 더욱이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가정을 만든 경우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부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를 <다문화 아동>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도 아닐뿐더러 학술적으로도 정의되지 않은 언어이다. 그렇다면 A국가 출신 외국인과 B국가 출신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또 그 부부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는 무어라 칭하여야 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나, 이미 기존의 법 및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하기로 하였다.

원으로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법의 체계상 기본법이 되는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기본 개념 및 정책 대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둘째로, 법 내용상 지원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정책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안정적 가족생활의 영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5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 보육교육 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14조는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동일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표 3-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4조)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함
(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7조)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9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10조) 아동보육·교육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사회 내에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구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2조의 정의 규정을 통해 법적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 외국출신주민 또는 귀화자'로 한정하고 있어 쟁점이 드러난다. 정리하면,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경우에만 한국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된다. 이는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라는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며 국적과 혈통에 기반을 둔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고용허가제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은 입국 시 거주 목적의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이주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속지주의' 대신 '속인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제도적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더불어, 외국출신주민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 무국적 외국출신주민과 그 가족도 대한민국 국민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적 체류자격'의 합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착 지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출하거나 이혼하여 미등록 체류 상태로 법적 지위가 하락한 결혼 이민자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4) 서울시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조례

서울시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한 지원 조례로는 외국출신주민 투자지원 조례,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나 보육 조례와 같이 각 조, 항에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을 보조하는 지침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표준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밀착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이다. 관련 법제들의 핵심 내용은 다음 <표 3-4>에 정리해 놓았다. 이중, 특별히 서울시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표준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9) 구별 제정일은 상이함

40) 제2조 (정의) 2.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41) 제18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3-4〉 서울특별시 외국출신주민 관련 조례

조 례 명	제 정 일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외국출신주민 투자지원 조례	'99. 3. 20	외국출신주민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중점
서울특별시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표준 조례	'06. 10. 31[39] (행정안전부 기준)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마련
서울특별시 글로벌 도시 촉진 조례	'07. 12. 26	'글로벌 도시' 개념 정의 : 외국출신주민 생활 및 투자 환경 개선과 함께 '다문화 존중도시 조성' 방향 설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08. 11. 13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지원 〈제2조(정의) 2호〉[40]
서울특별시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09. 5. 28	2009년 '〈다문화 가족〉'을 서울시 정책의 한 축으로 하여 단독조례 지정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09. 11. 11	보육시설의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운영비용 지원 〈제18조(비용의 보조) 1항 6호〉[41]

가.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10월 31일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42] 마련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이 아닌 국내 체류 외국출신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여 발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을 이주민에게도 인정하면서 중앙부처로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출신주민을 지역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

시간 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

42)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5〉 서울시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항 목	주 요 내 용
(제1조) 목 적	•거주 외국출신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 정착 유도
(제3조)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지위	•거주 외국출신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 향유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거주 외국출신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행정 참여 유도
(제5조) 지원 대상	•외국출신주민, 신규 국적 취득자,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이 지원 대상.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출신주민은 제외
(제6조) 지원의 범위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기타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조) 외국출신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가능
(14조) 세계인의 날	•외국출신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17조) 명예시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출신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지정

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 외국출신주민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두 번째,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출신주민은 제외한다(제5조).

세 번째, 거주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제6조).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출신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마지막으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출신주민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제14조, 제16조, 제17조).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출신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과 함께(제5조) 보호대상으로서의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2호)[43]는 사실은 불법체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거주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조항에서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자체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이 지자체로부터 각종 사회적 서비스(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 한국어 등 적응 교육, 취업 고충 상담, 응급 구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체류 자격의 외국출신주민이라는 이중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따라서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법체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보호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 큰 한계로 지적된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지원 대상을 합법체류자뿐 아니라, 그 외의 범주에도 적용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소고, 가족법연구, 제23권 3호

〈표 3-6〉 서울특별시 관내 구별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조례(지원대상별 내용)

지원 대상 (제 5조)	공통사항	① ○○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출신주민은 제외한다.(중략)
	강남구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관악구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사항	① 1.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외국출신주민 가정 4.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 비속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는 제외)
	구로구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영등포구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2절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지원 사업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논의하게 된 시발점은 2007년 7월 공표된 재한 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이다.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출신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이루어졌던 단순 수혜차원을 넘어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증대시키는 진정한 사회통합정책의 체계가 마련되었다.

1. 중앙정부

2010년 기준, 지원기구는 크게 중앙정부부처, 서울시, 각 구, 민관·민간기관의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정부 주요 부처별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 주요 정부 부처별 업무현황 요약[1)]

부처	정책영역	정책대상	정책초점
법무부	출입국, 국적, 이민	입국외국출신주민 일반국민	•외국출신주민 정책 총괄 •이주민 사회통합, 체류 질서
보건복지 가족부	가족복지, 사회복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 예술, 관광	이주민 일반국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이주민 문화, 언어적 적응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제도권 교육, 인적자원 개발	이주민 그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노동부	고용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외국출신주민노동자 고용허가 •사회적 적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이주민	•이주민 지역정착 지원
여성부	성 평등, 여성인권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1) 법무부

법무부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업무는 기존의 출입국관리국의 기능을 묶어 2007년 출범한 출입국·외국출신주민 정책본부에서 담당한다. 법무부 정책의 핵심 과제는 국내의 법질서 유지로, 20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출신주민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울러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인권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외국출신주민정책 기본계획,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기획 및 관리, 불법체류 외국출신주민 단속 관리 등이다.

법무부의 2008년 주요 업무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건국60주년 다민족·다문화 축제, 재한외국출신주민 정부합동 고충 상담 등이 있다. 2009년도 다문화관련 주요 업무계획

에 포함된 새로운 시책으로는 국제결혼폐해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 시스템 강화(관련 서류, 결혼중개업자관리 강화 등), 국제결혼희망자 사전 교육, 사회통합정책 재한외국출신주민 모니터단 구축, 외국출신주민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기능 강화, 구제신고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림 3-1〉 법무부 외국출신주민 관련업무 부서현황

2010년도 주요 사업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비자심사 점수제에서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인 HuNet Korea 도입 등),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외국출신주민등록증 발급체계 구축 등 첨단기술과 결합된 정책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표 3-8〉 법무부 2010년도 추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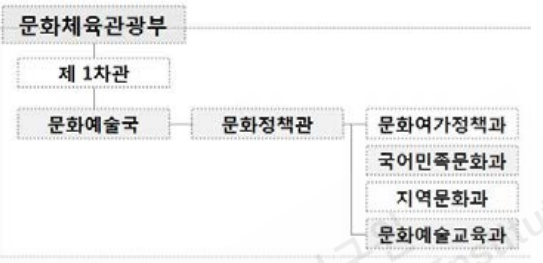
정책영역	사업명
적극적인 개방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확보를 위한 비자도입(간접투자이민제도) •전문 인력 비자요건 완화 및 허용직종 확대 •세계적 우수인재에게 차별화된 혜택 부여 : 근무처 자유이동, 제한적 이중 국적 용인, 귀화요건 완화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도입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외국출신주민 종합 안내센터 3자 통역서비스 확대 •출입국 등 온라인 민원처리 활성화
질 높은 사회통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다문화강사 확충 •다문화관련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 추진(다문화포용분위기 확산 행사)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이수제 실시 •실태파악 강화 - 결혼이민자 입국 후 생활실태 모니터링(위장결혼 실태조사 및 수사), 취업실태 파악과 관리,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동포관련 -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확대, 동포 취업관리 강화, 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운영
질서 있는 이민행정	•비자발급업무 시스템 연계 확대 •외국출신주민 지문정보 등 수집 및 활용 추진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불법체류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정부 부처 간 불법체류 정보 공유 •고용주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검토(입국사전승객정보처리시스템 확대) •통합 정보 분석체계 구축(외국출신주민 신원정보 표준화 2차) •전자외국출신주민등록증 발급 검토 등
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	•차별시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시스템 구축(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외국출신주민 종합 안내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신고 접수 •정부 내 인권침해 구제기구 운영 •외국출신주민보호 담당공무원에게 인권교육 강화 •권익보호 관련 법적근거 상향 조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관련 사업은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과 문화환경조성 등이며 문화예술국에서 담당한다. 국어민족문화과는 외국출신주민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정책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문화예술 교육과는 다문화

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며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시책 사례는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관련 법률 제정, 한국사회에 적응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 멘토로 활용하기,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주민 문화 전용공간 확충,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등이다. 직접적으로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여가정책과 역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 및 문화복지 업무에 힘쓰고 있다.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출신주민 관련 업무 부서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 한국어 교재, 문화가이드북 발간 및 교육사업, 한국어 교원양성·운영이 있었다.

2009년에는 국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이주민의 문화적응 지원 및 한국어 교육 강화 정책을 펼쳤다. 더불어 이주민의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다문화 코너를 개설하고 이주민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확충, 다문화포털서비스 구축 운영을 통하여 7개 국어 서비스 등을 시행해 왔다.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의 개발, 교육인력 양성, 도서관 서비스 확대(독서진흥 콘텐츠 개발·보급),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매체뿐 아니라 온라인포털과 연계하여 네티즌 대상 다문화 캠페인을 전개한 프로그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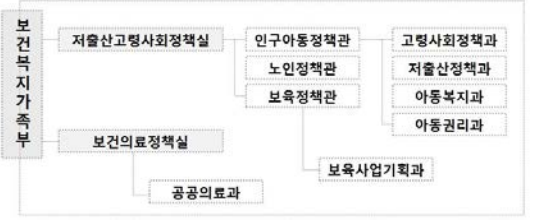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외국출신주민노동자 생활체육활동 지원정책의 대상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킨 점이다(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해 2010년의 배정예산은 2009년에 비해 1,000% 증가하였다.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추진 프로그램

정책영역	사업명
적극적인 개방	•다문화사회의 한국어교육 진흥 •공연관련 - 국악을 국민 속으로, 외국출신주민 국악강좌,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도서관 서비스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외국도서 구입,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 •해외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 배포 •다문화 지식정보 포털 구축 •취약계층 복지관광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질 높은 사회통합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각종 전시 - 외국문화체험 전시회, 다문화 교육, 다문화 전시 •내국인 다문화인식 개선 사업(온라인 포털과 연계, 방송프로그램 제작)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다문화교육 및 초청프로그램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산하에 <다문화가족>과를 따로 두어 운영했으나 2009년 3월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되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다문화가족>과를 분리하지 않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3-3〉 보건복지부 외국출신주민 관련 업무 부서현황

〈표 3-10〉 보건복지부 2010년도 추진 프로그램

정책영역	사 업 명
적극적인 개방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외국출신주민 장애복지 서비스)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외국 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의료코디네이터 양성 확대)
질 높은 사회통합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 증진(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제공 등) •다문화 교육 강사 확충 •다문화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등 추진 •한국어·한국문화이해교육 확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시스템 구축(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상담 활성화(정신건강 검진) •찾아가는 임신·출산지원·아동양육서비스 확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결혼이민자의 자립모델 개발·보급,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중개업 등록제 조기정착 및 동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준비교육 실시 •예비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이중언어 교육 환경 조성(언어별 교육 강사양성 및 파견)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전 학습능력 발달 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의 주 기능은 <다문화가족> 건강 지원 법률의 관리·수립과 거주 외국출신주민에게 건강보험, 무료진료사업을 제공하는 일이다.

2008년 8월부터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9월에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이 수립되었다. 이에 힘입어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6년 21개소에서 2008년 80개소로 크게 늘었다.

2009년 눈에 띄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시책은 국제결혼의 중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하는 부분이다. 그 외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지원, 방문 양육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지속 적용과 더불어 긴급지원 조건 완화를 통

해 수혜대상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및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무지개 문화탐험대, 무지개 서포터즈 등 5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언어 지원도 다각화되었는데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Rainbow+, 다국어 포털 홈페이지 뿐 아니라 통번역 전담인력을 확대(160 ⇒ 210명)하여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44]

2. 지방자치단체

1) 서울시 외국출신주민정책 시행계획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은 외국출신주민 관련 사업에 있어 여러 지원기구 중 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외국출신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과 근접한 곳에서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6조에 따르면 외국출신주민정책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지자체 장이 결정). 이에 따라 외국출신주민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수립되었고 서울시 각 부처 및 23개 구는 2010년 현재 총 12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45]

2010년 서울시의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4대 정책목표인 적극적인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에 따라 분류된다.

·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42개 사업)

---

44) 계명대학교 다문화사회 연구교육센터, 달서구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200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연구보고서, 2009.03, pp.45-48

45) 전체 125개 사업 목록 및 예산규모는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1을 참고하였다. 이 정책보고서의 3장 2절은 외국출신주민 정책위원회의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 중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I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질 높은 사회통합(82개 사업)
· 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1개 사업)
· 예산 총괄(125개 사업, 총 403.43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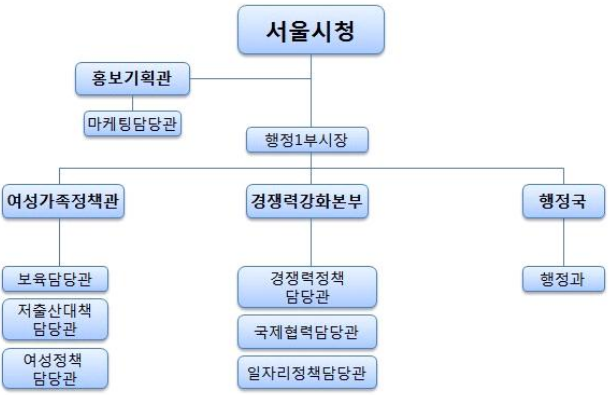
적극적인 개방 항목의 정책목표로는 우수인재 유치,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 외국출신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의 3가지가 있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 항목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의 3가지를 목표로 한다. 질서 있는 이민행정 항목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가 아닌 법무부와 같은 중앙정부부처에서 담당한다.

2) 서울특별시청 자체사업 및 담당부서[46)]

서울시청은 경쟁력강화본부,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중심으로 외국출신주민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총 338.34억 원(행정국의 '새주소 도로명판 외국어표기'사업은 158억 원의 2009년도 국비로 진행)을 들여 서울시 전체 프로그램 125개 중 2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 외국출신주민정책 업무의 핵심기구는 경쟁력강화본부 내 경쟁력정책담당관 산하 서울글로벌센터이며, 이곳에서는 외국출신주민 및 외국출신주민 투자기업 대상 정보제공 및 생활지원, 국제교류,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 상담,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출신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빌리지센터(5개소)와 다문화 빌리지센터(2개소)를 두어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상담, 언어교육, 문화교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6) 서울시는 2010년 10월 대대적인 부서개편을 실시하였다. 기존 경쟁력 강화본부가 경제진흥본부로 변경되면서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 정책보고서는 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한다.



〈그림 3-4〉 서울시 외국출신주민관련 주요 담당부서 조직도

① 경쟁력강화본부

경쟁력강화본부에는 크게 3개 과가 있는데, 우선 국제협력 담당관은 지구촌 한마당행사, 외국출신주민 감동프로젝트, 외국출신주민 인턴십 운영 등으로 외국출신주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경쟁력정책담당관은 체류외국출신주민과 외국출신주민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서래로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서울 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운영, 시설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외국출신주민근로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서울시정에 참여했던 외국출신주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울의 홍보대사 역할도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경쟁력정책담당관은 '서울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빌딩은 급증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업무, 생활편의,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복합 건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 3-11〉 2010년 서울시청 내 부처별 조직도 및 업무현황

부처	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본부	국제협력담당관	•지구촌 한마당 행사 •외국출신주민 감동프로젝트 •외국출신주민 유학생 인턴십 운영
	경쟁력정책담당관	•서울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외국출신주민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서울 문화교류 관광정보센터 운영 •서울글로벌센터 설치·운영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운영 •서래로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일자리정책담당관	•외국출신주민근로자센터 운영지원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글로벌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관리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외국출신주민 관광택시 도입
복지국	보건정책과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 •외국출신주민 응급의료체계 구축
여성가족 정책관	보육담당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다문화·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가족폭력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저출산대책담당관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한국어·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 모니터단 운영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실시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 문화 조성
행정국	행정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새주소 도로명판 외국어표기)
홍보기획관	마케팅담당관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서울 문화체험 •중문월간지 니하오 서울 발행 •영문월간지 SEOUL 발행
tbs 교육방송 라디오국	영어FM담당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확대(eFM 방송제작 운영)
		총 29개 프로그램

② 도시계획국

서울시 도시계획국 내 토지관리과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국내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정업체 126개소(2008년 20개소, 2009년 106개소)를 선정하였다.

정책의 운영뿐 아니라 홍보 역시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번역된 부동산 임대가이드 책자는 외국공관, 외국출신주민학교, 인천공항, KOTRA,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각종 계약서 서실의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③ 도시교통본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내 운수물류담당관은 외국출신주민 대상 관광택시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의 택시이용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부당요금 30%, 난폭운전 16.3%, 승차거부 12.2%, 불친절 9.2%)[47] 서울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편안한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추진주체는 서울시이며,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전용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④ 복지국

보건정책과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와 외국출신주민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담당한다.

⑤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내의 보육담당관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 정책일환으로 다문화·다민족 보육시설을 지정·지원하고 있다. 주 사업내용은 보육도우미 지원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족폭력 피해 외국여성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추

47) 외국출신주민정책위원회,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I, 2010, p.152

진하고 있다. 주 사업 내용은 피해여성과 동반아동에게 독립적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취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여성부가 추진주체가 되어 서울시 직영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실시,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조성, 한국어·다문화이해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가정을 지원한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은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어와 다문화이해교육 확대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며 2009년 6개소에서 2010년 19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⑥ 행정국

행정국 내 행정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 정책 일환으로 새주소 도로명판 외국어표기 사업을 수행한다.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경하며, 외국출신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시 전체 37,731개의 도로명주소 도로명판을 대상으로 외국어 병행표기를 한다. 그 외 참여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거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⑦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내 마케팅담당관은 서울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 크게 4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대표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서울 문화체험, 중문월간지 '니하오 서울' 발행, 영문월간지 'SEOUL' 발행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는 서울시에서 전문 홈페이지 업체를 선정해 업데이트 등을 관리하는 추진체계로 이루어지며, 2010년 현재 6개 홈페이지를 운

영 중이다.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서울 문화체험은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서울 명소 탐방 및 각종 체험을 통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맑고 매력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을 홍보하여 외국출신주민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30회 실시되고 있다.

중문월간지 '니하오 서울'은 매달 52,000부씩 외국출신주민들에게 무료 배포되고 있다. 추진체계는 민간합작에 의해 매달 기획되고 제작업체를 통하여 기사작성·인쇄·발행되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배당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영문월간지 'SEOUL' 역시 민간합작에 의해 매달 기획되고 제작업체를 통해 기사작성, 인쇄, 배포를 하고 있다.

3) 추진체계

〈표 3-12〉 서울시 추진체계(서울시 100%인 경우)

프로그램	추진체계(서울시 100%)
•외국출신주민 감동프로젝트	시비 100%
•외국출신주민유학생 인턴십 운영	
•서울글로벌클러스터빌딩 건립	
•외국출신주민학교에 대한 지원강화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외국출신주민 관광택시 도입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권 확대	
•외국출신주민 응급치료체계 구축	
•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세계문화체험	
•영문월간지 'SEOUL' 발행	
•eFM 방송제작 운영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3-13〉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시 ⇒ 민간 수행기관 경우)

프로그램	추진체계(시 ⇒ 민간 수행기관)
•지구촌 한마당 행사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100%) ⇒ 서울시 부서 및 행사 대행사
•서울글로벌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경쟁력정책담당관(100%) ⇒ 세계선린회 위탁운영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경쟁력정책담당관(100%) ⇒ 수행기관(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서울시 홍보기획관(100%) ⇒ 수행기관(전문 홈페이지 업체 위탁)
•중문월간지 '니하오 서울' 발행	서울시 홍보기획관(100%) ⇒ (주)모닝스타앤파트너 위탁

〈표 3-14〉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시 ⇒ 구)

프로그램	추진체계(시 ⇒ 구)
•서래로 글로벌특화거리 조성	서울시 경쟁력정책담당관(50%) ⇒ 서초구(50%) ⇒ 총 100%
•자조모임 지원 및 정책 모니터단 운영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100%)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표 3-15〉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시 ⇒ 구 ⇒ 민간 수행기관)

프로그램	추진체계(시 ⇒ 구 ⇒ 민간 수행기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다문화·다민족 보육시설운영)	서울시 보육담당관실(50%) ⇒ 구(성북구, 용산구, 구로구, 광진구)(50%) ⇒ 〈다문화어린이집〉 3개소(총 100%)

〈표 3-16〉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프로그램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가족폭력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시설운영비 : 여성가족부(50%)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50%) ⇒ 총 10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건립비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100%)

〈표 3-17〉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 민간 수행기관)

프로그램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 민간 수행기관)
•아동양육지원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50% ⇒ 서울시 저출산 대책담당 50% ⇒ 민간기관(총 100%)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50% ⇒ 서울시 저출산 대책담당 50% ⇒ 민간기관(총 100%)

〈표 3-18〉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 구 ⇒ 민간 수행기관)

프로그램	추진체계(중앙정부 ⇒ 시 ⇒ 구 ⇒ 민간 수행기관)
•한국어·다문화 이해교육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50% ⇒ 서울시 50% ⇒ 자치구(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총 100%)

〈표 3-19〉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구 ⇒ 민간 수행기관)

프로그램	추진체계(구 ⇒ 민간 수행기관)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운영지원	성동구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법인에 위탁

〈표 3-20〉 서울시 예산 추진체계(비 예산 프로그램)

비 예산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
•새주소 도로명판 외국어표기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4)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서울시는 기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외국출신주민에게 민원처리,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 시설을 건립·운영하고 있다.

〈표 3-21〉 서울 글로벌센터,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현황

센 터 명	위 치	개관일	구 성
연남 글로벌빌리지센터	마포구 동교동	'08.1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강남구 역삼1동	'08.4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초구 반포동	'08.6	
이태원·한남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 한남2동	'08.7	
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	용산구 이촌1동	'08.7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영등포구 대림동	'09.9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	성북구 성북동	'09.11	

(1) 서울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센터는 국내 유일의 외국출신주민 종합지원기관이며 서울시가 직영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내 경쟁력정책담당관의 글로벌센터 운영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자국에서와 같이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다국어 종합 상담이 있다. 생활 상담, 비즈니스 상담, 전문 상담,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로 상담이 가능하다.

둘째, 국제교류행사가 있다.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국제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연 1회 열리는 서울타운미팅은 서울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제시 및 토론의 장이며, 외국출신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이 글로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교육 서비스로 비즈니스 창업대학, 한국어강좌,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이 프로그램이 있다. 창업대학은 기존 4년제 정규 학제와는 무관하며 약 3주 과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출신주민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상권, 법률, 금융지식, 창업자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다.

넷째, 통합행정 서비스로 출입국 사무, 운전면허 상담, 소비자 상담, 관광 안내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8]

(2)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서울글로벌센터가 서울에 있는 종합지원기관이라면 글로벌빌리지센터와 다문화빌리지센터는 지역적인 지원기관이다. 이 두 기관은 서울글로벌센터의 지

48) 서울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점 개념으로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출신주민 밀집 거주 5개 지역(연남, 역삼, 서래마을, 한남.이태원, 이촌동)에 설치되어 생활 편의를 돕는다. 다문화 빌리지센터는 외국출신주민근로자나 유학생 밀집지역이면서 지원기관이 없는 영등포구와 성북구에 2개소가 세워졌다.

빌리지센터 사업은 7개 센터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공통사업과 센터별 거주 외국출신주민 및 지역적 특징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3-22〉 빌리지센터별 운영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사업 내용
공통사업	상담사업	•생활상담(생활편의, 의료, 임대, 관광 등) 전문상담(노무, 법률 등)
	문화사업	•한국어·외국어강좌, 커뮤니티 행사지원, 문화체험, 전통문화강좌, 서울문화탐방 등
	기타사업	•컴퓨터교실, 벼룩시장 개최 및 참여, 시정안내 등
특화사업	연남빌리지	•〈다문화가족〉취업반, 중국문화의 날
	역삼빌리지	•한국어연극페스티벌
	서래빌리지	•한불음악축제, 와인특강
	이태원·한남 빌리지	•찾아가는 서울생활 오리엔테이션
	이촌빌리지	•한일어울림한마당
	영등포다문화	•다문화인식개선 세미나, 다문화가족 워크숍
	성북다문화	•다국적 전통음식 및 전통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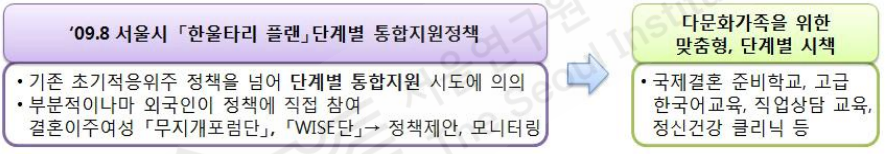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생활 지원 및 정보 제공서비스를 한다. 둘째, 한국어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영어 강좌도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의사소통과 교류를 도모한다. 셋째, 한국문화와 국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넷째, 외국출신주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 활동을 통해 내·외국출신주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서울글로벌센터, 주한 외국대

사관 등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출신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49]

5)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2009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한울타리 플랜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특별사업이다.

기존의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가 주로 초기적응 지원위주였다면, 한울타리 플랜은 단계별 통합지원정책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갖도록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무지개 포럼단'과 'WISE단'은 다문화정책 모니터링과 제안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외국출신주민이 직접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양방향 소통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3-5〉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정책 방향

또한 지원 서비스 관련 센터 등 단순 기관이용중심을 넘어 지역사회 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①외국출신주민 등록 ②혼인·출생·사망신고 ③의료·출산 지원 ④자녀양육·교육지원 ⑤어려운 가정 생활지원 ⑥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공 ⑦법률상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국제결혼 예비배우자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및 준비교육 부족으로 이혼율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국제결혼 준비학교'를 운영

49) 서울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2010.08.17

하고 있다. 이는 결혼 전 남성을 대상으로 20시간씩 4회에 걸쳐 80명에게 국제결혼 준비교육을 실시하며, 수료자에게는 부담 없는 결혼문화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1인당 1백만 원의 결혼식 비용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은 초·중급 수준이지만 취업이나 학업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고급과정을 강남·북지역 2개소에 개설하여 고급반, 취업반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로 유입되어 초기 적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이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행해진 데 반해, 보다 주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실용적인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50]

〈표 3-23〉 2010년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

목적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적 서비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귀화자와 그 가족
2010년 시행계획	•맞춤형 사회통합 지원 사업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 자녀대상 문화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 개발 •한울타리 생활안내서 발행(10개 국어) : 자녀예방접종 시기, 보건소 이용방법 등 생활정보 •홈페이지 운영 :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행정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운영 •결혼이민자 특별 직업훈련 시범운영 : 여성 직업 훈련기관에서 4개 권역 실시 •한국어 특별반(고급반, 취업반) : 한국어 고급반 및 취업반 운영(3반, 135명) •무지개 포럼단 구성 · 운영 : 결혼이민자 50명으로 구성해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 〈다문화가족〉'정신건강 클리닉'운영 : 은평 병원에서 주1회 운영

그러나 그 지원대상이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주의 외국출신주민은 배제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름의 의미를 고취시키는 한울타리가 되려면,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 외국출신 서울 거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50)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http://mcfamily.seoul.go.kr)

3. 구별 프로그램

앞서 서울시청 내 부서별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외국출신주민 지원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보다 작은 단위인 서울시 내 구별 사업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현재 구 단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내 전체 25개 구 중 동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96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1] 각 프로그램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살펴보았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구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공통사항

(1) 지원구조

23개 구청 내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의약과 등이다. 그 중에서도 주로 가정복지과와 자치행정과가 많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 의약과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구는 총 9곳이며 무료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임산부 교육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별 프로그램의 추진체계는 다양하나 약 50%가 구 단독으로 진행함으로써 보다 외국출신주민들의 거주지에 밀접한 곳에서 현실적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단위보다 더욱 세부적인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구도 있다. 광진구,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의 7개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를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도모한다.

---

51) 전체 96개 사업 목록은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2. 서울시 구별시행프로그램 명칭을 참고

(2)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는 구마다 1~12개로 다양하나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출신주민이 44,677명으로 서울시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13.34%를 차지하는 영등포구의 경우 1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전체 96개 구별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축제, 캠프, 문화체험 등 행사성 프로그램이며 그다음은 이주 외국출신주민의 서울생활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수혜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하나 그 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개별대상이 아닌 가족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단위인 가족 내부의 정서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많았다.

〈표 3-24〉 구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공통사항

	각 구의 공통점
구조상의 공통점	•23개 구청 내 조직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러 과 중 외국출신주민 지원은 주로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에서 담당 •보건소 의약과를 갖춘 10개 구(강북, 강서, 광진, 노원, 도봉, 성북, 영등포, 은평, 중구)는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무료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수행 •추진체계는 구 단독 추진사업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 •구 단위보다 더 세부적인 동 단위로의 위탁도 추진함. 7개 구(광진, 강동, 금천, 성북, 양천, 은평, 중랑구)는 동 주민센터를 교육·교류의 장으로 활용
프로그램의 공통점	•구마다 1~12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대체로 구별인구 수에 프로그램 수도 비례 •전체 96개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축제, 캠프, 문화체험 등 행사성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행사의 경우 전통음식 만들기, 한복 입기, 도자기 만들기, 세시풍속 익히기 및 전통혼례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익힌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보다 현대생활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한국인 배우자, 이주노동자, 유학생으로 구성됨. 그 중 가장 많은 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광진구의 몽골학교 지원, 몽골축제, 서초구의 한불음악축제 등 각 구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

2장에서 살펴본 외국출신주민 거주지의 지리적 분포특성에 따라, 구마다 주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의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광진구의 몽골학교 지원, 나담축제(몽골의 가장 큰 전통축제를 한국에서 재현), 프랑스인 밀집지역인 서초구의 한불음악축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실효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대부분 김장 등 전통음식 만들기,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도자기 만들기, 세시풍속과 명절예절 익히기, 전통혼례 등으로 되어 있어 한국 고유의 고전 문화를 경험해본다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위험이 있다. 그들이 현대 서울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을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실생활에 근거한 적응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2) 구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특이사항

체험행사, 한글교육과 같이 각 구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 외에도 23개 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정 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인 광진구, 구로구, 서초구는 국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표 3-25〉 특정 국가출신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발달한 구

구	각 구별 특징적 프로그램 내용
광진구	•몽골출신 이주민 대상 사업(몽골학교 지원, 몽골학생 무료검진 등)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을 통해 몽골 전통축제 광진구에서 재현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한국어 과정 운영
구로구	•조선족, 중국인 커뮤니티 형성 •외국출신주민 거주자 34,480명(10.29%)으로 23개 구 중 2위의 밀집지역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된 사람 중 70% 이상이 외국출신주민인 가리봉동, 구로동에서 배출요령 교육, 중국어 홍보물 배포, 3개 국어로 된 경고판 부착 •민간단체인 외국출신주민노동자 전용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출신주민을 위해 검진차원을 넘어 수술 등 전문치료 제공
서초구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프랑스인 밀집 거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최

광진구의 경우 몽골출신 이주민 자녀를 위해 몽골학제를 따라 12학년제인 재

한몽골학교의 환경개선, 급식비지급, 몽골학생 무료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조선족, 중국인 밀집지역인 구로구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원활한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을 중국어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생활뿐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사항이나 외국출신주민의 경우 언어문제, 정보부족, 의료비 부담 등으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청 보건소 의약과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구가 있는데 그 중 특징적인 7개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6〉 보건소 외국출신주민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

구	각 구별 특징적 프로그램 내용
강북구	•의료서비스 및 동시통역 서비스 실시 및 외국어로 된 진료안내 홍보물 제작
강서구	•결혼이민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혜택이 2010년부터 그 자녀에게로 확대
노원구	•의료서비스의 전문화 : 보건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외국어 매뉴얼 개발,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관내 종합병원에 진료 연계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마당, 결혼이민여성과 자원봉사자의 1:1 멘토링
도봉구	•보건소 무료검진, 일자리 지원(미용교육 및 취·창업),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성북구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 결혼이주 임산부들에게 출산준비 및 분만과정, 신생아 돌보기 등 교육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다문화 음식축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보건사업, 찾아가는 테마별 건강교실, 찾아가는 순회 진료, 무료검진, 진료가이드북 및 홍보물 비치 •거주 인구가 약 4.4만 명으로서 23개 구 중 가장 큰 비율인 13.34% 차지 •한국어교육,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한국문화 체험,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자녀를 위한 민간 보육시설 다수(하마방, 살레시오 다문화교육센터 등)
은평구	•동 단위 프로그램과 심리지원이 특징적 •결혼이민자 중 우울증 환자 대상으로 미술치료 실시

강북구는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6개인 외국출

신주민 진료기관수를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건소, 의·약국 이용 외국출신 주민을 대상으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외국어로 된 의료기관 및 진료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언어지원과 접근성 향상에 힘쓴다.

강서구는 결혼이민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던 무료 건강검진의 대상을 그 자녀에게도 확대하며, 보다 세부적인 검사를 위해 몇 가지 진단항목을 추가하였다.

노원구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보건소 차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응급환자의 경우 관내 종합병원과 연결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성북구의 경우 결혼이민가정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출산을 경험한 여성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구의 다문화빌리지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센터 내에서 각종 질병예방, 영양, 운동교육 및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다른 구의 보건소들이 신체적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은평구 보건소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는 등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구 보건소는 관내 종교기관 및 복지관과 연계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집중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성북구와 유사하며 영유아 건강관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급 등 영양 플러스사업도 실시한다.

그 외에도 구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로 주목할 부분은 23개 구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한 중구의 외국출신주민 교사 유치사업이다. 중구는 공교육 현장에 원어민 교사 27명을 투입함으로써 내국인의 언어소통능력 향상과 글로벌인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둘째, 관악구, 광진구, 용산구 등 3개 구는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한국어 과정을 위탁 중이며

서울대학교 학생과의 1:1 멘토링도 주선한다. 광진구 역시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위탁 중이며 용산구는 숙명여자대학교와 연계하여 다문화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표 3-27〉 기타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특이사항

구	구별 특징적 프로그램 내용
강남구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강동구	•결혼 이민자를 위한 종합적 행복 프로젝트, 동 자치센터 한글교육 실시
관악구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서울대 학생과 1:1 멘토 주선
금천구	•가족단위 문화교실, 한국문화 체험학습 실시
동대문구	•가족단위 캠프,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주거, 교통, 의료정보 수록)
마포구	•외국출신주민에 맞춰 제작된 전문교재를 사용하는 맞춤형 한글교실 운영 •가족지원 사업,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맺기, 시부모·남편 교육
서대문구	•〈다문화가족〉한마음 캠프, 문화체험학습, 한국어 교육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가족캠프, 수요음악회 운영, 명절음식 만들기 등
양천구	•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활성화
용산구	•용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다문화교육사 양성 :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양육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중구	•23개 구 중 사업예산 1위 •최대 예산이 투입된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지원 프로그램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중랑구	•동 자치회관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언어능력을 활용한 점에서 독보적이며 단순 노동을 넘어서 특기를 살린 외국어 지도사로 양성

셋째, 외국출신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 단위 사업으로 동 자치회관을 활용한 교육·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앞서 언급한 7개 구(광진, 강동, 금천, 성북, 양천, 은평, 중랑구)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다. 그 중 은평구는 동 자치회관 한국어 강좌뿐 아니라, 대조동 주민생활지원팀을 통해 동 차원에서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포용하는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주여성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과 함께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

(이주여성이 강사가 되어 자국문화 알리기)'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국내에 연고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고충을 덜기 위한 자녀양육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다. 관악구는 취학 전 유아의 학습능력 발달을 위해 독서지도 전문가가 주1회 미취학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송파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관내교회 및 어린이집을 결연하여 학습지도와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용산구 역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적인 자녀양육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섯 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도봉구의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전문 아티스트 등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중랑구의 경우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기존의 단순 노동을 넘어서 '언어'라는 특기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을 통해 외국어 지도사로 양성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외국출신주민 어린이집 강사 등 취업 연계까지 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특징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는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마포, 강남, 서초, 용산, 영등포, 성북 등 총 6개 지역이다. 이 센터를 통해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행정·교육·행사·교류 등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4.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지금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외국출신주민 개개인의 역량 및 환경 개선만으로는 이들을 진정한 의미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내국인들의 인식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부처 프로그램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개별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의 또 다른 사업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리랑 TV 등을 통해 이주민의 긍정적 이미지 조명 및 젊은 세대의 글로벌 시민 의식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선진 시민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는 외국출신주민에게 바가지요금 안 받기, 친절한 택시 운행, 외국어 음식메뉴판 갖추기, 해외여행 에티켓 실천 등이 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인 다문화 영화제, 연극제 등이 있다.

〈표 3-28〉 정부 부처별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분류	기관명	프로그램
국제결혼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에 대한 법률 개정 추진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등록, 지도, 점검
가족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민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	•G-20 정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선진시민문화 조성
축제 및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영화제, 연극제

2)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서울시청 내 여성가족정책국은 국제결혼을 앞둔 남성 및 국제결혼 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국인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외국출신주민학생이 함께 모여 서울을 보고 듣고 말하며 불편한 점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건의하는 국제 유학생포럼도 개최한다. 또한

축제 및 행사 차원에서 거주 외국출신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서로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벼룩시장을 열고 있다.

도시계획국은 외국출신주민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과 홍보 및 체계적 관리까지 도맡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경쟁력강화본부는 문화축제인 지구촌 한마당행사와 내국인이 해외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세계복식체험관과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

〈표 3-29〉 서울시 부서별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분류	기관명	프로그램
국제결혼	여성가족정책국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실시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문화 조성
사회참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학생포럼
자원봉사		•자원봉사
생활서비스	도시계획국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축제 및 행사	서울글로벌센터	•벼룩시장
	경쟁력강화본부	•지구촌한마당 행사
		•서울문화교류 : 세계복식체험관

3) 구 프로그램

영등포구는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해 세계문화 일일교실, 타 문화 체험을 통한 이해교육과 같은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강서구, 양천구, 용산구의 3개 구는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을, 서울시내 글로벌빌리지센터와 다문화빌리지센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강좌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별로 축제 및 행사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남구 외 6개 구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 전통음식장터, 작품전시회, 다문화가정의 일상을 담은 사진·그림전시회 등 행사와 다문화 알리기 수업, 일자리 상담, 전통의상 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3-30〉 구별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분류	기관명	프로그램
다문화 강좌	영등포구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타 문화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강사 양성	강서구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양천구	
	용산구	
언어 강좌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서울거주 내국인을 위한 영어강좌
	이태원·한남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원 봉사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축제 및 행사	강남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실시
		•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서초구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회

관악구는 다문화 축제를 통해 즐거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총 7개 국가에 대한 홍보마당 및 국가별 홍보부스를 통해 나라별 전통음식 시식 및 전통의상 입어보기, 페이스페인팅, 나라별 민속놀이체험, 세계 민속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서울거주 프랑스인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축제인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4) 민관 프로그램

민관 프로그램은 서울시내 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강좌제공, 강사양성 등 교육프로그램과 축제·행사와 같은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에서부터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 문화의 민속춤을 경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표 3-31〉 민관단체의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

분류	기관명	프로그램
다문화 강좌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세계의 민속춤 : 5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강좌. 세계 고유의 민속춤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모두 함께하기(다문화 이해 증진사업) : 지역 일반아동교육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식개선교육) :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다름과 차이의 의미 재정립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교사세미나) :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실제적인 개입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
다문화 강사 양성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강사 양성'문화 알리미'교육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모두 함께하기(다문화 이해 증진사업) :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 포함
축제 및 행사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지역문화 축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5.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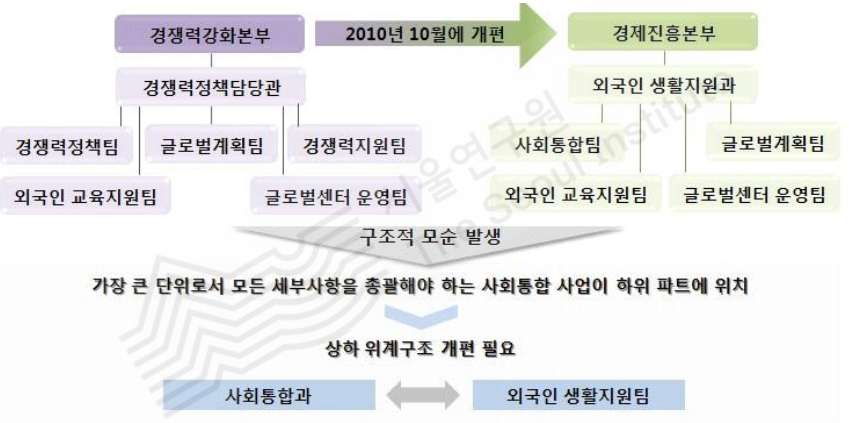
지금까지 내·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기구별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3가지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

첫째, 2010년 10월 서울시 각 부서의 조직개편 후 운영 구조를 분석한 결과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원기구의 운영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운영구조의 모순

2010년 10월 서울시 각 부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사회통합팀이 구성된 것이다.

아래 조직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경쟁력강화본부가 경제진흥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경쟁력정책팀, 글로벌계획팀, 경쟁력지원팀, 외국출신주민교육지원팀, 글로벌센터운영팀의 총 5개 팀에서 경쟁력정책팀과 경쟁력지원팀이 사라지고 사회통합팀이 신설된 총 4개 팀으로 통합·개편되었다.[52]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지원부서 개편 현황

첫째, 이전 글로벌센터계획팀에서 담당하던 글로벌비지니스지원센터(코엑스) 운영 관리업무가 글로벌센터운영팀으로 이동되었다.

둘째, 기존 외국출신주민교육지원팀의 업무가 외국출신주민학교 신규건립·

52) 2010년 하반기에 개편된 경제진흥본부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과 내 4개 팀에서 담당하는 세부 업무는 부록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3의 <표 121>을 참고

유지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 개편 이후부터는 외국출신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더불어 외국출신주민정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는 등 단절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팀은 과거 경제력정책팀에서 담당하던 홍보업무, 타 실·국과의 협조업무와 함께 국내거주 외국출신주민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사회통합팀의 신설은 내·외국출신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그 구조에서 모순점이 나타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출신주민들이 한국에 초기 정착하는 단계에서는 이들의 적응을 돕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후에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이 모든 과정 및 세부사항을 아우르는 가장 큰 단위가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은 가장 초기단계인 정착-적응기에 언어문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상하 위계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 프로그램 중복

사회통합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우선 프로그램의 통합을 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부처 간 상호 협력 하에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기보다 각 부처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중복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 기관끼리도 프로그램의 중복,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글교육이나 일회성 축제, 행사프로그램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의 중복은 결국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1) 축제·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의 중복

많은 사업 중에서도 한국문화의 이해, 축제, 한마당 등의 이름으로 열리는 각

종 행사프로그램은 가장 두드러지게 되풀이된다. 이런 활동은 대부분 기관의 생색내기 용도의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 일회성 성격이 크다.

〈표 3-32〉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의 행사프로그램

법무부	•2008년 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 문화체험행사 3회 개최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매년 5월 20일) •건국60주년 다민족 다문화 한마당축제 : 13개국에서 온 결혼이주가족 100쌍의 합동 결혼식 거행
문화 관광부	•2008년 다문화정책 10대 중점과제에 문화향유 기대 확대, 다문화성이 반영된 문화 활동 지원 등 포함 •다문화콘텐츠 개발 : 다문화뮤지컬'러브 인 아시아'공연 •국립 중앙도서관 : 문화체험 전시회 개최 •국립 국악원 장악과 : 200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2회 개최 •국립민속박물관 : 어린이들에게 음식문화, 종이문화 체험 등 다문화 교육 실시
보건 복지 가족부	•2007년부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0여개의 문화 정서 지원사업 시행 (한국문화 탐방, 공연관람, 공예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
노동부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 2009년 4월부터 커뮤니티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입국자가 많은 4개국(베트남,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의 축제와 문화행사 지원 (태국의 쏭크란 축제, 스리랑카의 아우루두 축제 등)
행정 안전부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 다문화 수용·확산을 위해 법무부와 협업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개최
서울시 각 구	•2010년 기준 서울시 및 각 구의 행사프로그램은 대부분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적답사, 한국문화 탐방, 축제 등이 주류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서울 문화체험 •경쟁력강화본부 국제협력담당관 : 지구촌한마당행사 •영등포구 :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상호 소통의 장 활성화,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동구 :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광진구 :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 •구로구 : 외국출신주민 단체 문화 · 체육행사 지원,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되어주기 •서초구 :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최 •성북구 :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여가환경 개선, 교양강좌, 프로그램 발굴 운영 •광진구 :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중구 :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2)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중복

서울시내 다문화 지원기관별 실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원기관이 한국어 및 기타 강좌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KIIP) 실시 : 한국사회 이해와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설
문화관광부	•이주민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국립 국어원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2008년),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2,3,4(2008~2009)교재 개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2009)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 학습용 방문학습지, 독서진흥콘텐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교육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 •중앙 다문화교육센터 : 2007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다언어 한국어교재 〈초급〉 발간, 배포(1,500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한국어교육 실시,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수준을 진단하여 센터 내 언어교실 혹은 인근 보육시설 파견을 통해 단계별 서비스 제공 •취학 전 학습능력 발달 지원 : 학령기를 앞둔 아동에게 한글교육 실시
노동부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한국어교육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한국어교육 운영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
서울시 각 구	•마포구 교육지원과 : 결혼이민자 및 외국출신주민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광진구 교육지원과 :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여성가족정책국 저출산대책담당 : 다문화지원센터 내 한국어과정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 결혼이민자 행복 찾기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교육 •관악구 가정복지과 :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한국어교실 •강남구 자치행정과 :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노원구 자치행정과 :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한국어교실 •은평구 :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서초구 :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성북구 자치행정과 :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양천구 :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중랑구 : 2010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강좌 포함 •광진구 교육지원과 : 성인·외국출신주민 문화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서대문구 주민생활지원국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동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출신주민 지원을 위한 한국어 강좌 운영 •도봉구 가정복지과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용산구 용문동 주민센터 :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강서구 행정관리국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습득기회 제공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의사소통임을 감안할 때 한국어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부처별로 각기 나누어 수행하면서 상호연계하고 보완하

기보다는 부처 간 중복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3) 다문화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중복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므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표 3-34〉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의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법무부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에 2010년 2억 원의 예산 소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2010년 현재 10개 대학 선정, 총 80시간 교육) •92명의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를 양성하여 80개 센터에 배치(2009년 8월 기준)
문화 관광부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기반시설 관계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또한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강사 양성. 2008년 9월 1기 수강생 모집
교육 과학 기술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 :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 실시. 2010년 현재 유·초·중등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에 2억 원의 예산 투입(2009년 대비 11.1% 증가) •〈다문화 유아〉를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활용으로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지원자 수는 2009년 170명 ⇒ 2010년 250명)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한 교재, 교사를 위한 매뉴얼 등 연구·개발
보건 복지가족부	•다문화강사 양성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기 위한 강사 양성 •이중 언어 교육 환경 조성(언어별 강사 양성 및 파견)
여성부	•2008년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전문 강사 61명 양성 및 프로그램 전국 확대실시(2008년 11~12월, 392명 양성)
행정 안전부	•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지도자로 양성해 새내기 이주자의 정책 도우미 및 멘토로 활용
서울시 각 구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국 저출산대책담당 : 〈다문화가족〉생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양천구 자치행정과 : 다문화 강사 양성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숙련된 다문화 교육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각 부처와 서울시에서 상호연계성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강사양성프로그램의 수료자 수에 걸맞게 보다 통일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3) 운영프로그램의 홍보 및 정보공개의 부족

앞서,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서울시 및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실제 이를 이용하는 외국출신주민이 관련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정보 접근 방식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외국어 지원이 되지 않은 채 한국어로만 홍보된다면 무용지물이다.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의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한국어로만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영어와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 언어의 지원도 요구된다. 한편,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간단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

제3절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

서울시로 유입되는 외국출신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의 자녀들이나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자녀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출신주민 자녀들의 생활 적응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외국출신주민들의 체류유형 및 목적에 따라 생활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그 자녀들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출신주민이기 때문에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자녀

들의 경우, 부모님이 미등록 노동자일 때에는 그 자녀의 생활 역시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이 절에 들어가기에 앞서 '외국출신주민 자녀'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 제한되어 있음을 밝힌다.

1. 정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 및 현황

중앙정부차원에서 외국출신주민가정 학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부터였다. 이처럼 역사가 길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증가 자체가 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교육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여러 형태로 교육적 지원을 해왔고 현재 30,040명의 외국출신주민 자녀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53]

1) 연도별 지원 정책 및 평가

2007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반, 특별학급 운영, 교재 개발·보급, 학부모 연수 등 학교를 통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2008년에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을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학생의 개개인의 역량과 학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를 추가했다. 이전의 계획이 학생지원에만 치중했던 단기적 정책이었다면 새로운 계획은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포함해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2009년간 추진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3)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0, p.1

〈표 3-35〉 교과부 2006~2009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계획

연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핵심내용[54]
2006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학교의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지원기능 강화 •결혼이민자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게로 확대
2007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조기 습득을 통해 학교교육 및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해서 언어·문화 장벽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일반인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해 문화적 편견 극복
2008	•다양해진 우리사회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국정지표인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
2009	•다문화교육관련 연구·개발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운영, 다문화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교대 등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지원 : 예비교사 등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 지원 : 2009년 교대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 계획 수립, 교대생의 활동 참여 연계·지원 •맞춤형 다문화 교육지원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46개교) 지정, 다문화 이해교육 학교(58개교) 지원

2009년부터 교과부는 맞춤형 학습지원 및 학부모의 능력 활용 방안 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강점을 살려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해 이들을 학교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동화를 강조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이들이 가진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살리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현재 외국출신주민 및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처마다 다양하나 청소년 지원, 특히 교육부문 복지는 대부분 교육기술과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4) 이민경, 한국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7권 제2호, 2010, pp.161-162

〈표 3-36〉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계획

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내용[55]
2010	•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 국립 교·사대에'다문화교육 강좌'개설 지원, 사립 교원양성대학에'다문화교육 강좌'개설 유도,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활용 :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학부모 대상으로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역량 강화,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정책은 이처럼 다양한 행보를 통해 전년도의 정책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발전해왔다. 지난 5년간의 전개과정에 따른 주요 변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물질적·경제적으로 지원하던 단기적 정책에서 결혼이주가정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쪽으로의 노선변경이다. 무료학습 제공 등 이들을 소외계층으로 간주하고 베풀려는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을 특별 취급하는 미시적 정책에서 보다 폭넓고 일반적인 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그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현직 교사들의 다문화 연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과거에 불법체류자인 부모의 강제출국 여부에 의해 좌우되었던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이슈로 떠

5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교육복지정책과,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p.4

오르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도 2010년에 발표되었다.

2) 공교육 재학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재학생 수는 30,040명이다. <표 3-37>의 취학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국제결혼이 1990년대 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결혼한 이민자의 자녀들이 취학 연령에 진입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수가 급증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로도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교육의 이방인으로 내몰리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표 3-37〉 연도별 전국 국제결혼가정 학생(청소년)의 재학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5	38.1	2,231	39.4	760	84.0	18,778	39.7
2009	20,632	30.5	2,987	33.9	1,126	48.1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출처 : 2010, 교육과학기술부

2. 서울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정책을 다룰 때 특히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서울시가 미래의 바람직한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있어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요한 인적자

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재학 현황 및 정책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수 대비 서울시의 유치원·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56]는 다음 표와 같이 12.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의 일반학교 및 유치원과 총 21개 외국출신주민 학교를 포함한 수치이며 그 중 초등학생 재학률이 가장 높고, 의무교육기간을 벗어난 고등학교 재학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전국대비 서울의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전체 대비 서울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비율
서울	534	3,108	584	196	4,422	12.88%
전국	4,298	23,602	4,814	1,624	34,338	100%

*출처 : 2010,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청 각 과, 25개 구 및 민간기관과 같이 서울시 내부 기구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그 중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57]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일반학생들의 편견 해소를 위한 자료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외국출신주민 자녀 외에도 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 교육과학부 정책과제로도 부상할 만큼 이슈가 되고 있

56)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현황, 2010, p.2

57)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0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010

〈표 3-39〉 서울시 교육청 2010년 정책내용

서울시 2010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정책
•한국어 교육 및 방과 후 교육 활동비 지원
•한국문화 체험캠프 : 〈다문화가족〉 학생 대상 2박3일 캠프(초등)
•온누리 친구캠프 : 〈다문화가족〉 학생 대상 3박4일 캠프(중등)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 : 〈다문화가족〉 학생, 학부모, 강사 참석
•귀국자 특별학급 지원 : 초5교, 중2교 총 7교에서 특별학급 운영
•지역교육청 지원 :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연수 운영지원
•한국어반(KLS) 운영 : 초등학교 한국어반 운영(25개교)
•초·중·고 교원 연수(2010년 1,200명)
•장학자료 발간 : 편견 해소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중등) 2010년 2만 부
•대학생 멘토링 :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서울교대, 이화여대 연계 운영)
•이중 언어 강사 운영 : 이중 언어 강사 70명 배정·연계 운영

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도 귀국자 특별학급 지원을 정책에 포함시켰다. 또한 외국출신주민 학부모를 활용한 이중 언어 강사 육성과 함께 체험학습, 캠프, 축제 등 행사성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 자녀를 위한 지원기구는 크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청 내 부서, 각 구청, 민관·민간단체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의 외국출신주민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서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초등교육정책과가 있다. 총무과 총무담당은 외국기관과의 교육 교류 및 협약, 교육정책 해외 홍보, 국제 교류 관련 통역, 해외교육정보 수집 및 관리, 영문 홈페이지 관리, 외국 교육계인사 기관방문지원 등을 수행한다. 교육지원국 학교지원과 내 학교설립기획팀은 외국출신주민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을 관장한다. 교육정책국 초등교육정책과 인성교육팀은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서울시청 외국출신주민지원과 내 외국출신주민교육지원팀은 외국출신주민학교 신규 건립 및 운영을 맡고 있다. 2010년 현재 상암 DMC인근 외국출신주민학교와 개포 외국출신주민학교의 신규 건립, 재한 몽골학교의 이전 건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서 각 구 중 7개 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40〉 서울시 구별 외국출신주민 자녀 지원 프로그램

기관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관악구 가정복지과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 독서지도 전문가에 위탁
광진구 교육지원과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금천구 가정복지과	• 〈다문화가족〉문화교실 : 자녀 언어발달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 후 교실 운영
성북구 자치행정과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어린이놀이방 운영
용산구 가정복지과	• 〈다문화가족〉 자녀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만 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에 전문적인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파견
중구 교육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 초·중·고 20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앞서 2절에서 살펴본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따른 125개 사업 중 외국출신주민 자녀 지원 프로그램은 7개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센터와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7개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외국출신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 외 지원기관은 <표 3-41>과 같다. 그 중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장 특화된 기관은 '무지개청소년센터'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이 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총체적인 교육서비스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그 외 국가별로 특화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유치원 등 21곳의 외국출신주민 학교도 서울시에서 운영 중이다.[58]

58)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유치원과 외국출신주민 학교의 명칭 및 정보는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5의 <표 122>를 참고

〈표 3-41〉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자녀교육지원 단체 및 프로그램

기관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
금천구 다문화복지센터	•〈다문화 어린이〉마을(만 3세~취학 전까지 보육 및 교육)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초등학생 이상, 방과 후 학습지도)
성북구 베들레헴 어린이집	•영·유아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회에서 위탁 운영. 한글, 수학, 영어, 미술, 사물놀이 등 각종 교육 제공
영등포구 하자센터 하마방	•미취학 아동에게 바른 한국어 쓰기, 놀이, 공연, 미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살레시오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 수도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센터
은평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미취학 아동 보육 및 교육,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무지개 청소년센터	•〈다문화청소년〉지역거점센터 운영 - 〈다문화청소년〉 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지원센터 운영, 입국초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등 사회입문프로그램 실시, 원활한 초기정착 지원(시범실시) •〈다문화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매뉴얼 시리즈 발간 - 다문화교육 교재 개발 •다문화청소년 관련 On-Off line 종합정보서비스망 운영 및 출판사업
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시에는 총 21곳(외국출신주민 유치원 3곳, 유·초·중·고 교육과정 18곳)의 외국출신주민 학교가 운영 중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지금까지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기관의 '<다문화가족> 지원 교육'이라 함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전체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교육프로그램의 분류가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과 같은 지원의 수혜혜택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교육의 권리가 모든 외국출신주민 자녀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나타났다.

1)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이므로, 외국출신주민근로자인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그 자녀 역시 한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국적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아이들은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아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의료, 교육 등의 복지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의료혜택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교육 역시 학습권, 교육권이라는 기본권과 결부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라 할지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이라 외국출신주민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뗄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된다면 입학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많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학을 학교장이 불허하면 학교에 다니기 힘든 실정이다.

체류허가가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외국출신주민이 한국 내에서 취업하려면 고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습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언제 부모가 단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동향[59]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59) 1989년에 채택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비준한 'UN 아동인권협약안'은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생존권, 보호권, 교육권 등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에서는 아동이 교육을 받는 동안 그 부모도 체류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출신주민노동자 자녀들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교육현장 내 문제점

법적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실제로 많은 외국출신주민 학생들은 사회적 편견, 언어문제로 인한 수업진도의 뒤쳐짐, 학교 내 또래집단의 차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상에 따른 차별은 극복하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서울시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출신주민 자녀들이 서울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외국출신주민 자녀가 한국 공교육에 무리 없이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글교육'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행하는 차원의 비체계적 교육이 아닌, 하나의 큰 틀로서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착 초기 자녀들의 적응을 위해 이중 언어 학급설치가 필요하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출신주민 자녀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모국어 기반의 수업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소결

3장에서는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각 분야의 법과 제도 및 조직과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회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실태를 파악한 것은 이주민으로서 서울시, 한국사회에 유입된 외국출신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절에서는 외국출신주민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국제법은 다양한 조항을 마련하여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인권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외국출신주민들도 동등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으로 분석된 국내법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 정책 구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외국출신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재한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처우의 기본방향이 동화주의적 입장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앞의 내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유형을 아우르지 못하는 현재의 법은 기존 법령인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과 차별성 없이 국제결혼 가족 외의 범주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법적 지지를 받는 외국출신주민의 범주가 합법 체류 외국출신주민에만 국한되는 것은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외국출신주민 정책을 수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법[60]에서는 등록외국출신주민도 주민으로 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1689호)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은 등록외국출신주민을 행정인구수 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하다 보면, 실제 거주 주민수와 등록된 주민수 사이의 격차

60) 「지방자치법」 제 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61]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내·외국출신주민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완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의 다문화 법령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국적법에 따른 경직된 정책을 버리고, 국적 개념이 아닌 정주(거주) 개념을 채택해 거주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와 같이 구성된 현재의 규정은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강제력이 약하다. 따라서 준법 가능성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남발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을 지칭하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 등은 학술적으로도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분리를 의미하는 용어를 포용하고 함께하는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외국출신주민 관련 조직 및 기구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원기구는 중앙정부 각 부처와 서울시청 산하 각 부서, 서울시 각 구, 다양한 민간단체로 구성되며 2010년 서울시의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은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4대 정책목표인 적극적인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에 따라 분류된다.

최근 외국출신주민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의 역할

61) 조규범, 다문화 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pp.363-364

강화'이다. 재한외국출신주민처우기본법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정책의 수행주체를 지자체로 옮김으로써 외국출신주민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과 근접한 곳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125개 사업의 추진체계를 조사한 결과 구 단독 추진사업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다. 첫째, 수행단위가 구 단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행단위를 현재의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출신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2010년 10월 서울시청 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 구조의 모순점이 나타난다. 외국인 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사회통합팀이 구성된 부분이다. 외국출신주민들의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적응지원이 우선이지만, 이후에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이 모든 과정 및 세부사항을 아우르는 가장 큰 단위가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은 가장 초기 단계인 정착-적응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상하 위계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한글교육과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다문화 강사 양성 등의 분야에서 각 지원기관의 중복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다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출신주민 지원정책 대상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의 폭을 확장하여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한울타리 플랜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외국출신주민근로자, 특히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생산기술직 노동자들과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더딘 편이다. 이는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외국출신 이주자의 자녀를 미래의 서울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시로 유입되는 외국출신주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반 입국한 자녀들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의 자녀들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적응력을 높여 이질감 없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외국출신주민가정 학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건 2006년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으나, 2007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국가적 의제로 선정하고 상담센터, 한국어반과 특별학급 운영, 교재개발 등 교육지원을 강화한 결과 정책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첫째로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62]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입학관련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달렸고,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학업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편견, 또래들의 차별,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초기 정착단계 학생들을 위한 이중 언어학급 설치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등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62)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 2008년 법령이 초등학교 입학과 재학에 있어 등록외국출신주민 자녀가 아니라도 임대차증명서 등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에게는 교육권을 제공했다면, 2010년부터 그 범위가 중학교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 법령의 실효성이 입증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정책보고서는 2008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명시한다.

제4장 서울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1절 내·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설계
제2절 내·외국출신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서울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

제1절 내·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설계

이 연구는 내·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이들 간 사회통합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 실태조사 방법

1) 대상자와 조사방법에 따른 세부 목적

이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내·외국출신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와 현장인터뷰는 2장에서 공간적 분포에서 살펴본 외국출신주민들이 밀집하여 형성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그룹인터뷰는 외국출신주민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을 체류 유형별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글로벌 센터와 서울시내 각 지역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대표 간담회와 직원 인터뷰 및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진행하여 기관의 운영 현황을 검

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대상자 및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의 내용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 및 조사목적

구분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현장 인터뷰	실무자 면담	간담회
대상	•외국출신주민 대상 (9개 언어 번역) •내국주민 대상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출신주민 거주 및 활동 밀집지역 내·외국출신 주민 대상	•글로벌·다문화 빌리지 센터직원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관계자	•서울글로벌 센터장 •글로벌·다문화 빌리지 센터장
목적	•공존 관련 인식 및 생활실태 파악	현황 파악 및 정책적 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	•설문지 활용한 현장조사 •-외국출신 : 333명 •-내국출신 : 640명	인터뷰		개별 면담	발표 및 토론

(1)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인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때, 확률표집이 불가능한 이유는 각 외국출신주민밀집지역의 크기가 다를 뿐 아니라, 실제 각 지역에 사는 외국출신주민 인구와 등록외국출

〈표 4-2〉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설문조사 대상지

번호	소재지	주 외국출신주민(문화)	밀집 거주	상권	빌리지 센터	종교 시설	교육 시설
1	구로구 가리봉동	재중동포·중국인	○	○			
2	영등포구 대림동	화교·재중동포·중국인	○	○	○		
3	용산구 이태원·한남동	아프리카계, 이슬람문화권, 독일 등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	○	○	○	○	
4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본인	○				
5	서초구 반포동	프랑스	○	○	○		○
6	종로구 혜화동	필리핀				○	
7	중구 광희동	몽골·러시아		○			
8	동대문구 창신동	네팔		○			

신주민 인구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확한 표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한 달간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지역 내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을 선정하되, 외국출신주민에 대해서는 총 8개 지역, 내국주민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각 조사대상지역과 개별 특성은 <표 4-2>와 <표 4-3>에서 각각 정리하였다.

(2) 그룹 인터뷰

이 연구에서 그룹인터뷰 대상이 되며 중요하게 여기는 외국출신주민 집단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다. 그 중, 이주노동자의 경우 블루칼라 노동자들로만 제한을 두었다. 그 이유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사회로 이주한 사

〈표 4-3〉 내국인 설문조사 대상지 선정

번호	소재지	주 외국출신주민(문화)	밀집 거주	상권	빌리지 센터	종교 시설	교육 및 지원시설
1	구로구 가리봉동	재중동포·중국인	○	○			
2	영등포구 대림동	화교·재중동포·중국인	○	○	○		
3	용산구 이태원	아프리카계, 이슬람문화권,	○	○		○	
4	용산구 한남동	독일 등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	○		○	○	
5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본인	○		○		
6	서초구 방배4동	프랑스	○	○	○		○
7	종로구 혜화동	필리핀				○	
8	중구 광희동	몽골·러시아		○			○
9	동대문구 창신동	네팔		○			
10	성동구	베트남					○
11	중구 회현,	중국인/대만인		○			
12	중구 명동.	각국 외국출신주민		○			
13	광진구 자양동	재중동포·중국인	○	○			
14	마포구 연남동	화교·재중동포·중국인	○		○		
15	성북구 성북동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			○		
16	강남구 역삼동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		○	○		

실은 동일하지만, 화이트칼라에 비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처한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주류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유학생들의 서울시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10명)와 결혼이민자(10명), 유학생(5명)을 대상으로 각각 총 2회에 걸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에 직접 접근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 관련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의 협력이 절실했다. 관련 지원기관에 도움을 청한 결과, 이주노동자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는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학생의 경우 눈덩이표집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표 4-4〉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인터뷰 대상자 국적

(단위 : 인)

국가	베트남	중국	재중동포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총 10명	3	2	1	1	1	1	1

〈표 4-5〉 결혼이민자 인터뷰 대상자 국적

(단위 : 인)

국가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몽골	스리랑카
총10명	1	1	4	2	1	1

〈표 4-6〉 유학생 간담회 참석자 국적

(단위 : 인)

국가	몽골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총5명	1	1	1	1	1

(3) 현장 인터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내·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상호 공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인터뷰를 6월 초에서 중순까지 진행하였다. 그룹별 각 20명씩 총 40명에 대해 행정지역(구)별 주민자치센터, 글로벌·다문화빌리지

센터, 상점, 거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연구자가 접촉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4-7〉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대상자 구성

(단위 : 인)

국가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이촌동	서초구 반포동	구로구 가리봉동	중구 광희동	동대문구 창신동	종로구 혜화동
외국출신주민 총20명	6	2	2	2	2	2	2	2
내국인주민 총20명	6	2	2	2	2	2	2	2

N.B. 용산구 이태원동은 아프리카계, 이슬람문화권 출신, 다국적 외국출신주민 등 외국출신주민 유형이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인터뷰 대상자를 많이 선정

2. 설문지 및 인터뷰 질문 구성

1) 설문조사

(1) 외국출신주민 대상 설문지

외국출신주민 대상 설문지는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Council of Europe, 2005)의 이주민(Migrant) 대상 조사 영역[63]에 의거해 1) 기본적 시민 권리의 평등, 2)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3) 자기개발과 자율성, 4) 참여와 헌신 그리고 5) 개인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 등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내국주민 대상 설문지

이번 조사에 활용되는 설문 문항들은 현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

63) Council of Europe(2005),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p.169~p.171.

에서 외국출신주민의 공존에 따른 내국주민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내·외국출신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경험, 2)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 가치관, 태도, 3) 일상생활, 4) 사회적 문제와 갈등 등을 질문하는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그룹 인터뷰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대상 그룹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다음 <표 4-8>과 같다. 두 그룹에 대한 공통질문과 그룹(유형)별 질문으로 분류하여 진행한 이유는 외국출신주민 전체 그룹 내에서도 체류 목적과 삶의 형태에 따라 한국사회의 적응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질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출신주민으로서 겪게 되는 경험적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지원현황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룹별 질문에 있어서는 생활 영역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그에 따른 실질적 바람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다.

〈표 4-8〉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유학생 대상 그룹 인터뷰 주요내용

공통질문	•서울 거주 기간 및 개별적 특성 •서울에 거주하면서 차별 경험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활에서의 경험 및 바램 •서울에 거주하면서 좋은 점들 •취업, 사교, 종교모임 등 사회활동(사회적 관계) 경험 및 바램 •향후 서울시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의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그룹별 질문	•(이주노동자 대상) 근로현장에서의 경험 및 바램 •(결혼이민자 대상) 가족 및 자녀양육에서의 경험 및 바램 •(유학생 대상) 학교교육에서의 경험 및 바램

3) 현장 인터뷰

현장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각 인터뷰 대상자가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에서 생활(거주 혹은 활동)하면서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요소와 내·외국출신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요구 사항 등이다.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질문을 제시하였고, 외국출신주민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덧붙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9>에 정리하였다.

〈표 4-9〉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거주 및 활동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내용

공통질문	•외국출신주민(또는 내국주민)과의 공존에 대한 생각 •본인이 느끼는 지역에서의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인 간의 관계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 참여 경험 및 희망여부 •서울시 내·외국출신 시민들 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저해요인 및 문제점 •내·외국출신 시민들이 갈등 없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기 위한 방안
외국출신 시민 대상	•한국에서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기본적 복지 혜택 수준에 대한 생각(의료, 공공행정서비스, 외국출신주민지원서비스, 교육 분야 등) •본인이 주로 어울리게 되는 집단 또는 커뮤니티 활동과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모국 출신 아동 및 청소년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이용 경험 및 요구사항

4)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인터뷰 및 간담회

외국출신주민들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기관 실무자 인터뷰와 서울시 글로벌센터와 각 지역 다문화·빌리지 센터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향후 내·외국출신주민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표 4-10〉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거주 및 활동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 내용

실무자 인터뷰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 •기관 프로그램 운영 시 외국출신주민들의 반응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향후 개선 방안
간담회	•센터 운영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 여부 및 활용 자원의 실제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내·외국출신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항

제2절 내·외국출신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

1)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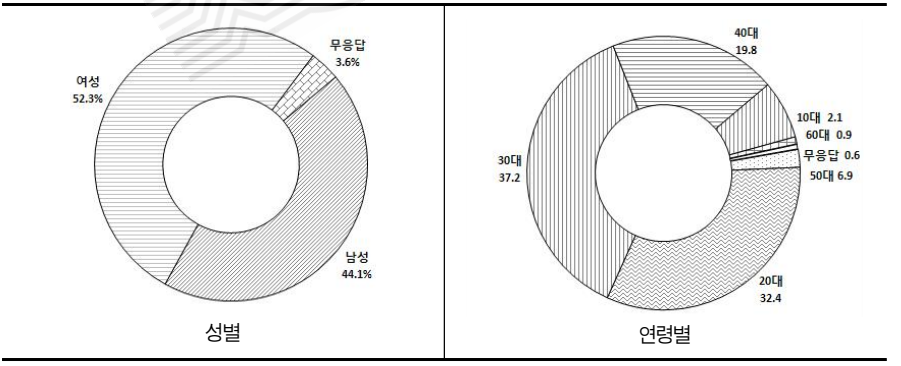
서울시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연구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ver.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 성별과 연령별 유형

외국출신주민 응답자 333명 가운데 남성이 44.1%, 여성이 52.3%로 비슷한 성별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만 19세 이하가 2.1%, 20세에서 29세가 32.4%, 30세에서 39세가 37.2%, 40세에서 29세가 19.8%, 50세에서 59세가 6.9%, 만 60세 이상이 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유형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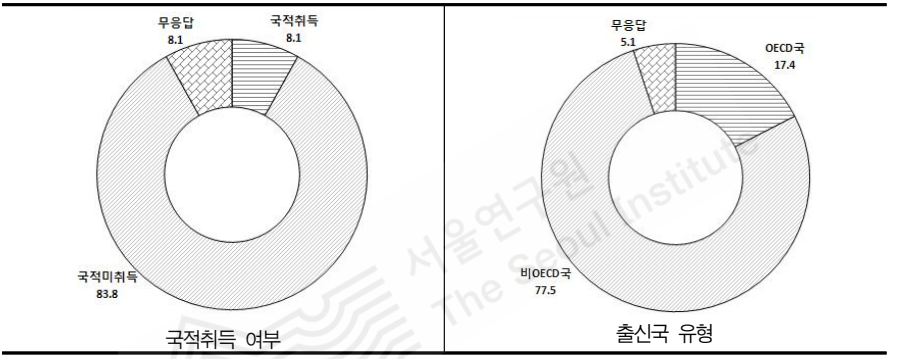


(2) 한국국적 취득 여부와 출신국 유형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의 경우 무응답 8.1%를 제외한 국적 취득자는 8.1%, 국적 미취득자는 8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체류 외국출신주민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출신국 유형 분포는 먼저 OECD국과 비OECD국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이 17.4%, 비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이 7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와 출신국 유형

(단위 : 명, %)



2) 기본적 시민 권리의 평등

(1) 불공평한 대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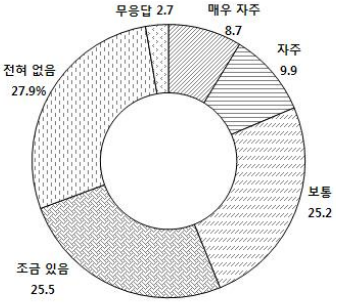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면서 내국주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9.9%) 나 '매우 자주'(8.7%)라고 대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출신국가별로 비교하였을 때 OECD국가 출신인 미주 및 유럽 출신은 8.2%만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은 25.9%, 중국 등 동북아 출신은 20.5%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국가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응답자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29	8.7
자주	33	9.9
보통	84	25.2
조금 있음	85	25.5
전혀 없음	93	27.9
무응답	9	2.7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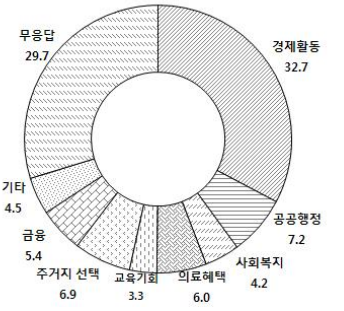
(2) 차별 경험 부분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관련 불공평한 대우'가 3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에서 취업이나 생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 출신인 미주 및 유럽 그리고 일본 출신 시민들은 특히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느꼈으며, 비OECD국가 출신인 동·서남 아시아출신 시민은 주거에 대하여, 중국 등 동북아시아 출신 시민들은 건강의료 분야에 대하여 차별을 느꼈다고 응답하여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응답자의 차별 대우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제활동	109	32.7
공공행정서비스	24	7.2
공공사회복지서비스	14	4.2
건강 및 의료혜택	20	6.0
교육기회	11	3.3
주거지 선택	23	6.9
금융서비스	18	5.4
기타	15	4.5
무응답	99	29.7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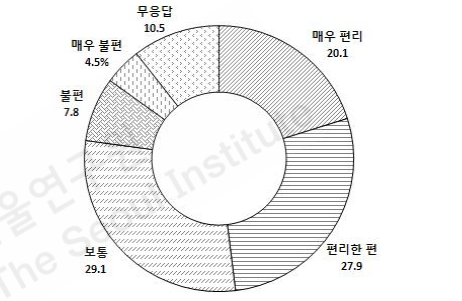
(3)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시·구청, 주민센터, 글로벌센터 이용 등)의 편리성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29.1%, '편리한 편' 27.9%, '매우 편리' 20.1%로 나타나 외국출신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공공행정서비스가 편리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출신 국가별 응답자 가운데 일본출신의 경우 65.1%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국가출신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게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편리	67	20.1
편리한 편	93	27.9
보통	97	29.1
불편	26	7.8
매우 불편	15	4.5
무응답	35	10.5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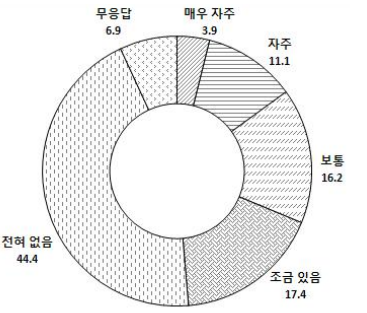
(4)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지역 보건소 및 시 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 44.4%(148명), '조금 있음' 17.4%, '보통' 1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별다른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11.1%, '매우 자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4-16〉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3	3.9
자주	37	11.1
보통	54	16.2
조금 있음	58	17.4
전혀 없음	148	44.4
무응답	23	6.9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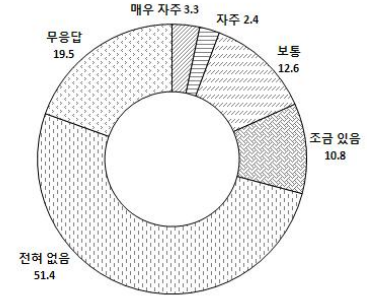
(5)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공교육 기회의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 51.4%(171명), '조금 있음' 10.8%, '보통' 12.6%로 대체적으로 공교육 기회 관련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자주 경험'은 2.4%, '매우 자주'는 3.3%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동북 아시아 지역 출신 서울시민은 20.5%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유럽 및 미주출신 서울시민은 8.1%만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개발 국가 출신 시민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때에 더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7〉 응답자의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1	3.3
자주	8	2.4
보통	42	12.6
조금 있음	36	10.8
전혀 없음	171	51.4
무응답	65	19.5
합계	333	100



3)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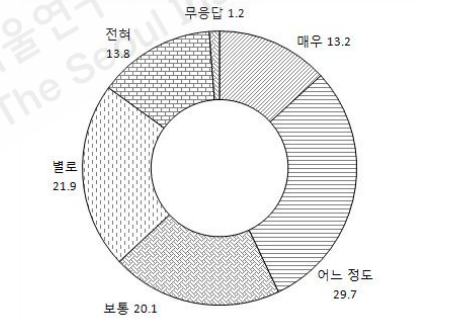
(1)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본인 스스로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29.7%(99명)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 21.9%, '보통' 20.1%, '전혀 그렇지 않다' 13.8%로 서울시민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자신을 서울시민으로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다. 응답자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및 미주 출신 서울시민은 4~60%가 자신을 서울시민이라고 느끼고 있으나, 일본인의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8〉 응답자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44	13.2
어느 정도 그렇다	99	29.7
보통이다	67	20.1
별로 그렇지 않다	73	21.9
전혀 그렇지 않다	46	13.8
무응답	4	1.2
합계	333	100



(2)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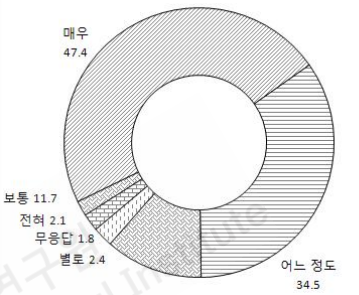
<자신의 모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7.4%(1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4.5%(115명)로 그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보통이다'라

고 대답한 경우가 11.7%,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와 2.1%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자국의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OECD국가 출신은 83.9%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OECD국가 출신은 74.8%가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OECD국가 출신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58	47.4
어느 정도 그렇다	115	34.5
보통이다	39	11.7
별로 그렇지 않다	8	2.4
전혀 그렇지 않다	7	2.1
무응답	6	1.8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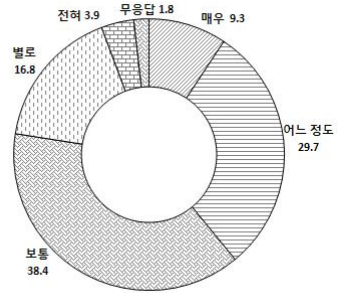
(3)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자신의 모국 문화를 서울시민이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

〈표 4-20〉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31	9.3%
어느 정도 그렇다	99	29.7%
보통이다	128	38.4%
별로 그렇지 않다	56	16.8%
전혀 그렇지 않다	13	3.9%
무응답	6	1.8%
합계	333	100



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8.4%(128명)로 가장 높았으며, '어느 정도 존중해 준다'는 의견이 29.7%, '별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16.8%로 나타났다. 이 외에,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9.3%,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자기개발과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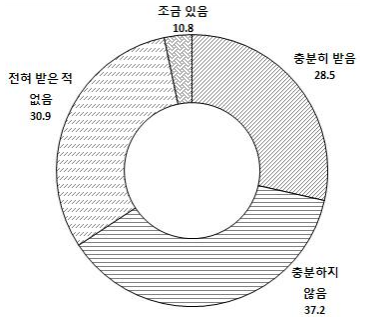
(1)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한국어 교육 등) 또는 훈련 경험을 파악하고자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서울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한국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28.5%였다. 한편,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30.9%로 비교적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유럽 및 미주출신은 36.5%, 동남아국가 출신은 27.4%가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중국 출신의 경우 6%만이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21〉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95	28.5
충분하지 않음	124	37.2
전혀 받은 적 없음	103	30.9
무응답	11	3.3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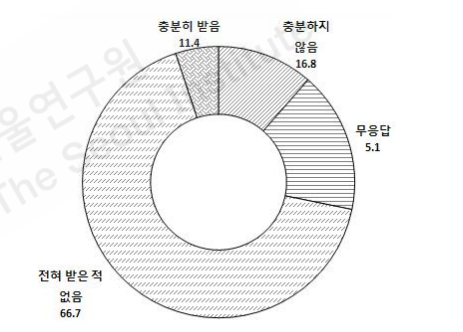
(2)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66.7%(222명)로 상당히 높았으며,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16.8%,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1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OECD국가 출신인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0.3%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출신은 5~10%가 교육 및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7.5%나 되었는데, 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기보다는 두 나라의 경제구조가 비슷해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2〉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38	11.4
충분하지 않음	56	16.8
전혀 받은 적 없음	222	66.7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3)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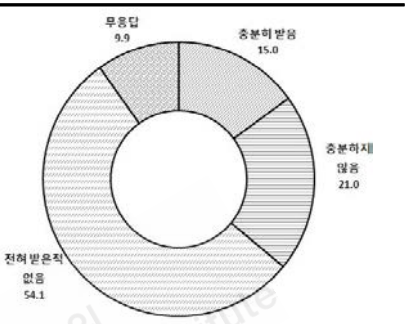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고용된, 혹은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혀 받은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1%(180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받았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21.0%,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15.0%로 밝혀졌다. 교육 및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일본출신은 2.5%, 중국출신은 9.1%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아국가 출신은 19.4%, 유럽 및 미주출신은 24.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다른 문화권 출신자들에게는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응훈련을 도와주지만, 같은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출신에게는 비교적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3〉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50	15.0
충분하지 않음	70	21.0
전혀 받은 적 없음	180	54.1
무응답	33	9.9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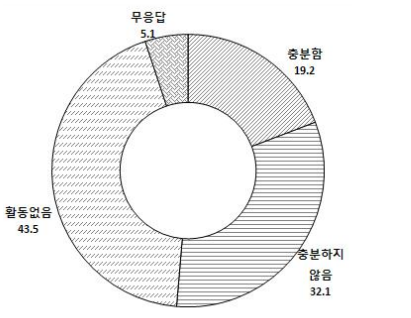
(4)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3.5%(145명)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활동을 하되

〈표 4-24〉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함	64	19.2
충분하지 않음	107	32.1
활동 없음	145	43.5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32.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활동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응답은 1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동남아국가 출신은 27.4%,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5.7%가 모국과 관련된 문화 및 종교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중국출신은 13.6%, 일본출신은 2.5%만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와 헌신

(1)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응답자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과 빈도에 대해서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을 조금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1%(77명)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조금 한다는 응답이 14.1%(47명)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 모임 활동, 정치 참여 활동,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 각각 38.4%, 64.0%, 38.4%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5〉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자주	자주	보통	조금 있음	전혀 없음	무응답	합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빈도	33	40	55	77	68	60	333
	비율	9.9	12.0	16.5	23.1	20.4	18.0	100
지역주민 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빈도	14	11	43	73	128	64	333
	비율	4.2	3.3	12.9	21.9	38.4	19.2	100
사회봉사활동	빈도	16	20	45	47	139	66	333
	비율	4.8	6.0	13.5	14.1	41.7	19.8	100
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빈도	5	5	17	19	213	74	333
	비율	1.5	1.5	5.1	5.7	64.0	22.2	100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	30	23	42	45	128	65	333
	비율	9.0	6.9	12.6	13.5	38.4	19.5	100

(2)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의사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에 대한 미래 참여의사가 79.1%(1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참여의사는 31.7%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63.9%, 지역주민 모임 59.8%,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56.8% 등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의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6〉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의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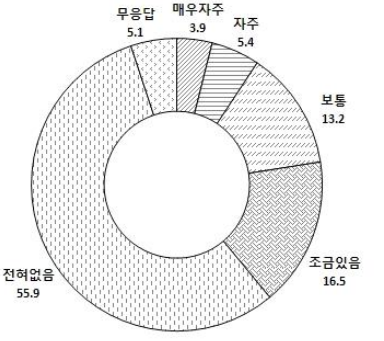
구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지역주민 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사회봉사활동		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82	79.1	128	59.8	145	63.9	70	31.7	126	56.8
아니오	48	20.9	86	40.2	82	36.1	151	68.3	96	43.2
합계	230	100	214	100	227	100	221	100	222	100

(3)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표 4-27〉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3	3.9
자주	18	5.4
보통	44	13.2
조금 있음	55	16.5
전혀 없음	186	55.9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5.9%(18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금 있다' 16.5%, '보통' 13.2%, '자주' 5.4%, '매우 자주' 3.9%로 공공기관을 통한 의견 제시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외국출신주민은 일본인으로 전체의 15%가 '매우 자주 의견을 제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국출신 주민은 6.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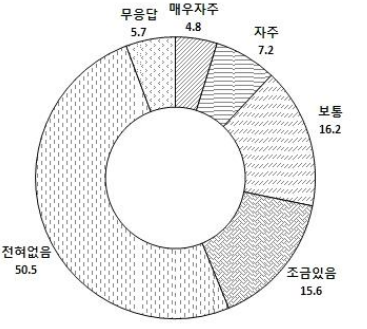
(4)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5%(1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있다' 15.6%, '보통' 16.2%, '자주' 7.2%, '매우 자주' 4.8%로 내국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인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3.0%, 일본출신은 12.5%가 단체 및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OECD국가인 동남아 국가 출신은 6.5%, 중국출신은 5.7%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6	4.8
자주	24	7.2
보통	54	16.2
조금 있음	52	15.6
전혀 없음	168	50.5
무응답	19	5.7
합계	333	100



2. 내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ver.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서울지역 거주 내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연구의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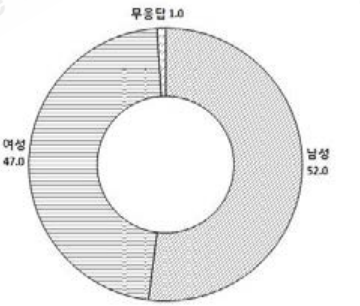
(1) 성별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33명(52.0%), 여성이 301명(47.0%)로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남성	333	52.0
여성	301	47.0
무응답	6	1.0
합계	640	100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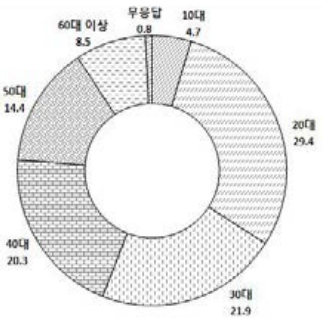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40대가 각각 21.9%, 20.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10대 4.7%, 50대 14.4%, 60대 이상 8.5%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4-30〉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대	30	4.7
20대	188	29.4
30대	140	21.9
40대	130	20.3
50대	92	14.4
60대 이상	54	8.5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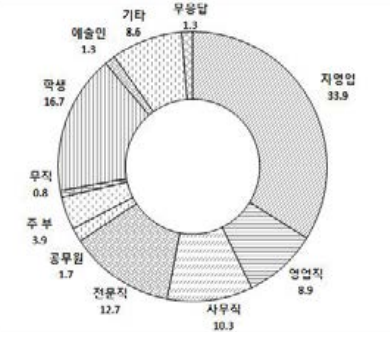
(3) 직업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생'인 경우가 전체의 16.7%, '전문직'이 12.7%, '사무직'이 10.3%, '영업직'이 8.9%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4-31〉 응답자의 직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영업	217	33.9
영업직	57	8.9
사무직	66	10.3
전문직	81	12.7
공무원	11	1.7
주 부	25	3.9
무직	5	0.8
학생	107	16.7
예술인	8	1.3
기타	55	8.6
무응답	8	1.3
합계	640	10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경험

(1)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외국출신주민을 자주 만나거나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 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라는 대답이 27.7%,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라는 대답은 15.0%,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척 한다'는 대답은 13.8%로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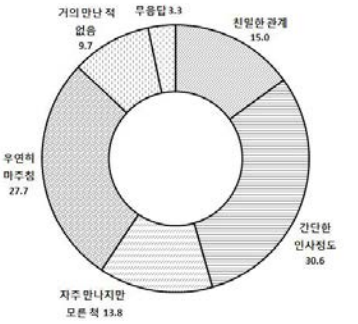
연령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출신주민과 자주 만나고 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전체 응답 중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40.0%, 34.4%로 가장 높은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주 만나며 인사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46.0%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만나며 친밀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0대가 2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는 10대와 20대에서 높지만 거리감이 없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세대별 접촉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외국출신주민과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자주 만나며 인사 정도 하는 사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직(21.3%, 25.0%), 자영업(17.0%, 42.7%), 영업직(14.3%, 32.1%) 등에서 비교적 외국출신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4-32〉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	96	15.0
자주 만나며 간단한 인사정도	196	30.6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 척	88	13.8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	177	27.7
거의 만나 적 없음	62	9.7
무응답	21	3.3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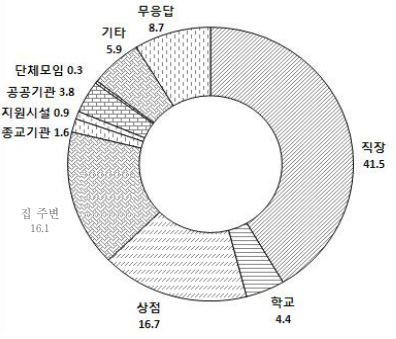
(2) 외국출신주민 접촉 주요 장소

<주로 어느 곳에서 외국출신주민을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직장'이라는 대답이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상점'(16.7%), '집주변'(16.1%)이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이 거주지역이기도 하지만, 외국출신주민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에, 거주지 외에 직장이나 상거래 활동을 하는 상점 등에서 접촉빈

〈표 4-33〉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장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장	266	41.5
학교	29	4.4
상점	107	16.7
집 주변	103	16.1
종교기관	10	1.6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설	6	0.9
공공기관	24	3.8
단체모임장소	2	0.3
기타	37	5.9
무응답	56	8.7
합계	640	100



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직장'이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곳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온 데 이어서 이태원동(35.0%), 연남동(25.8%), 가리봉동(29.7%), 방배동(25.0%), 성북동(22.2%), 이촌동(22.2%), 독산동(24.3%), 창신동(22.5%)의 경우 '집주변'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접촉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역이 외국출신주민 밀집 거주지역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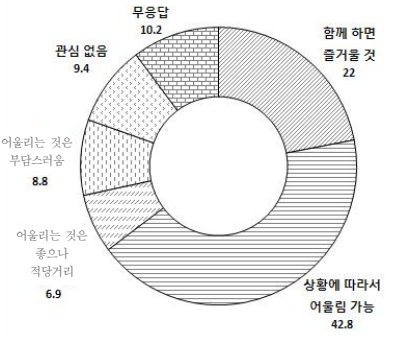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이전 반응에 대해서는 42.8%가 '상황에 따라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보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다음 순위로 22.0%가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64.8%를 차지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외국출신주민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도 그들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

〈표 4-34〉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함께 하면 즐거울 것	141	22.0
상황에 따라서 어울림 가능	274	42.8
어울리는 것은 좋으나 적당한 거리 필요	44	6.9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러움	56	8.8
관심 없음	60	9.4
무응답	65	10.2
합계	640	100



하는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상 외국출신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지역은 이태원, 가리봉, 자양동, 역삼동, 방배동, 동대문 등으로 조사되었다.

(4)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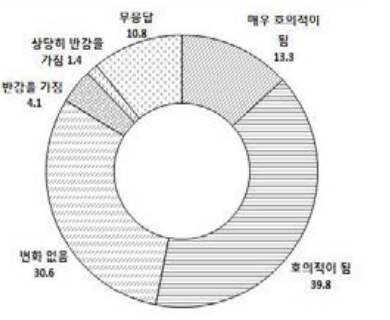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이후 '호의적이 되었다'는 대답이 전체의 39.8%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호의적이 되었다'는 대답도 13.3%로 나타나 호의적으로 변한 경우가 반 이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접촉 이전(앞의 <표 4-34>)에 이미 64.8%가 호감을 가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의견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출신의 경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7.3%,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3.7%로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경우 위와 같은 응답이 각각 6.8%, 1.7%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출신(일본-3.6%, 미국 및 아메리카지역-5%, 나머지-0.0%)에 비해 중국

〈표 4-35〉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호의적이 됨	85	13.3
호의적이 됨	255	39.8
변화 없음	196	30.6
반감을 가지게 됨	26	4.1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됨	9	1.4
무응답	69	10.8
합계	640	100



및 동남아시아 출신주민과 접촉 이후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 가치관,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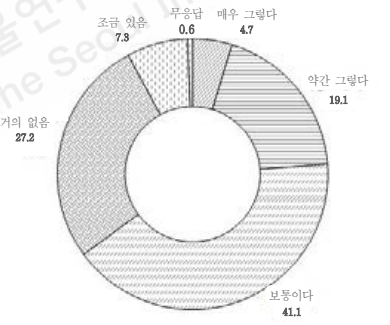
수용에 관한 인식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1.1%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27.2%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응답자 스스로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36〉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47	4.7
약간 그렇다	174	19.1
보통이다	263	41.1
거의 그렇지 않다	122	27.2
매우 그렇지 않다	30	7.3
무응답	4	0.6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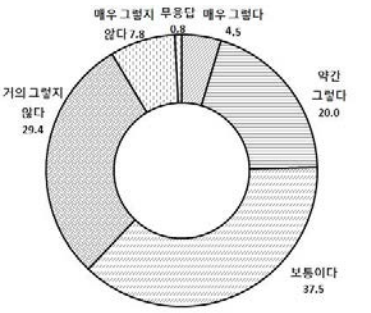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7.5%가 '보통이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9.4%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앞선 질문에서 선입견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에 비해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만큼의 시민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표 4-37〉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9	4.5
약간 그렇다	128	20.0
보통이다	240	37.5
거의 그렇지 않다	188	29.4
매우 그렇지 않다	50	7.8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지금까지 질문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시민들의 가치관 및 의식을 묻고자 했다면 다음의 여덟 가지 문항은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원주민인 한국인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관계맺음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 척도(Social Distance Scale)[64]을 활용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기준은 '사회적 관계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로 구분하여 동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각각의 세부문항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한국을 방문하는 것 ②한국 국민이 되는 것 ③직장동료가 되는 것 ④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⑤자녀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⑥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⑦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⑧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총 8개로 분류하였다.

64) 이는 Bogardus에 의해 최초로 적용된 개념으로서 사회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우호적, 비우호적 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실증연구에 사용된다.

1)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4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약간 동의한다'가 26.3%로 나타나 외국출신주민이 방문목적으로 한국에서 지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 '한국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한다'가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27.7%, '보통이다'가 26.7%를 차지한데 반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1.7%,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5.3%로 나와 시민의 대부분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35.2%가 '약간 동의한다'고 받아들였으며, 그 뒤를 이어 32%가 '매우 동의한다', 23.1%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앞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장소를 직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이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34.4%였다. 이 역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 집주변에서 자주 마주치는 등, 나의 가까운 이웃으로 외국출신주민이 있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자녀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2.7%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35.2%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약간 동의한다'는 대답도 34.4%로 높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6)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자녀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과 별개로, 나와 직접적인 친구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36.7%를 차지해, 이 역시 긍정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7)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9.8%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20.6%가 '약간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가 20.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3.8%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앞서 친구관계와 달리 '동의하지 않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8)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동의한다'가 19.1%로 나타났다. 한편,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9.5%,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가 17.7%를 차지했다. 이는 앞의 질문과 결과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덜 허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38〉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	적극적 동의	무응답	합계
한국을 방문하는 것	빈도	2	13	127	168	316	14	640
	비율	0.3	2.0	19.8	26.3	49.4	2.2	100
한국 국민이 되는 것	빈도	11	34	171	232	177	15	640
	비율	1.7	5.3	26.7	36.3	27.7	2.3	100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빈도	13	31	148	225	205	18	640
	비율	2.3	4.8	23.1	35.2	32.0	2.5	100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빈도	10	21	146	226	220	17	640
	비율	1.6	3.3	22.8	35.3	34.4	2.7	100
자녀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빈도	12	23	145	220	225	15	640
	비율	1.9	3.6	22.7	34.4	35.2	2.3	100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빈도	8	31	141	209	235	16	640
	비율	1.3	4.8	22.0	32.7	36.7	2.5	100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빈도	88	131	191	132	82	16	640
	비율	13.8	20.5	29.8	20.6	12.8	2.5	100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빈도	125	113	182	122	76	22	640
	비율	19.5	17.7	28.4	19.1	11.9	3.4	100

4)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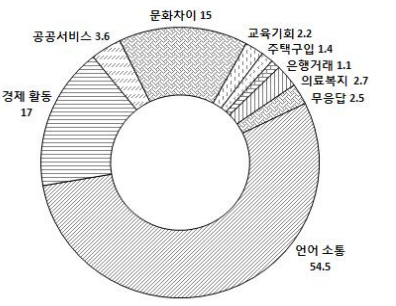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질문 결과, '언어문제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 어려움'이라는 대답이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물었던 질문에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느낀다던 답변과 연관되는데,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 소통 능력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 기회의 제한 및 근로조건의 불평등 같은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이라는 대답이 17.0%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역시 타국에서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평등하지 못한 노동조건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서적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5.0%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낯선 이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의 현실을 잘 헤아리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 밖에, '시청·구청·동사무소와 같은 공공행정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의견도 3.6%를 차지했다.

〈표 4-39〉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언어 소통	349	54.5
경제 활동	109	17.0
공공 행정서비스 이용	23	3.6
문화·정서적 차이의 일상 생활 문제	96	15.0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제한된 교육기회	14	2.2
주택 구입·임대	9	1.4
은행(신용) 거래	7	1.1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17	2.7
무응답	16	2.5
합계	640	100



외국출신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란 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직업과 지역으로 대부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별히 '직업'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는 다르게 '경제활동'(27.3%)이나 '문화적·정서적 차이의 일상 생활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1순위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외국출신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정서적 차이에 따른 이해부족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3.4%가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성인뿐 아니라,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 2세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학업성취부족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이 교육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 4-40〉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제활동 서비스 강화	56	8.8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44	6.9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151	23.6
교육과정과 인력 확충	178	27.8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	150	23.4
주택 구입·임대 관련 정보 제공	19	3.0
은행(신용)서비스 이용 지원	19	3.0
기타	8	1.3
무응답	15	2.3
합계	640	100

처럼 교육적인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은 현실과 연계된 해결책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를 차지하였다.

제3절 내·외국출신주민 인터뷰조사 결과

1. 체류 유형별

체류 유형별 외국출신주민들이 겪게 되는 한국, 서울사회의 모습이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중 대부분이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부정적 편견을 나타낸다는 점을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타 문화권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인도적 처우를 요청하는 내용도 상당수 있었다.

근로지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및 호칭과 한국인 동료와의 불평등한 급여 등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동일 시간 노동을 하지만, 이주노동자 임금이 한국인보다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비교적 떨어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소통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이 욕설을 한다거나 출신 국가에 대한 비하 발언을 농담처럼 할 때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을 강요받는다.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한국사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장기체류하게 될 경우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강화되는 것이다.

〈표 4-41〉 외국출신주민노동자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비OECD국 출신국 노동자에 대한 경시 태도 경험 •같은 직장 내 한국인 동료와의 급여 불평등 문제 •비싼 주택임대료와 학비(공부하고 싶지만 비싼 학비로 포기) 문제 •잦은 불법체류자 단속과 비인도적 대우 •근무시간이 많아 사교 및 사회활동 불가 •타 문화권(이슬람) 관습 및 종교에 대한 몰이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복지 서비스 열악(특히 야간시간의 응급 진료) •미디어를 통해 외국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및 동등한 기본권 의식 교육

2)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도 정착 초기 결혼이민자 그룹과 한국생활 적응 결혼이민자 그룹은 어려움 및 개선요구 사항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생활한 기간과 한국 사회 적응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상이한 경험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정착 초기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남편 가족과의 관계, 대화상대 부재 및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 등이 인터뷰의 주요 발언 내용이었다. 반면, 이미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스스로 한국생활에 적응했다고 여기는 결혼이민자 그룹은 자녀 양육 및 경제활동에 있어 내국주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더불어, 현재 외국출신주민지원 서비스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출신주민 스스로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등을 요청하였다. 인터뷰 결과 내용 중 주목할 점은 한국생활 적응 결혼이민자 그룹에게도 여전히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무시가 견디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점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이다. 한국사회 정착 초기 단계와 달리, 이들이 언어와 문화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자녀의 문제로 이전되는데, 엄마가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무시를 받거나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이뤄지기를 바랬다. 또한, 모국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한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다문화 강사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단,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체계적인 교육과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이 자녀들이 생활하는 교육현장에 직접 찾아가 모국의 문화를 알릴 기회를 갖는 다문화 강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가 이들을 외국출신주민 지원 서비스의 시혜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며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바라보고 이해해주기를 희망했다.

〈표 4-42〉 결혼이민자 그룹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정착 초기 결혼이민자 그룹	한국생활 적응 결혼이민자 그룹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불편 •정착 초기 가족 외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 •남편 가족의 모국에 대한 무시 발언 •귀화신청 원하나 남편이 신청을 거부하며, 2년마다 비자 연장 불편 •학부모 모임 및 외부활동이 거의 없음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학교에서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무시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오해 및 편견 •다문화강사 채용기간 연장 및 취업지원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강사 및 내용의 질 확보(문화적 상호이해 교육 외 보편적 인권교육내용 포함)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사회 참여

3) 유학생

유학생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그 수가 날로 증가하는 이주민 그룹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학생의 양적 증대로 해당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서울시에 초기 정착할 당시를 회상하며, 생활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뷰 결과, 현재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설된 글로벌센터 및 빌리지센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한 초기 정착기에 대부분 한국어 간판으로 안내되어 있는 시내에서 활동하는 것 역시 유학생들에게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출신주민이라면 한국사회 적응초기에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는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결 방안으로 생활정보나 길안내와 같이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외국출신주민들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내국주민의 포용적인 자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출신주민들 역시 개방적인 태도로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표 4-43〉 유학생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초기 정착 시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함 - 서울시의 글로벌센터 및 빌리지 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 대부분 간판(안내표지)이 어려운 한국어로 불편함 - 핸드폰 등 계약 관련 문제와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 어려움 - 백인 외국출신주민에 비해 아시아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경시하는 태도가 많음 -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에 대해 더 개방적 태도로 어울리도록 노력해야 함

2.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거주 및 활동 내·외국출신주민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내·외국출신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경험하거나 평소 생각했던 바를 질문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의 응답에서 거주 및 활동 공간의 범위에 따라 내·외국출신주민들의 공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따라 밀집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들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출신국가·문화권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동일하게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다. 내·외국출신주민들이 공간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생활하고 있어 간접적인 접촉은 빈번해졌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소통이나 교류 등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다. 이에 따라, 경험의 부족으로 상호 간, 특히 내국주민들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신 국가나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내국주민들의 사회적 거리감으로도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개발국에서 이주한 외국출신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용산구 이촌동, 한남동, 서초구 반포4동 서래마을 등에서는 내·외국출신주민이 상호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저개발국에서 이주한 외국출신주민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종로구 창신동, 광진구 노유동 등)에서는 공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주로 나타났다.

1)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외국출신주민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외국출신주민들의 인터뷰 결과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종로구 창신동 네팔인 거리나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아프리카 거리, 구로구 가리봉 엔벤 거리 등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은 내국주민들로부터 무시 또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유학생> 집단의 인터뷰 발언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국주민들이 외국출신주민들의 출신 배경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4-44〉 외국출신주민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 한남동, 이촌동, 서래마을 거주 외국출신주민들은 내국인 주민과의 마찰 별로 없음 - 창신동 네팔인 거리, 광희동 몽골타운, 이태원 이슬람·아프리카 거리, 가리봉 엔벤 거리 거주 - 외국출신주민들은 한국인들에게 무시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네팔인 및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는 주로 금전적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있음 - 출입국 사무관, 경찰 등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란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말이 통하지 않아 한국인과의 갈등 시 한국인 얘기만 들음

2)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내국주민

대부분의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내국주민들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하여 일정 정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친근감을 느끼며, 상호 간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내국주민들은 외국출신주민들과 '이웃'으로서 소통하며 상대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참여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현재 내·외국출신주민의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설

〈표 4-45〉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내국주민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 이태원 지역 유흥가에 대한 내국주민의 거부감이 강하며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 가리봉동은 외국출신주민 주민들로 지역 상업 매출이 좋다는 의견과 함께, 외국출신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내국인 주민도 있음 - 한국 뉴스보도 등으로 이슬람 국가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 - OECD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며, 이촌동, 서래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 거의 없음 - 현재 활발하게 열리는 다문화 축제는 내·외국 출신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행사가 아님

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외국출신주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할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접근을 통해 내국주민 또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하여 외국어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했다.

3)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외국출신주민이 서울시 생활에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관에서의 실제 상황(기관 운영,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외국출신주민 지원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실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중 중심축이 되는 글로벌센터와 각 지역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표 간담회를 병행한 것이다.

(1)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직원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직원의 주요 인터뷰 결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수급이 항상 불안정하다는 면이 나타났다. 공공기관 외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특성상 정규 인력은 소규모이고, 대부분 프로그램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진행되어 지속적 인력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전문 강사가 부족하여 초급 교육에만 집중되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출신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언어소통'인 점을 감안하면 우수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체류 형태나 목적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나 수준 및 단계가 학습 당사자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예산이나 운영상의 조건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기관의 정규직 인력이

적은 것도 현실적인 한계로 지적되었다. 비록,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증가하고 있지만 꾸준하지 않아 인력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의 부족한 연결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이는 서울시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추구하는 의미와도 관계가 깊다. 즉, 외국출신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출신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 및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개별 기관 차원의 지원을 넘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의 <표 4-46>은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4-46〉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직원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 기관 이용 외국출신주민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 부족 - 외국출신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으나, 관련 교사 부족 - 자원봉사자로 진행되는 교육운영체제로 인해 교사수급이 항상 불안정 - 지속적이며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전문적 한국어 강사 육성 및 지원 필요 -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어려워 외국출신주민들만의 행사가 되는 한계 - 외국출신주민들이 직접 필요를 느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물적 지원 필요 - 대상자 관리에 있어 한 기관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보다는 타 지역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 정보 공유 필요

(2) 서울시 글로벌·다문화빌리지센터 직원 인터뷰 결과

빌리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현재 센터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의 고충과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또한, 센터 방문 외국출신주민들의 센터 활용 후 반응이라든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했다.

인터뷰에 응한 빌리지센터 직원들의 답변에서는 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없어 운영상 혼란이 많다는 점이 가장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서울시에 센터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외에, 각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커뮤니티와 빌리지센터 간의 협조가 미흡함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대상 및 목적별로 개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간의 통합적인 연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각 기관 실무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내·외국출신주민들을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빌리지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표지판 등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도 요구되었다.

〈표 4-47〉 빌리지센터 직원 대상 인터뷰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센터마다의 동일 지침 필요
•소규모 인력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및 단기간 행정 인턴 파견은 미봉책 불과
•한국문화예술(한지공예, 사군자 등)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출신주민의 높은 만족도
•센터장 및 내부 직원 간 원활한 소통 어려움
•센터마다 센터장 역할이 다르고 불분명, 센터장에 대한 기본적 업무 분장 필요
•지역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 프로그램 미흡, 센터와의 프로그램(행사) 중복 문제
•다양한 국적의 외국출신주민들이 직접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센터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요구

4) 간담회

서울글로벌센터 관장 및 팀장, 각 빌리지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점은 운영상의 제한이었다. 즉, 센터 간 동일한 지침 및 운영방법이 없어 각 지역 다문화·빌리지 센터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점이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운영상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또는 글로벌센터를 통해 일괄적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빌리지센터가 분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또한, 타 지원기관의 실무진 인터뷰 결과에서와 같이 센터 운영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일반 행정 업무를 보는 인력과 언어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인력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량에 비해 확보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대안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지만 유동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인력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다문화·빌리지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그 중 내·외국출신주민과의 통합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특히 내·외국출신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활동 등은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희망하였다. 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의 표 <4-48>에서 정리하였다.

〈표 4-48〉 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

주요 발언 내용
•서울글로벌센터 프로그램 수에 비해 협소한 공간
•일정 수준 빌리지센터 업무에 대한 동일한 지침 필요
•내국인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설 필요 - 교환 방식의 언어교육/문화교류/봉사 동아리
•외국출신주민 및 내국인 자원봉사자 인력풀 활용
•빌리지센터에는 문화교류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특성 부여
•조직 내 서울시/구청/SBA, 외국출신주민/내국인 직원 등 조직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한 마찰
•센터장과 내국인 직원 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제4절 소결

4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거주 내·외국출신주민들의 지역사회 내 공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응답자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터뷰 조사와 간담회에서는 대상을 집단별로 분류하여 특성화된 질문에 따라 심층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

습과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한 관련 정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실태조사는 내·외국 출신주민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있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설문조사의 경우, 편의상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시내 외국출신주민의 거주 지역 분포에 따라 세부 지역을 구분하여 외국출신주민 조사의 경우 총 8개 지역을, 내국인 조사의 경우 총 16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개별 응답자의 선정도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부탁을 하는 방식을 취한 점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는 일반화의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접근을 하되, 특정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집단별 구성의 분포를 고르게 하지 못해 미흡하였다. 성별 변수는 의도적으로 응답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으나 세대 혹은 직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건에 분포를 고르게 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조건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출신주민'으로 묶이는 전체 집단 내에서 공통분모인 '서울'이라는 공간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방문목적, 즉 체류 유형별로 다르기도 하며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거주기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초기 정착단계에서부터 적응단계,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발전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국출신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상이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

4장의 결과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출신국가나 인종 등의 출신 배경에 따라, 외국출신주민을 대하는 내국주민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라는 점이다. 특히, 블루칼라에 집중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주민으로부터 불합

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백인이거나 경제적으로 발전된 개발 국가가 아니면 내국주민들의 태도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도 여전히 주류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고충은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내국주민들의 이중적 태도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겉으로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동등하다'는 생각보다 여전히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외국출신주민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였던 실무자 인터뷰와 간담회의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출신주민들의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외국출신주민들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내·외국출신주민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내·외국출신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5장 결론 : 글로벌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1절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의 한계점
제2절 보다 큰 가치 지향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제5장 결론 : 글로벌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이 연구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출신주민들과 글로벌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출신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국경을 넘어 정착해 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 관련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원의 정착에 따른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배경의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생활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였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조사 결과, 내·외국출신주민들 간에는 '다름'에 대한 존중의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구성원을 포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최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내·외국출신주민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의 한계점

1. 주요 내용

지난 몇 년간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적 정책 대상자인 외국출신주민들의 고민이나 여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정리하여 보면 총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출신주민들을 위한 공간적인 고민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 및 생활 환경 등 커뮤니티의 사회,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서래마을'이나 '한남 독일마을' 같이 매력을 가지고 내·외국출신주민들 모두 즐겨 찾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있는 반면, 일부는 낙후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일부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향후 슬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공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차별화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담당 부서의 체계와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못하여 동일 내용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지

닌 외국출신주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내국주민들도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외국출신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주민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외국출신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스터, 관련 홍보물 발행 등에 있어 다양한 외국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아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출신주민이 접근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내·외국출신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였다. 내·외국출신주민들은 아직까지 인식 측면에서 서로 낯설고 어색한 상대로 느끼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상호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내·외국출신주민들이 서로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발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의 한계점

지금까지의 외국출신주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보편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 단계상 초기 정착단계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의 보편성이란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 것이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대상자를 등록 외국출신주민(합법 체류자)에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출신주민은

정책적 혹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보편적 인권규범을 들어 외국출신주민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등한 정책 대상자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외국출신주민의 수와 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서울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 초기단계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즉, 외국출신주민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으며,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외국출신주민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와 기여 단계에 따른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보다 큰 가치 지향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1.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의 물질화와 개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의식수준 등 내적인 변화가 경제발전 등 외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그룹 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외국출신주민이 급증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외국출신노동자와 내국출신노동자 간 '노-노'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의 '외국출신주민 혐오증' 내지는 '외국출신주민 배척', '이주 청소년의 입학거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권 간의 충돌은 집단 간의 '필요한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집단 간 이해관계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향후 '새로운 한국 사회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로간의 이해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행정적, 사회문화적 등 다음의 3가지 사회통합 방안을 고려하였다.

2.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1) 제도적 접근

현재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국제적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는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인권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관련 규정들은 이러한 수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몇 가지의 법 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처우가 동화주의적 입장이 아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 매우 한정되어 있는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국출신주민들과 다문화 출신 가족을 포괄해야 한다.

셋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에게만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은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외국출신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2) 행정적 접근

(1) 통합형 거버넌스의 구축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연계 전략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래 공공영역 밖의 외국출신주민지원기관(민간·종교단체)의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제공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제 등을 통한 통합적 기관 운영 및 서울시 관리 방침,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사회통합 기구 개선안

2010년 하반기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하여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사회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팀이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과'의 하부 구조로 조직되어 있어 차후 조직 개편 시 상하 위계구조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3) 글로벌센터 및 빌리지센터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지원시스템인 서울 글로벌센터와 빌리지센터는 기능 중복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가능성에 비하여 아직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통합 기능 강화, 전문성 증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전문 인력의 사회참여 유도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통합 기능 강화를 위해 특정 국가 및 문화권 출신 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반쪽짜리 역할을 수행하였던 이들 센터를 '내외국출신주민 공동이용센터' 개념으로 접근하여 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출신주민의 유형을 정책의 대상으로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 출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서울의 사회통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 센터의 현재 중복되고 혼재되어 있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즉, 글로벌센터는 총괄·기획으로, 빌리지센터는 집행으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더불어 글로벌센터는 통합행정서비스 제공 및 국제교류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원단체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조정을 강화하며, 빌리지센터는 국제문화이해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실제 집행사업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센터 간 기능 조정 및 기관 운영 전문성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외국출신주민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호 이해와 문화 등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연결망을 보유한 외국출신주민력 보충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공간적 접근

향후 외국출신 커뮤니티 가운데 일부는 일반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에 흡수될 것이며, 일부는 현재 커뮤니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첫째, 거주지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밀집화를 억제하는 경우, 퓨전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임대주택을 통한 내국주민들과의 혼합주거를 추구하여, 공간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고려한다.

둘째, 거주지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그대로 방치한다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내국출신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려 서울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매력 요소 특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노력과 함께 관광자원화 및 상권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외국출신주민 주민 공동 참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발전)주민위원회의 외국출신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접근

제도 및 행정, 공간적 접근에 따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책적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4장에서 내·외국출신주민의 공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시민 스스로 생각하는 구성원 간 갈등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 결과,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 소통의 부족 및 어려움'이라는 대답도 29.4%로 높아 외국출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과 상호이해가 사회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동시에 선거권 부여를 통한 참여의식 확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1)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향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36.9%)라는 대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으로서 한국인 스스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한 준비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2) 참정권 부여

글로벌 시민권이란 인종,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

시에 사회에 일정 부분 참여시킬 수 있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외국출신주민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진학, 취업, 승진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외국출신주민에게 유럽 같이 지자체 투표권을 부여하며, 시의회의 일정부분을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비례대표로 배정하여 실제 참정권 행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렇듯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을 추구한다. 그것은 외국출신주민에게는 서울의 '드림'(Dream)을 상상하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내국주민에게는 글로벌 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동등한 서울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공존하며 살 수 있다.

즉,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범람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서 사회·문화·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 도시, '글로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표 5-1〉 단계별 사회통합 정책 추진 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행정기관 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기존 글로벌센터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언어교육 등) •내외국민 멘토링제 운영 (취업·교육 분야 적극 활용) •내·외국민 공동참여 프로젝트(장기간 지속)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재조정 •외국출신주민의 공직 및 공공기업 진출 개방 •민관 파트너십 체결 및 민간단체 인증제 도입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공간 계획	•사회공동주거 계획 •공교육 이탈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제2기회'학교 설립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관용 정책 •외국출신주민의 참정권 보장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참 고 문 헌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참고문헌

〈문헌자료-영문〉

Abada. T., Hou. F., & Ram. B., 2007, Racially mixed neighborhoods, perceived neighborhood social cohesion, and adolescent health in canada., 2004-2017

Cheong. P. H., Edwards. R., Goulbourne. H., & Solomos. J., 2007, Immigration, social cohesion and social capital: A critical review., 24-49

Fanning. B., 2009, Immigration and social cohesion., 273-283

Hooghe. M., Reeskens. T., & Stolle. D., 2007, Diversity, multiculturalism and social cohesion: Trust and ethnocentrism in european societies., 387-410

Jansen. Th., Chioncel. N., & Dekkers. H., 2006, Social cohesion and integration: Learning active citizenship., 189-205

King & Samii, 2009,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Interventions to Promote Social Cohesion in Sub-Saharan Africa」3IE Synthetic Reviews No. 2 Protocol March 2009

Kymlicka.W. & Wayne N. eds., 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ov. Press

Morrison. N., 2003, Neighbourhoods and social cohesion: Experiences from europe., 115-138

Reeger. U., & Borsdorf. A., 2008, Labour migration and social cohesion -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vienna., 135-150

Reitz. J.G., & Banerjee. R., 2007, Racial inequality, social cohesion and policy issues in canada., 489-546

Shukra. K., Back. L., Keith. M., Khan. A., & Solomos. J., 2004, Race, social cohesion and the changing politics of citizenship., 187-196

Chipkin and Ngqulunga, 2008, “local patterns of cooperation”, (Fearon et al, 2009) and “the glue that bonds society together, promoting harmony, a sense of community, and a degree of commitment to promoting the common good”, Colletta et al, 2001

Witten. K., McCreanor. T., & Kearns. R., 2003, The place of neighbourhood in social cohesion: Insights from massey, west auckland., 321-338.

〈문헌자료-국문〉

곽원섭, 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간 다양성 비교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신욱, 2010,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주현, 2008,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강혜숙, 2009, “이주환경에 대응하는 이주노동자의 ‘친밀성’ 전략”,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구인회 외, 2009, “외국출신주민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보건사회연구」, 보건사회연구원

김명성, 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김민재, 2009,「미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김이섭, 2010, "독일문화 : 유럽과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사회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으로",「독어교육」,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김용필, 2008, "다문화 다민족 한국사회의 대두와 도전", 인하대 사회과학대학원 국제 학술세미나, 인하대학교
김정순, 2009,「외국출신주민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김태원, 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형균 외, 2006,「여성결혼이민자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한국사회학회
김혜순, 2010,「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초연구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IOM이민정책 연구원
노대명 외, 2009,「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정연, 2009, <동네이야기> 박물관 구경하고 '리틀도쿄' 즐겨볼까,,, 이촌동 나들이, 레이디경향 6월호
박세훈 외, 2009,「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Ⅰ) :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박정현, 2010,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중국근현대사학회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중국근현대사학회
박채복, 2007, "독일의 이주자정책 :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박채복, 2008,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1호, 한국동북아학회

서종남, 2009,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 연구」 제15-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석현호 외, 2003, 「외국출신주민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설동훈, 2005, 「외국출신주민노동자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설동훈 외, 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한국사회역사학회

양기호, 2010, “전환기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 「국토」 통권 342호, 국토연구원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2009, “한국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 방향”, 이민정책포럼 자료집

유의정 외, 2010, 국회 입법조사처 다문화정책 T/F팀,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2010국회 입법조사처 NARS 정책보고서」 제2호

윤인진 외, 2007,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사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이기범, 2009, “미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이산호, 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28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이유진, 2009,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이규영 & 김경미, 2010,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이선주 외,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한국여성개발원

이진숙, 2004, “사회통합과 외국출신주민 가족복지정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이중섭, 2009,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오, 2004, 「한국의 사회정책 개발 연구 : 사회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임형백, 2009,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전정애 외, 2007,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지원 대책”,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조대엽, 2006, “한국사회의 전환과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한국사회」,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조현미,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 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조연옥, 2008,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정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최동주, 2009, “영국의 이민 관련 제도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채갑주, 2008,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 : 요약”,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영주 외, 2001, 「이태원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형서, 2008, “독일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딜레마와 사회통합정책”,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홍석기, 2008, “외국출신주민 100만 시대를 위한 서울시의 다문화 사회 전략”, 「제13호, SDI 정책리포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석기 외, 2007, 「서울시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석기 외, 2008, 「서울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발간자료〉
서울시, 1993 - 2009, 서울시 통계연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1. 서울 육백년사.
외국출신주민정책위원회, 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I

〈인터넷〉
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http://global.seoul.go.kr/ (서울 글로벌 센터)
http://mcfamily.seoul.go.kr/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플랜)
http://legal.seoul.go.kr/ (법무행정 서비스)
http://ashram.co.kr/5 (아쉬람 : 명상과 인도 이야기)

〈신문기사〉

서울신문, <도시와 길> <21>, 서울 이태원 길

동아일보, 우리 동네 작은 외국 '광화문 몽골타운', 2007.9.17

동아일보, 대한민국 : 공존을 향해 :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특별 인터뷰, 2007.9.17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부 록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부록 1.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부록 3. 시민의견조사 결과
부록 4. 설문지 결과

부록 1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1. 주요 국적별 외국출신주민 분포 현황

2009년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총 258,075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외국출신주민이 거주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GIS상의 주소와 결합한 결과 238,086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었다.[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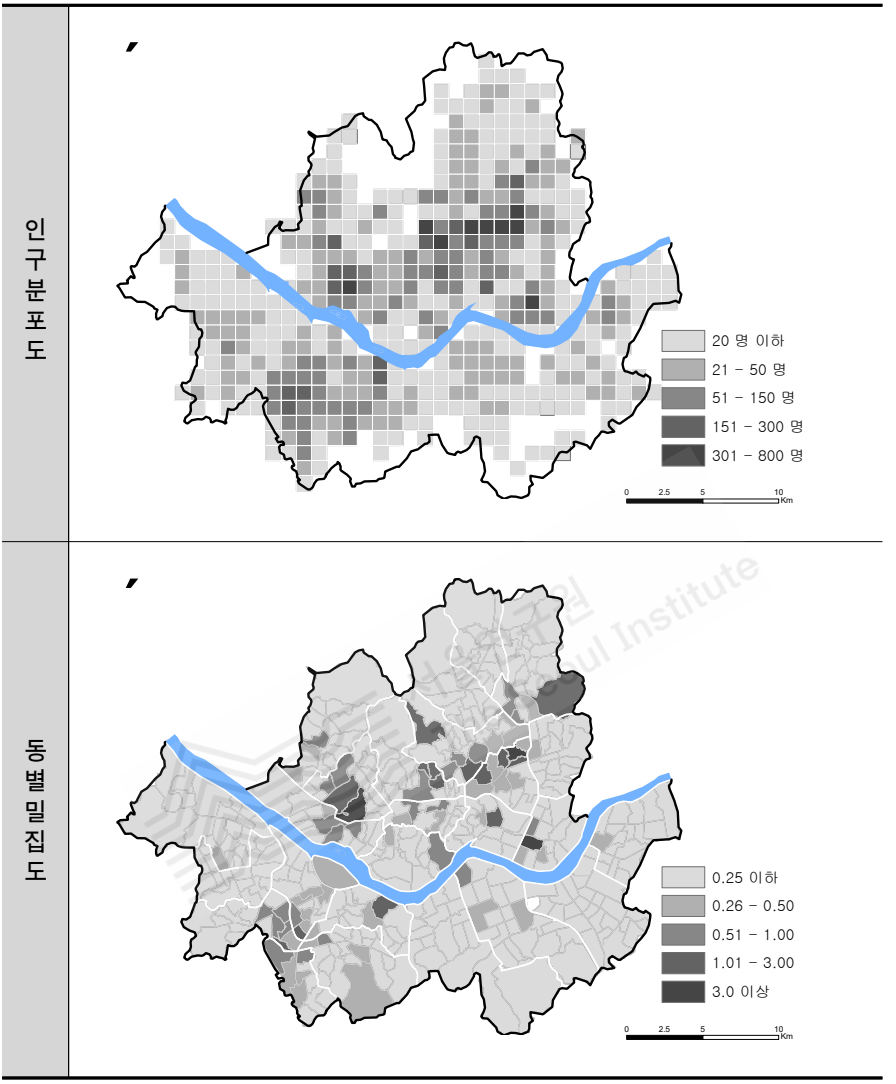
공간 분포 현황은 인구분포도와 동별 밀집도 두 종류의 지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분포도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서울 전체 지역을 1km × 1km의 그리드(Grid)로 구분한 다음 그룹에 따라 나타나는 분포패턴을 통하여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활용하였다. 둘째, 동별 밀집도를 통하여 그룹별 밀집현황을 행정구역(동) 단위로 나타내어 특정 지역의 밀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도면 현황 분석을 통하여 향후 패턴 변화의 기준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책적 목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68.5%를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의 서남권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을 중심으로 2~5 사이의 높은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어 구로공단 인근지역에의 편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 서울시의 201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출신주민을 제외한 서울에 등록된 외국출신주민 총수는 총 255,501명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정책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258,075명으로 2,574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일부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19,989명의 주소가 누락되어 총 238,086명의 분포 현황이 조사되었다.

〈그림 1〉 중국인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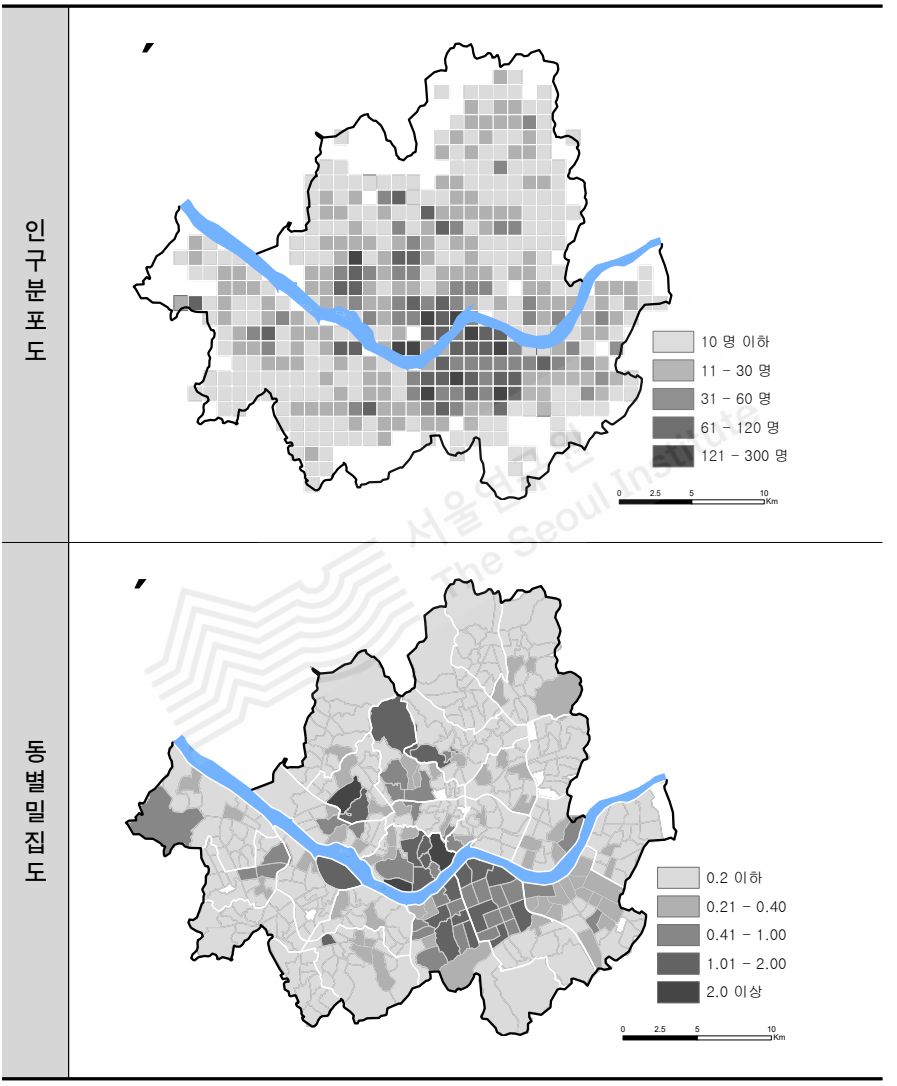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제외)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동북권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종로구 혜화동과 명륜3가동에서 7 이

상, 안암동과 신촌동에서 역시 2~3 이상의 밀집도를 보여주어 대학가 인근 저렴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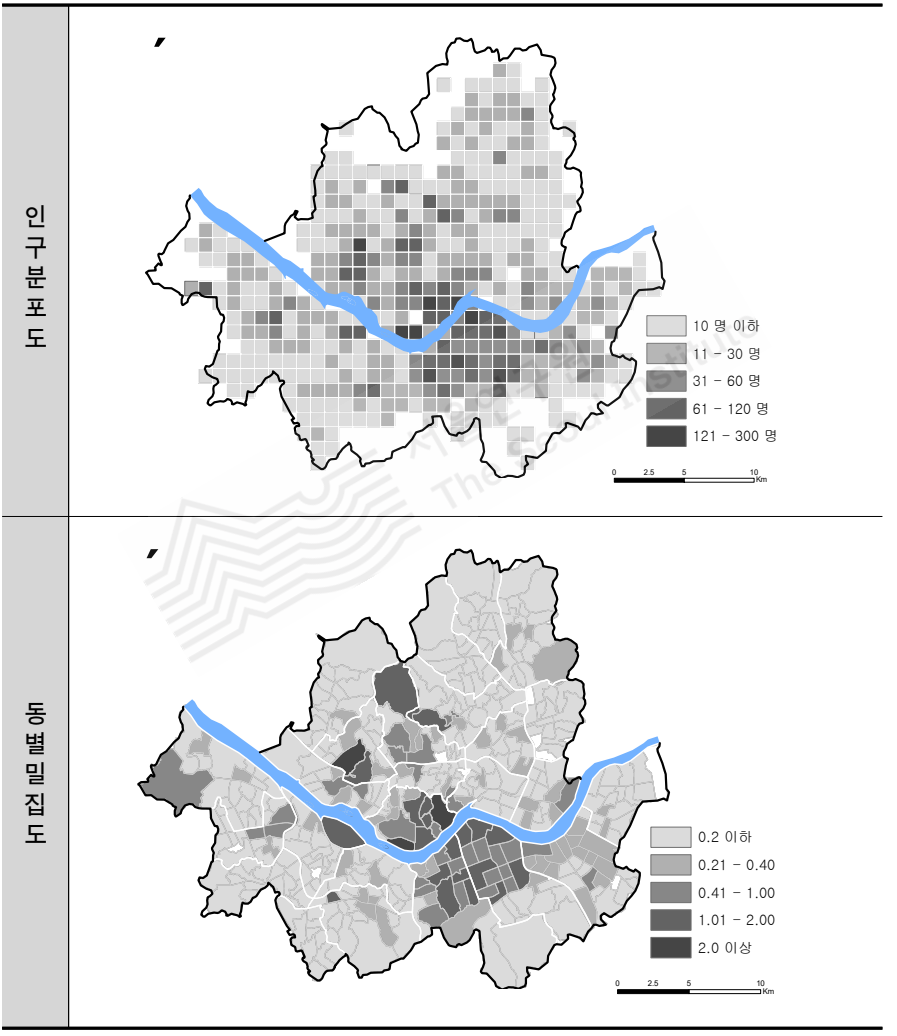
〈그림 2〉 미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4.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은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강남구와 용산구, 그리고 대학가 인근인 서대문구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밀집도 역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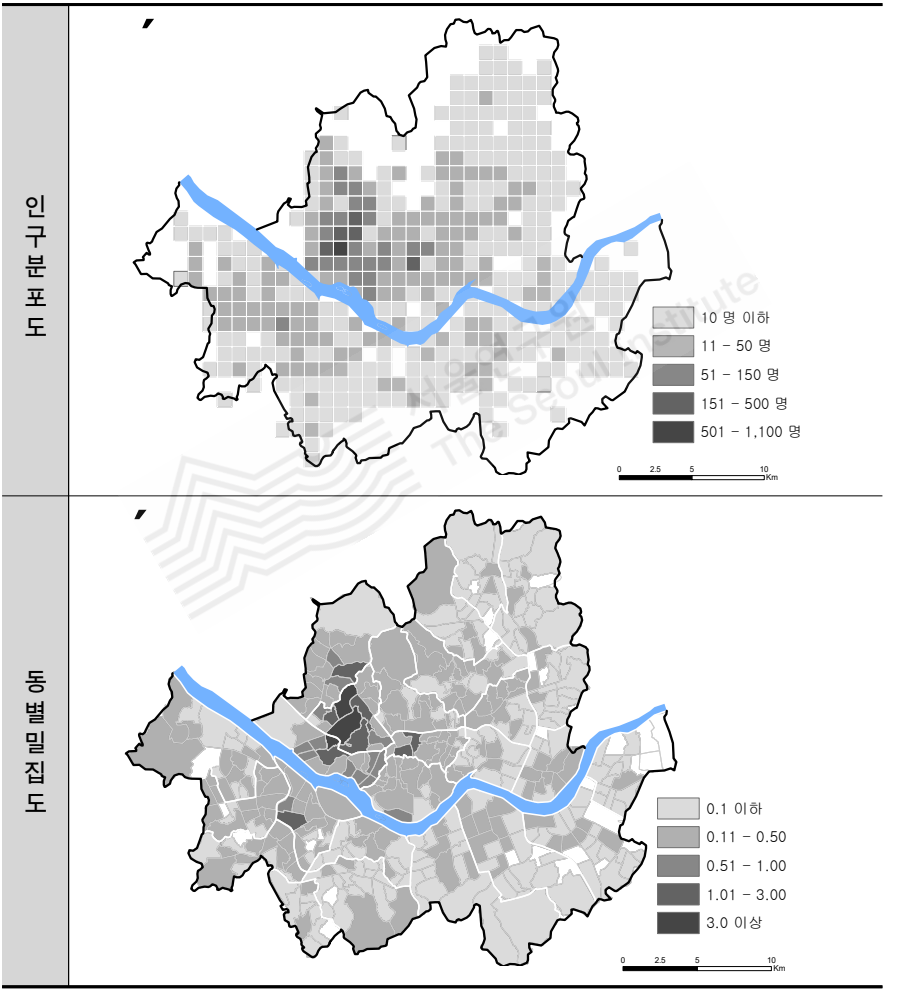
〈그림 3〉 미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3.3%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인은 연희 차이나타운이 있는 서북권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 중구 회현동, 영등포구 문래동 등 화교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밀집도가 5 이상으로 화교시설과 주거의 관련이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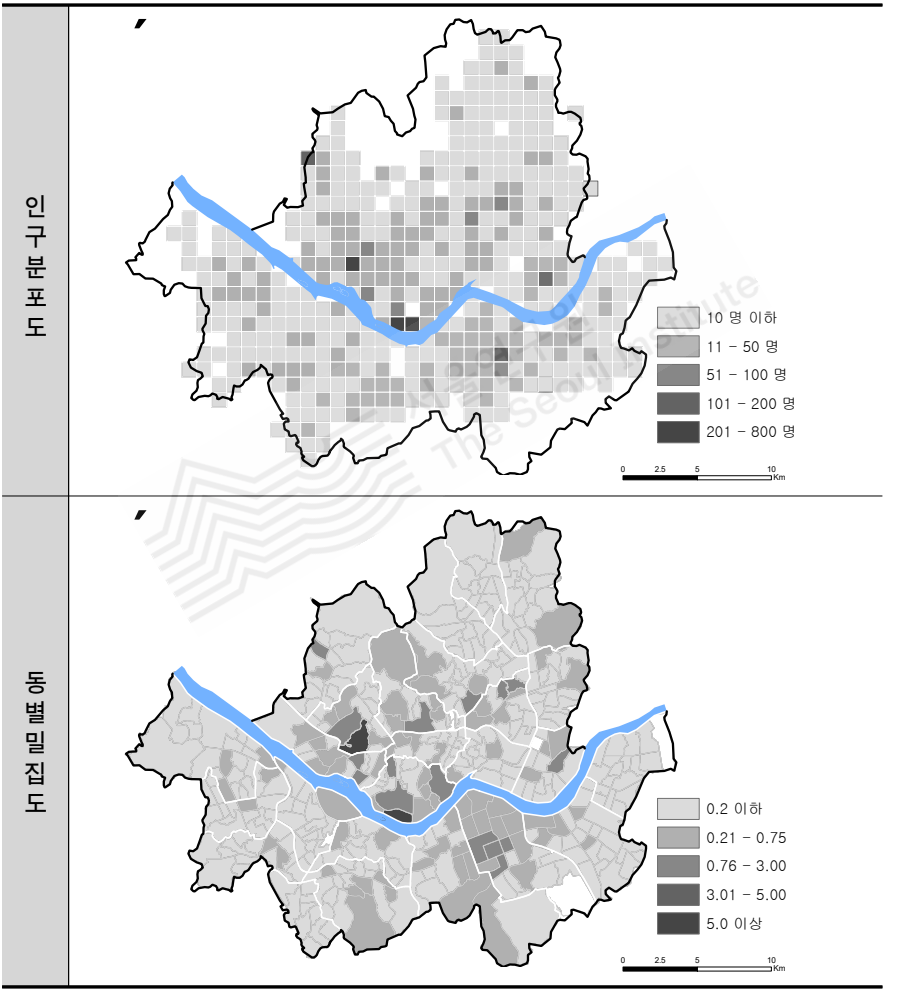
〈그림 4〉 대만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은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와 마포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몰려있다. 특히 용산구 이촌동의 경우 밀집도가 15에 이르러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자국 커뮤니티인 리틀도쿄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신촌동에도 5.83의 높은 수치를 보여 유학생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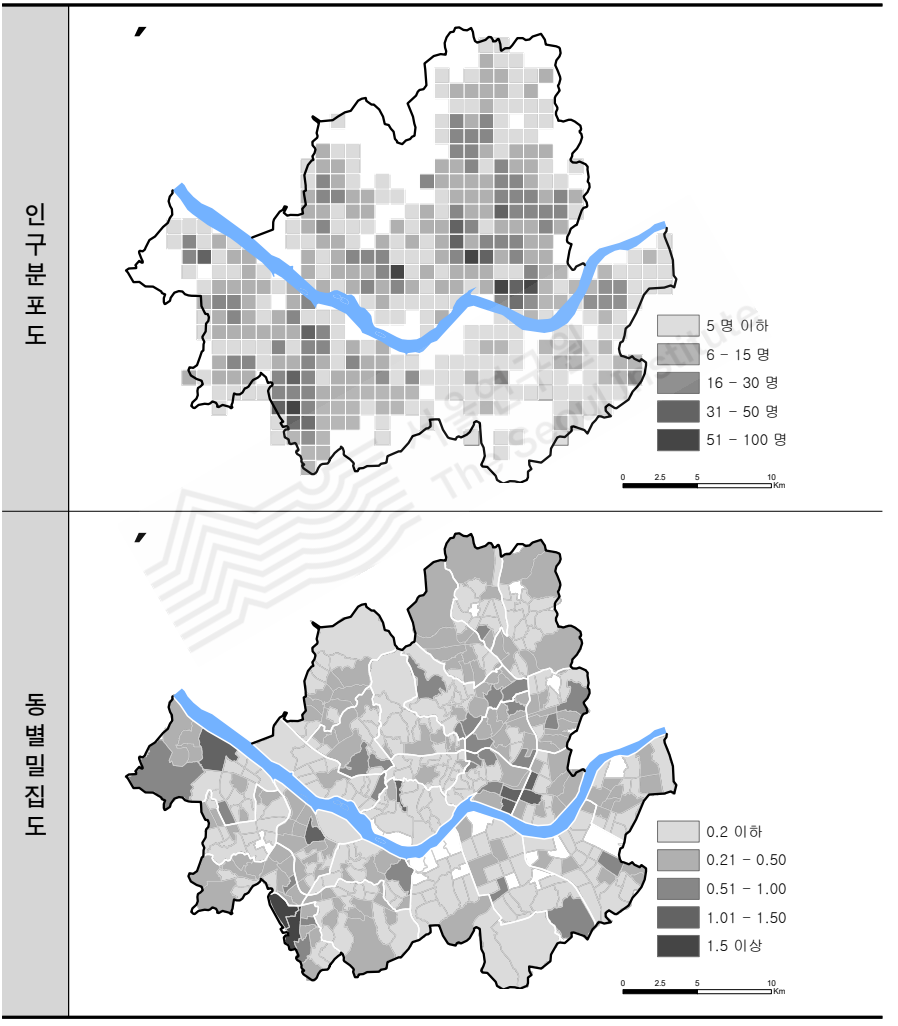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9%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공단과 성동구의 성수공단에 밀집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천구를 중심으로 1.5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 공장 지역 인근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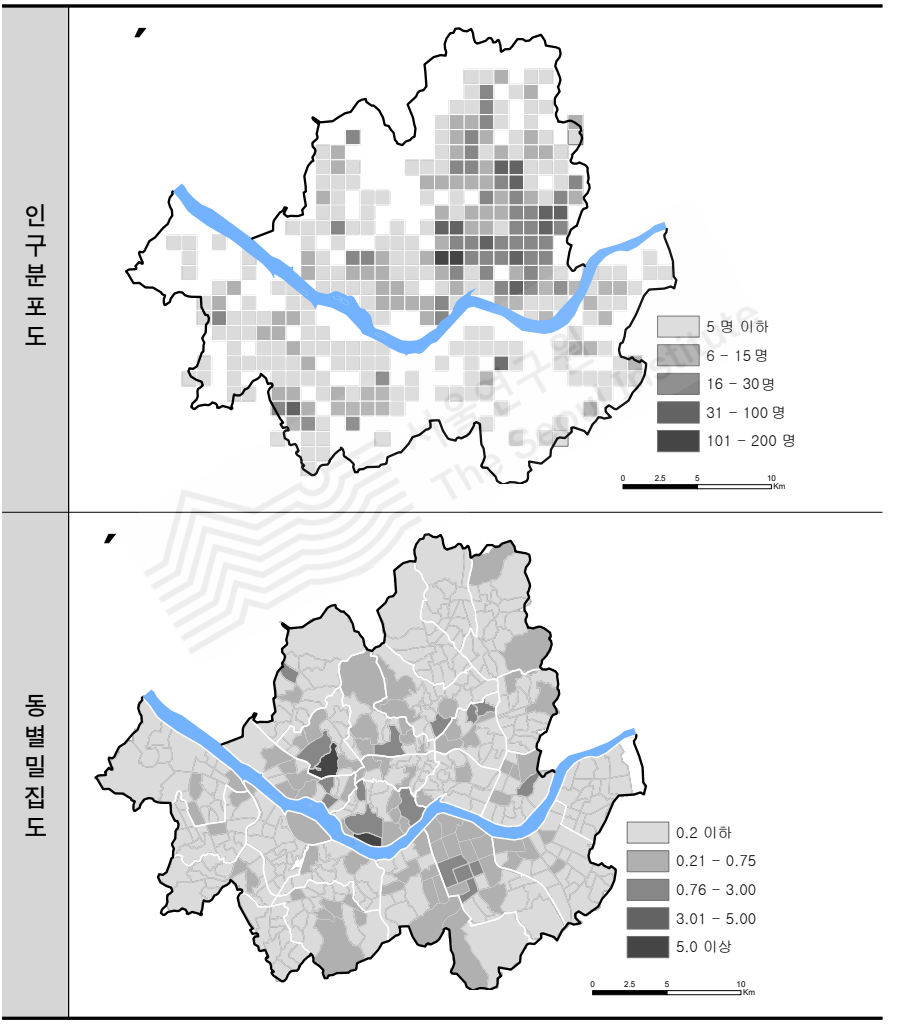
〈그림 6〉 베트남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3%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은 중국인과 비슷하게 동북권 집중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구 광희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3 이상의 밀집도를 보이면서 몽골타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주거지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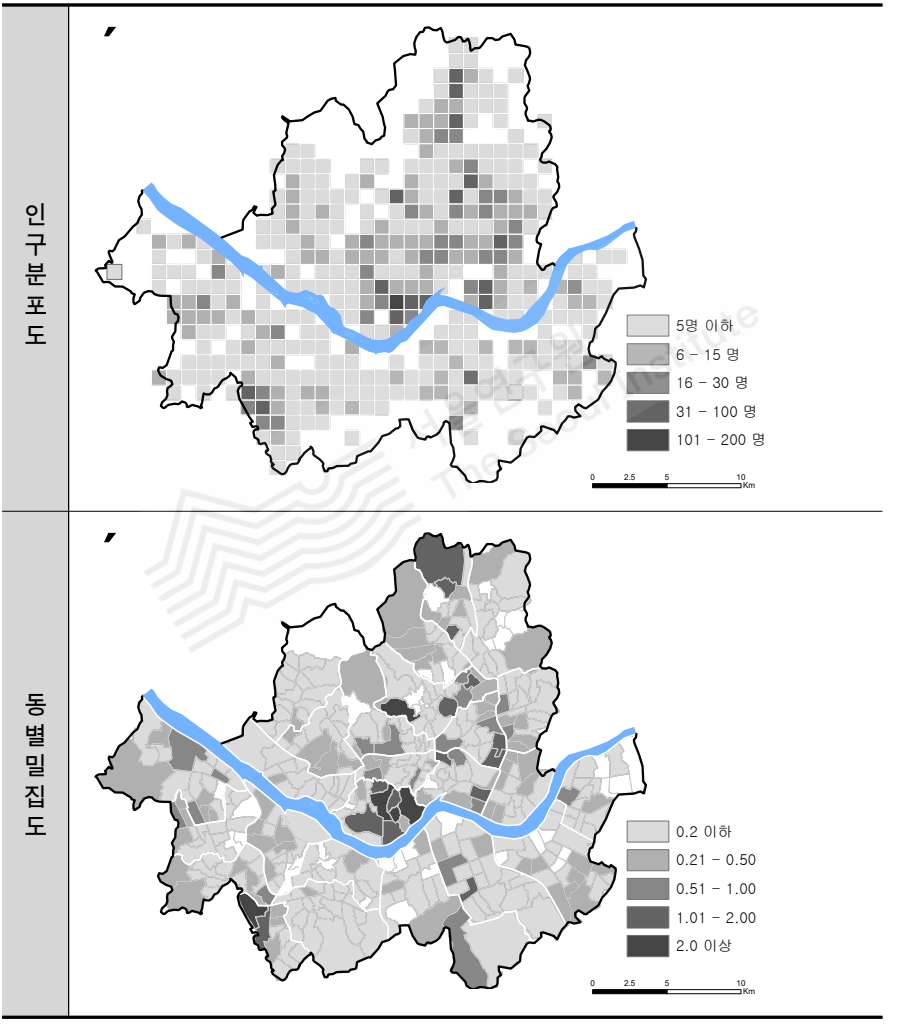
〈그림 7〉 몽골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3%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구 광희동에 13, 장충동에 5 이상의 밀집도를 보여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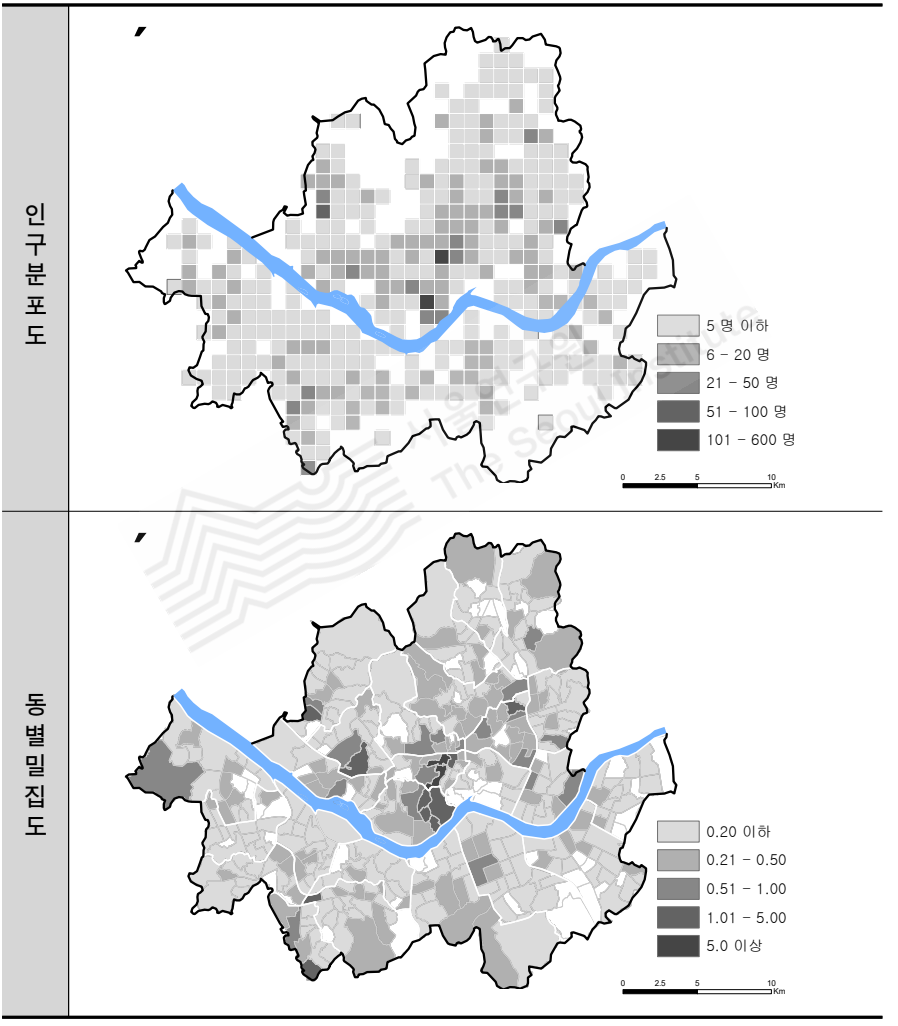
〈그림 8〉 필리핀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1.2%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인은 대부분 구소련 연방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인 중앙아시아촌이 위치하고 있는 광희동에서 13.34, 장충동에서 5.45의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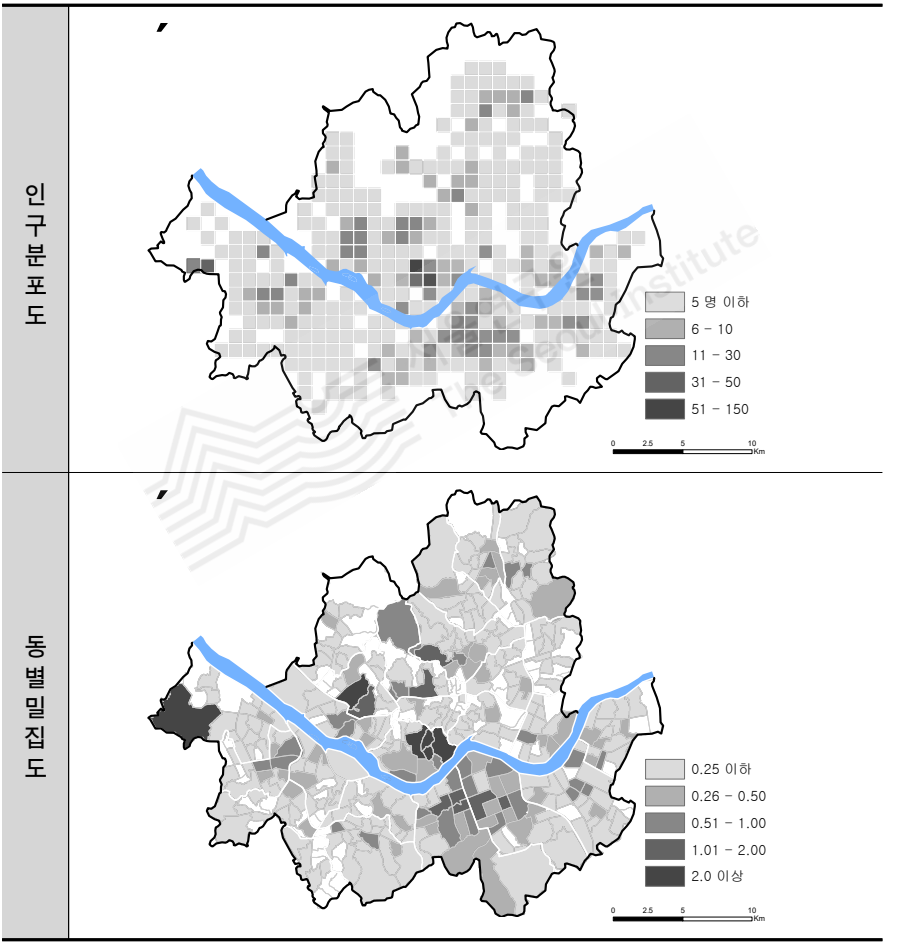
〈그림 9〉 중앙아시아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8%를 차지하는 캐나다인은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2.0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특정지역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강서구 공항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타난 51명의 주소가 대부분 김포공항으로 되어 있어 입국기록카드에 기록된 주거 자료의 진정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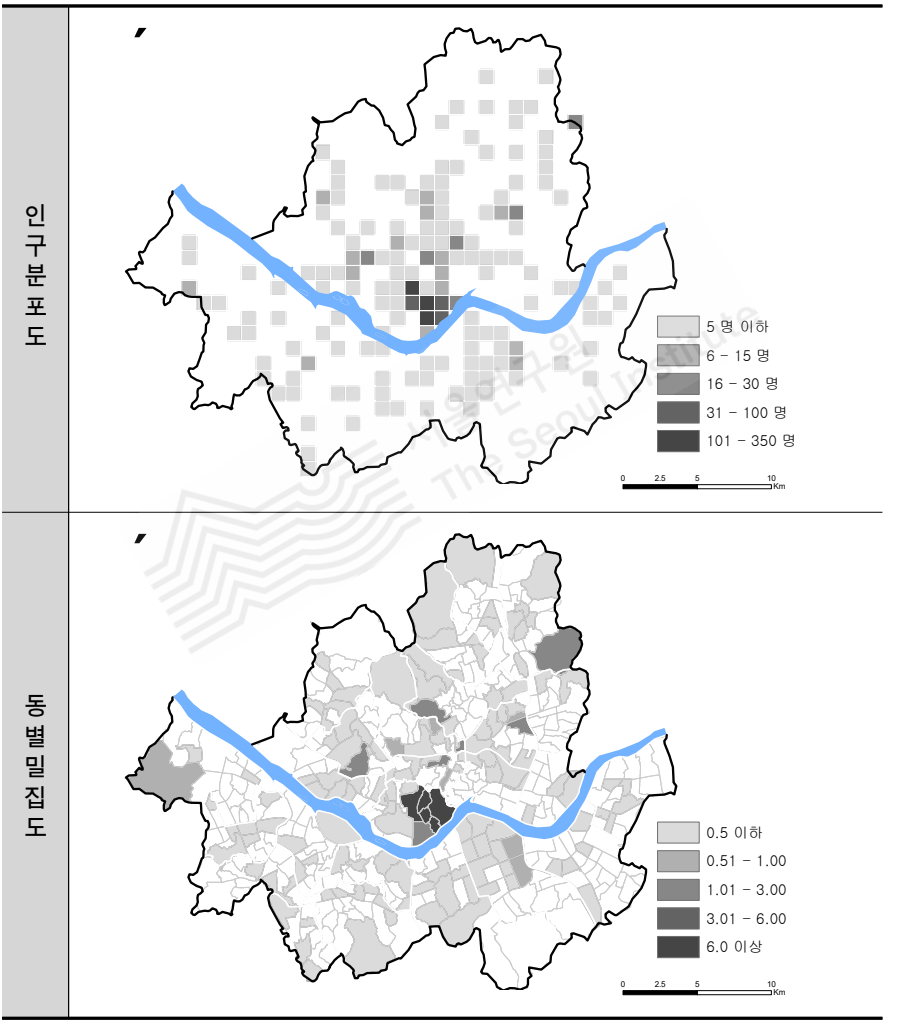
〈그림 10〉 캐나다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6%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대륙 출신의 외국출신주민은 용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도 역시 용산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인근지역인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모두 밀집도 10 이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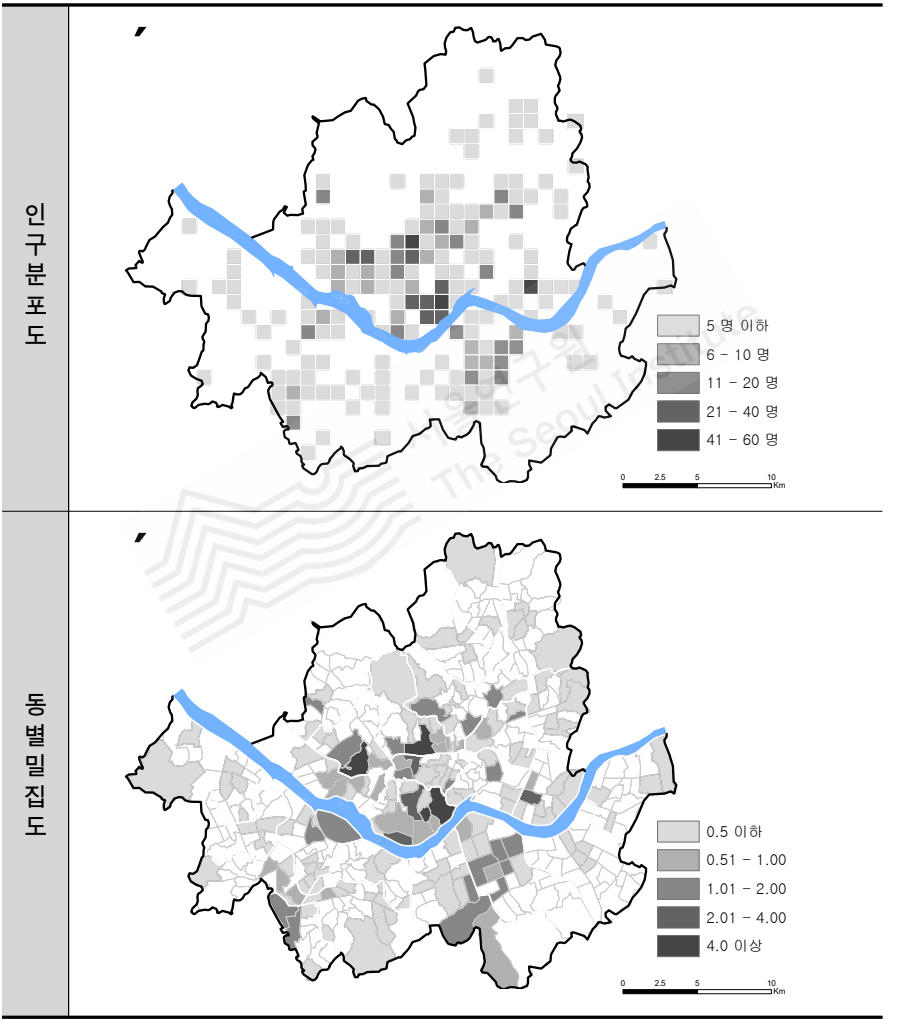
〈그림 11〉 아프리카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은 도심지역과 용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도 역시 동일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동 7.92, 이태원1동 4.43 등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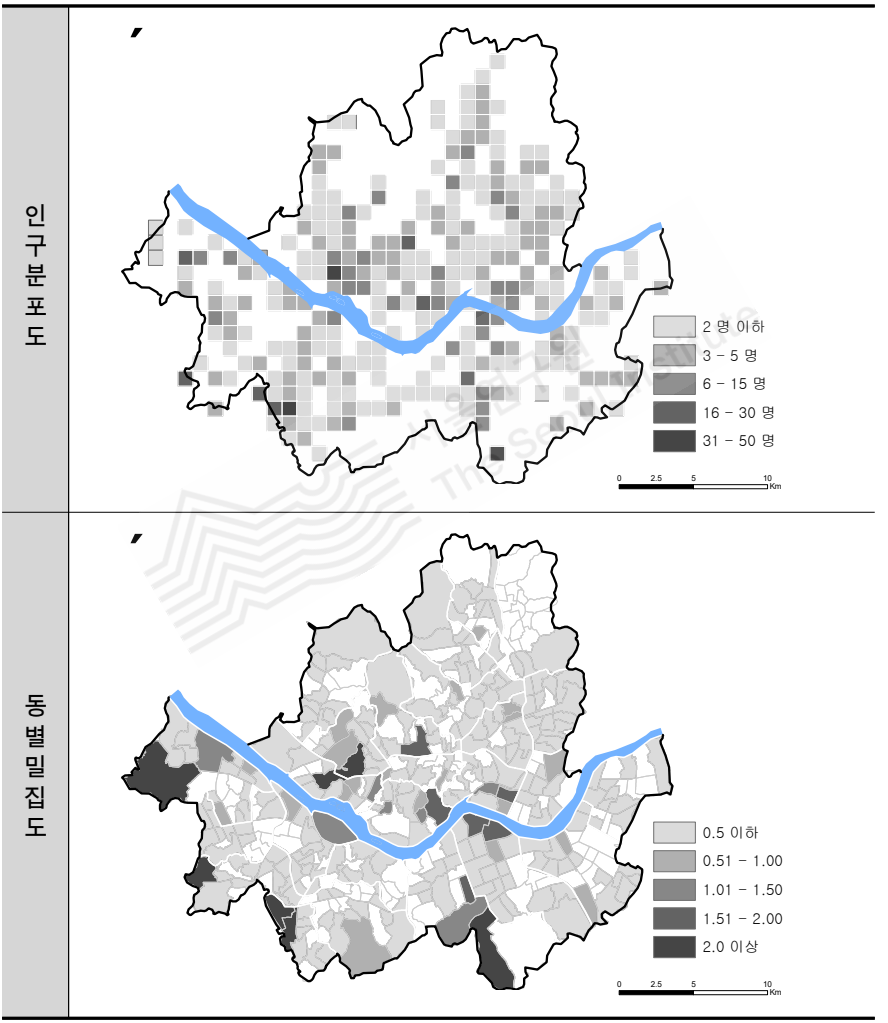
〈그림 12〉 인도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5%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인은 인구분포도에서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밀집도 측면에서 금천구 가산동과 독산1동에서 각각 5.3과 2.58, 서초구 양재2동에서 4.7을 보여 도심보다는 외곽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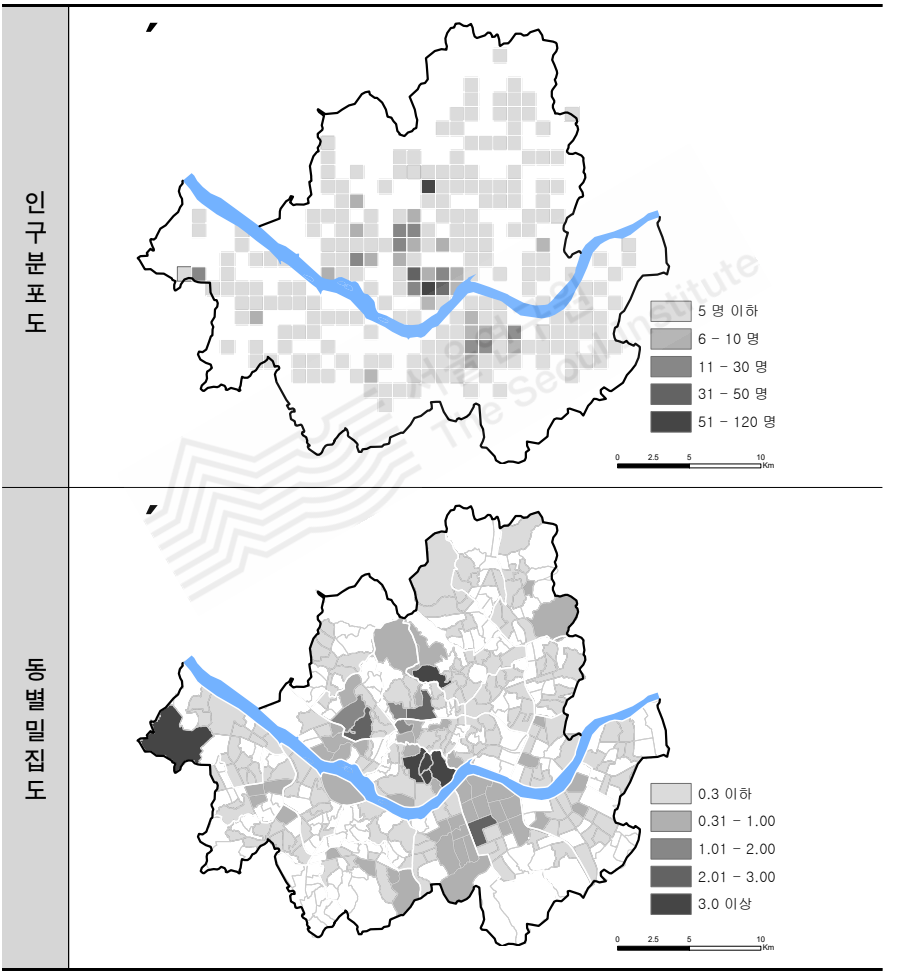
〈그림 13〉 태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4%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인은 용산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지역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동 등을 중심으로 5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캐나다인과 비슷하게 강서구 공항동으로 등록한 영국인 상당수가 공항으로 주소지를 기재하여 자료의 진정성 측면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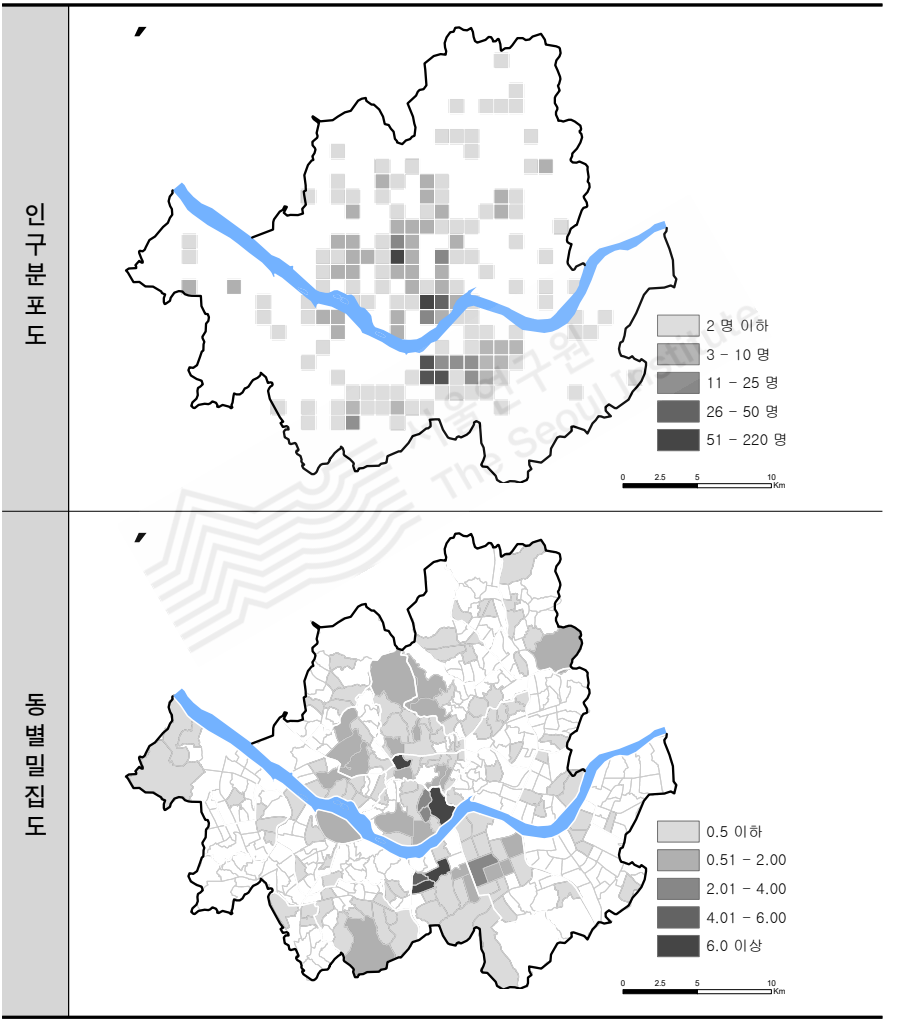
〈그림 14〉 영국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프랑스인은 서울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4%로 서초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는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반포4동과 방배4동에서 12가 넘는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어 커뮤니티 중심의 밀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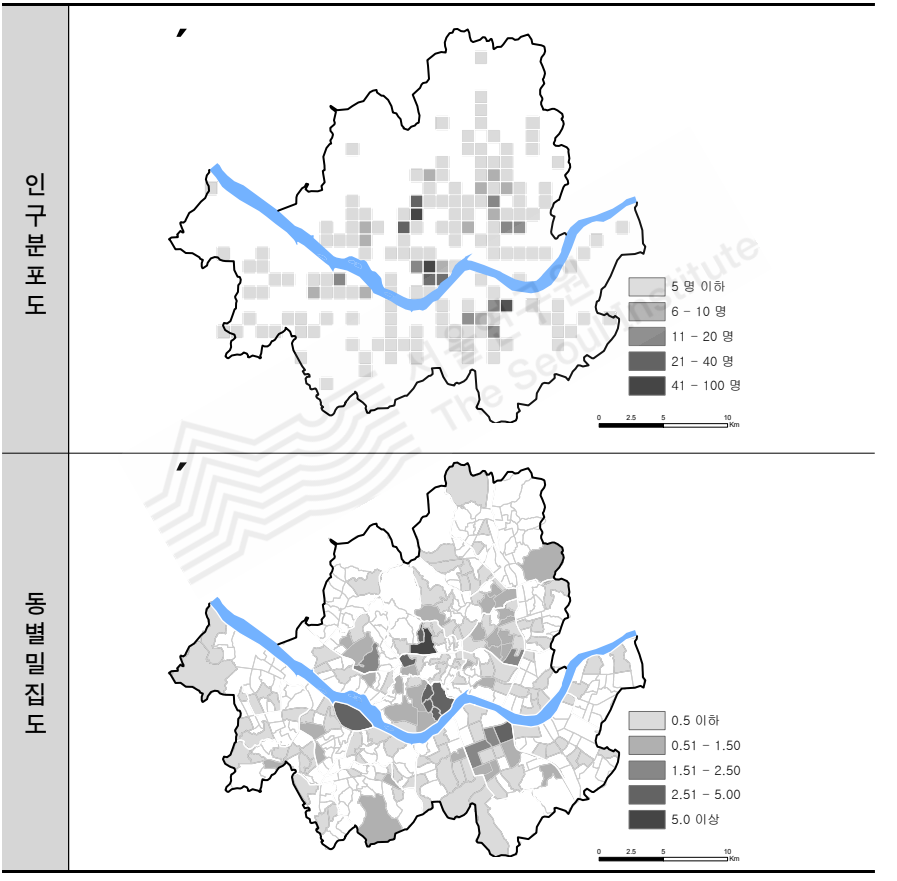
〈그림 15〉 프랑스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중동국가 출신[66] 외국출신주민은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적 중심지인 이태원보다는 종로구 등 도심과 용산구, 강남구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종로구 종로1~4가동에서 11.6, 인근 소공동에서 4.7의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강남구 삼성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동 등에서도 4 이상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중동국가 출신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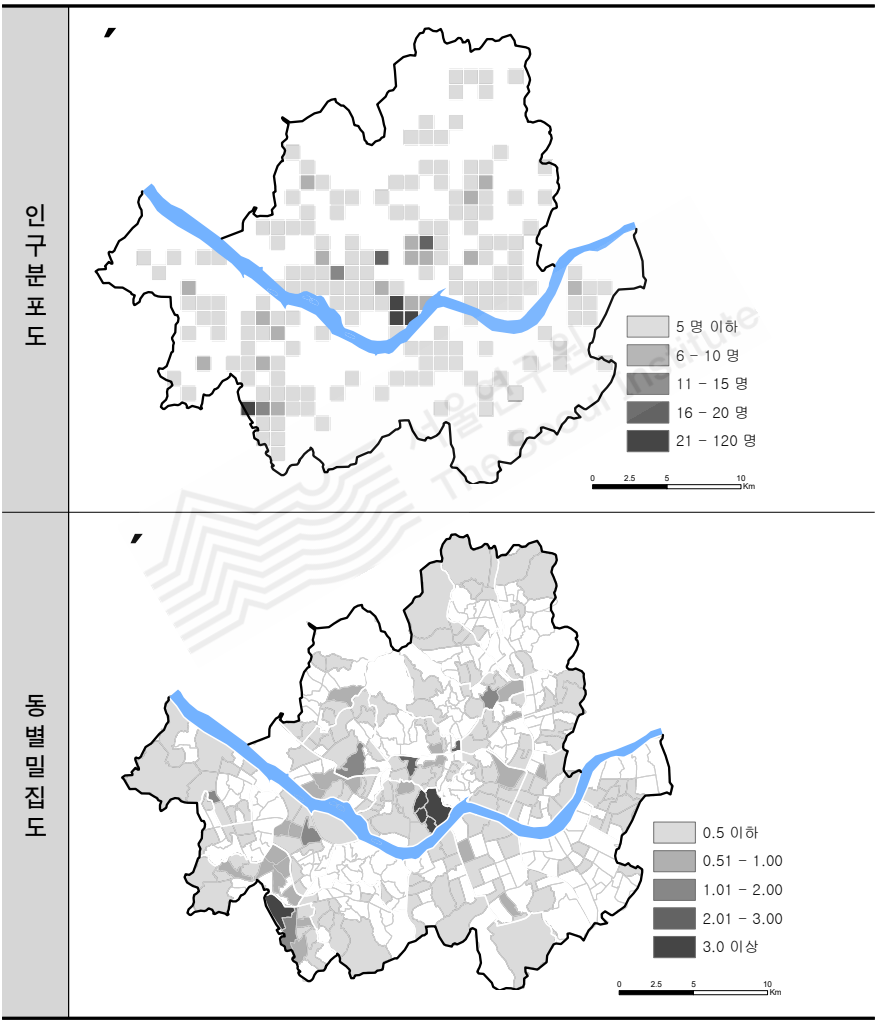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66) 터키, 이란,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이슬람 국가 출신

파키스탄인은 서울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일지역인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1동을 중심으로 밀집도 1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이슬람성원이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과 주거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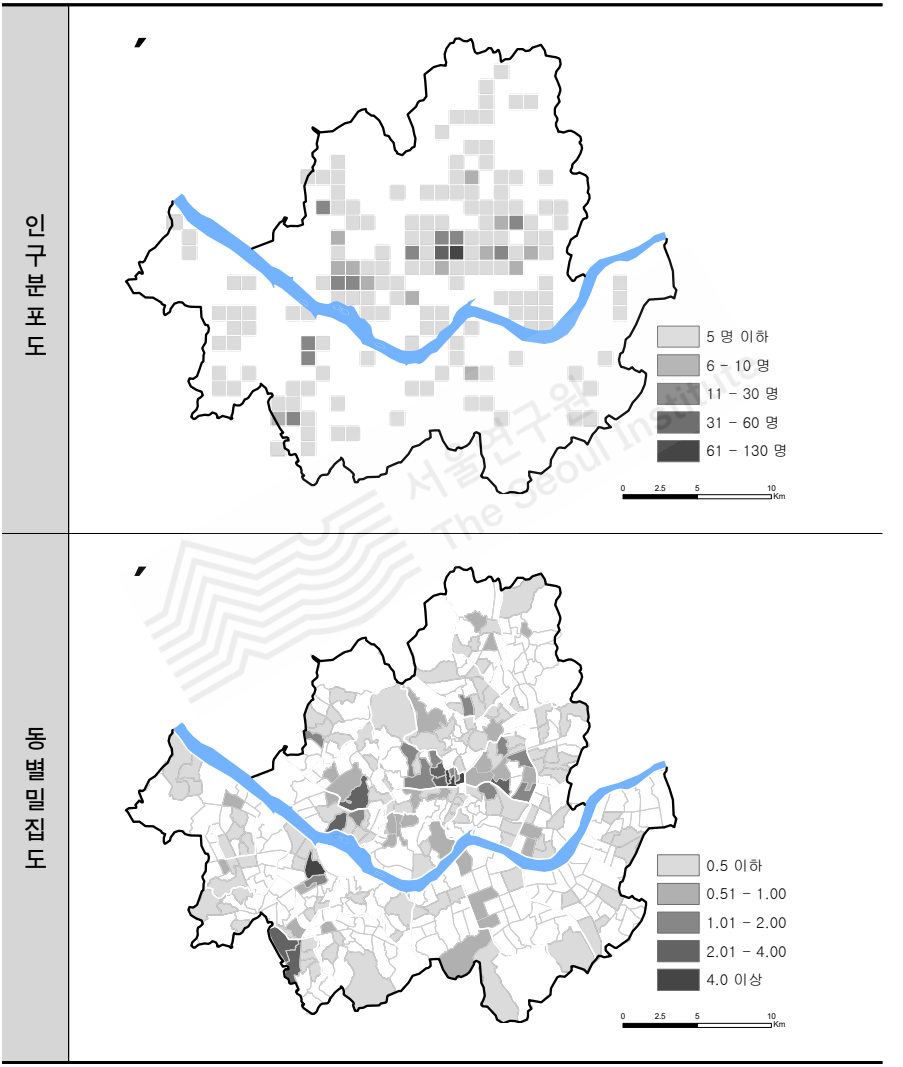
〈그림 17〉 파키스탄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네팔인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 등 도심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종로구 창신1동에 9.5, 숭인동에 4.59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어 커뮤니티와 주거지와의 상관관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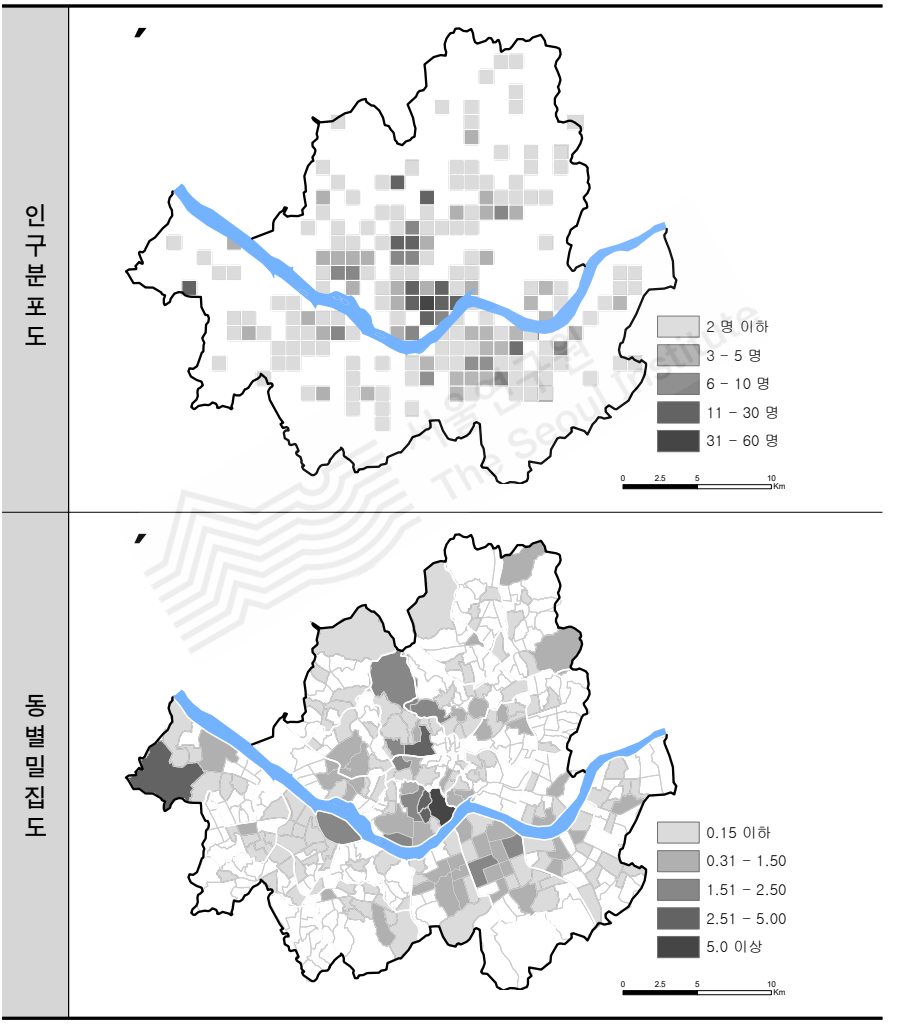
〈그림 18〉 네팔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호주인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 등 도심지역과 용산구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에서 27.7, 이태원2동에서 7.8 등 OECD 국가출신이 몰려 있는 용산구를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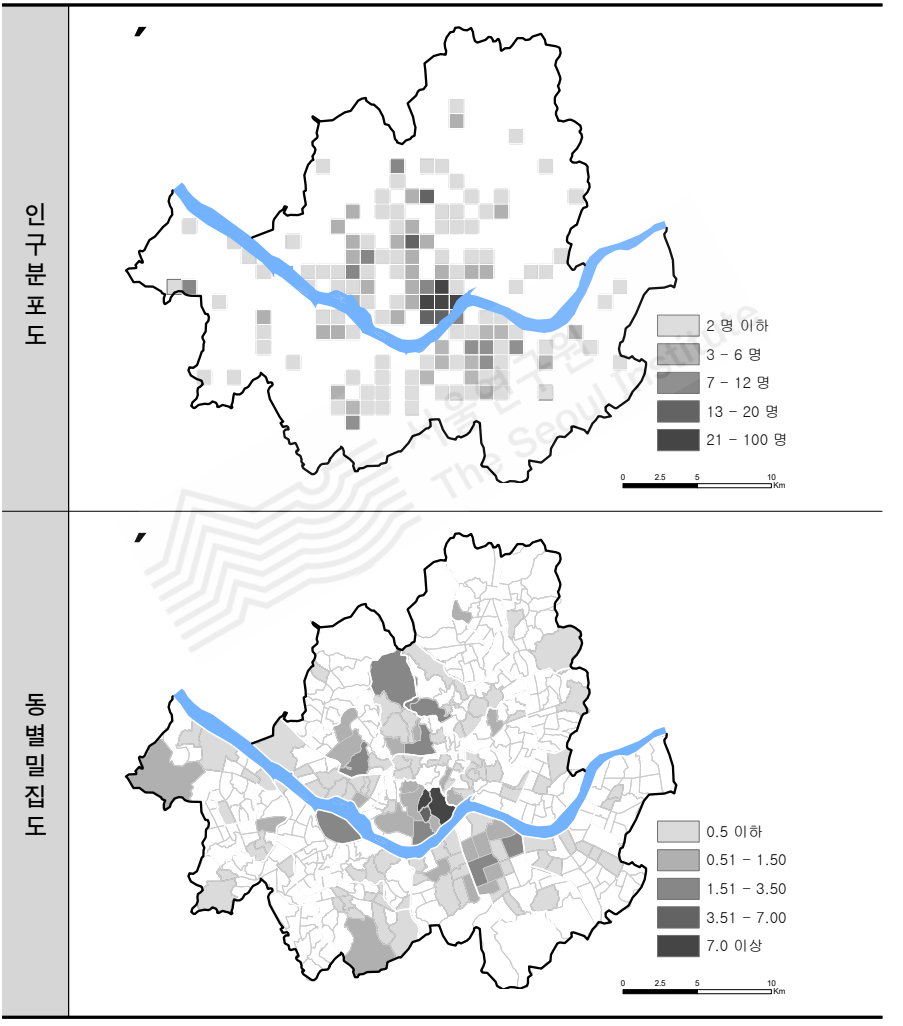
〈그림 19〉 호주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독일인은 서울시 전체 외국출신주민 가운데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에서 26.71, 이태원동에서 7.77 등의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커뮤니티 중심과 주거가 일치하고 있다.

〈그림 20〉 독일인 분포현황



출처 : 출입국 외국출신주민 통계 원자료, 출입국·외국출신주민정책본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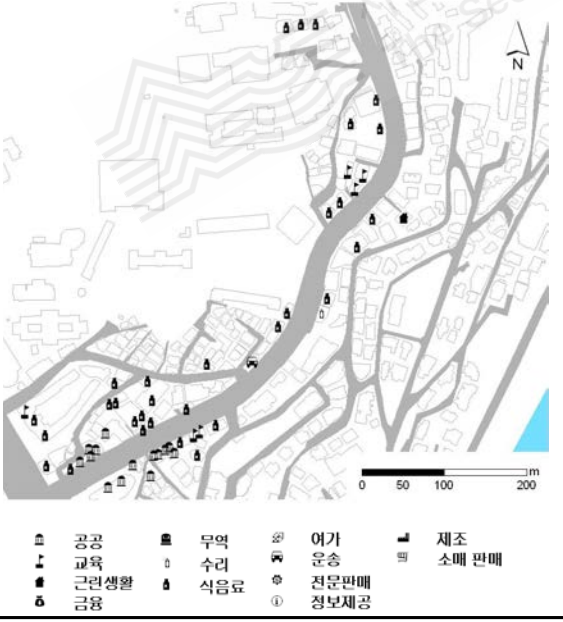
2. 지역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현황

1) 용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로 이태원동, 한남동, 이촌동, 용산동 등 4개 동에 모두 7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1)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구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 커뮤니티는 1960년대 이후 형성된 외국출신주민 고급 주거지인 한남 4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독일 커뮤니티는 '서울독일학교'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에 독일 관련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탈리아 커뮤니티는 이탈리아 대사관과 문화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 한남동 '국제성당'을 중심으로 '클럽 이탈리아'라는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어 '외무 및 국방행정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음식점업'보다는 음료점업인 '주점 및 비알코올업'이 발달해 있다.

〈표 1〉 한남동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외무 및 국방행정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	합계
한남동	31.5	25.9	22.2	20.4	100
전체평균	37	3.5	13.7	45.8	100
특화도	0.85	7.40	1.62	-	-

(2) 이태원동

한남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태원동에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음식거리', '아프리카인 거리', '이슬람 거리' 등 3개의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미국인을 위한 공동체가 있던 자리였으나 미군기지 이전으로 커뮤니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커뮤니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첫 번째 커뮤니티인 다국적 음식거리는 이태원역 바로 앞에 위치한 해밀턴호텔 뒷편 250m정도 되는 골목길로 '이태원 맛길'로 불리는 지역이다. 이곳은 특정 국가 출신들이 모여 주거지 등을 형성한 장소가 아니라 국적과 문화권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특히 주요거리 내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 중에 '주점 및 비알코올업'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발달되어 있다.

〈표 2〉 이태원 음식거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금융지원 서비스	기타	합계
이태원음식거리	55.6	36.1	2.8	5.5	100
전체평균	13.7	37	2.2	47.1	100
특화도	4.06	0.98	1.27	-	-

두 번째 커뮤니티인 아프리카 타운은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50m 지점에 위치한 이화시장 내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아프리카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식료품점, 잡화점, 옷가게 등이 밀집되어 있다.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물품을 판매하는 잡화상 등 '종합 소매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커뮤니티가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인들의 전용 용품을 공급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이태원 아프리카 타운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기타	합계
아프리카 타운	28.1	21.9	15.6	34.4	100
전체평균	13.7	37	0.3	49	100
특화도	2.05	0.59	52.00	-	-

이태원동의 또 다른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한 보광초등학교에서 이슬람 사원까지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무슬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중동국가 출신보다는 동남아시아 출신인 방글라데시인이나 파키스탄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67] 주요거리 조사결과 '음식점업'보다 '섬유의복 및 신발소매업'과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표 4〉 이태원 이슬람 거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섬유의복 및 신발소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기타	합계
이슬람거리	27.8	11.1	11.1	50	100
전체평균	37	5	4.4	53.6	100
특화도	0.75	2.22	2.52	-	-

67) 외국출신주민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제공한 출입국자료 분석결과, 이슬람권 중동국가 출신의 외국출신주민 보다는 동남아시아권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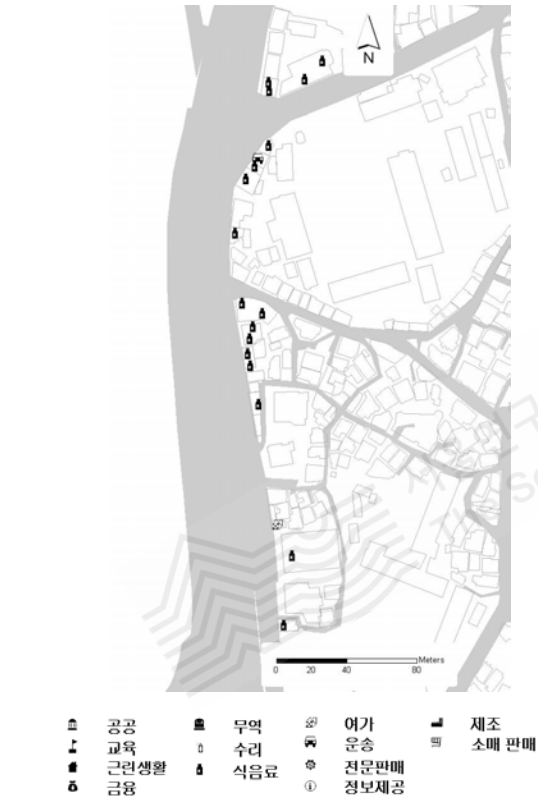
(3) 용산동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남산터널 방향으로 300m 정도 이동하면 '해방촌'이라 불리는 달동네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45년 광복과 함께 귀환한 해외동포, 월남 동포들이 정착한 마을로서 인근에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상업형 커뮤니티인 해방촌 음식거리와 종교형인 인도 커뮤니티 등 2개의 커뮤니티가 있다.

해방촌 음식거리는 녹사평역 2번 출구에서 남산터널 방향으로 반포로이다. 이곳은 이국적 식당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 뒤편의 구릉지에 배후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업 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용산동 해방촌 음식거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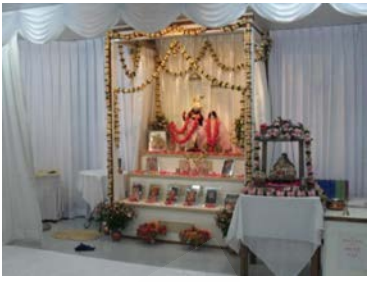
구 분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해방촌	47.4	36.8	5.3	10.5	100
전체평균	37	13.7	4.4	44.9	100
특화도	1.28	2.69	1.20	-	-



인도 커뮤니티는 해방촌 음식거리와 500m 떨어진 주택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2008년 6월 서울에 사는 인도인들이 종교적 행사와 정보 교환을 위하여[68]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힌두교 사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그

68)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1/2010030100027.html

러나 역사가 짧고 신도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인근에 인도전문식당 1개를 제외하고는 외향적인 커뮤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거리 시설 조사를 통한 커뮤니티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출처 : ISKCON 한국 공동체 (Hare Krishna Korea) 〈http://www.krishnakorea.com〉

〈그림 21〉'하레 크리슈나'힌두사원

이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시설은 힌두교 사원 1개와 인도전문식당을 제외하면 주로 미군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특화도는 왜곡된 면이 있다.

〈표 6〉 이태원 인도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판매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기타	합계
이태원 인도거리	53.8	23.1	15.4	7.7	100
전체평균	37	0.3	0.2	62.5	100
특화도	1.45	77.00	77.00	-	-

(4) 이촌동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이촌동길을 중심으로 '리틀도쿄'라고 불리는 일본인 커뮤니티가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생겨난 마을[69]로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주요거리 조사결과, 특정한 업종이 특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업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9) 노정연, <동네이야기> 박물관 구경하고 '리틀도쿄' 즐겨볼까... 이촌동 나들이, 레이디경향, 2009년 6월호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10&artid=12587>

〈표 7〉 이태원 인도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합계
이태원일본	37.8	27	10.8	24.4	100
전체평균	37	13.7	0.5	48.8	100
특화도	1.02	1.97	21.60	-	-

2) 중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서울의 도심인 중구에는 명동의 중국인 거리, 광희동의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촌 등 3개의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1) 명동

명동의 중국인 거리는 서울 도심부 남대문로 인근에 위치한 우편집중국 뒤편의 '명동서길'로 구 중국대사관 중심으로 하는 400m 정도의 T자형 거리이다. 이곳은 과거 대만대사관과 한성 소학교 등 화교 관련시설들이 위치한 화교의

중심지였으나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인들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2006년 중국 대사관이 안국동으로 이전하면서 구심점이 약해져 현재는 중국인 거리로서 그 역할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표 8〉 명동 중국인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

구 분	금융지원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음식점업	기타	합계
명동 중국인 커뮤니티	26.1	26.1	21.7	26.1	100
전체평균	2.2	4.4	37	56.4	100
특화도	11.86	5.93	0.59	-	-

(2) 광희동

동대문 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광희동에는 몽골인들을 위한 '몽골타운'과 구소련연방 출신 중앙아시아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촌' 등 2개의 커뮤니티가 인접하고 있다.

몽골타운은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1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벌우물길'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대문에 몽골 및 러시아 상인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70]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뉴금호타워라는 상가건물은 '몽골타워'라 불리며 미용실, 식료품, 화장품 전문점, 운송업체, 환전가게, 사설 송금업체 등 70여 개의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다.

중앙아시아촌은 몽골타운의 주가로인 벌우물길 일부와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7번 출구 인근의 마른내길에 이르는 200여 m의 길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보따리상들이 동대문 일대 의류시장을 오가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은 1990년대까지도 매우 활성화되었으나 현재는 상권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다.

70) 동아일보, <수도권> 우리 동네 작은 외국 <4> 광화문 몽골타운, 2007.9.17

3) 종로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1) 혜화동

혜화동 '마닐라 거리'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 혜화동 성당 앞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열리는 장터 형태의 커뮤니티이다. 이곳은 1995년 필리핀인들이 종교적 행사를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매주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관례[71]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도 혜화동 성당 앞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필리핀인들을 위한 작은 시장이 열린다.

(2) 창신동

창신동에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을 중심으로 네팔인 거리와 중국인 거리 두 개의 커뮤니티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네팔거리는 2000년 경 네팔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네팔인들이 운영하는 소규

71) 중앙일보, 서울 속의 '작은 외국들', 이국적 장소에 가다, 2010. 6. 17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모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며 음식점·잡화점 등이 추가적으로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네팔인들에게 식당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공간[72]으로 거의 모든 커뮤니티 내 활동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개인주의적이고 인터넷 등 정보활용과 접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네팔인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강한 결속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표 9〉 창신동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합계
창신동	66.7	27.8	5.6	-0.1	100
전체평균	37	3.7	0.3	59	100
특화도	1.80	7.51	18.67	-	-

72) 오경석 외,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2007 p.195

또 다른 커뮤니티인 중국인 거리는 창신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 10여 개의 상점들이 한국 상점 사이에 드문드문 위치하고 있는 신생 커뮤니티로 보인다. 이들은 외부인과의 대화를 매우 꺼리고 경계하는 태도가 강해서 다른 중국 커뮤니티보다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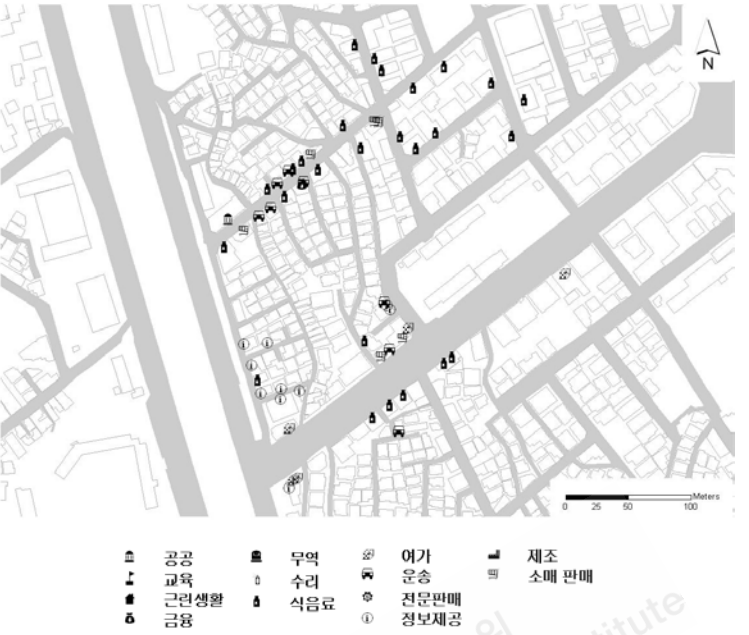
영등포구에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림 차이나타운과 이곳에서 분리되어 새로 형성된 신길 중국인 거리 등 2개가 형성되어 있다.

(1) 대림동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2호선 대림역과 대림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가리봉동 엔벤거리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확산·분화된 재중동포 커뮤니티이다. 이곳의 중국인 관련 시설은 가리봉동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음식점 수가 월등히 많고 정보제공업이 발달한 반면, 노래방 등의 수가 현저히 적다. 즉, 소비와 유흥 중심의 상업시설보다는 생활 및 취업관련 상업시설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대림동 커뮤니티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내 관련 시설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대림동 커뮤니티	69.8	15.1	3.8	11.3	100
전체평균	37	3.1	4.4	55.5	100
특화도	1.89	4.87	0.86	-	-



(2) 신길동

신길동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재중동포 중심의 커뮤니티로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림동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 나간 성격의 커뮤니티로 아직 신생지역이므로 소수의 식당만 분포하고 있으며, 배후주거지와 상업시설을 연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확장되면 신길동의 재중동포 커뮤니티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는 아직 중국 관련 업소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반 한국인을 상대하는 수리업이나 부동산업이 발달해 있다.

〈표 11〉 신길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기타	합계
신길동	53.8	15.4	7.7	23.1	100
전체평균	37	3.7	0.3	59	100
특화도	1.45	4.16	25.67	-	-

5) 구로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가리봉 '옌벤거리'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의 가리봉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주요한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로 성장하였다. 커뮤니티 구성원인 한국계 중국인들은 주로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단순한 노무직 취업을 위해 입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일정기간 거주하였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커

뮤니티 내에서 서로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73]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로 인하여 해체될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지역인 독산동, 대림동, 신길동 등으로 커뮤니티가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거리 조사결과 커뮤니티가 주거 목적의 정주성을 가지기보다는 같은 동포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락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독산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	합계
가리봉 커뮤니티	43.3	16.5	10.3	29.9	100
전체평균	37	3.1	13.7	46.2	100
특화도	1.17	5.32	0.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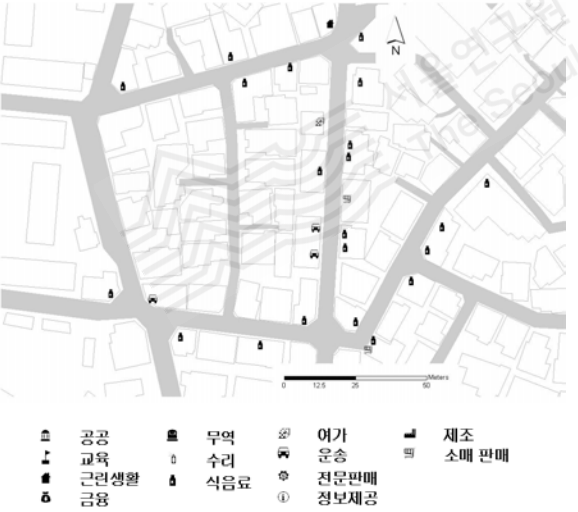
73) 박세훈 외 3인, op., cit., p.141

6) 금천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는 독산동 남문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리봉동 엔벤거리 및 대림 차이나타운의 수용력 부족으로 일부 재중동포들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아직 인근의 엔벤거리나 대림 차이나타운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다. 주요거리 조사 결과 음식점업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독산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업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기타	합계
독산동 커뮤니티	67.9	7.1	7.1	17.9	100
전체평균	37	13.7	3.7	45.6	100
특화도	1.84	0.52	1.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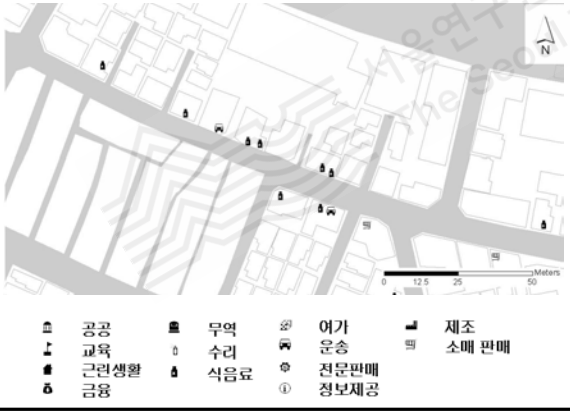
7) 관악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봉천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의 봉

천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가리봉동 엔벤거리나 대림 차이나타운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게 되자, 일부 재중동포들이 인근지역으로 분리되어 나온 형태로서 커뮤니티 형성의 초기 단계이다. 거리는 아직까지 중국식 상점들과 한국 상점이 혼재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계 커뮤니티의 특성상 음식점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소매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4〉 봉천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봉천동 커뮤니티	60	20	13.3	6.7	100
전체평균	37	3.7	4.4	54.9	100
특화도	1.62	5.41	3.02	-	-



8) 광진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광진구 노유동에 위치한 노유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100m 거리인 노룬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강남 및 도심에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거리 조사 결과 음식점 등의 분포가 높은 가운데 전자게임장 운영업 등이 다른 커뮤니티에 비하여 매우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5〉 노유동 한국계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업	기타	합계
노유동	69.8	15.1	3.8	11.3	100
전체평균	37	3.1	4.4	55.5	100
특화도	1.89	4.87	0.8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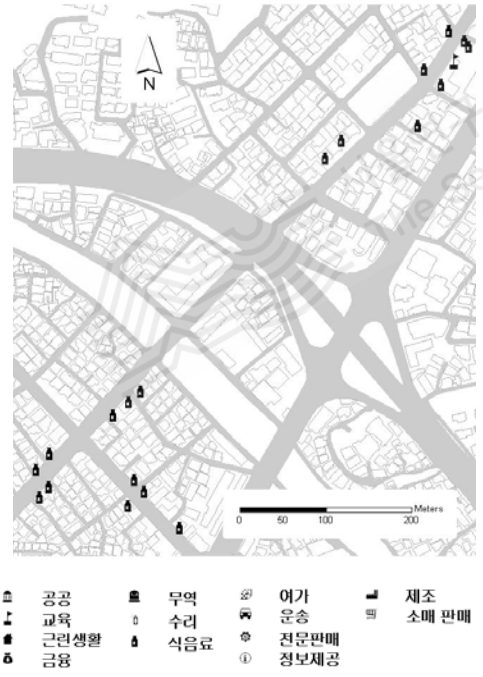
9) 서대문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서대문구 연희동과 마포구 연남동 등 2개 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연희 차이나타운은 화교계 중고등학교인 '한성화교 중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형성된

커뮤니티로 화교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식 거리로 변하였다[74]. 이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출신 서울시민들은 정착 역사가 오래되어 대부분 한국 사회에 깊이 동화되어 있으므로 그들만을 위한 시설들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75] 주요거리 조사결과 음식점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식당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연희동 중국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음식점업	음식료업 및 담배소매업	일반교습 학원	기타	합계
연희동	90	5	5	0	100
전체평균	37	2	0.6	60.4	100
특화도	2.43	2.50	8.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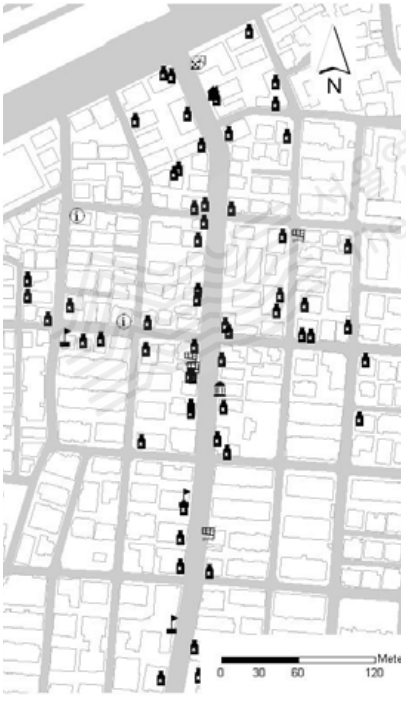
74) 홍석기 외, 서울시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56
75) 홍석기 외, 서울시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115

10) 서초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인 밀집지역인 서래마을은 반포4동과 방배본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984년 용산구 한남동에 있던 프랑스 학교가 이전하면서 형성된 커뮤니티로 주한 프랑스 기업의 직원과 가족, 대사관 직원

〈표 17〉 방배동 프랑스인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주점 및 비알코올업	음식점업	기타 교육기관	기타	합계
서래마을	45.7	34.3	4.3	15.7	100
전체평균	13.7	37	0.8	48.5	100
특화도	3.34	0.93	5.38	-	-



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시설 70개가 주가로인 서래로를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6%가 식음료와 관련되어 있다. 주가로에 분포하고 있는 시설을 분석하면 특정 업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음식점업이 음료점업에 비하여 3배 정도 높게 특화되어 있으며, 이곳이 내국주민들도 즐겨 찾는 지역적 명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11)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성동구는 성수공단이라는 공장 밀집지역으로 비OECD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600여 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동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는 인근 공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인근에 위치한 식료품점과 식당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중심으로 베트남인들이 모여 산다. 베트남인은 몽골인이나 중국인들과 달리 집단거주지나 상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는다.[76] 따라서 이 지역의 주요거리 조사 결과 베트남 관련 시설들이 밀집하는 특성을 찾을 수는 없다.

12)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5km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들과는 다른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일대는 1960년대까지도 숲이 울창한 지역이었으나, 1970년초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이 대사관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77] 대사관저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었다. 외국출신주민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커뮤니티의 주요 구성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OECD국가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자체가 상류층 거주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커뮤니티보다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류나 소비생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이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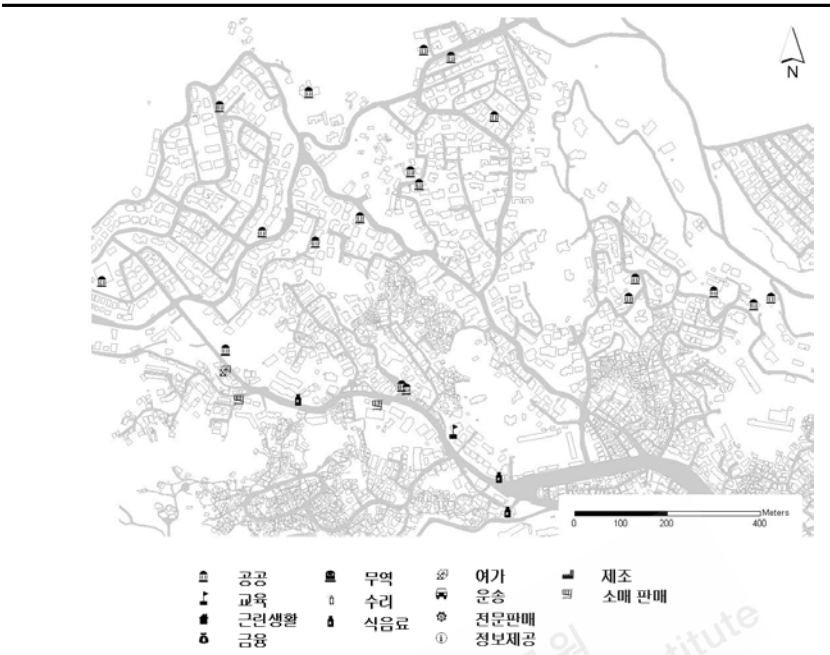
커뮤니티 내 주요거리 조사결과 대사관저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외무 및 국방행정'과 '공공기관'이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성북동 다국적 커뮤니티 주요시설 분포 현황

구 분	외무 및 국방행정	공공기관	음식점업	기타	합계
성북동	61.5	11.5	7.7	19.3	100
전체평균	3.5	1.3	37	58.2	100
특화도	17.57	8.85	0.21	-	-

76) 오경석 외,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2007, p.157

77) 조성관 외, <서울>성북동 ; 600년 역사 숨쉬는 서울의 '베버리힐스', 주간조선, 2003. 2. 20



13) 강남구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

강남구에는 많은 외국출신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특정한 지역에 외국관련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밀집하고 있다거나 밀집된 주거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단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위치한 역삼빌리지센터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빌리지센터 인근에도 특정한 외국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커뮤니티는 이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서울특별시 외국출신주민지원 전체 125개 사업

(1) 2010년 서울시 공통사업 (국비·지방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2009	2010	비고
적극적인 개방(2)	188.18	28.34	
새주소도로명판 외국어 표기	158.00		전년도 예산 이월국비 50%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30.18	28.34	국비 70%
질 높은 사회통합(10)			
외국출신주민 거주실태조사 실시			비예산 사업
결혼이민자 및 외국출신주민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0.05	0.05	국비 73%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및 우리 문화 역사 체험	0.31	0.34	국비 100%
성인·외국출신주민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0.64	0.71	국비 1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80	11.70	국비 50%
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4	2.22	송파구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그램	0.15	0.85	용산구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정서지원	0.05	0.50	국비 5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실시(아동양육지원)	11.46	20.30	국비 50%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0.22	0.28	국비 50%
외국출신주민 인권옹호(1)	13.91	16.22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3.91	16.22	국비 50%
합계(13)	219.21	81.51	

출처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012)」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 2010년 서울시 자체사업(지방비 100%)

〈단위 : 억 원〉

사업명	2009	2010	비고
적극적인 개방(40개)	1,741.07	302.29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 지원	15.20	12.96	
외국출신주민 유학생 인턴십 운영	0.47	0.86	
몽골학교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0.01	0.02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건강검진	0.04	0.04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사업	0.09	0.12	
외국출신주민근로자 무료진료	0.41	0.25	
외국출신주민근로자센터 운영 지원	8.19	20.20	
eFM 방송제작 제공확대(TBS 교통방송 라디오국)	29.07	28.58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운영	8.42	8.50	
다문화 빌리지센터 설치	7.67	4.06	
서울 문화교류 관광정보센터 운영	3.36	4.80	
서울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2.73	2.82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1.00	1.10	
영문 월간지 SEOUL 발행	1.00	1.00	
외국어 생활고지서 확대 추진(영·중·불·일어)			
외국출신주민 감동프로젝트(서울시)		1.00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한국어교실 운영	0.25	0.25	
외국출신주민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운영	0.01	0.01	
중문 월간지 '你好', 首尔니하오 서울 발행	1.50	1.50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0.12	0.13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0.08	0.11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1.40	1.40	
서울글로벌센터 설치 및 운영	30.91	28.01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강서구)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0.06	0.67	
다문화빌리지센터 보건사업(영등포구보건소)		0.04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출신주민 서울 문화체험	1.80	1.80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도봉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노원구)			
외국출신주민 조성 및 인프라 구축(노원구)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관리지원 사업	0.01	0.01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2.39	2.57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사업명	2009	2010	비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10월)	0.20	0.20	
외국출신주민 의료서비스 향상	0.06	0.52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관리	0.08	0.08	
외국출신주민 관광택시 도입	14.00	15.86	
서래로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		10.00	
서울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46.00	106.00	
외국출신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4.19	4.19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외국출신주민학교)	1,560.35	42.63	20개교
질 높은 사회통합(72개)			
다문화이해교육	0.01	0.02	영등포구
한국문화 이해 특강	0.01	0.01	영등포구
지역생활 안내 책자 제작·발간	0.09	0.09	양천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0.20	0.43	강서구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0.08	0.10	강동구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0.12	0.20	용산구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0.02	0.03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0.58	0.58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0.07	0.07	양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0.01	0.01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워크숍	0.05	0.05	영등포구
2010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0.19	0.24	중랑구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0.02	종로구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 캠프'	0.05		성북구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0.01	0.01	성북구
다문화가정 축제	0.20	0.20	광진구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실시	0.22	0.15	관악구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0.12	문화체험행사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축제	0.10	0.14	노원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0.02	0.06	양천구
다문화가족 문화교실(금천구)		0.10	'10년 신규사업
외국출신주민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0.14	0.14	구로구
세계인의 날 다문화 행사 지원	0.20	0.32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한국문화체험 지원	0.05	0.05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참여활동	0.01	0.01	영등포구
자조집단 모임 육성 및 지원			비예산사업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0.03	0.03	강북구

사업명	2009	2010	비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0.20	은평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실 운영	0.01	0.02	강북구
다문화 음식 축제	1.50	1.29	성북구
한국 전통문화 체험	0.04	0.04	양천구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	0.11	0.11	동대문구
한국전통문화 체험행사	0.05	0.05	영등포구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최	0.15	0.20	서초구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0.09	0.15	광진구
지구촌 한마당 행사	5.00	5.00	서울시민의날
외국출신주민 생활가이드북 제작	0.10	0.08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0.45	0.62	중구
결혼이민자가정 친정엄마 되어주기	0.02	0.02	구로구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다문화가족지원사업)	1.40	1.40	양천구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사업	0.04	0.05	노원구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0.42	0.42	강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개최	0.02	0.02	구로구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0.08	0.08	중구
다문화가정지원사업	0.05	0.06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0.34	0.16	성동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0.10	0.10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주민 지역사회 적응 교육(구로구)		0.02	'10년 신규사업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구로구)			비예산사업
한국어교실 운영(다문화가정 멘토링 운영 등)	0.01	0.01	용산구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0.03	0.05	금천구
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대상프로그램	0.05	0.05	금천구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0.04	0.04	도봉구
다문화가족 한마음캠프	0.10	0.10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광진구			비예산사업
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운영	0.07	0.12	광진구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광진구		0.06	'10년 신규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0.10	0.10	마포구
외국출신주민 거주자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	0.24	0.44	강동구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0.17	0.22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0.17	0.27	서대문구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1.50	2.30	4개구 설치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서울시)	0.55	0.35	멘토사업

사업명	2009	2010	비고
결혼이민자여성 취업교실 운영(구로구)	0.00	0.14	'10년 신규사업
다문화가족 여성 취업지원 프로젝트	0.30	0.05	서울시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0.07	0.07	도봉구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 문화 조성(서울시)			비예산사업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0.25	0.30	광진구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0.50	0.50	광진구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코디네이터 지원사업	0.92	1.00	용산구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0.05	0.05	관악구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사업	0.14	0.14	동대문구
합계(112개)	1,758.76	321.92	

출처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012)」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 서울시 구별 시행 프로그램 명칭

구	과	프로그램명
강남구	자치행정과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강동구	가정복지과	제6기 결혼이민 이신전심 행복 프로젝트
	자치행정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강북구	의약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의료서비스)
	자치행정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교실 운영
강서구	보건소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평생교육팀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관악구	가정복지과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실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한국어 과정 운영(건국대 언어교육원 위탁교육) 성인. 외국출신주민 문해 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다문화가정 축제 다문화가정 한국어과정 운영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보건의료과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검진
	자치행정과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운영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문화체육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구	과	프로그램명
구로구	주민생활 지원과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단체 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
	가족복지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가정 친정엄마 되어주기 구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회의 개최
	건강관리과	외국출신주민근로자 무료진료
	클린도시과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금천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문화교실(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치행정과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노원구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한국어교실)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의약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가정복지과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도봉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보건소 의약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도봉구 보건소)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희망한마당 캠프)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한국문화의 이해확대(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
마포구	교육지원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한글교실)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학습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서초구	문화행정과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개최
성동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북구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각 동 자치회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가정복지과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한국문화 이해확대(성북구청, 성북문화원)
	행정국 대외 협력 지원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환경 개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보건소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송파구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구	과	프로그램명
양천구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전통문화 체험)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활성화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국제지원과	다문화이해증진(다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한국문화 이해특강)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한국문화 이해증진(외국출신주민 한문화체험 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생활가이드북 제작) 다문화이해교육강화(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외국출신주민지원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정복지과	다문화이해증진(자조집단 모임 육성 지원) 다문화가족 워크숍 한국문화 이해증진(한국 전통문화 체험)
용산구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적응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
	가정복지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한국어·다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결혼이민자 행복 찾기 프로젝트)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 서울생활 지원센터 운영(용산 글로벌빌리지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은평구	주민자치과 (자치사업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보건지도과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진료편의 제공(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조동 주민생활 지원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가정복지과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중구	보건소 의약과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건강검진
	보건소 지역보건과	결혼이민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 문화탐방기회 제공
	주민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 지원)
	주민생활 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 사업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중랑구	자치행정과	2010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개설)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취업지원)

출처 : 제1차 외국출신주민정책기본계획(2008~2012),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3. 구별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2010년 구 단위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 실시계획이 없는 동작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 구에서 실시하는 96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78]

(1) 강남구

강남구는 약 1.3만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1.1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8위에 해당한다.

〈표 19〉 강남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2,832	3.8%	구 1	1.10 (23구 중) 8위

① 운영체계

강남구 자치행정과는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선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행정 및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해줄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표 20〉 강남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 행정과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행정 및 각종 생활불편 해소창구 마련과 유관기관 연계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어 강좌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한국인주민 대상 외국어(영어)강좌 •전통음식 만들기·한지공예·사물놀이·탈춤·태권도·떡 만들기 등 각종 전통문화체험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2010년 신규 계획 : 한글강좌 확대,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발간, 외국출신주민 범죄예방 민원센터 운영

78) 전체 125개 사업 목록은 부록 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1을 참고. 서울시 96개 프로그램은 부록2. 지원기구 및 프로그램 중 2를 참고

또한, 지역사회에의 빠른 정착을 위한 한국어 강좌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각종 전통문화체험 및 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진행한다. 2010년에는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며 범죄예방 민원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표 21〉 강남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상담, 멘토링, 취·창업지원 •합동결혼식

② 추진체계

강남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표 22〉 강남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강남구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체류지원 강화(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중앙정부	
시	서울시 시비 100% ↓
구	↓ ↓
수행기관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2) 강동구

강동구는 7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4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13위에 해당한다.

〈표 23〉 강동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강동구 주민등록 인구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7,035	2.1%	구 2	0.54 (23구 중) 13위

① 운영체계

강동구 가정복지과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거주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한다.

〈표 24〉 강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제공(이화-강동아카데미 혹은 현장체험학습) •한국문화 쉽게 익히기 : 한국예절, 음식, 우리고장 알기 등 •가족화합 : 남편 기 살려주는 음식, 아이를 집으로 부르는 음식 만들기 등 •우리가족 건강 지키기 : 건강검진, 생활 속 요가배우기 등 •수혜인원 : 2010년 기준 60명/총 교육 횟수 22회
자치행정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외국출신주민 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 •암사1동 외 3개동 자치회관에서 한국어 강좌(암사1동, 성내2동, 천호1동, 길동) •역사, 문화체험 등으로 한국어교육 범위 확대 •수혜인원 : 1개월 당 100명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강동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는 지역 내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와 결혼이민여성의 안정된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봉사단을 조직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 강동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동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8	•강동구 및 인근지역의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결혼이민여성 등 체류외국출신주민의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 지원
강동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9	•다문화가족 봉사단 조직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사회 이해교육 및 정보제공 •맞춤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지원 •외국출신주민노동자 및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결혼식 지원

② 추진체계

강동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는 구비 100%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프로그램 역시 구비 100%로 집행되고 있다.

〈표 26〉 강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제6기 결혼이민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중앙정부		
시		
구	강동구 가정복지과 직영 구비 100%	강동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
수행기관		강동구 내 4개 동 자치회관

(3) 강북구

강북구는 약 5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7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11위에 해당한다.

〈표 27〉 강북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강북구 주민등록 인구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5,099	1.5%	구 3	0.57 (23구 중) 11위

① 운영체계

의약과 건강검진팀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쓴다. 현재 26개인 외국출신주민 진료기관 수를 50개소로 확대하며, 통역서비스와 함께 외국어로 된 진료안내 홍보책자를 배포한다. 자치행정과는 거주 외국 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행사를 연 1회 진행하며,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8〉 강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의약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외국출신주민 진료기관 활성화(현 26⇒50개소로 확대) •보건소, 의·약국 이용 외국출신주민 대상 동시통역 서비스 실시 •외국어로 의료기관 및 진료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자치행정과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체험 한마당)	•연 1회 하반기에 강북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문화탐방 및 전통음식 체험 •관내문화재, 순국선열 묘역 견학 및 문화공연 관람 •수혜인원 : 50명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예절교실 운영	•추석명절을 맞이해 한국의 전통예절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이해와 적응을 돕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주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도록 일조 •강북문화원 전임강사의 지도로 추석 차례상차리기, 송편 만들기, 한복 입는 법, 다도, 다식, 전통 절 등 예절교실 운영 •수혜인원 : 30명

지역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생활 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9〉 강북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언어발달 진단 및 한글교육 •방문서비스(한국어, 아동양육, 임신 출산지원) •센터사업(한글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컴퓨터교육, 매월 3번째 수요일에 패밀리 데이 행사, 상담 등)

② 추진체계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모든 예산이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강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의약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체험 한마당)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예절교실 운영
중앙정부			
시			
구	강북구 의약과 검진팀 구비 100%	강북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강북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4) 강서구

강서구는 9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85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8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강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9,090	2.7%	구 3	0.85 (23구 중) 8위

① 운영체계

강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여성 이민자가 검진팀 건강검진실에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2010년부터는 여성이민자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검사 항목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마스 같은 화합 축제를 지원한다.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에서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강좌와 생활요리교실, 박물관 견학 등 교육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표 32〉 강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보건소 의약과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 건강검진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위한 건강검진 실시 •혈압측정 및 체위검사(혈압, 신장, 체중, 시력, 비만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09년 사업의 개선할 부분 : 대상자 자료 불충분, 적극적 홍보부족, 일반적인 검진으로 정확한 질병측정 미흡 •'10년 추가된 부분 : 자녀에게도 검진 확대, 검사항목 추가(골밀도, 동맥경화 협착증 검사 등)
가정 복지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화합축제 및 민간단체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 강사양성 교육, 경제교실 운영 •화합축제(아름다운 동행, 크리스마스 축제) •수혜인원 : 300명
교육 지원과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 교실	•한국어강좌 5개 반 연중운영 •생활요리교실 연 2회 운영 •박물관 견학 및 지역축제 참여 •수혜인원 : 140명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출신주민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다문화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표 33〉 강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8	•한국어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방문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다문화 인식 개선

② 추진체계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은 모든 예산이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강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보건소 의약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여성 무료검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예절교실 운영
중앙정부			
시			
구	구 단독/비 예산 사업 (건강검진. 구 의료비에서 포괄집행)	강서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강서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5) 관악구

관악구는 2.2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41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관악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22,201	4.2%	구 3	3.41 (23구 중) 3위

① 운영체계

관악구 가정복지과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6〉 관악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초·중·고급 단계별 한국어과정(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위탁)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한국문화체험이 없는 20가정을 대상으로 고궁이나 남산 등 문화체험)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30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서울대 학생과 1:1로 연결하여 정서지원, 생활지도)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취학 전 유아 기본 학습능력 발달지원)	•독서지도 전문기관에 위탁(2010.2월 관악구 홈페이지, 다문화사업 추진기관, 관악새소식 등을 통해 홍보, 모집) •독서지도사가 주1회 미취학 아동의 가정 방문 후 독서지도 •수혜인원 : 아동 13명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다문화 축제 : 2010년 6월 다문화음식 체험 및 공연 •문화체험 : 고궁이나 남산 등 문화체험

관악구 외국인지원기관인 남부교육센터는 교육, 관악구 건강지원센터는 건강과 체험학습,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 및 지역공동체사업, 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 여성 교육과 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37〉 관악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남부 교육센터	2001	•한글(문해)학교 : 지역성인 기초 한글교실 •이주여성학교(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노래배우기) •여성학교 '오름' : 기초인문학, 기초외국어 과정
관악구 건강 가정 지원센터	2005	•연 4회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국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전통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명절음식 및 김장김치 만들기, 도예마을
봉천 종합 사회복지관	1992	•다문화 네트워크 통합 지원 사업 '아름다운 동행' •한국어교육, 자조모임(생활 나눔 및 육아정보 교환), 멘토링(한국인과 1:1결연), 긴급지원 등 •지역공동체 '신나는 지역여성자원봉사단' 조직
선의 관악 종합 사회복지관	1987	•다문화 가정 여성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② 추진체계

관악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중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지원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구비 자체조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관악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취학 전 유아 학습지원)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축제 개최)
중앙정부	중앙정부 국비 50% ↓		
시	서울시 시비 50% ↓		
구	↓ ↓ ↓	관악구 가정복지과 구비 (여성발전기금) 100%	관악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서울대 언어교육원 100%		

(6) 광진구

광진구에는 1.4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며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다. 구 운영 프로그램은 10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2.4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4번째로 많다.

〈표 39〉 광진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4,747	4.4%	구 10	2.40 (23구 중) 4위

① 운영체계

광진구는 5개 과에서 다문화 지원 사업을 분담한다. 우선 교육지원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교육 강화, 성인·외국출신주민 문화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자치행정과는 다문화가족 여성 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프로그

〈표 40〉 광진구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지원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및 우리문화 역사체험 •건국대 언어교육원 위탁. 한글강좌,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강의(6개반) •수혜인원 : 90명
	성인, 외국출신주민 문해 교육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기초 문자해독 교육을 실시.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와 정체성 확립을 도움 •동부 밑거름학교 외 7개 기관에서 수행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행사 (다문화가정 축제)	•연 1회 (2010년에는 10월) 광진 구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 축제 •거리퍼레이드, 다문화전시관 및 체험, 노래자랑, 고국에 사랑의 편지보내기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능동 및 구의1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한글·문화교육 •수혜인원 : 광진구 결혼이주자 1,205명 •비 예산 사업(공공근로자 사용)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재한 몽골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환경개선 및 면학 분위기 조성 •급식시설 및 기숙사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비품 구입
보건 의료과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관내 외국출신주민 재한 몽골학교 학생,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실시 •수혜인원 : 2010년 281명
자치 행정과	자치회관 (주민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4개 동 자치회관(자양4동, 화양동, 능동, 구의1동)에서 레벨테스트를 통한 초급, 중급별 한글교육 및 문화교육 •2010년 계획 : 역사·문화체험 등 교육범위 확대,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내실화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정보교류 공간이 없는 다문화 가족에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조기적응 향상 •다문화가족의 친목도모, 공동체문화 조성 •수혜인원 : 월 355명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1식 3,500원) (66명 X 3,500 X 20일 X 12개월)
문화 체육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 : 한국 나담 축제(몽골의 가장 큰 전통축제를 한국에서 재현), 몽골 문화 한마당 •지구촌 한가족 운동본부 : 외국출신주민 국토문화탐방, 국제학생 봉사사업, 외국출신주민 문화예술 축제

램을 운영하고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족 쉼터운영과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과는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는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를 담당한다.

광진구의 세종교육센터는 내·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동부 밑거름학교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한글강좌, 그리고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몽골학교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 광진구 외국인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세종 교육센터	2007	•일반시민, 결혼이민자, 이주근로자 125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7개 과정 운영
동부 밑거름학교	1968	•이주여성 한국어교실(1년 과정) •공동체 및 문화 활동 •상담
건국대 언어교육원	1990	•한글강좌, 한국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 (광진구 교육지원과 → 건국대 위탁)
광진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몽골학교 예절교육 외 가족지원 프로그램

광진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 종교관련 기관은 나섬공동체 내 단체들로, 교육 및 선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몽골문화원, 나섬다문화생태마을, 나섬어린이집 운영)

〈표 42〉 광진구 종교단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종교단체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1999	•몽골 학제를 따라 초·중·고 12학년제로 몽골어, 몽골역사 외 기타 영어, 한국어 등을 수업함
나섬공동체 (나섬다문화학교)	2006	•한국거주 이주민들이 강사가 되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주민들의 문화 소개
나섬공동체 (서울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선교회)	1996	•한국에 온 외국출신주민 근로자들을 선교하여 자국으로 역 파송하는 선교회
나섬공동체 (나섬교회)	1996	•국가별 언어로 예배·각종 행사

② 추진체계

광진구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사업 가운데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이해,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등 3개 프로그램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관이나 전문교육기관인 대학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광진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1

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보건의료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	몽골학교 학생 건강검진 및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자치회관(주민 자치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글교실
중앙정부			
시			
구	광진구 교육지원과 구비 100%	보건소 보건의료과 구비 100%	광진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
수행기관			4개 동 자치회관 100%

〈표 44〉 광진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취학 전 유아 학습지원)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축제 개최)
중앙정부		중앙정부 국비 100% ↓	
시		↓	
구	광진구 교육지원과 구비 100% ↓	↓ ↓ ↓	광진구 교육지원과 구비 100%
수행기관	건국대 언어교육원 100%	동부 밑거름학교 외 6개 기관 10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45〉 광진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3

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쉼터운영	몽골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중앙정부			
시			
구	광진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광진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광진구 문화체육과 구비 100% ↓ ↓
수행기관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지구촌 한마음 운동본부

(7) 구로구

구로구는 3.4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0.2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구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34,408	10.29%	구 7	0.57 (23구 중) 11위

① 운영체계

주민생활지원과는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단체 문화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며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도 실시한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 및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보건소 주관 하에 구로사랑봉사대와 구로의료기관 등과 공동 전개한다. 방식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수시 진료이다.

클린도시과는 무단투기 단속자 중 70% 이상을 외국출신주민으로 구성하여 가리봉동, 구로동 등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47〉 구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주민 생활 지원과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행사 지원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단체 문화체육행사 지원 •참여인원 : 10,000명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	•쓰레기 배출요령 교육 •외국출신주민이 간과하기 쉬운 불법행위, 범죄예방 대책 교육 •방문취업제도, 사회통합 이수제 교육 •수혜인원 : 500명
가족 복지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교실 운영(컴퓨터, 미용, 조리 등)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결혼이민자 가정 여성의 친정엄마가 되어 함께 외로움 극복 돕기, 전통문화 체험
	구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회의 개최	•분기별 또는 필요시 회의 개최를 통해 외국출신주민 지원 사항 논의
건강 관리과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무료진료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한 무료진료 수시 실시 •보건소 주관 하에 구로사랑봉사대와 구로의료기관 등과 공동 전개 •수혜인원 : 2010년 330명
클린 도시과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한글 및 중국어로 된 쓰레기 배출 홍보물, 안내테이프 배부 •3개 국어로 된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부착 •무단투기 집중 계도 및 단속

구로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총 5개로 주로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 및 간식 제공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표 48〉 구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한국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센터	2004	•상담, 교육, 각종행사, 무료진료 •미디어(이주민방송 MNTV, 다국어뉴스레터 Migrant OK, 이주민 실무자 네트워크 Migrant.kr, 소식지 무지개)
구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가족단위 교육, 상담, 가족 친화문화 조성사업
화원 종합사회복지관	2005	•센터 내 '꿈이 있는 국제가족지원센터' 운영 •상담, 교육, 사회적응, 자녀교육 및 양육, 자조모임, 자원 •봉사단 조직, 인식개선 문화제 및 캠페인 실시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전용 의원	2004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 차원을 넘어서 치료 제공 •일반외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한의학과 및 주말진료
(사) 한국 이주노동자 복지회	-	•푸드 뱅크 사업(제빵 제과 등 식품회사의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간식 및 부식 전달) •상담, 한국어, 컴퓨터교육, 무료강좌(수족요법, 뜸 등)

구로구에 있는 종교단체 가운데 외국출신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는 개신교 교단으로 종교와 상담, 그리고 한국 적응을 위한 기본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49〉 구로구 종교단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종교단체	설립연도	프로그램
서울 조선족 교회	1999	•예배, 조선족 커뮤니티, 한방 및 치과진료, 미용봉사, 쉼터 •인권상담(결혼이민자, 국적, 영주권, 산재, 임금체불)
한중 사랑 교회	2001	•예배, 성경공부, 무료진료, 민원상담(법률, 출입국 등)
서울 중국인 교회	-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 우리 전통문화 전수

② 추진체계

클린도시과의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정복지과의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사업의 경우만 구로구 가족복지과에서 수행기관인 여성단체연합회로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다.

〈표 50〉 구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가족복지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의 친정엄마 되어주기	구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회의 개최
중앙정부			
시			
구	가족복지과 구비 100%	가족복지과 ↓ 구비 100%	가족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구로구 여성단체 연합회	

〈표 51〉 구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주민생활 지원과		건강관리과	클린도시과
프로그램	세계인의 날 등 외국출신주민 단체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적응교육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무료진료	외국출신주민 집중 거주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중앙정부				
시				
구	주민생활 지원과 구비 100%	주민생활 지원과 구비 100%	건강관리과 구비 100%	비예산 사업
수행기관				

(8) 금천구

금천구는 2.2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6.7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2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9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표 52〉 금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22,534	6.73%	구 3	0.20 (23구 중) 19위

① 운영체계

금천구 가정복지과는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자치행정과는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연 2회 실시한다. 또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관련 교육을 수행한다. 2010년부터는 외국출신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표 53〉 금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교육 실천으로 다문화가족의 구심점 마련 •한국어교실, 개인·가족 상담, 이중 언어교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자치행정과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외국출신주민 가족 문화체험학습('10년 2회, 80명 참가) •외국출신주민에게 우리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제공 •체험 참가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효과 증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대상 프로그램)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연 12회) •주민과 외국출신주민이 함께하는 한글교실(자원봉사자 이용) •'10년 보완된 부분 : 외국출신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참여유도, 외국출신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과 연계학습 실시 •수혜인원 : 2010년 100명

금천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총 4개로 주로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 자원봉사센터 등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는 협력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 금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금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7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컴퓨터 교실 •상담, 의료지원, 한국문화탐방, 김치나누기 •다문화도서관(다양한 나라의 도서 배치)
금천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진행
다문화 복지센터	2007	•다문화 어린이마을(만3세~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및 다국어교육, 특기교육 실시)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초등학생 이상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방과 후 및 방학 중 학습지도와 문화프로그램 실시) •이주여성 지원센터(영화로 배우는 한국어교육 등)

② 추진체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은 구비 자체조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금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자치회관 외국출신주민 대상 프로그램)
중앙정부	중앙정부 국비 50% ↓		
시	서울시 시비 50% ↓		
구	↓ ↓	금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금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수행기관	금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00%		

(9) 노원구

노원구는 6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9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44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5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노원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6,592	1.97%	구 5	0.44 (23구 중) 15위

① 운영체계

노원구 자치행정과는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과 같은 축제 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의약과 건강검진팀은 노원구 보건소의 건강검진실과 의약과 의무팀을 통해 진료편의를 제공한다. 건강검진실에서는 거주 외국출신주민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의약과 의무팀에서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지역사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를 확립한다.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결혼이민여성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표 57〉 노원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 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 한국어교실(총 5개 민간기관 연계 위탁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자조모임 동아리 활성화 •수혜인원 : 250명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노원구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다문화주간행사 실시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행사 : 노원 거리 Art Festival, 각종 축제 프로그램에 거주 외국출신주민 초청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축제 : 난타공연, 유공자 표창, 다문화 의상체험, 다문화 홍보 등 •거주 외국출신주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의약과 건강 검진팀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공공의료 제공 •혈압 및 체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실시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보건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환경 조성(외국어매뉴얼 개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 확립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관내 종합병원에 진료 연계
가정 복지과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여성과 자원봉사자의 1:1 멘토링 추진 •수혜인원 : 22명

노원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총 3개로 주로 교육 및 상담, 그리고 한국 문화 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58〉 노원구 외국출신 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9	•방문교육사업,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실 '우리말나무' 개강(초급) •컴퓨터교실 '다문화월드' 개강 - IT서포터즈 후원 •한국어교실 '우리말나무' 중급 TOPIK 대비반 개설
월계 종합 사회복지관	1992	•외국출신주민 주부 20명에게 한글교육 •문화체험(봄, 가을 나들이)
중계 종합 사회복지관	1992	•다문화가정 교육 및 체험지원(한국어 초·중급, 한국요리교실, 한국문화 체험 교실 'Love Korea!' •부부교육 및 상담, 가족나들이, 법률 상담 교육 •다문화 강사양성 '문화알리미' 교육

② 추진체계

비예산 사업인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노원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어울림 한마당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중앙정부			
시			
구	노원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 동 주민센터	노원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노원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 총 5개 민간기관		

〈표 60〉 노원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의약과 건강검진팀	
프로그램	거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외국출신주민 이용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	
시	서울시 ↓	
구	노원구 보건소 의약과 비 예산 사업	구 단독/비 예산 사업
수행기관		

(10) 도봉구

도봉구는 4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11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22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 도봉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4,090	1.22%	구 3	0.11 (23구 중) 22위

① 운영체계

도봉구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프로그램은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된다. 의약과 건강검진팀은 도봉구 보건소를 통해 외국출신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한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출신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전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의 효과가 기대되며, 일반주민 무료검진 지원비용에 포함되므로 비예산 사업이다.

〈표 62〉 도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	•미용교육 및 취·창업 지원(네일 아티스트 양성과정, 메이크업 전문 아티스트 양성과정), 수혜인원 : 250명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초·중·고급 수준별 수업) •배우자, 시부모 등 동반가족에 대한 교육사업 실시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멘토 & 멘티사업 실시 •수혜인원 : 2,500명
보건소 의약과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비적용 외국출신주민에게 건강 검진 제공 •외국출신주민 진료 안내 및 교육 : 보건소, 의료기관, 다국어 안내 시스템 이용법, 전염병 예방교육 등, 수혜인원 : 68명

② 추진체계

비예산 사업인 보건소 의약과의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구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 도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의약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외국출신주민 건강검진
중앙정부			
시			
구	도봉구 가정복지과 ↓ 구비 100%	도봉구 가정복지과 ↓ 구비 100%	비 예산 사업
수행기관	민간기관 위탁추진	도봉구 건강지원센터	

(11)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1.4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2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35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6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4,381	4.29%	구 3	0.35 (23구 중) 16위

① 운영체계

동대문구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국문화의 이해 등 확대 프로그램 2건, 다문화가족의 생활기반 조성확대 프로그램 1건 등 총 3건의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한국문화 이해 확대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 캠프로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한다. 추진 주체는 동대문구로 매해 8월 캠프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핸드페인팅, 천연염색, 허브비누 만들기)과 가족장기자랑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한국문화 이해 확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사업으로 유적지 등 한국문화 탐방기회 제공으로 가족 간 친화력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이질감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였다. 장소는 관내 유적지이다. 다문화가족의 생활기반 조성 확대 프로그램은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함으로써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표 65〉 동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희망한마당 캠프)	•연 1회 캠프개최 •전통문화 체험(핸드페인팅, 천연염색, 허브비누 만들기) •가족한마당(가족 장기자랑) •수혜인원 : 80명
	한국문화의 이해 확대 (다문화가족 꿈나무양성)	•유적지 등 한국문화 탐방의 기회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수혜인원 : 80명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1,000부 제작 •주거, 교통 등 일반생활정보, 건강·의료서비스 정보 수록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담 및 봉사 그리고 지역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66〉 동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동대문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2009	•다양한 국가에서 온 26명의 주부로 구성된 '우리동네 행복 메아리' 합창단 창설(음악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각종 공연과 봉사활동) •'다문화 해피콜센터'(8개국 출신 코디네이터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

② 추진체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3개 사업 모두 구비로 자체조달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동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희망한마당 캠프)	한국문화의 이해 확대 (다문화가족 꿈나무양성)	거주 외국출신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중앙정부			
시			
구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12) 마포구

마포구는 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15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21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 마포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0,882	3.25%	구 2	0.15 (23구 중) 21위

① 운영체계

마포구 교육지원과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한국어 일대일 맞춤교육과 6개월 단위의 계속적인 집중교육, 외국출신주민에게 맞게 제작된 전문교재를 사용한다. 마포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 이해를 증진시켜 적응을 돕는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맺기, 치료놀이, 마포 투어, 방과 후 교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표 69〉 마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지원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외국출신주민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단계별 일대일 맞춤 교육, 외국출신주민에 맞게 제작된 전문교재 사용, 6개월 단위의 계속적인 집중교육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의 세분화된 영역 •수혜인원 : 40명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여가기회 제공, 한국문화 이해증진 •결혼 이민여성 친정부모 맺기, 시부모·남편 교육 •다문화가족자녀 방과 후 교실 운영 •서울·마포구 투어 •수혜인원 : 350명

마포구의 외국출신주민 관련 기관은 대부분 취업 및 적응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70〉 마포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여성자원 금고	1990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수강료 2만 원) •아시아 노동교실(취업교육, 적응교육, 문화 체험)
전국 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	2006	•다문화가족 정책 전달체계로서 전국 159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기관 네트워크 협력
중부 여성 발전센터	1986	•여성 전문 직업 교육기관

② 추진체계

마포구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국비 73%, 구비 23%로 구성되며, 가정복지과 사업의 경우 국비가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 마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총괄) 국비 73% ↓	보건복지부 국비 100% ↓
시	↓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
구	마포구 (사업시행주체) 구비 27% ↓	마포구 100%
수행기관	여성자원금고 100%	

(13)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1.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59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 서대문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1,539	3.45%	구 3	0.59 (23구 중) 10위

① 운영체계

서대문구 주민생활 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측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로서 문화유적 답사,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학습은 고궁·박물관·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은 서대문구청이 서대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73〉 서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1박 2일 캠프 운영 •문화유적 답사, 건강가정 강좌, 레크리에이션 등 제공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연 2회 고궁·박물관·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참가인원 : 200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서대문구 거주 다문화가족 및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연 2기 운영 •초·중·예비반 각 주2회 4시간

서대문구의 민관협력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적응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74〉 서대문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다문화가족 초기적응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의 두 분야)

② 추진체계

서대문구청에서 실시되는 3개 프로그램은 모두 구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표 75〉 서대문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한마음 캠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중앙정부			
시			
구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14) 서초구

서초구는 9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1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1.6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6〉 서초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9,425	2.81%	구 2	1.60 (23구 중) 6위

① 운영체계

서초구 문화행정과에서는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서울거주 프랑스인을 비롯한 외국출신주민, 지역주민 및 예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프랑스 문화원과 프랑스 학교, 서초구 반포4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한불축제 추진위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추진한다. 이 음악축제는 전국 불문과 대학생들의 상송대회, 야외공연, 뮤직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표 77〉 서초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문화 행정과	서래 글로벌빌리지 센터 운영	•외국출신주민의 국내생활 조기정착 도모 및 지역커뮤니티 구성 •민원 행정서비스, 생활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지원 •수혜인원 : 2010년 5,000명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음악축제 개최(야외공연, 뮤직퍼레이드 등) •프랑스어권 샹송대회 지원(전국 불문과 샹송대회 지원) •참가인원 : 2010년 5,000명

② 추진체계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시비로 100% 조달되며, 이외의 반포 서래 한불음악축제 등은 구비 자체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서초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문화행정과	
프로그램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반포 서래 한불 음악축제
중앙정부		
시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 시비 100%	
구	서초구 문화행정과	서초구 문화행정과 구비 100%
수행기관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5) 성동구

성동구는 1.1만 여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2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16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20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9〉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0,940	3.27%	구 1	0.16 (23구 중) 20위

① 운영체계

성동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Family 캠프, 수요음악회,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선콘서트, 한국명절 음식 만들기 등이 있다.

〈표 80〉 성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Family 캠프(한국문화체험, 자연체험) •여성단체연합회와 함께하는 한국명절 100배 즐기기 •다문화가족 한국어 및 요리교실 •수혜인원 : 2010년 230명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인 성동 건강복지센터는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언어 및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81〉 성동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성동 건강복지 센터	2002	•매주 일요일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국어, 컴퓨터교실 운영

② 추진체계

성동구청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추진은 구 단독(구비 100%)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82〉 성동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앙정부	
시	
구	성동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16) 성북구

성북구는 9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9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1.58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3〉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9,860	2.94%	구 7	1.58 (23구 중) 7위

① 운영체계

성북구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를 통해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담당한다. 자치행정과 내 자치운영팀에서는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를 위해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가정복지과 다출산장려팀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간의 친밀감 조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한다.

대외협력지원단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성북

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성북구 홍보, 한국 전통음식 시식 및 각종 문화공연 관람지원, 생활불편사항 접수 등을 실시하여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010년에는 성북구 삼청각에 거주 외국출신주민 100여명을 초대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언어 및 환경적응이 어려워 산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결혼이민자 임산부들에게 출산준비 및 분만과정, 신생아 돌보기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표 84〉 성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자치 운영팀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2개소 동 자치회관(성북동 주민센터,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한글기초 및 말하기, 쓰기 등 무료교육
자치행정과 자치 행정팀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성북 다문화 빌리지센터)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언어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강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어린이 놀이방 등 제공(이용 인원 : 300명)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성북 다문화 빌리지센터)	•서울거주 외국출신주민의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관내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참가 인원 : 100명)
가정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09년 1박 2일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 도모 •'10년에는 사업계획 없음
	한국문화 이해 확대 (다문화 음식축제)	•세계인의 날 전후 일요일 1일간 30개국 이상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음식을 나누는 한마당 개최, 전통 문화 체험(행사 참여인원 : 15,000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결혼이민자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 제공 •이미 출산을 경험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도 교육확대 예정(수혜인원 : 120명)
대외 협력 지원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환경 개선 (성북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북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을 도모 •성북구 홍보, 각종 문화공연 관람, 생활불편사항 접수 등(수혜인원 : 100명)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대부분 취업 및 적응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표 85〉 성북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3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공동 합숙기관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보육자로 24시간 상주
성북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6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북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9	•상담, 의료, 교육, 문화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② 추진체계

2009년 이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를 제외한 성북구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구 단독(구비 100%)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86〉 성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1

과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교양강좌 발굴 및 운영	문화 체험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중앙정부			
시			
구	성북구 자치운영팀 구비 100%	성북구 자치행정팀 구비 100%	성북구 자치행정팀 구비 100%
수행기관			

〈표 87〉 성북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가정복지과		건강관리과	행정국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마음 가족캠프	한국문화 이해 확대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 가꾸기 사업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환경 개선
중앙정부				
시				
구	성북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성북구 가정복지과 구비 100%	성북구 건강관리과 구비 100%	성북구 행정국 구비 100%
수행기관				

(17) 송파구

송파구는 1.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4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2.22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8〉 송파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1,456	3.42%	구 1	2.22 (23구 중) 5위

① 운영체계

송파구청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어·다문화이해 교육 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한글 및 컴퓨터 교육, 취업·창업지원, 자녀의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가족통합프로그램, 사물놀이, 건강검진과 상담 등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족 축제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도 운영된다.

〈표 89〉 송파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여성 가족과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	•여성교육(한글, 컴퓨터, 취업교육 및 2세 교육) •가족통합프로그램(다문화사회 이해, 가족교육, 캠프 등) •기타 프로그램(건강검진, 사물교실,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결연 사업(다문화 가족과 관내 교회 및 어린이집 원장을 결연하여 학습 지도 및 아동 양육 지원)

송파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90〉 송파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송파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5.04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등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

② 추진체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국비 17%, 시비 17%, 구비 69%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1〉 송파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송파구 여성가족과
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앙정부	중앙정부 → 국비 17%
시	서울시 → 시비 17%
구	송파구 여성가족과 → 구비 66%
수행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

(18) 양천구

양천구는 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6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2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8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2〉 양천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7,749	2.31%	구 6 민관기관 5	0.27 (23구 중) 18위

① 운영체계

양천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주체는 양천구이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회의로 구성된다.

지역생활 안내 책자인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추진된다. 사업내용은 각 나라의 전통의상·음식 전시 및 체험, 퍼레이드, 풍물 벼룩시장, 외국출신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를 위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 차원에서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다.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지역주민의 접근이 자연스럽고 누

〈표 93〉 양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연 2회 회의를 개최해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마련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 배포	•양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한국어의 5개 언어로 2,000부 제작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각 나라 전통의상, 음식, 전시 및 체험) •외국출신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스티커 부착 설문, 격려메시지 남기기 등 실시 (참가인원 : 1,000명)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전통문화 체험)	•연 2회 양천구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문화체험행사 개최(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고궁 및 박물관 탐방) •참가인원 : 90명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동 주민센터의 접근성을 살려 목4동, 신월7동, 신정7동 주민센터를 교육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 한글교실, 자조모임 동아리 활성화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교육지원(한국어, 컴퓨터, 한국 요리교실) •복지지원(상담/정보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제공) •문화지원(한국문화나들이, 사랑방운영, 멘토링) •다문화지원(다문화 요리교실, 다문화가족문화사절단, 김장나누기 등) •통합지원(다문화축제, 인식개선캠페인, 홍보출판사업) •수혜인원 : 5,200명

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거점화하여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 간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양천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은 대부분 취업 및 적응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94〉 양천구 민관협력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양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8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배우기(국악교실 등), 방문지도, 초등학생을 위한 뮤지컬 교실 등 공연 프로그램
양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9	•교육프로그램(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한국요리교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양천 신목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신목 종합 사회복지관	1997	•교육지원, 상담 외 행사 프로그램 실시(다문화 축제, 다문화 요리 배우기 & 나누기 등)
신월 종합 사회복지관	1990	•양천구 다문화가족 DB구축, 문화이해교육, 인식개선교육, 통합문화 체험활동, 멘토링 사업, 자녀양육교육, 취미교실
신정 종합 사회복지관	1996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학습 멘토, 야외활동, 일반아동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학교교사 대상으로 세미나 교육)

② 추진체계

〈표 95〉 양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 배포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중앙정부			
시			
구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수행기관			

〈표 96〉 양천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2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 등 확대 (전통문화 체험)	외국출신주민 한국어 강좌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앙정부			
시			서울시 → 시비 100%
구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양천구 자치행정과 구비 100%	↓
수행기관			서울시립 신목동사회복지관 양천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19) 영등포구

영등포구의 외국출신주민 거주 인구는 4.4만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인 13.3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관련 구 운영 프로그램은 12개가 있으며, 0.6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가운데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44,677	13.34%	구 12	0.67 (23구 중) 9위

① 운영체계

이주노동자 집중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영등포구청 국제지원과는 총 7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를 지속성과 행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4종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과 한국문화 이해 특강을 실시하는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출신주민에게 한국문화 체

험의 기회를 지원하는 한국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에선 사물놀이, 도자기 만들기, 예절배우기 등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 외국출신주민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 프로그램과 거주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도 있다.

횟수를 정해 이벤트성으로 치러지는 프로그램은 3종이 있는데 먼저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좌가 있다. 외국출신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참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연 2~4회(2009년 4회, 2010년 2회)에 걸쳐 외국출신주민 밀집거리 청소 및 자율방범, 일일봉사 등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호이해증진과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세계인 주간 및 다문화행사주간에 다문화체험마당,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행사 지원이다.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는 3종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족 워크숍은 연 1-2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내용으로 한 강연 혹은 영화감상, 멘토링, 단체 레크리에이션, 부부대화법 강의 등을 실시한다. 그 외 한국 전통문화체험행사와 자조집단 모임 및 육성지원을 실시한다.

영등포 보건소는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다문화빌리지센터 보건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내용은 테마별 건강교실 운영, 순회 진료 및 고위험군 환자 조기발견 연계관리, 무료건강검진 실시 등이다.

〈표 98〉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영등포 보건소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 보건사업 •찾아가는 테마별 건강교실 운영(매월 1회 영등포 다문화 빌리지센터에서 질병예방, 영양, 운동교육 등을 실시) •찾아가는 순회 진료(매월 1회 센터이용 외국출신주민 관리 및 고위험군 환자 발견 연계 관리) •무료건강검진(보건소 1층 건강증진센터) •진료가이드 북 및 홍보물 30종 비치
국제 지원과	다문화 이해증진	•다문화 이해교육 •연 2회 외국출신주민이 밀집한 신길5동, 대림1·2·3동 지역주민에게 타문화 이해교육 실시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	•한국문화 이해특강 •연 2회 관내거주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특강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세계인의 날 다문화 행사 지원(다문화체험마당, 다문화 음식체험마당, 다문화 한마음 체육대회 등)
	한국문화 이해증진 (외국출신주민 한국문화 체험지원)	•연 1회 10월 중 거주 외국출신주민 대상으로 사물놀이, 도자기 만들기, 예절배우기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수혜대상 : 80명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참여활동)	•연 2회 관내거주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청소 및 자율방범, 복지시설 일일봉사 등)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 (생활가이드북 제작)	•대한민국 및 우리 구 소개, 입출국관련 정보, 일반생활정보, 민원서비스, 교통/주차, 부동산/지적, 의료 등 외국출신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 800부 제작·배포(한국어, 중국어, 영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세계문화 체험 일일교실)	•관내 학교(초·중·고교 7개교)를 찾아가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세계 전통문화 체험(노래 및 악기배우기)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연 2회 회의를 거쳐 거주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정책 심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가정 복지과	다문화 이해증진	•자조집단 모집 육성지원 •결혼이민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정보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도록 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원
	다문화가족 워크숍	•연 1회 워크샵 개최 •다문화가족을 내용으로 한 강연 혹은 영화감상 •가족 단체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가족화합 도모 •1:1 멘토링 '친정엄마 되어주기' 서비스 •수혜대상 : 30~40가족
	한국문화 이해증진 (한국 전통문화 체험)	•연 2회 체험행사 제공 •전통음식 만들기(떡 만들기, 장 담그기 체험 등) •전통문화체험(한국역사체험 및 역사유물관람, 전통혼례식 체험행사) •수혜대상 : 40~60명

서울논리 Seoul Institute

〈표 99〉 영등포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	1985	•한국어 교실, 생활적응훈련, 재밌는 교실, 동아리모임, 가족나들이, 가정방문서비스, 네트워크체계구축 등의 프로그램
하자센터 하마방	1999	•센터 내 하마방은 09년 개설 •취업중인 이주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화~토/오전 9시~오후7시 미취학 아동에게 바른 한국어 쓰기, 놀이, 공연, 미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살레시오 다문화교육센터	2010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합숙 보육시설 •월~금/전일제로 아이들의 통학부터 취침까지 관리 •주말을 이용해 미술치료 등 어머니와 함께하는 활동지원

② 추진체계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12가지 사업은 모두 구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0〉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1

과	보건소	국제지원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다문화이해증진 (다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강화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중앙정부				
시				
구	보건소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수행기관				

〈표 101〉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2

과	국제지원과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증진 (외국출신주민 한문화 체험지원)	외국출신주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정보제공 및 상담강화 (생활가이드북 제작)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세계문화 체험 일일교실)
중앙정부				
시				
구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국제지원과 구비 100%
수행기관				

〈표 102〉 영등포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3

과	국제지원과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다문화 이해증진	다문화 가족 워크숍	한국문화 이해증진(한국 전통문화 체험)
중앙정부				
시				
구	국제지원과 구비 100%	가정복지과 구비 100%	가정복지과 구비 100%	가정복지과 구비 100%
수행기관				

(20) 용산구

용산구는 16.7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4.98%를 차지한다. 외국출신주민과 관련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개가 있으며, 예산은 0.2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8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 용산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6,691	4.98%	구 5	4.63 (23구 중) 2위

① 운영체계

용산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는 한국어·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 행복 찾기 프로그램의 두 가지 사업을 실행 중이다.

전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적인 자녀양육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용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후자 역시 용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한다.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는 외국출신주민의 서울생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빌리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내거주 외국출신주민의 생활불편 상담 및 정보제공, 한국어와 문화체험, 외국출신주민 자원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확대, 각종 축제 등을 담당한다.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는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을 담당한다.

〈표 104〉 용산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적응 향상을 위한 다문화 교육사 양성	•총 8주 과정으로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초급, 심화)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
가정 복지과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만 1세~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적인 자녀양육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자녀양육역량강화 •용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젝트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 문화,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 •수혜인원 : 총 4,000명
자치 행정과	외국출신주민 서울생활 지원센터 운영	•용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외국출신주민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한국어 및 한국문화 체험 •외국출신주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커뮤니티 확대구성
용문동 주민센터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초·중·상급 3개 반으로 구성하여 한국어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멘토링 운영 •현장체험 답사

〈표 105〉 용산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용산 나눔의 집	2003	•한글문화교실, 컴퓨터교실, 상담(임금체불, 산재, 출입국) •의료지원(긴급의료, 출산지원) •귀환프로그램(외노협 귀환컨서시움과 결합하여 추진중)
용산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② 추진체계

〈표 106〉 용산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다문화가족 적응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젝트
중앙정부			
시		서울시 시비 50% ↓	
구	용산구 구비 100%	용산구 구비 50% ↓	용산구 구비 100% ↓
수행기관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0%

〈표 107〉 용산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2

	외국출신주민 서울생활 지원센터 운영	외국출신주민 한국어교실 (용문동 주민센터)
중앙정부		
시	서울시 시비 100% ↓	
구	용산구	용산구 구비 100%
수행기관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1) 은평구

은평구는 6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0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4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46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4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8〉 은평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6,920	2.07%	구 4	0.46 (23구 중) 14위

① 운영체계

은평구 대조동 주민생활지원팀은 지역별 다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이주여성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자치과 자치사업팀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불광1동, 대조동, 역촌동의 3개 동의 주민자치회관에서 주 2회 외국출신주민 대상의 무료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은평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와 녹번 종합사회복지관이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를 위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다.

〈표 109〉 은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조동 주민생활 지원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확대(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다문화사업 추진리더 육성을 위한 강좌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 프로그램(결혼이주여성이 강사가 되어 자국문화를 교육)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교육과정 진행 •한국문화 체험교실, 지구촌 시민축제 등 운영
보건 지도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중 우울증 환자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를 위한 집단 미술치료 실시
주민 자치과 자치 사업팀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확대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불광1동, 대조동, 역촌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주 2회 총 300회(450시간) 무료 한국어강좌 실시(초·중급 2개 반) •문화체험(지역문화, 세시풍속, 생활예절)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기회 부여
가정 복지과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에 필요한 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 •대상 : '10년 8월(자녀방학기간) 중 1주일 간 20여명 •친정방문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및 가족구성원에게 처가 혹은 외가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기여

또한 가정복지과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항공권 및 체제비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표 110〉 은평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은평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6	•결혼이민자여성 자조모임, 직업소양교육, 무료 이·미용 서비스, 가정통합교육 '우리가족 일일나들이' 등 일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은평 외국출신주민 근로자센터	2008	•외국출신주민 노동자 대상 한글, 컴퓨터, 기초정보교육(취업준비 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 및 교육,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결혼이주여성에게 각종 교육, 가족통합 프로그램(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어머니 아버지 학교 등), 통역가 양성교육

또한 관내 민관협력기관 역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추진체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구비로 자체 조달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은평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추진체계

과	대조동 주민생활지원팀	보건지도과	주민생활과 자치사업팀	가정복지과
프로그램	아시아를 품은 대조동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한국어강좌 자치회관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중앙정부				
시				
구	은평구 구비 100%	은평구 구비 100%	은평구 구비 100%	은평구 구비 100%
수행기관	↓ 대조동 주민자치위원회			

(22) 중구

중구는 1만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3.11%를 차지한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관련 구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예산은 13.9억 원으로 23개 구 가운데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2〉 중구 외국출신주민 현황 및 관련 예산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10,425	3.11%	구 7	13.90 (23구 중) 1위

① 운영체계

중구청에는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구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은 외국출신주민근로자 건강검진을, 보건소 지역보건과는 결혼이민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가정복지과는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문화체험 캠프를 추진한다.

〈표 113〉 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관내 종교기관 및 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무료 건강검진 실시(경동교회, 정동교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흉부 X-선 촬영, 체위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보건소 지역보건과	결혼이민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다문화가정과 직원간 맞춤형 1:1 건강 멘토링 운영 •다문화가정 임산부 집중 건강관리 : 등록 후 산전·산후 관리, 임산부교실, 수유클리닉 이용 •영유아 건강관리 :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기 맛사지 •영양플러스 사업(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급)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기회제공	•다문화가족의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연 1회 국내 문화체험 캠프 주관 •'10년 탐방장소 : 안동 하회마을 •수혜인원 : 약 80명
주민생활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주2회, 요리교육 주1회 •문화체험, 부부교육 각각 연 2회 실시
행정 관리국 교육 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지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지원 •중구 초·중·고 20개교에 27명의 원어민 교사 배치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 위탁 운영) •초등학교(14명) : 광희(7명), 남산, 덕수, 신당, 청구(2명), 장충, 흥인 •중학교(6명) : 대경, 장원, 장충, 한양, 덕수, 환일 •고등학교(7명) : 성동, 장충, 환일, 계성, 이화, 성동공고, 성동글로벌경영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교사의 협동수업
주민생활 지원과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 사업	•한국어 교실(기초·중급·고급), 컴퓨터, 태권도, 문화지원 •뉴스레터 등 소식지 제공, 상담(법률, 의료)
문화 관광국 교육체육과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거주 외국출신주민 실태조사 ⇒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2회) ⇒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주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 •외국출신주민 체육대회 지원, 거주 외국출신주민 의료서비스 실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한국어, 컴퓨터, 요리교실, 상담, 부부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지원사업은 결혼이주가정뿐 아니라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에게도 집단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태권도교실 등의 신체발달 시간을 제공한다.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는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각 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의 외국출신주민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차별화된 영어교육 제공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그 외 중구의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으로는 서울 외국출신주민 노동자센터가 있으며 각종 상담, 의료, 교육, 쉼터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114〉 중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서울외국출신주민 노동자센터	1996	•인권상담 및 노동상담 •의료(무료진료, 입원·수술시 긴급의료비 지원) •쉼터운영, 교육, 공동체 구성 및 지원, 문화사업

② 추진체계

〈표 115〉 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1

과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및 체류지원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지원사업	거주 외국출신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중앙정부			
시			
구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100%
수행기관	↓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 위탁운영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표 116〉 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2

과	보건소 의약과	보건소 지역보건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프로그램	외국출신주민 근로자 건강검진	결혼이민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다문화가정 문화탐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시		↓ 서울시		
구	중구 구비 100%	↓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100%	중구 구비 60%
수행기관	↓ 중구 보건소	↓ 중구 보건소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3) 중랑구

중랑구는 7천여 명의 외국출신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2.0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관련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7개가 있으며, 관련 예산은 0.29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 가운데 17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7〉 중랑구 외국출신주민 프로그램 관련 현황

거주 외국출신주민 수 (명)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수 대비	프로그램 수	총 예산 (억 원)
7,014	2.09%	구 2	0.29 (23구 중) 17위

① 운영체계

중랑구청 자치행정과는 '2010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내 한국어 강좌,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은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취업교육을 담당한다. 미용, 봉재, IT등 다양한 기술 훈련은 물론 외국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등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 118〉 중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프로그램 현황

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자치행정과	2010「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한국어, 컴퓨터 강좌 및 한국어 문화체험교실 운영) •운영 장소 : 면목5동, 면목7동, 망우본동, 망우3동 자치회관
주민생활 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교육(미용, 봉재, IT등)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외국어 지도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코디네이터 등)

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교육과 지역 내 활동, 그리고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119〉 중랑구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프로그램 내용
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10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방문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프로그램 운영 •통번역 지원(베트남어 및 기타언어) •자조모임, 자원봉사 등 •상담(개인 및 가족, 법률상담 등)

② 추진체계

자치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구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0〉 중랑구청 외국출신주민 관련 추진체계

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 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프로그램	2010「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다문화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시		
구	중랑구 구비 100%	중랑구 구비 100%
수행기관	↓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4. 2010년 하반기 개편 후 외국출신주민 지원과 팀별 업무내용

〈표 121〉 2010 하반기 개편 후 외국출신주민 지원

글로벌계획팀	•외국출신주민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총괄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건립 •주요업무, 인사, 시의회, 국회 •글로벌화 기본계획 등 수립 •서울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글로벌 스트리트 관리, 운영 •글로벌 존 조성, 글로벌센터 설치 •외국출신주민생활 만족도 조사, 외국출신주민 관련 통계관리 •외국출신주민정책관련 법무부 업무 협의, 법무부 업무협력사업 관리 •서울문화교류관광정보센터 운영 서무 및 회계관련 업무 •지시사항, 평가, BBS목표관리 •보안관리, 월간,주간업무 •감사, 보안, 예산, 회계, 교육등 일반서무 •홈페이지 관리, 기록물 •후생복지관련, 물품관리, 문서, 급여, 수당, 기간제근로자 관리
글로벌센터 운영팀	•센터 주요업무계획 수립, 다문화사업 업무 지원총괄 •의회 관련사항, 실국 협조사항, 민원사무 처리 •유학생 포럼 운영, 서울타운미팅 운영 •글로벌/다문화빌리지 센터 운영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지원센터(코엑스) 운영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지원, 센터 상담업무 지원 및 상담 DB 구축 관리 •센터 홈페이지 통합운영 •청소년 대상 외국문화 교육사업 •생활정보 영상물 제작, 센터 간행물 제작 총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비즈니스 창업대학 운영 •외국어 표기환경 점검반 운영 •센터 업무 계획 수립, 예산 · 회계총괄, 서무 •실국협조사항, 의원요구자료, 주간업무보고, 홍보 다각화사업 총괄 •외국출신주민 벼룩시장 운영
외국출신주민 교육지원팀	•DMC 외국출신주민학교 신규 건립, 개포 외국출신주민학교 신규건립 추진 •DMC 서울일본인학교 운영 지원 •반포 외국출신주민학교 운영 지원, 재한 몽골학교 이전, 건립 지원 •팀 업무계획 수립 및 시의회, 국회 관련업무 •외국출신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글로벌 도시심의위원회(교육환경 분과) 운영 •기존 외국출신주민학교 운영비 지원 •외국출신주민 정책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협력
사회통합팀	•외국출신주민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총괄 •외국출신주민정책 관련 여성가족부 협력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다문화분과) 운영 •거주 외국출신주민 홍보대사화를 위한 인사이드 서울프로모션 운영 •서울시장배 다문화가정 축구대회 운영

The Seoul Institute 서울연구원

〈표 계속〉 2010 하반기 개편 후 외국출신주민 지원

사회통합팀	•내·외국출신주민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거주 외국출신주민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외국출신주민 생활 관련 통, 번역 및 행사지원 •New Comer 외국출신주민 정착 지원 사업 •글로벌 인턴쉽 운영 •다문화, 외국출신주민근로자 실태 및 현황 관리 •외국출신주민 지원 시설물 현장 관리

출처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http://global-economy.seoul.go.kr/)

5. 외국출신주민 유치원 및 외국출신주민 학교 현황[79)]

〈표 122〉 외국출신주민 유치원 및 외국출신주민 학교 현황

	학 교 명	주 소	교육과정	설치과정
1	서울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5	미국,영국	유,초,중,고
2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89-1	대만	중,고
3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9-3	대만	초
4	서울독일학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4-13	독일	유,초,중
5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213	미국	유,초,중,고
6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8-5	미국	유,초,중
7	한국켄트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광진구 구의동 619-30	미국	유,초,중,고
8	지구촌기독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4-22	미국	유,초,중,고
9	한국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5	미국	유,초,중,고
1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206	미국	유,초,중,고
11	서울일본인학교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3	일본	유,초,중
12	서울프랑스학교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8-3	프랑스	유,초,중,고
13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서울 중구 명동2가 83-8	대만	유,초
14	하비에르국제학교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1	프랑스	초,중,고
15	재한몽골학교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8-8	몽골	초,중
16	아시아퍼시픽국제 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노원구 월계2동 820	미국	유,초,중,고
17	레인보우외국출신주민학교	서울 서초구 양재1동 2-32	미국	초,중
18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	영국	유,초
19	프란치스코외국출신주민유치원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07	미국	유
20	이씨엘씨외국출신주민유치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5-3	미국	유
21	남산국제유치원	서울 중구 신당동 366-591	미국	유

79) 2010.09. 교육과학기술부

1.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

1)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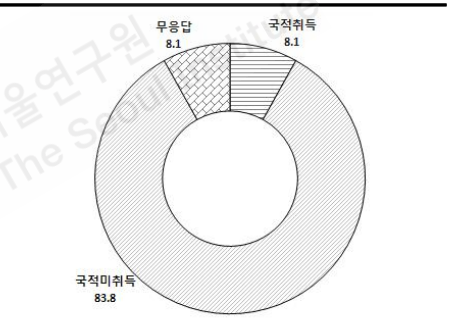
(1) 한국국적 취득 여부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 분포는 무응답 8.1%를 제외하고 국적 취득 8.1%, 국적 미취득 83.8%로 나타나 한국 체류 외국출신주민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123〉 응답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국적취득	27	8.1
국적미취득	279	83.8
무응답	27	8.1
합계	333	100



(2) 출신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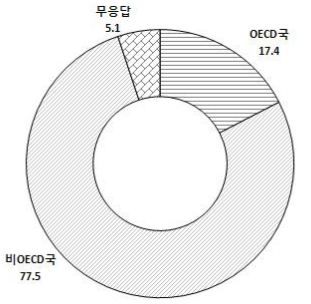
응답자의 출신국 유형 분포는 먼저 OECD국과 비OECD국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는데, 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이 17.4%, 비OECD국 출신 외국출신주민이 7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출신국가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국적 외국출신주민(11.7%), 미국(4.8%), 베트남(15.1%), 대만(12.7%), 일본(4.4%), 몽골(13.6%), 필리핀(0.6%), 캐나다(7.0%), 우즈베키스탄(0.6%), 인도(1.0%), 태국(0.3%), 영국

(3.2%), 프랑스(7.6%), 러시아(16.5%)로 나타났다.

〈표 124〉 응답자의 출신국 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OECD국	58	17.4
비OECD국	258	77.5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3)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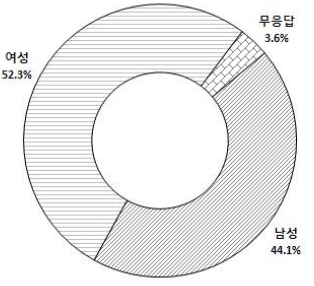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4.1%, 여성이 52.3%였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125〉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남성	147	44.1
여성	174	52.3
무응답	12	3.6
합계	333	100



(4)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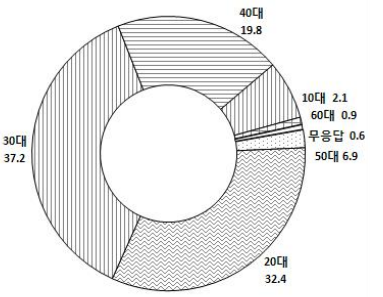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만 19세 이하가 2.1%, 20세에서 29세가 32.4%, 30세에서 39세가 37.2%, 40세에서 49세가 19.8%, 50세에서 59세가 6.9%, 60세 이상이

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6〉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대	7	2.1
20대	108	32.4
30대	124	37.2
40대	66	19.8
50대	23	6.9
60대	3	0.9
무응답	2	0.8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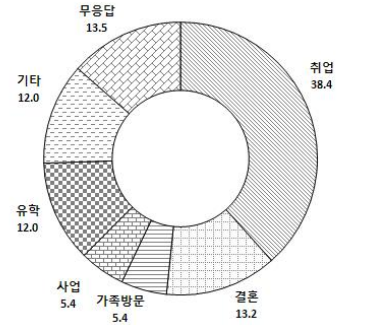
(5) 한국방문 목적

응답자의 한국방문 목적은 취업 38.4%, 결혼 13.2% , 가족·친척방문 5.4%, 사업 및 업무 5.4%, 유학 12.0%, 기타 목적 12.0%로 취업 목적의 방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7〉 응답자의 한국방문 목적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취업	128	38.4
결혼	44	13.2
가족, 친척방문	18	5.4
사업 및 업무	18	5.4
유학	40	12.0
기타	40	12.0
무응답	45	13.5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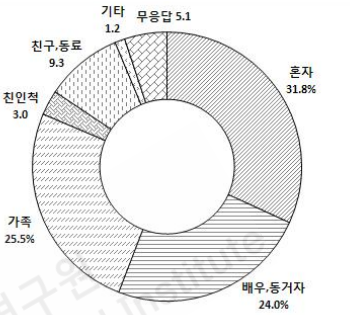
(6) 동거 유형

응답자의 동거 유형 분포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5.5%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24%가 '배우자 또는 동거자와 함께 사는 경우'라고 답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3.0%), '친구와 함께 거주'(9.3%), '기타'(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8〉 응답자의 동거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혼자	106	31.8
배우자 및 동거자	80	24.0
가족	85	25.5
친인척	10	3.0
친구, 동료	31	9.3
기타	4	1.2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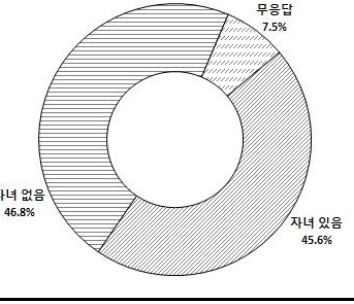
(7) 자녀유무

응답자의 자녀유무 분포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45.6%, '자녀가 없는 경우'가 46.8%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표 129〉 응답자의 자녀유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녀 있음	152	45.6
자녀 없음	156	46.8
무응답	25	7.5
합계	333	10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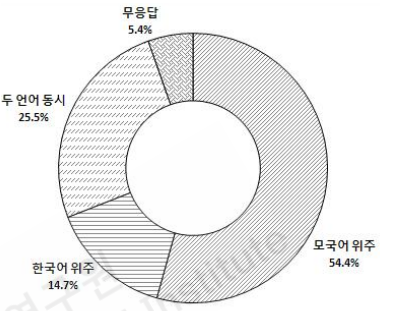
(8) 가정에서의 주 사용 언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모국어 위주로 대화'라고 답한 응답률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위주 사용'이 14.7%, '모국어와 한국어 사용이 반반'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2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0〉 응답자 가정에서의 주 사용 언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모국어 위주	181	54.4
한국어 위주	49	14.7
모국어, 한국어 동시 사용	85	25.5
무응답	18	5.4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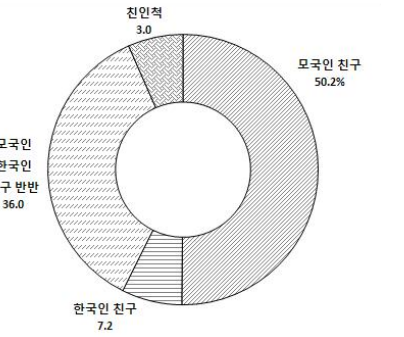
(9)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자신의 모국인 친구'라고 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

〈표 131〉 응답자의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모국인 친구	167	50.2
한국인 친구	24	7.2
모국인 한국인 친구 반반	120	36
무응답	22	6.6
합계	333	100



인 친구'라는 응답자가 36%, '주로 한국인 친구'라는 응답자는 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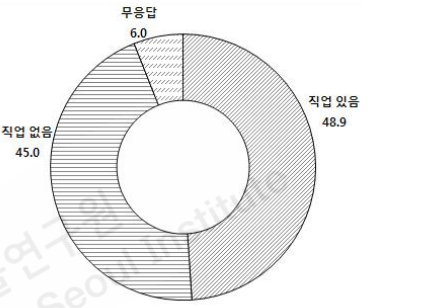
(10) 직업유무

응답자의 직업유무 분포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48.9%, '직업이 없는 경우'가 45%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표 132〉 응답자의 직업유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업 있음	163	48.9
직업 없음	150	45
무응답	20	6.0
합계	333	100



2) 기본적 시민 권리의 평등

(1) 불공평한 대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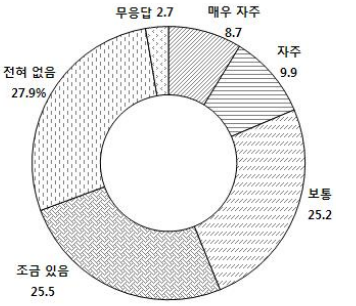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면서 내국주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금 있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5%, 25.2%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자주' 9.9%, '매우 자주' 8.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국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OECD국가 출신인 미주 및 유럽출신은 8.2%만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비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은 25.9%, 중국 등 동북아 출신은 20.5%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여 국가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3〉 응답자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29	8.7
자주	33	9.9
보통	84	25.2
조금 있음	85	25.5
전혀 없음	93	27.9
무응답	9	2.7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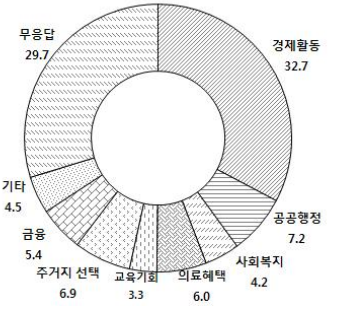
(2) 차별 경험 부분

응답자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관련 불공평한 대우'가 3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행정서비스 관련'이 7.2%, '주거지 선택 부분'이 6.9%, '건강 및 의료혜택'이 6.0%, '금융서비스'가 5.4%, '공공사회복지서비스' 4.2%, '교육기회' 3.3% 순이며, '기타' 응답은 4.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 출신인 미주 및 유럽 그리고 일본 출신 시민들은 다른 것에 비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느꼈으며, 비 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 시민은 주거에 대하여, 중국 등 동북아 출신 시민들은 건강·

〈표 134〉 응답자의 불공평한 대우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제활동	109	32.7
공공행정서비스	24	7.2
공공사회복지서비스	14	4.2
건강 및 의료혜택	20	6.0
교육기회	11	3.3
주거지 선택	23	6.9
금융서비스	18	5.4
기타	15	4.5
무응답	99	29.7
합계	333	100



의료 분야에서 많은 차별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양한 직업분야 지원

응답자의 다양한 직업분야 지원이 자유로운지에 대한 질문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분야의 직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가 22.5%(75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5.3%, '보통이다'가 21.3%로 외국출신주민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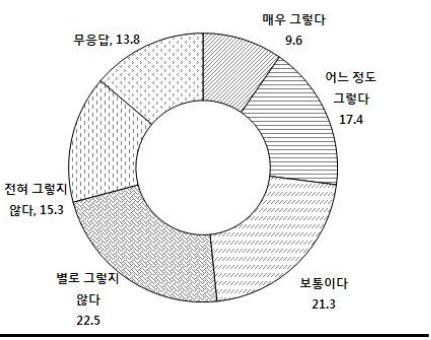
그 밖에 자유로운 다양한 직업 분야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다'는 17.4%, '매우 그렇다'는 9.6%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가운데 일본인의 경우는 직업 지원에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에 불과하나 비 OECD 국가출신이나 미주 및 유럽 출신들은 4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외국출신주민들이 직업 선택 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응답자의 다양한 직업분야 지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32	9.6
어느 정도 그렇다	58	17.4
보통이다	71	21.3
별로 그렇지 않다	75	22.5
전혀 그렇지 않다	51	15.3
무응답	46	13.8
합계	333	100



(4) 고용기회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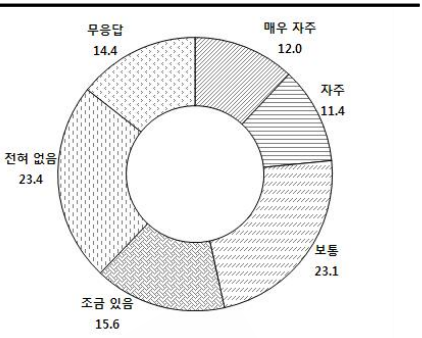
응답자의 고용기회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음' 23.4%(78명), '조금

있음' 15.6%, '보통' 23.1%로 전반적으로는 차별이 심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매우 자주 경험'은 12%, '자주 경험'은 1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6〉 응답자의 고용기회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40	12.0
자주	38	11.4
보통	77	23.1
조금 있음	52	15.6
전혀 없음	78	23.4
무응답	48	14.4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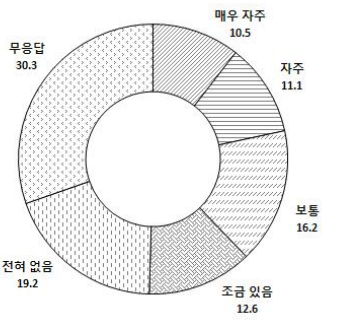
(5) 급여 및 근로조건의 차별 경험

응답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음' 19.2%(64명), '보통' 16.2%, '조금 있음' 12.6% 순으로 차별이 많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나, '매우 자주' 10.5%, '자주' 11.1% 등 부정적 응답도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7〉 응답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35	10.5
자주	37	11.1
보통	54	16.2
조금 있음	42	12.6
전혀 없음	64	19.2
무응답	101	30.3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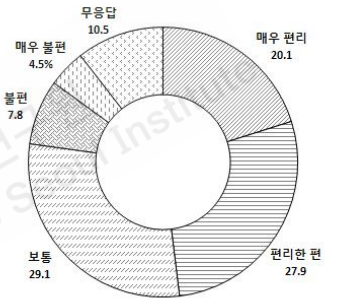
(6)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시·구청, 주민센터, 글로벌 센터 이용 등)의 편리성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 29.1%(97명), '편리한 편' 27.9%, '매우 편리' 20.1%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공공행정서비스를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 '매우 불편'은 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출신 응답자의 경우, 65.1%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일본출신주민들이 다른 국가출신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게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8〉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행정서비스의 편리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편리	67	20.1
편리한 편	93	27.9
보통	97	29.1
불편	26	7.8
매우 불편	15	4.5
무응답	35	10.5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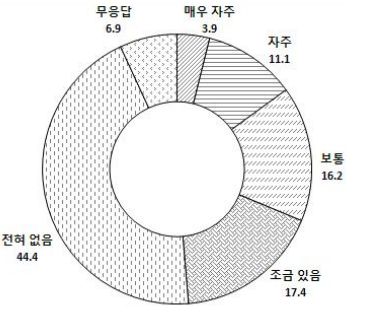
(7)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지역 보건소 및 시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라고 경험 여부를 묻자, 이와 관련하여 '전혀 없음' 44.4%(148명), '조금 있음' 17.4%, '보통' 16.2%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별다른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11.1%, '매우 자주'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139〉 응답자의 서울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3	3.9
자주	37	11.1
보통	54	16.2
조금 있음	58	17.4
전혀 없음	148	44.4
무응답	23	6.9
합계	333	100



(8)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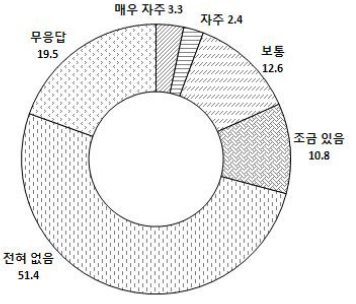
응답자의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자녀의 공교육 기회(지역의 공립학교 입학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전혀 없음' 51.4%(171명), '조금 있음' 10.8%, '보통' 12.6%로 대체적으로 공교육 기회 관련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자주 경험'이라는 응답은 2.4%, '매우 자주'라는 응답은 3.3%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동북아 지역 출신 서울시민은 20.5%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표 140〉 응답자의 공교육 기회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1	3.3
자주	8	2.4
보통	42	12.6
조금 있음	36	10.8
전혀 없음	171	51.4
무응답	65	19.5
합계	333	100



응답하였으나, 유럽 및 미주 출신 주민의 경우 8.1%만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공교육에 접근 시 더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주거지 선택에서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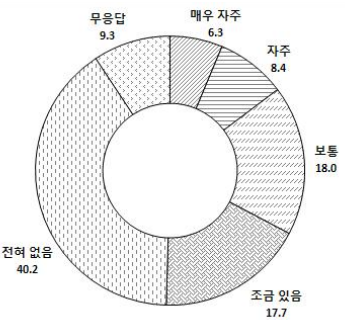
응답자의 주거지 선택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내 주거지 선택(주택매입 및 전.월세 임대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혀 없음'이 40.2%(1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18%, '조금 있음' 17.7%, '자주' 8.4%, '매우 자주' 6.3% 순으로 비교적 거주지 선택에 있어 차별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가운데 비 OECD 국가 출신은 25 ~ 30% 정도가 주거지 선택 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유럽 및 미주 출신의 경우 14.9%만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하여 유럽 및 미주 출신 서울시민이 주거지 선택 시 차별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1〉 응답자의 주거지 선택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21	6.3
자주	28	8.4
보통	60	18.0
조금 있음	59	17.7
전혀 없음	134	40.2
무응답	31	9.3
합계	333	100



(10)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에서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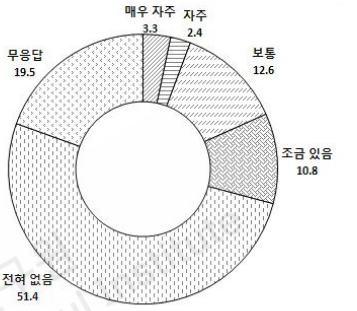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경찰서. 소방서 등)에서의 차별 경험에 대해서

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51.4%(171명)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12.6%, '조금 있음' 10.8%, '매우 자주' 3.3%, '자주' 응답이 2.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유럽 및 미주 출신 서울시민은 9.5%만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기타 국가출신들은 15~20%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서구권 출신이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2〉 응답자의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1	3.3
자주	8	2.4
보통	42	12.6
조금 있음	36	10.8
전혀 없음	171	51.4
무응답	65	19.5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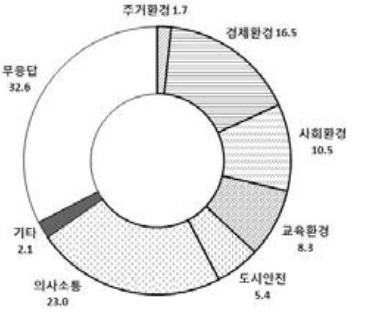
(11) 서울 거주의 어려움(복수응답)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

〈표 143〉 응답자의 서울 거주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거환경	11	1.7
경제환경	110	16.5
사회환경	70	10.5
교육환경	55	8.3
도시안전	36	5.4
의사소통	153	23
기타	14	2.1
무응답	217	32.6
합계	666	100



문을 통해 서울 거주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사소통 관련 어려움'이 23%(1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제환경(생활비용, 소득, 근로시간 등)' 16.5%, '사회환경(복지, 의료시설 등)' 10.5%,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8.3%, '도시안전(교통사고, 화재, 범죄 발생, 자연재해)' 5.4%, '기타' 2.1%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울 거주 외국출신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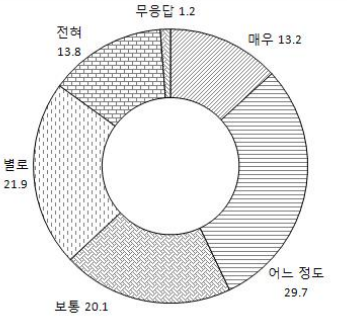
(1)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본인 스스로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인식은 '어느 정도 그렇다'가 29.7%(99명)로 가장 높았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 21.9%, '보통' 20.1%, '전혀 그렇지 않다' 13.8%로 자신을 서울시민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다. 응답자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및 미주 출신 시민들은 40~60%가 자신을 서울시민이라고 느끼고 있으나, 일본인의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 응답자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44	13.2
어느 정도 그렇다	99	29.7
보통이다	67	20.1
별로 그렇지 않다	73	21.9
전혀 그렇지 않다	46	13.8
무응답	4	1.2
합계	333	100



(2)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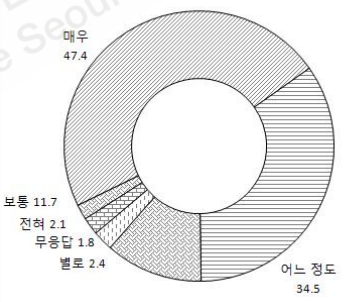
<자신의 모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7.4%(1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느 정도 그렇다'가 34.5%(115명)로 그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1.7%,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와 2.1%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 자국의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OECD국가 출신은 83.9%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OECD국가 출신은 74.8%가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OECD국가 출신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58	47.4
어느 정도 그렇다	115	34.5
보통이다	39	11.7
별로 그렇지 않다	8	2.4
전혀 그렇지 않다	7	2.1
무응답	6	1.8
합계	333	100



(3) 외국출신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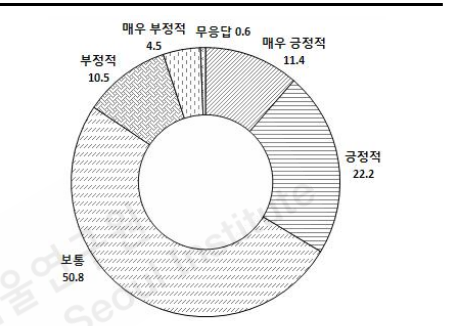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0.8%(169명)로 절반 정도가 외국출신에 대한 별다른 부정적,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이 외국출신에 긍정적이다’는 22.2%, ‘매우 긍정적이다’는 11.4%로 전체의 33.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부정적이다’는 10.5%, ‘매우 부정적이다’는 4.5%로 부정적 응답도 15.0%나 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비 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출신이나 중국 출신의 경우 65~75%가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OECD국가 출신인 일본인의 경우 95%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6〉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긍정적	38	11.4
긍정적	74	22.2
보통	169	50.8
부정적	35	10.5
매우 부정적	15	4.5
무응답	2	0.6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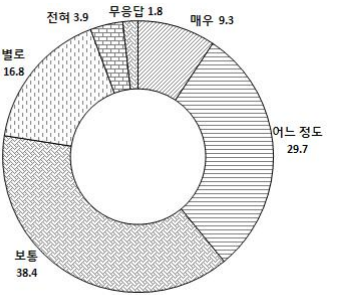
(4)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국 문화를 서울시민이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보통이다’라고 38.4%(128명)가 대답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어느 정도 존중해 준다’라는 의견이 29.7%, ‘별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16.8%로 나타났다. 이 외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9.3%,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7〉 응답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31	9.3%
어느 정도 그렇다	99	29.7%
보통이다	128	38.4%
별로 그렇지 않다	56	16.8%
전혀 그렇지 않다	13	3.9%
무응답	6	1.8%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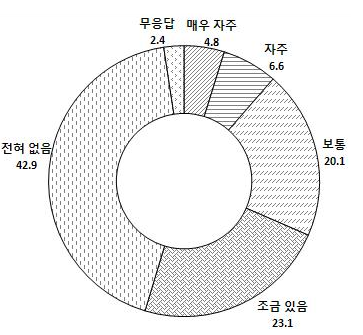
(5) 따돌림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응답자의 따돌림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가 42.9%(1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금 있음' 23.1%, '보통' 20.1%로 전반적으로 외국출신의 따돌림 또는 폭력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따돌림, 폭력을 '자주 경험했다'는 응답은 6.6%, '매우 자주 경험했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동남아 출신의 17.7%가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럽 및 미주출신의 경우 5.4%만이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서울시민이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8〉 응답자의 따돌림 또는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6	4.8
자주	22	6.6
보통	67	20.1
조금 있음	77	23.1
전혀 없음	143	42.9
무응답	8	2.4
합계	333	100



4) 자기개발과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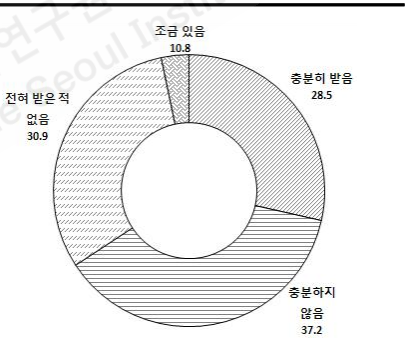
(1)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한국어 교육 등) 또는 훈련 경험을 파악하고자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서울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한국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28.5%였다. 한편,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응답도 3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유럽 및 미주출신은 36.5%, 동남아국가 출신은 27.4%가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중국 출신의 경우 6%만 훈련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9〉 응답자의 서울생활적응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95	28.5
충분하지 않음	124	37.2
전혀 받은 적 없음	103	30.9
무응답	11	3.3
합계	333	100



(2)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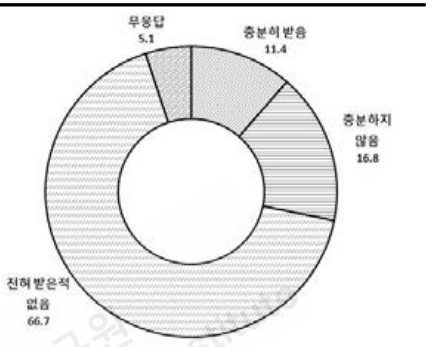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에 대한 응답은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66.7%(222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받았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16.8%,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11.4%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OECD국가 출신인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0.3%가, 중국

이나 동남아 국가 출신은 5~10%가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97.5%나 되었는데, 이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기보다는 두 나라의 경제구조가 비슷해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0〉 응답자의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38	11.4
충분하지 않음	56	16.8
전혀 받은 적 없음	222	66.7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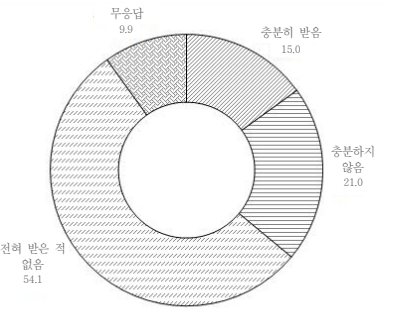
(3)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과 관련하여 <현재 고용된, 혹은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 하였다. 그 결과, '전혀 받은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1%(18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받았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21.0%, '충분히 받았다'는 응답은 15.0%로 밝혀졌다. 교육 및 훈련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일본인은 2.5%, 중국출신은 9.1%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아국가 출신은 19.4%, 유럽 및 미주출신은 24.3%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화권 출신자들에게는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응훈련을 도와주지만, 같은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출신에게는 비교적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1〉 응답자의 근로지에서의 교육 및 훈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50	15.0
충분하지 않음	70	21.0
전혀 받은 적 없음	180	54.1
무응답	33	9.9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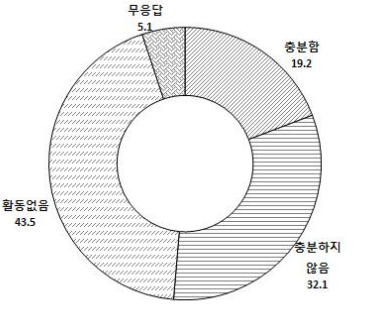
(4)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응답은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3.5%(145명)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활동을 하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3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1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동남아국가 출신은 27.4%,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5.7%가 모국과 관련된 문화 및 종교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13.6%, 2.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 응답자의 모국문화 및 종교 활동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분히 받음	64	19.2
충분하지 않음	107	32.1
활동 없음	145	43.5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5) 참여와 헌신

(1)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응답자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과 빈도에 대해서는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을 조금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1%(77명)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조금 한다'는 응답이 14.1%(47명)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 모임 활동, 정치 참여 활동,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 각각 38.4%, 64.0%, 38.4%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153〉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현재 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자주	자주	보통	조금 있음	전혀 없음	무응답	합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빈도	33	40	55	77	68	60	333
	비율	9.9	12.0	16.5	23.1	20.4	18.0	100
지역주민 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빈도	14	11	43	73	128	64	333
	비율	4.2	3.3	12.9	21.9	38.4	19.2	100
사회봉사활동	빈도	16	20	45	47	139	66	333
	비율	4.8	6.0	13.5	14.1	41.7	19.8	100
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빈도	5	5	17	19	213	74	333
	비율	1.5	1.5	5.1	5.7	64.0	22.2	100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	30	23	42	45	128	65	333
	비율	9.0	6.9	12.6	13.5	38.4	19.5	100

(2)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 의사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에 대한 미래 참여 의사가 79.1%(1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의사는 31.7%로 가장 낮았다. 미래 참여의사는 사회봉사활동 63.9%, 지역주민 모임 59.8%,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56.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154〉 응답자의 사회활동 관련 미래 참여 의사

(단위 : 명, %)

구분	외국출신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지역주민 모임 (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사회봉사활동		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82	79.1	128	59.8	145	63.9	70	31.7	126	56.8
아니오	48	20.9	86	40.2	82	36.1	151	68.3	96	43.2
합계	230	100	214	100	227	100	221	100	2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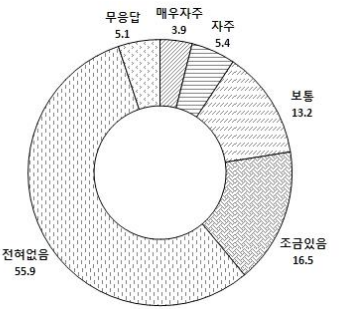
(3)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5.9%(186명)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있다' 16.5%, '보통' 13.2%, '자주' 5.4%, '매우 자주' 3.9%로 공공기관을 통한 의견 제시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외국출신주민은 일본인으로 전체의 15%가 매우 자주 의견을 제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국출신주민은 6.8%만이 의견을 자주 제시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5〉 응답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 의견 제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3	3.9
자주	18	5.4
보통	44	13.2
조금 있음	55	16.5
전혀 없음	186	55.9
무응답	17	5.1
합계	333	100



(4)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는 관련 활동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0.5%(1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있다' 15.6%, '보통' 16.2%, '자주' 7.2%, '매우 자주' 4.8%로 내국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인 유럽 및 미주 출신은 23.0%, 일본 출신은 12.5%가 단체 및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OECD국가 출신인 동남아 국가 출신은 6.5%, 중국출신은 5.7%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6〉 응답자의 내국인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 참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자주	16	4.8
자주	24	7.2
보통	54	16.2
조금 있음	52	15.6
전혀 없음	168	50.5
무응답	19	5.7
합계	3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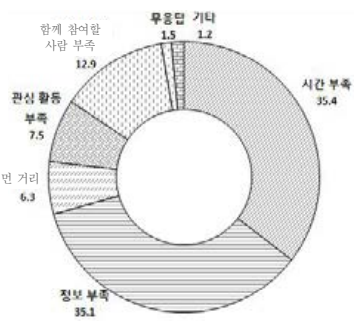
(5)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

응답자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은 '시간이 부족해서'(35.4%, 118명)와

〈표 157〉 응답자의 사회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간이 부족해서	118	35.4
정보가 부족해서	117	35.1
장소가 멀어서	21	6.3
관심있는 활동이 없어서	25	7.5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43	12.9
기타	4	1.2
무응답	5	1.5
합계	333	100



‘정보가 부족해서’(35.1%, 117명)이 가장 높았으며, 이 외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가 12.9%, ‘관심있는 활동이 없어서’가 7.5%, ‘장소가 멀어서’가 6.3%, ‘기타’가 1.2%였다. 응답자 가운데 OECD국가 출신인 일본인은 정보 부족이 31.8%, 미주 및 유럽인들은 정보부족과 시간부족이 32.4%로 나타났으며, 비OECD국가 출신은 동남아국가출신이나 중국출신주민은 시간부족이 36~38%로 나타나 출신국가에 따라 장애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 출신주민의 경우 장소부족이 12.9%로 다른 외국출신주민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여 이들을 위한 공간과 장소의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서울 거주 내국 시민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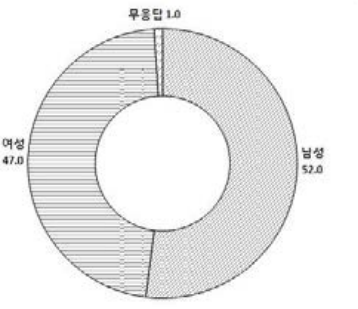
(1) 성별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33명(52%), 여성이 301명(4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158〉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남성	333	52.0
여성	301	47.0
무응답	6	1.0
합계	640	10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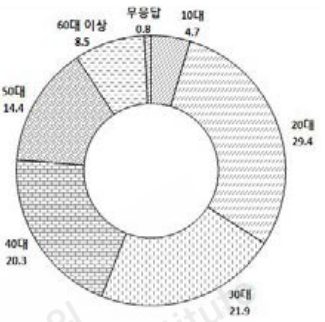
(2) 연령

설문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30대, 40대가 각각 21.9%, 20.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10대가 4.7%, 50대가 14.4%, 60대 이상이 8.5%로 나타났다.

〈표 159〉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10대	30	4.7
20대	188	29.4
30대	140	21.9
40대	130	20.3
50대	92	14.4
60대 이상	54	8.5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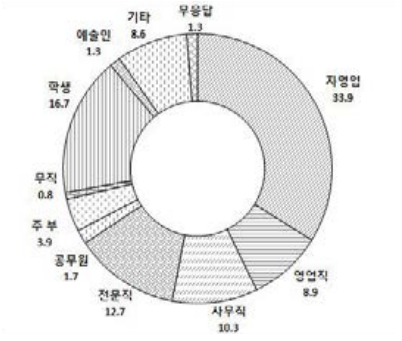
(3) 직업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생'인 경우가 전체의 16.7%, '전문직'이 12.7%, '사무직'이

〈표 160〉 응답자의 직업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영업	217	33.9
영업직	57	8.9
사무직	66	10.3
전문직	81	12.7
공무원	11	1.7
주 부	25	3.9
무직	5	0.8
학생	107	16.7
예술인	8	1.3
기타	55	8.6
무응답	8	1.3
합계	640	10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0.3%, ‘영업직’이 8.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특성상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의 내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서 비율의 분포적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즉, 지역별 인구구성에는 동일한 수의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나 직업별 변수에 있어서는 구분하지 않고 임의표집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경험

(1)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외국출신주민을 자주 만나거나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6%가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 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라는 대답이 27.7%,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라는 대답이 15.0%,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척 한다’라는 대답이 13.8%로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출신주민과 자주 만나고 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전체 응답 중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40.0%,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자주 만나며 인사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 만나며 친밀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40대에서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는 10대와 20대에서 높지만 거리감이 없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세대별 접촉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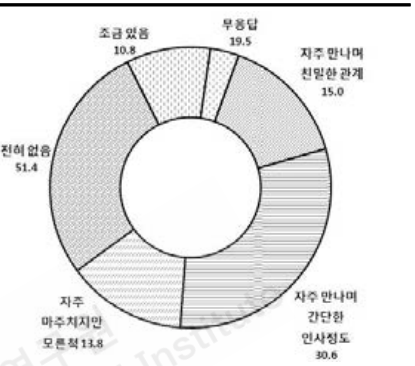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외국출신주민과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자주 만나며 인사 정도 하는 사이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직(21.3%,25.0%), 자영업(17.0%,42.7%), 영업직(14.3%,32.1%) 등에서 비교적 외국출신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61〉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경험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	96	15.0
자주 만나며 간단한 인사정도	196	30.6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척	88	13.8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	177	27.7
거의 만난 적 없음	62	9.7
무응답	21	3.3
합계	640	100



(2) 외국출신주민 접촉 주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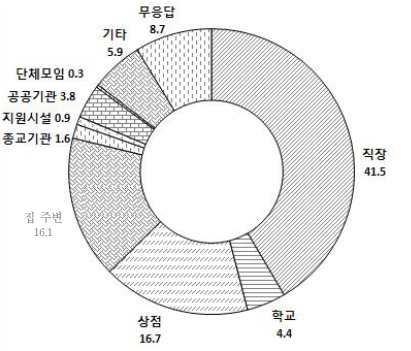
<주로 어느 곳에서 외국출신주민을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직장'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상점'(16.7%), '집주변'(16.1%)이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이 거주지역이기도 하지만, 외국출신주민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라는 특성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에, 거주지 외에 직장이나 상거래 활동을 하는 상점 등에서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난다는 응답결과가 나온 데 이어서 이태원(35.0%), 연남동(25.8%), 가리봉(29.7%), 방배동(25.0%), 성북(22.2%), 이촌(22.2%), 독산(24.3%), 동대문(22.5%) 지역이 '집주변'에서 평균치보다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이 외국출신주민 거주밀집지역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표 162〉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장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장	266	41.5
학교	29	4.4
상점	107	16.7
집 주변	103	16.1
종교기관	10	1.6
외국출신주민 지원시설	6	0.9
공공기관	24	3.8
단체모임장소	2	0.3
기타	37	5.9
무응답	56	8.7
합계	640	100



(3) 외국출신주민의 주요 출신 국가

<만난 외국출신주민이 주로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라고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변지역 출신을 포함한 범위로서 '중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및 아메리카라고 답한 경우가 21.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일본'(13.4%), '동남아시아'(9.5%), '유럽'(8.3%)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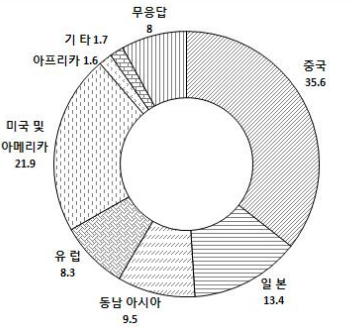
한편,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만나는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에 차이를 결과적으로 보여주었다. 먼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리봉(70.3%), 자양동(83.8%), 독산(83.8%), 대림(92.1%) 등에서 '중국인'을 가장 많이 접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태원(47.5%)과 역삼동(34.4%), 한남동(59.0%)의 경우에 '미국 및 아메리카' 출신 외국출신주민을 많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는 '미국 및 아메리카'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을 주로 만난다는 응답이 각각 51.9%,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이후에서는 '중국'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거주 외국출신주민 중 '중국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63〉 응답자의 접촉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중국(연변출신 포함)	228	35.6
일 본	86	13.4
동남아시아	61	9.5
유 럽	53	8.3
미국 및 아메리카	140	21.9
아프리카	10	1.6
기 타	11	1.7
무응답	51	8.0
합계	640	100



(4)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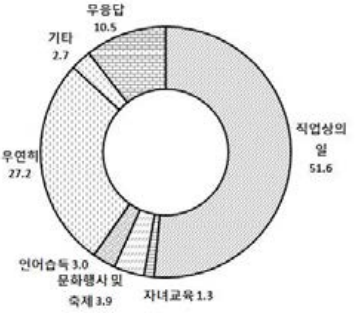
<주로 어떤 이유로 외국출신주민을 만났습니까>라고 묻자, 51.6%가 '직업상의 일 때문에'라고 답하여 최근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과의 업무교류가 늘어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27.2%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답하여 특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외국출신주민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 변수에 있어서는 10대가 1순위(61.5%)로 '우연히 마주쳤다'라고 꼽은

〈표 164〉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업상의 일 때문에	330	51.6
아이들 교육 때문에	8	1.3
문화 행사 및 축제 참여로	25	3.9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19	3.0
우연히 마주침	174	27.2
기타	17	2.7
무응답	67	10.5
합계	640	100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직업상의 일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우세했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10대에서는 19.2%(2순위)가 '언어를 배우기 위하여'라고 대답하여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출신주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5)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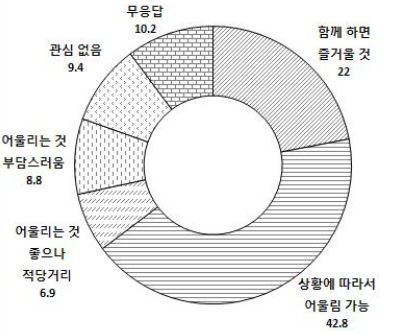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이전 반응에 대해서는 42.8%가 '상황에 따라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보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 다음 순위로 22.0%가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만큼 긍정적인 답변이 64.8%를 차지하였다. 서울 시민들은 외국출신주민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도 외국출신주민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상 외국출신주민을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165〉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전 반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함께 하면 즐거울 것	141	22.0
상황에 따라서 어울림 가능	274	42.8
어울리는 것 좋으나 적당한 거리 필요	44	6.9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러움	56	8.8
관심 없음	60	9.4
무응답	65	10.2
합계	640	100



지역별로도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지역은 '이태원, 가리봉, 자양동, 역삼동, 방배동, 동대문' 등으로 나타났다.

(6)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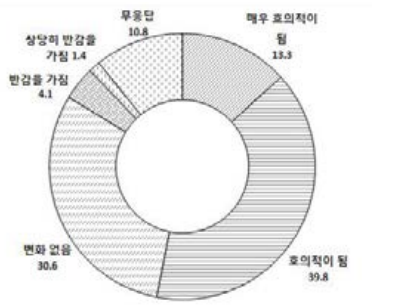
외국출신주민과의 접촉 이후 '호의적이 되었다'는 대답이 전체의 39.8%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호의적이 되었다'는 대답도 13.3%로 나타나 '호의적'으로 변한 경우가 반 이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6%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접촉 이전의 반응을 보면 호감도가 높았으므로 긍정적인 의견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외국출신주민의 출신국가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7.3%,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3.7%로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출신주민에 대해서도 위의 응답에 대해 각각 6.8%, 1.7%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과 접촉 이후 다른 국가 출신(일본-3.6%, 미국 및 아메리카-5%, 나머지-0.0%)에 비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66〉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 이후 반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호의적이 됨	85	13.3
호의적이 됨	255	39.8
변화 없음	196	30.6
반감을 가지게 됨	26	4.1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됨	9	1.4
무응답	69	10.8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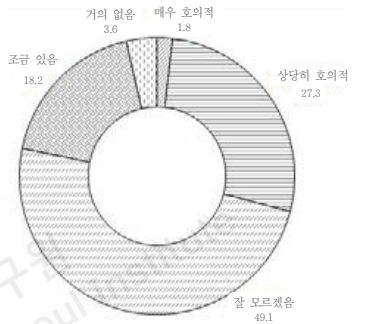
(7) 외국출신주민 접촉이 없는 경우

조사 결과, 55명 중 가장 많은 수인 27명(49.1%)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27.3%가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답한 반면,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18.2%로 나타나, 응답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표 167〉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접촉이 없는 경우 반응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호의적	1	1.8
상당히 호의적	15	27.3
잘 모르겠음	27	49.1
그다지 호감 가지 않음	10	18.2
매우 호감 가지 않음	2	3.6
합계	55	100



3)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 가치관, 태도

(1) 수용에 관한 인식

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41.1%가 '보통이다'고 답하였고, 이어 27.2%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응답자 스스로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68〉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47	4.7
약간 그렇다	174	19.1
보통이다	263	41.1
거의 그렇지 않다	122	27.2
매우 그렇지 않다	30	7.3
무응답	4	0.6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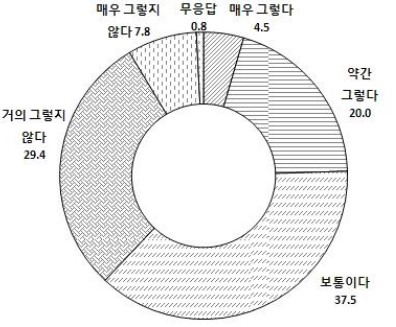
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는 데에는 37.5%가 '보통이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9.4%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앞선 질문에서 선입견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만큼의 시민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결과이다.

〈표 169〉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출신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9	4.5
약간 그렇다	128	20.0
보통이다	240	37.5
거의 그렇지 않다	188	29.4
매우 그렇지 않다	50	7.8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2) 노동·경제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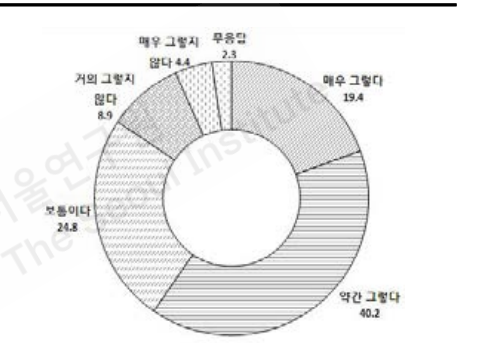
가. 외국출신주민으로 인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출신주민으로 인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고 40.2%가 답하고, '보통이다'라고 24.8%가 대답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 인력의 활용이 국내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단초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표 170〉 외국출신주민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24	19.4
약간 그렇다	258	40.2
보통이다	159	24.8
거의 그렇지 않다	57	8.9
매우 그렇지 않다	28	4.4
무응답	15	2.3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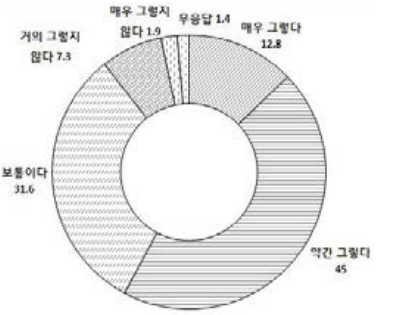
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의 경제활동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가 45.0%, '보통이다'가 31.6%를 차지하는 사실로 미루어, 경제 발전에 있어 외국출신주민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71〉 국내 거주 외국출신주민의 경제활동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82	12.8
약간 그렇다	288	45.0
보통이다	202	31.6
거의 그렇지 않다	47	7.3
매우 그렇지 않다	12	1.9
무응답	9	1.4
합계	640	100



(3) 문화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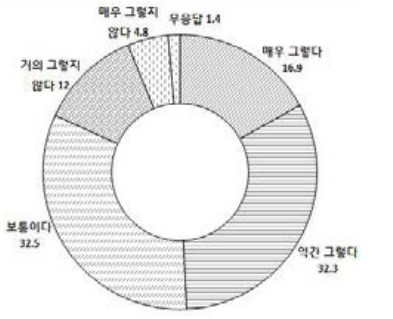
가.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약간 그렇다'가 32.3%, '보통이다'가 32.5%, '매우 그렇다'가 16.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개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72〉 전통문화 고수보다 다양한 문화 수용이 중요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08	16.9
약간 그렇다	207	32.3
보통이다	208	32.5
거의 그렇지 않다	77	12.0
매우 그렇지 않다	31	4.8
무응답	9	1.4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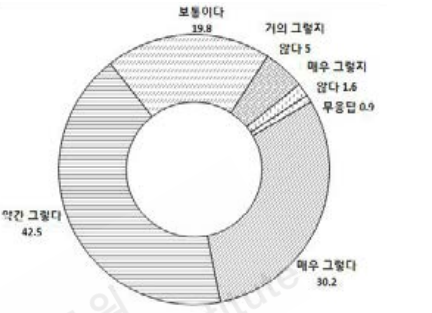
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진다.

응답 결과, '약간 그렇다'가 42.5%, '매우 그렇다'가 30.2%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사회가 성숙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표 173〉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93	30.2
약간 그렇다	272	42.5
보통이다	127	19.8
거의 그렇지 않다	32	5.0
매우 그렇지 않다	10	1.6
무응답	6	0.9
합계	640	100



(4) 교육에 관한 인식

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은 교육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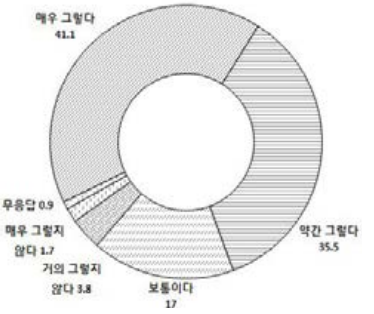
응답 결과, 41.1%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인 35.5%가 '약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들의 권리가 한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174〉 외국출신주민도 교육 등에 있어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63	41.1
약간 그렇다	227	35.5
보통이다	109	17.0
거의 그렇지 않다	24	3.8
매우 그렇지 않다	11	1.7
무응답	6	0.9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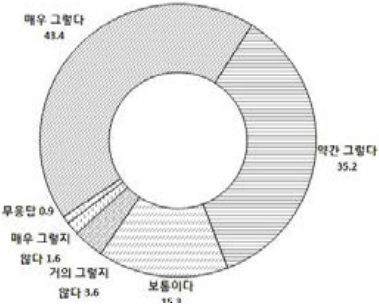
나.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가 43.4%, '그렇다'가 35.2%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 내 다문화 이해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 175〉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278	43.4
약간 그렇다	225	35.2
보통이다	98	15.3
거의 그렇지 않다	23	3.6
매우 그렇지 않다	10	1.6
무응답	6	0.9
합계	640	100



(5) 평등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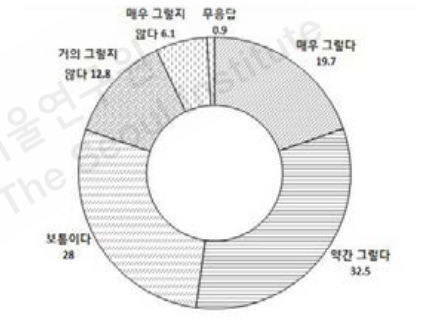
가.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다.

<가>의 주장에 대하여, '약간 그렇다'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8.0%를 차지하였다. 또한,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6.1%에 불과한 반면에, '매우 그렇다'는 19.7%를 차지하여,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의 내·외국출신주민 사회통합에 있어 외국출신주민들의 공적 영역 진출 등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근거로 작용된다.

〈표 176〉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26	19.7
약간 그렇다	208	32.5
보통이다	179	28.0
거의 그렇지 않다	82	12.8
매우 그렇지 않다	39	6.1
무응답	6	0.9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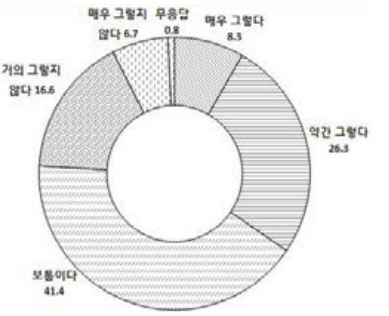
나. 특례입학, 고용할당 등 사회 전반에서 외국출신주민 할당제를 두어야 한다.

설문 결과, 41.4%가 '보통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6.3%가 '약간 그렇다'고 했다. 이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해서 '다른' 존재라기보다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출신주민 할당제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내국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함의가 있다.

〈표 177〉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출신주민 할당제를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43	8.3
약간 그렇다	106	26.3
보통이다	265	41.4
거의 그렇지 않다	168	16.6
매우 그렇지 않다	43	6.7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6)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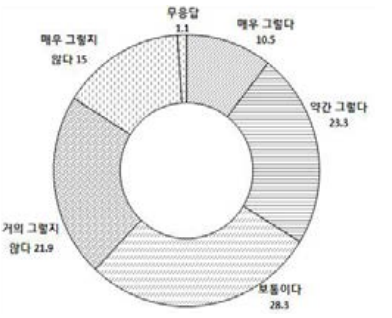
가. 외국출신주민도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응답자 중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28.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는 응답은 23.3%를 나타내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의 행사를 외국출신주민에게도 허용하자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78〉 사회참여 : 외국출신주민의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 가능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67	10.5
약간 그렇다	149	23.3
보통이다	181	28.3
거의 그렇지 않다	140	21.9
매우 그렇지 않다	96	15.0
무응답	7	1.1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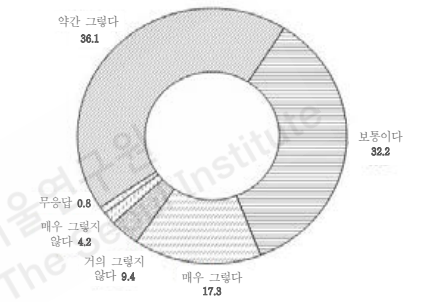
나. 외국출신주민의 증가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설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36.1%가 '약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32.2%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17.3%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인구 구성에 있어서 외국출신주민 비율의 증가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응답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79〉 외국출신주민 증가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성장에 중요한가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11	17.3
약간 그렇다	231	36.1
보통이다	206	32.2
거의 그렇지 않다	60	9.4
매우 그렇지 않다	27	4.2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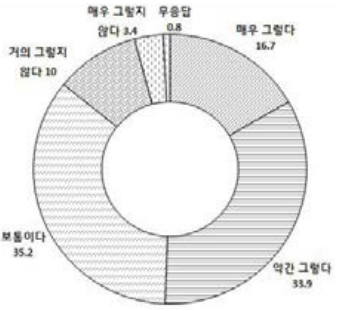


다. 외국출신주민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35.2%가 '보통이다'고 답하였으며, '약간 그렇다'는 의견이 33.9%로 드러났다. 또한,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16.7%를 차지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를 드높이는 데 외국출신주민들의 사회 참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80〉 외국출신주민의 사회참여를 통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07	16.7
약간 그렇다	217	33.9
보통이다	225	35.2
거의 그렇지 않다	64	10.0
매우 그렇지 않다	22	3.4
무응답	5	0.8
합계	640	100



(9)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 사회통합과 관련된 시민들의 가치관 및 의식을 묻고자 했다면 다음의 여덟 가지 문항은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주민인 한국인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다. 각각의 세부문항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1) '한국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4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약간 동의한다'가 26.3%를 나타내어 외국출신주민이 한국에서 방문목적으로 지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한다'가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27.7%, '보통이다'가 26.7%를 차지한 반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1.7%,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5.3%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민의 대부분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은 35.2%가 '약간 동의한다'고 받아들였으며, 그 뒤를 이어 32%가 '매우 동의한다', 23.1%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앞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장소로 직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직장에서 외국출신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은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이며, 이와 비슷한 34.4%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외국출신주민을 주로 만나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데, 집 주변에서 외국출신주민을 자주 만나듯 나의 가까운 이웃으로 외국출신주민이 있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22.7%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율인 35.2%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약간 동의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34.4%로 높게 나타나 자녀가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6) '나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은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과 별개로, 나와 직접적인 친구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가 36.7%를 차지함에 따라, 이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7)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9.8%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20.6%가 '약간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가 20.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3.8%를 차지하였다. 앞서 친구관계와 달리 '동의하지 않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데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관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통이다'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 동의한다'가 19.1%를 보였다. 한편,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9.5%,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가 17.7%를 차지했다. 이는 앞의 질문과 결과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자녀의 배

우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덜 허용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할 것이다.

〈표 181〉 응답자의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관계 허용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	적극적 동의	무응답	합계
한국에 방문하는 것	빈도	2	13	127	168	316	14	640
	비율	0.3	2.0	19.8	26.3	49.4	2.2	100
한국 국민이 되는 것	빈도	11	34	171	232	177	15	640
	비율	1.7	5.3	26.7	36.3	27.7	2.3	100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빈도	13	31	148	225	205	18	640
	비율	2.3	4.8	23.1	35.2	32.0	2.5	100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빈도	10	21	146	226	220	17	640
	비율	1.6	3.3	22.8	35.3	34.4	2.7	100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빈도	12	23	145	220	225	15	640
	비율	1.9	3.6	22.7	34.4	35.2	2.3	100
나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빈도	8	31	141	209	235	16	640
	비율	1.3	4.8	22.0	32.7	36.7	2.5	100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빈도	88	131	191	132	82	16	640
	비율	13.8	20.5	29.8	20.6	12.8	2.5	100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빈도	125	113	182	122	76	22	640
	비율	19.5	17.7	28.4	19.1	11.9	3.4	100

4) 일상생활

(1)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느끼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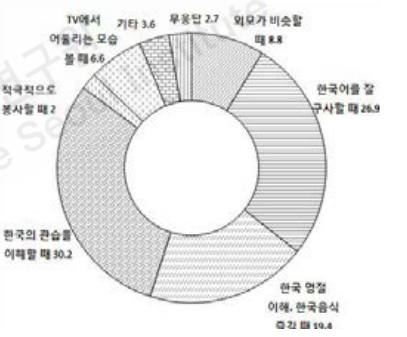
'한국의 관습 등을 잘 이해할 때(한국의 예절이나 노인 공경 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0.2%로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외국출신주민들 입장에서 낯설고 어려워할 만한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26.9%를 차지했다.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원주민인 한국인이 소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적 소통이므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출신 주민에게 호감을 느끼며,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수록 더 동질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한국의 명절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 등을 즐길 때'(19.4%),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8.8%), '텔레비전에서 한국인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6.6%), '양로원 및 고아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2.0)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다양한 답변 모두,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회적 거리감을 줄어들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더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82〉 한국인과 외국출신주민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외모가 비슷할 때	56	8.8
한국어를 잘 구사할 때	172	26.9
한국 명절 이해, 한국음식 즐길 때	124	19.4
한국의 관습을 이해할 때	193	30.2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	13	2.0
TV에서 한국인과 어울리는 모습 볼 때	42	6.6
기타	23	3.6
무응답	17	2.7
합계	640	100



이 질문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직업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대부분은, '한국의 관습을 이해할 때' 동질적이라고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 구사할 때'라고 34.8%가 대답하여 언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10대들은 '한국 명절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을 즐길 때'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나, 기성세대일수록 소통의 가장 기본

요소인 한국어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자영업(34.4%), 사무직(39.7%), 전문직(28.2%), 예술인(37.5%), 무직(60.0%)에서 각각 '한국의 관습을 이해할 때'를 1순위로 선택했다. 공무원과 학생의 경우 각각 27.3%, 33.6%가 '한국 명절 이해, 한국음식 즐길 때'라고 응답하여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는 외국출신주민을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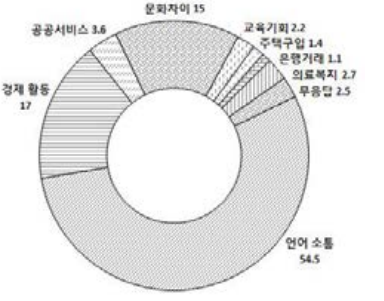
(2)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질문 결과, '언어문제 등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대답이 54.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물었던 질문에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느낀다던 답변과 연관되는데,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 소통 능력이라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취업 기회의 제한 및 근로조건의 불평등과 같은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이 17.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역시 타국에서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평등하지 못한 노동조건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정의롭지 못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정서적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표 183〉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한국에 살면서 겪는 생활 속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언어 소통	349	54.5
경제 활동	109	17.0
공공행정서비스 이용	23	3.6
문화·정서적 차이의 일상 생활 문제	96	15.0
외국출신주민 자녀의 제한된 교육기회	14	2.2
주택 구입·임대	9	1.4
은행(신용) 거래	7	1.1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17	2.7
무응답	16	2.5
합계	640	100



라는 응답이 15.0%를 차지했다. 낯선 이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의 현실을 잘 헤아리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 밖에, '시청·구청·동사무소와 같은 공공행정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의견도 3.6%를 차지했다.

외국출신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직업과 지역으로 대부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별히 '직업'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는 다르게 '경제활동'(27.3%)이나 '문화적·정서적 차이의 일상 생활문제'(27.3%)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는 각각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1순위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3)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해부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3.4%가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성인 뿐 아니라,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 2세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학업성취 부족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이 교육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적인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은 현실과 연계된 해결책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를 차지하였다.

〈표 184〉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경제활동 서비스 강화	56	8.8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44	6.9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151	23.6
교육과정과 인력 확충	178	27.8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	150	23.4
주택 구입·임대 관련 정보 제공	19	3.0
은행(신용)서비스 이용 지원	19	3.0
기타	8	1.3
무응답	15	2.3
합계	6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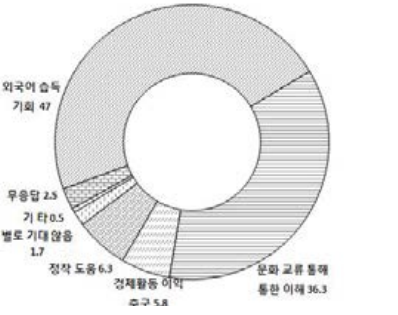
(4)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

<외국출신주민과 생활하고자 한다면,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7.0%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출신주민과의 문화적 교류에 단연 외국어가 일차적 자원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문화 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응답도 36.3%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185〉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외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	301	47.0
문화 교류 통해 상호 이해	232	36.3
경제활동 이익 추구	37	5.8
한국 정착에 도움	40	6.3
별로 기대하지 않음	11	1.7
기 타	3	0.5
무응답	16	2.5
합 계	640	100



연령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는 1순위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반면, 50대부터는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주요한 기대효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30대에서는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46.0%)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43.8%)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습득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문화교류기회의 제공'(33.9%)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생활 정보의 제공'이라는 응답도 13.0%를 나타냈다. 이는 무엇보다 내국인으로서 낯선 이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질문의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직업과 지역으로 분석되는데, 그 결과는 전체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결과에서 '대림'지역의 전체 응답자 중 21.1%가 '경제적 도움 방법 제공'이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86〉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한국어 습득기회	266	41.6
문화 교류기회	217	33.9
경제적 도움방법	38	5.9
생활정보	83	13.0
정서적 친밀감	14	2.2
별로 기대하지 않음	6	0.9
무응답	16	2.6
합 계	640	100

5) 사회적 문제와 갈등

(1)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거주지나 직장 내에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정폭력, 위장결혼)'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폭력, 사기, 마약 등)라는 답도 30.0%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질문이므로, 시민들이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1순위로 뽑은 것은 비슷하다. 다만, 가리봉(50.0%), 동대문(55.0%), 대림(46.2%)의 경우에는 '범죄'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태원(18.4%)과 역삼(16.2%)에서는 '성의식의 혼란 및 문란'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내국인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7〉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청소년 문제(일탈, 비행 등)	45	7.0
범죄(폭력, 사기, 마약 등)	192	30.0
다문화가정의 문제 (가정 폭력, 위장 결혼 등)	250	39.1
지역사회의 문제 (슬럼화, 집값하락 등)	48	7.5
성 의식의 혼란 및 문란	56	8.8
기 타	29	4.5
무응답	20	3.1
합 계	640	100

(2) 사회갈등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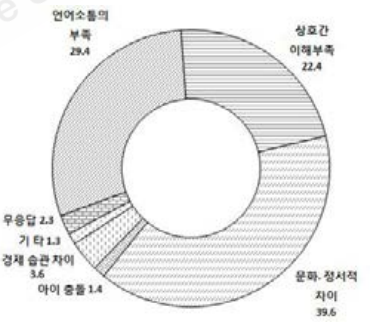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접하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라는 대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언어 소통의 부족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가 29.4%였다. 또한, '상호간 이해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웃 간의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라는 대답도 2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의 소통과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체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10대의 경우에는 '언어 소통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3%로 가장 높았다.

〈표 188〉 지역 내에서 외국출신주민과 갈등 원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언어소통의 부족	188	29.4
상호간 이해부족	143	22.4
문화·정서적 차이	253	39.6
아이들 간의 충돌	9	1.4
경제적인 습관 차이	23	3.6
기 타	8	1.3
무응답	16	2.3
합 계	640	100



(3) 사회 통합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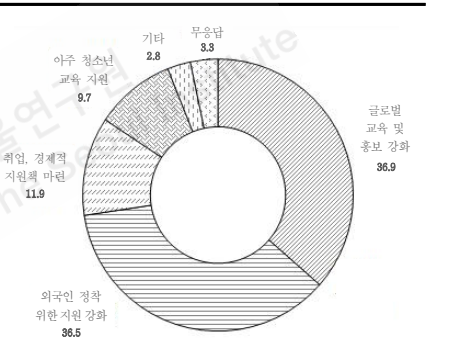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이는 서울시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조건을 마련하는데 시민들의 있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국인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36.9%)였다. 이는 외국출신주민 및 이주민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으로서 한국인 스스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한 준비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응답은 '외국출신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로 36.5%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11.9%), '외국출신주민 가정의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9.7%) 등의 의견도 포함되었다.

〈표 189〉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한 정책적인 조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내국인에게 글로벌 교육 및 홍보 강화	236	36.9
외국출신주민의 정착 위한 교육, 사회복지 및 행정적 지원 강화	227	36.5
외국출신주민 대상 취업, 경제적 지원책 마련	76	11.9
이주 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62	9.7
기타	18	2.8
무응답	21	3.3
합 계	640	100



3. 인터뷰

■ 이주노동자 인터뷰

○ 베트남출신 남성(29세, 봉제업 근무, 한국 5년 거주)

－모국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

"베트남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유럽에 온 사람들보다 낮게 본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베트남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돈 벌러 왔구나, 공장이 어디냐, 무슨 일 하냐 등 내가 느끼기에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물어보는 것 같다."

－비싼 임대료가 서울생활의 가장 큰 문제

"서울은 방값이 특히 비싸다. 현재 사는 곳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인데 나에게는 너무 비싼 금액이다. 게다가 요즘은 장사가 잘 안되어서, 일감도 많이 떨어지고 월급도 많이 안 나와서 더욱 힘들어졌다."

－별다른 사교모임 및 사회적 활동 없음

"특정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복지관에서 한국어수업을 받는다. 예전에 교회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야근하는 게 힘들어 가지 않는다."

－서울생활엔 대체적으로 만족

"서울은 교통도 편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 좋은 것 같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관심과 불법체류단속 완화 필요

"외국출신주민에 관심을 가져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법체류단속을 자주 안했으면 좋겠다. 또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비자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 중국출신 여성(32세, 서비스업 근무, 한국 5년 거주)

－정착 초기 언어문제로 어려웠지만, 특별한 차별 경험 없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해 생활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특별한 어려움이나 차별을 못 느낀다."

－서울환경에는 만족하나 직장 외 사교모임 없음

"서울은 깨끗하고, 주위에 공원도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이다. 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다이고, 특별한 사교모임은 없다."

－잦은 불법체류자 단속 불만

"몇 년 동안 같이 일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단속으로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잘 안했으면 좋겠다."

○ 베트남출신 남성(36세, 제조업 근무, 한국 6년 거주)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차별 경험

"직장에 있는 한국사람 중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일도 잘 못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외국사람 중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미리 외국출신주민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사람과의 관계 불편

"외국출신주민이라고 조금 다르게 보는 이웃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일정수준의 평등한 급여 필요

"한국 사람과 똑같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을 받고 싶다."

－일 년에 한 두번 안산에서 베트남사람 모임

"일 년에 한 두번씩 안산에서 베트남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다. 오랜만에 같은 모국사람과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고, 모처럼만에 술도 마신다."

○ 몽골출신 여성(29세, 의류공장 근무, 한국 5년 거주)

－학비가 비싸 대학생활 중단

"나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비교적 다른 외국출신주민들에 비해 편하게 살고 있는 편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별로 없으나, 학교 학비가 워낙 비싸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가는 것이 답답하다. 처음에는 대학교(숙명여대)에 입학해 다녔으나, 지금은 등록금이 비싸 못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학기에 몇 십 만원이면 대학교를 가는데 한국에서는 몇 백만원이 있어야 대학공부를 할 수 있다. 나처럼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교모임 및 활동 없음

"현재 일하는 곳은 오전 3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끝나 여유시간이 없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좋다. 가끔 한강, 남산, 어린이대공원 등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는 것이 전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불만

"나는 합법체류 비자가 있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우를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일하고 있는 신당동은 단속이 많아 일하고 있다 잡혀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마치 나쁜 범죄자처럼 대해서 볼 때 너무 안쓰러웠다."

○ 재중동포출신 여성(35세, 의류공장 근무, 한국 5년 거주)

－초기 언어적 어려움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음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 생활이 어려웠다. 지금은 한국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잘 대해준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주택지원 절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아예 안 되어서 힘들다. 서울시에서 외국

출신주민을 위한 주택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6살인데 어린이집도 너무 비싸다. 다행히 아이들 보육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 그곳에 맡기고 있다."

○ 파키스탄출신 남성(30세, 사무용품제작업 근무, 한국 8년 거주)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에 대한 무시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 내가 잘하고 잘 지내다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인식이나 태도는 잘 변하지 않는다."

－모국문화 및 종교(이슬람)에 대한 몰이해

"이슬람종교와 문화는 세계 주요 문화 중 하나인데, 한국인들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이슬람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가 문화적 습관이며 이를 지키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담배 피는 시간으로 잠깐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잠깐의 기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 동안은 하루 2번, 5분 정도의 시간만 내면 가능한 일인데, 일 안하고 기도한다고 사업장에서 허락해주지 않는다. 지역에도 기도방 모임이 있는데 이웃에서 왜 모이는 거냐며 이상한 태도로 물어보고 외국출신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슬람하면 모두 테러리스트와 관련해 생각하는 등 이슬람문화와 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 문제가 너무 크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슬람사원을 설립해줄 정도로 세계적 종교 중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해 이해해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자 체류기간 초과와 함께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 금지

"초기 취업비자로 들어올 때 만든 내 명의 핸드폰이 있었다. 요금도 밀린 적 없고 오랫동안 사용한 핸드폰인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비스가 끊겼다. 현재는 다른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 중이다."

－야간시간 응급진료 가능한 의료기간 없음

"친구 중 한명이 밤에 너무 아파서 동대문구 대학병원에 갔더니, 20만원을 먼저 내지 않으면 진료할 수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도 10만원이었는데, 계속 진료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시립병원으로 옮겼고 거기서는 먼저 5만원을 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나 보험이 안 되는 외국출신주민들은 특히 야간에 진료 받을 곳이 없다.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야간에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원이 있으면 좋겠다."

—해외에서는 취업 비자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업무상 또는 개인사유에 의한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운전이 필요할 때가 많으나,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사업주 동의에 의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 방글라데시출신 남성(33세, 봉제업 근무, 한국거주 6년)

—한국인과의 불공평한 급여 수준

"일반급여도 다르고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이 20만원 정도 받으면 외국출신주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는다."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외국출신주민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교육 필요

"외국출신주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해외 선진도시들의 외국출신주민 통합 사례 관련 프로그램을 늘려 일반사람과 아이들에게 외국출신주민도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평등한 급여 필요

"한국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싶다."

—경찰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며 의심한다.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 구입한지 2~3년 지난 물건 영수증을 달라고 한다. 외국출신주민 중에 도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한국인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증거 없이 외국출신주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고 집에까지 구두를 신

고 들어왔다. 나는 한국인과 결혼해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조회해 보고 불법체류자이면 바로 출국조치 시키려고 한 것 같다. 잘못도 없었는데 너무 놀랐고, 경찰에 대한 분노심이 생기게 된 경험이었다."

—비OECD국 외국출신주민 남성과 한국인 여성 결혼커플에 대한 비하적 태도

"나는 한국 여성과 결혼했는데, 주변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무언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나 같은 외국출신 남성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백인 외국출신주민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나는 이웃이 시끄러워도 참는 편인데, (이슬람) 기도 모임으로 외국출신주민들이 조금만 모여도 시끄럽다 찾아오고, 이슬람 음식을 하면 냄새 난다고 한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배척 또는 무시하는 태도

"핸드폰 기계를 바꾸러 가게에 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출신주민은 안된다고 손을 젓는다. 거소증이 없으면 안된다라든지 어떤 서비스는 안된다라든지 설명해줄 수도 있는데, 보자마자 무조건 외국출신주민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 사업장에서도 이름이 아닌 '야' 또는 '이 새끼' 라는 호칭을 부르기도 하며, 외국출신주민이니까 마구 부려먹어도 된다는 말을 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한다."

○중국출신 남성(40세, 봉제업 근무, 한국 14년 반 거주)

—불법체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외국출신주민 지원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 합법체류자만 가능한 것이다. 나는 정책 요구 사항이 별로 없다. 포기상태이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은행상품 및 핸드폰 서비스 개통 불편 심화

"예전에는 여권만 가져가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소증

이 있어야만 가능해져 더욱 불편해졌다.”

–타 문화권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차별 및 불공평한 대우

“나는 중국에서 와서 비교적 외모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나라라 심한 차별은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문화권에서 온 외국출신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확실히 많은 것 같다.”

○ 필리핀출신 남성(38세, 엔진정비업 근무, 한국 10년 거주)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 받을까봐 항상 불안

“아직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외국출신주민 부모를 두었다고 놀림 받을까봐 항상 불안하다. 주위에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차별, 따돌림이 있다고 많이 들었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춘기가 오는 시기라서 더 걱정이 된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일반인 또는 아이들의 인식이 나쁘지 않다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것 같다.”

■ 결혼이민자 인터뷰

○ 태국 출신(26세, 한국 1년 8개월 거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장 불편, 외부의 특별한 도움 받은 적 없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로 가족들이 도와주었다.”

–2년마다 비자 연장하는 것 불편

“이혼 후(남편 귀화신청 안된 상태) 2년 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현재의 비자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혼하고 싶다.”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

“특별히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 없고,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어 한국어 습득이 어려웠다.”

○ 우즈베키스탄 출신(24세, 한국 2개월 거주)

– 한국에서 결혼 후 정착한 사촌언니 도움을 주로 받음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주로 한국에서 결혼한 사촌언니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한국 정착 후 사촌언니 외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은 거의 만난 적 없다. 남편 가족 또는 남편 친구들과 함께 종종 어울린다.”

○ 베트남 출신(29세, 한국 3년 10개월 거주)

– 한국말을 연습하고 싶으나 대화할 사람이 없음

“남편은 매일 늦게 귀가해서, 한국말로 대화할 상대가 없다. 한국어교육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

– 시댁가족들의 모국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

“고모 등 시댁 가족들이 베트남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가 있다. 베트남 사람은 돈만 안다는 말 등을 내 앞에서 할 때도 있다”

○ 베트남 출신(21세, 한국 6개월 거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 얻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수업과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자주 만나는 모임 또는 사교활동 없음

“베트남 친구를 만나러 성남, 안산까지 놀러갈 때가 있으며, 한국친구는 없다. 동사무소의 한국음식 강좌에서 만난 필리핀, 몽골, 일본 친구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시댁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일 외에 특별한 외부활동은 없다. 가족들이 혼자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싫어한다.”

○ 베트남 출신(25세, 한국 2년 9개월 거주)

－한국이주 후 베트남 명절 등 문화적 관습 지킨 적 없음

"가끔 베트남 음식을 요리할 때는 있으나, 베트남에서 지키는 명절 및 문화적 관습은 지킨 적이 없다."

－한국귀화 신청 원하나 안되고 있음

"현재 아이가 셋 있으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남편이 귀화신청을 해주길 원하나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어교육 방문 선생님 필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 센터를 방문하기 힘들다.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데, 한국어교육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

－학부모 모임 및 행사 불참

"학교 운동회, 어머니 모임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들(결혼 전 남편 쪽 자녀)의 경우, 시어머니가 챙겨주고 계신다."

－가족들의 모국출신에 대한 경시 태도

"시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에 대해 조금 나쁘게 보는 태도가 느껴진다."

○ 베트남 출신(33세, 한국 3년 거주)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혜택 필요

"나는 정부장학금으로 온 국비유학생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아이 둘을 낳았다. 외국출신주민 자녀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 지원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 중국 출신(30세, 한국 3년 거주)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학교차원의 배려 필요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학급 친구들의 따돌림 또는 무시하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다. 학교차원에서 외국출신주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몽골 출신(37세, 한국 7년 거주)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오해 및 편견

"현수막에 걸려있는 국제결혼 광고, TV나 미디어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자주 받게 된다."

－다문화가족 바우처 제도 분야 확대 실시 필요

"현재 다문화가족 바우처 제도는 가족캠프 등 특정 활동 영역에만 사용 가능하여, 바빠서 가지 못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학습지 구입 지원 등 좀 더 실용적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문화, 외국출신주민과의 차별성 외 보편성 측면 교육도 필요

"학교의 다문화교육도 외국출신주민과의 차별성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외국출신주민도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내용 및 강사 자질의 문제점

"중학교 다문화교육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몽골 학교의 낙후된 교실 모습,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고, 내 나라(몽골)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스리랑카 출신(35세, 한국 10년 거주)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강사의 문화적 이해 부족

"한국인이 강의하는 다문화이해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본 내용과 사진으로 강의하는 등 그 나라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리랑카 문화는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라고 소개하는 등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일환인 다문화강사 계약 연장 필요

"결혼이민자 중에도 배우고 자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다. 현재 1년 계약인 다문화강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을 해주거나,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사회에서 배제된 느낌

"외국출신주민으로 사는 것이 장애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동떨어져 지내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같은 물건을 살 때도 비싸게 구입할 때가 많다."

－외국출신주민지원기관(단체) 서비스의 주체자로서 활동 필요

"외국출신주민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외국출신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또한 외국출신주민이 한국사람, 서울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다문화라는 말에 묶여 외국출신주민들만 따로 모아놓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차별적 처사이다."

○중국 출신(31세, 한국 9년 거주)

－외국출신주민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한국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다자녀 보육에 대한 지원이 외국출신주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 유학생 인터뷰

○서울시 외국출신주민 초기 정착시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기관은 나중에 알고 보면 많으나, 초기에는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모국출신 아동 및 청소년 교육문제 개선 방안

"이중 언어 강사와 유네스코에서 시행하는 자기나라 문화 이해 프로그램(미지센터)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모국 출신 뿐 아니라 전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 외국출신주민 지원기관 단체 및 이용 경험

"서울시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홍보가 더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외국출신주민으로서 서울생활의 어려운 점

"과도하게 개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관심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담스럽다."

"대부분 한국어 간판(안내표지)이 어려운 한국말로 표기되어 있어 읽기 불편하다."

"같은 외국출신주민이라도 백인에 비해, 아시아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핸드폰 개통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외국출신주민 사회통합 저해요인

"한국인의 외국출신주민에 대한 다른 시선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인에 대해 더 개방적 태도로 어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 낯설겠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면 좋겠다."

■ 외국출신주민밀집지역 내국주민 인터뷰

【외국출신주민과 함께 살아가는데 대한 생각, 어려운 점】

○ 거주 지역 환경 관리의 어려움

"외국출신주민들의 경우 이사 가기 전까지 쓴 해당 월의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전기세 외에도 이런 공과금이 상당하다.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다 까먹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못 잡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인들은 위생에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다. 방안에서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주방은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는 이유로 주방 벽에 때가 많이 있고 매우 지저분해서 불쾌하다."

○ 심야시간 소란, 질서 문란, 유흥 즐김

"외국출신주민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곳이 교육환경이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 한국인 세입자가 불만을 가지고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고성방가하는데 지역토박이들이 이사를 할 정도로 이제는 중국인들 세상이 되었다. 아이들 교육에 불리하다고 부모들이 싫어한다."

"중국인들끼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과도 시비가 붙으면 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나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중국인들이 대림동으로 몰려든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주로 음식점, 유흥업소, 알선업체, 여행사-이 많다. 중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여성 접대부도 있다."

"매일 밤 경찰들이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 잠복근무를 하고, 거리에 순찰차가 서 있다. 중국인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안심이 들면서도, 밤에 차이나타운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생긴다. 밤에는 거의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심한다."

○ 범죄 발생 빈번. 치안 어려움

"경찰은 이태원이 밤에 소란스러운 것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슬람 사원 올라가는 길에서 차를 통제할 뿐이다."

"3~4년 전에 살인 사건이 크게 났었는데, 그 이후로 주변 집값이 하락했다. 중국인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내·외국출신주민 간 충돌이 빈번하다. 특히, 환승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 상권의 소비자일뿐 아니라, 영업자로도 활약

"시장 및 근처 상권의 소비자가 주로 중국인이다. 최근에는 중국인 상인들이 점차 늘어나, 내국인 상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근처 중국집은 대부분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가격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져 내국인은 장사하기 어렵고, 한국 먹거리 자체도 없어지는 추세이다."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아지자,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상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다."

【본인이 느끼는 지역에서의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인 간 관계】

○ 이웃으로서의 관계

"특히, 유엔빌리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부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외

국 생활 경험이 많은 편이라 외국출신주민과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이 지역 외국출신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교양있는 사람들이라 지역 내에서 큰 갈등은 거의 없다.”

○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형성

“주민들 간에 갈등은 적은 편이고, 원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외국출신주민들끼리 어울리는 성향이 강해서 내국인들과는 일정정도만 유지할 뿐이고 친밀한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내·외국출신주민 구분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친절하고 호의적인 외국출신주민들에게는 정이 간다. 재개발이 되어도 여전히 외국출신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특별히 유대관계 맺을 기회 부족

“마주치기는 하지만, 특별히 상호 관계를 맺을 기회가 부족하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다.”

○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관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술 마시면서 외국출신주민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화가 달라서인지 나이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외국 아이들이 한국아이들보다 덩치가 커서 밀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자제를 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문제가 생기던 놀이터에는 이제 가지 않는다.”

○ 특정 인종, 국적에 대한 편견

"선진국 출신 외국출신주민들에게는 호기심을 갖지만, 아닌 경우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 같다."

"아랍인의 경우 위화감이 좀 들긴 하지만, 그 외의 외국출신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이다."

"외국출신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제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다. 특히, 가나, 가봉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로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규범을 잘 지키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개념도 없다. "

"흑인은 무조건 피하게 된다."

"혼자 사는 외국출신주민의 경우 외로움을 술로 달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외국출신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외국출신주민 들끼리 모여 노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게 적발당한 이후에는 음성화되어 허술한 지하방에서 노름을 하고, 이러한 하우스(HOUSE)를 운영하려는 외국출신주민들도 있다."

○ 사회적 거리감

"외국출신주민과 내국인은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지 않는다. 특히, 내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 밤길에는 잘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내·외국출신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 참여 경험 및 희망여부】

"공동의 문화 행사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 수준이 낮아 어울리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는다."

"공동의 행사-문화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내·외국민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외국출신주민들이 자기네 나라끼리만 하는데, 과거처럼 넓은 범위의 한마당 축제가 필요하다. 인근지역의 외국출신주민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 대사관을 중심으로 내·외국출신주민 문화교류 행사가 종종 있다. 그런데, 초대받는 내국인들은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외국출신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 외국출신주민 대상 공공기관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절실

“공공기관에 외국출신주민을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통역 같은..”

“외국출신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역 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1:1로 연결시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배려는 필요, 그러나 지나친 호혜는 금물

“내국인들이 외국출신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열광한다. 무조건 베풀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인 외국출신주민들은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서 ‘난 몰라요.’라고만 하고, 받는 것만 좋아라 한다.”

【외국출신주민-내국인이 갈등 없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기 위한 방안】

○ 외국출신주민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 없음

“서로 잘 하면 그만이다. (···) 한국인도 외국 나가 살듯이 외국출신주민도 한국에 들어오는 거다. 서로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 상호 간 언어 교육 필요

"언어소통이 가능하다면,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는데 수월할 것이다."

"일본어를 한다면 대화하고 싶은데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약점이다. 이웃 일본인에게 일어를 배운다면 유용할 것 같다."

"내·외국출신주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언어소통이 수월하여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언어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필요

"미국의 'adults school'과 같은 제도가 있다면 외국출신 서울 시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적응이 수월할 것이다(한 팀당 내국인 3 : 외국출신주민 7 희망)."

"공공질서가 없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주차도 막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술 먹고 막 대할까봐 겁도 난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국내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교육도 해야 한다."

○ 외국출신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교육 필요

"우리 지역에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해주는 민간 기관도 있고, 중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진다면 도움이 클 것이다. 직업교육 같은..."

"외국출신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적응에 유용한 교육(생활상 지켜야 할 법규나 한국 사회문화 이해 등)을 했으면 좋겠다."

■ 서울 글로벌·빌리지 센터장 간담회

○ 외국출신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점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외국출신주민이 서울시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초기 정착기에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도 어렵고 생활 정보를 얻고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약점이 있다."

"빌리지 센터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민간단체든 외국출신주민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많이 생겨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센터(지역)별 서비스 대상 파악 어려움

"거주지를 옮겨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아예 모르는 외국출신주민들이 많다. 지원프로그램이 있어도 대상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기관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 수에 비해 협소한 공간

"수요자 욕구에 맞게 시간대와 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주말과 같이 특별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 때에는 센터장 사무실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간을 이용하다시피 한다"

○ 일정 수준의 빌리지 센터 업무에 대한 동일한 지침 필요

"센터마다 서비스를 활용하는 외국출신주민의 출신 국가가 달라, 센터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 동일한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각 빌리지 센터마다 너무 상이하다. 업무에 대해서도 혼동이 되고 고민 될 때가 많다. 지역별 특성도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빌리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상위기관인 시에서 동일한 방침 하달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업무 평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와 같은 상담실적 등 단순 비교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강사료에 대한 일괄적 방침이 없어 강사료 지급에 혼란이 생기며, 예산이 감소해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워졌다."

○ 센터의 자율성 보장 필요

"서울글로벌센터 운영원칙에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행사 관련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다."

○ 내국인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설 필요

"실제 내국주민들이 빌리지 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내·외국 출신 서울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내·외국출신 서울시민 자원봉사자 인력풀 활용

"외국출신주민 자원봉사자 인력풀은 많은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현재 자원봉사 인력 유형은 행사지원, (언어 등)프로그램 지원, 사회봉사, 사무보조 등이 있으며, 내국인 자원봉사자는 행사가 있을 시에만, 메일 등을 통해 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라 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내국인 자원봉사자를 필요할 때만 급하게 조달하는 것보다는 내국인 프로그램이 센터에 있어, 내국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역 특성상 비교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자원봉사 지원자가 많으나 센터 여건상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 빌리지 센터는 문화교류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특성 부여

"한국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특히 좋으며, 올해 상반기는 선거법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 없어 문화교류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인력이 적어 구청 직원 한분은 서로 다른 지역을 오고가며 일하는 상황이며, 서울시 파견 인턴도 자꾸 바뀌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외국출신주민도 많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인력이 적어 불가능한 상태이다. 센터에는 한국에서 2, 3년 체류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외국출신주민 이용자가 많은데, 이들이 내국주민과 교류를 많이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 조직 내 인력(서울시/구청, 외국출신주민/내국인 직원) 등 조직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한 마찰 발생

"업무상 협력해야하는 조직 간에 문화가 달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있다. 또,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내·외국출신 서울시민이 함께 근무하는 환경인데, 조직문화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생활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지역 커뮤니티와 빌리지 센터와의 관계 활성화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는 결국 커뮤니티 확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접근성 면에서는 더 좋지만, 맨파워 부분에서 떨어지고 공간적 제약도 있다. 따라서 빌리지가 맨파워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와 협조해 인력 및 공간을 지원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빌리지 센터를 추가로 많이 설립하지 않더라고 커뮤니티와의 협조만 원활하면 전체적으로 외국출신주민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 글로벌·빌리지 센터 직원 인터뷰

○ 외국출신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및 서울시에 대한 건의 사항

"지역특성상 외국출신주민 인구가 다른 외국출신주민 밀집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고,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등이 길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리 학원의 한국전통 요리교실 등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설 요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한국전통요리교실에서 요구하는 최소 참여자 수가 많아 직접 선생님을 모시고 센터 내에서 요리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개수대, 요리기구 등)이 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빌리지 센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참가비를 각 빌리지 센터마다 책정하여 참가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수업 재료비를 전액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센터마다 상황에 따라 참가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참가비에 민감한 이용자가 많은 센터의 경우, 참가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참가비가 심하게 차이 날 경우 여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본인이 생각하는 센터 이용 외국출신주민들의 실제 만족도 수준

"공연, 여행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인 서래 빌리지 센터의 경우,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수집하는 관련 잡지나 정보뿐 아니라 여행과 관련한 지도 및 여행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어 문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문화 체험의 경우, 표면적인 문화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체험을 위해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이 서래 빌리지 센터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지 공예, 전통 매듭, 사군자 수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업무량의 적정도, 인력충원 필요 욕구

“지속적으로 서울시 행정 인턴으로 센터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출신주민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되기를 바란다.”

○ 센터장 및 내부 직원 간의 어려움

“외국어 지원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구청 직원과 센터장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각 센터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센터장의 역할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업무 분장의 필요성).”

○ 현재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조 및 관계 정도

“이미 외국출신주민 밀집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이주민 네트워크와 센터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아직은 이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주민 공동체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실적으로 외국출신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이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 본인이 생각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의 프로그램 이용 증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추진방향

“다양한 국적의 외국출신주민들이 직접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출신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항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센터에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할 것이다. 센터 자체 내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서울연구원 Seoul Institute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개월에 1회씩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내국주민들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출신주민들도 한국인에게 받은 애정과 관심을 소외된 한국인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출신주민들이 센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센터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바로 앞에서도 위치를 묻는 전화가 올 정도이다. 따라서 센터의 위치를 잘 알릴 수 있는 외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센터 운영 시에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재료비나 참가비, 강사비 등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인데 센터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가 없어 임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부록 4 설문지 결과

1. 외국출신주민대상 설문지

조사원 작성	일 시	기 관	담당 조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시가 외국출신 서울시민의 동등한 권리 향유와 사회통합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일부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신 내용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답변은 통계처리 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관련 문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석기 연구위원 02)2149-1037
최진영 연구원 02)2149-1151, 010-2366-4048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세요.

1. 기본적 시민권리의 평등

1.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내국인 서울시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2. 귀하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아래의 항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① 경제활동(취업, 직업선택, 급여와 근로조건 등) ② 공공행정서비스(시·구청 동사무소이용 등) ③ 공공사회복지서비스 ④ 건강진료 및 의료 혜택 ⑤ 교육기회(학교 입학 등) ⑥ 주거지 선택(주택임대 및 매입, 쾌적한 주거 환경 등) ⑦ 금융서비스(계좌, 신용카드, 금융상품 신청 등) ⑧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3.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분야의 직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 ②어느 정도 그렇다( ) ③보통이다( )
④별로 그렇지 않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

3-1.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 고용의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서울에 거주하면서 과거 직업이 있었거나, 현재 있으신 분만 응답>

3-2. 귀하는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급여수준이나 작업환경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4. 귀하는 서울의 공공행정서비스(시청, 구청, 주민센터, 글로벌센터 등) 이용이 편리하십니까?
①매우 편리( ) ②편리한 편( ) ③보통( ) ④불편( ) ⑤매우 불편( )

5.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공공 보건 및 의료서비스 혜택(지역 보건소 및 시지정 의료기관)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6.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자녀의 공교육 기회(지역의 공립학교 입학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7.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내 주거지 선택(주택매입 및 전·월세 임대 등)에 있어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8. 귀하는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치안 및 안전을 위한 구조요청(경찰서·소방서 등)에서 차별을 받으셨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9.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아래의 항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①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②경제환경(생활비용, 소득, 근로시간 등) ③사회환경(복지, 의료시설 등) ④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⑤도시안전(교통사고, 화재, 범죄발생, 자연재해 등) ⑥의사소통 ⑦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2. 자존감과 사회적 인정

1. 귀하는 본인 스스로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 ②어느정도 그렇다( ) ③보통이다( )
 ④별로 그렇지 않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

2. 귀하는 자신의 모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 ②어느정도 그렇다( ) ③보통이다( )
 ④별로 그렇지 않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

3. 귀하는 외국출신 주민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어떠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 ②긍정적( ) ③보통( ) ④부정적( ) ⑤매우 부정적( )

4. 귀하는 자신의 모국 문화를 서울시민이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 ②어느정도 그렇다( ) ③보통이다( )
 ④별로 그렇지 않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

5. 귀하는 외국출신인 이유로 부당하게 따돌림 또는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3. 자기개발과 자율성

1. 귀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한국어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①충분히 받음( )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 ③전혀 받은 적 없음( )

2. 귀하는 고용 및 창업 등 경제활동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충분히 받음( )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 ③전혀 받은 적 없음( )

3. 귀하는 현재 고용된, 혹은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로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충분히 받음( )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 ③전혀 받은 적 없음( )

4.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모국의 문화 및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충분히 받음( ) ②받은 적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 ③전혀 받은 적 없음( )

4. 참여와 헌신

1. 귀하의 다음 사회활동들에 대한 현재 참여 정도와 앞으로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분 야	현재 참여 정도					미래 참여 의사	
	매우 자주	자주	보통	조금 있음	전혀 없음	예	아니오
1)외국인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지역주민 모임(반상회, 학부모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3)사회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4)정치참여 (투표, 특정 정당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5)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귀하는 서울시 및 지역의 정책 참여를 위한 공공기관(시청, 구청, 주민센터, 글로벌센터 등)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시를 하고 계십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3. 귀하는 현재 모국인 외 서울 시민 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에 참여하십니까?
①매우 자주( ) ②자주( ) ③보통( ) ④조금 있음( ) ⑤전혀 없음( )

4. 귀하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시간이 부족해서( ) ②정보가 부족해서( ) ③활동 장소가 멀어서( )
④관심있는 활동이 없어서( ) ⑤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 ⑥기타(_____)

5. 일반적 사항

1. 귀하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십니까?
①예(국적을 취득한 기간: _____년 _____개월) ②아니오

2. 귀하의 한국 이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중국(한국계 중국인)( ) ②중국(한국계 외) ( ) ③미국( ) ④대만( ) ⑤일본( )
⑥베트남( ) ⑦몽골( ) ⑧필리핀( ) ⑨캐나다( )
⑩우즈베키스탄( ) ⑪인도( ) ⑫태국( ) ⑬영국( ) ⑭프랑스( )
⑮러시아( ) ⑯기타(직접기입: _____)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 ②여자( )

4.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①만19세 이하( ) ②만 20~29세( ) ③만 30세~39세( ) ④만 40세~49세( )
⑤만 50세~59세( ) ⑥만 60세 이상( )

5. 귀하가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취업( ) ②결혼( ) ③가족, 친척방문( ) ④사업 또는 업무( ) ⑤유학( )
⑥기타(_____)

6.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혼자( ) ②배우자/동거자( ) ③가족( ) ④친인척( ) ⑤친구, 동료( ) ⑥기타

7. 귀하는 현재 배우자(동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입니까?

①자녀 있음(_____명) ②자녀 없음( )

8. 귀하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①모국어 위주( ) ②한국어 위주( ) ③모국어와 한국어 사용이 반반( )

9. 귀하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①모국인 친구( ) ②한국인 친구( ) ③모국인과 한국인 친구 반반( )

10. 귀하는 현재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11. 귀하가 한국에서 거주한 총 체류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12. 당신의 서울 내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표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 내국주민대상 설문지

조사원 작성	일 시	기 관	담당 조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글로벌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시가 외국출신 서울시민의 동등한 권리 향유와 사회통합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의 일부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시신 내용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답변은 통계처리 되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관련 문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석기 연구위원 02)2149-1037
김철민 연구원 02)2149-1151, 017-311-7780

※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하여 주세요.

Ⅰ.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1. 귀하께서는 외국인을 자주 만나거나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이다.
②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 정도한다.
③ 자주 마주치지만 모른 척 한다.
④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이다.
⑤ 거의 만난 적 없다. ⟶ 2번 문제로 넘어가주십시오

1-1. 귀하께서는 주로 어느 곳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직장 ② 학교 ③ 상점 ④ 집 주변 ⑤ 종교기관
⑥외국인 지원시설 ⑦ 공공기관 ⑧ 단체모임장소(친목회, 동호회 등) ⑨ 기타____

1-2. 귀하께서 만난 외국인은 주로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만난 순서대로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중국(연변출신 포함) ② 일본 ③ 동남아시아 ④ 유럽
⑤ 미국 및 아메리카 ⑥ 아프리카 ⑦기타____

1-3.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이유로 외국인을 만났습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직업상의 일 때문에 ② 아이들 교육 때문에 ③ 문화 행사 및 축제 참여로

④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⑤ 우연히 마주쳤다 ⑥ 기타 _____

1-4. 귀하께서는 외국인을 직접 만나기 이전에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①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② 상황에 따라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③ 같이 어울리는 것은 좋으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같이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⑤ 관심이 없었다

1-5. 귀하께서 외국인들과 알게 된 이후로 외국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매우 호의적이 되었다

② 호의적이 되었다

③ 변화 없다

④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⑤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 1-5번까지 답해 주셨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1번 문제에서 「⑤ 거의 만난 적이 없다」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 귀하께서 외국인을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호의적이다 ② 상당히 호의적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⑤ 상당히 호감이 가지 않는다.

Ⅱ. 사회통합과 관련된 의식, 가치관, 태도

다음은 귀하의 사화통합과 관련된 의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용에 관한 인식	1.1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동 경제	2.1 외국인으로 인하여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	1.3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4.1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교육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문화 사회에 걸 맞는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교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평등	5.1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특례입학, 고용할당 등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할당제를 두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참여	6.1 외국인도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외국인의 증가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외국인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3. 귀하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경제활동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② 동사무소 등 주거지 인근의 공공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③ 외국인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④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해부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⑤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주택의 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절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⑦ 은행 계좌, 신용카드 발급 등 사회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⑧ 기타 _____

4. 귀하께서 외국인과 생활하고자 한다면, 교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② 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③ 상거래 등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④ 안정되게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생활 정착에 도움주기
⑤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⑥ 기타 _____

5. 귀하께서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① 한국어 습득기회 제공
② 문화 교류기회 제공
③ 경제적 도움 방법 제공
④ 생활 정보의 제공
⑤ 타향살이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친밀감 제공
⑥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⑦ 기타 _____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2. 귀하께서는 외국인 및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데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	적극적 동의
2.1 한국에 방문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2 한국 국민이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4 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5 자녀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절친한 친구로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7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Ⅲ. 일상생활

1. 귀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및 이주민과 만났을 때, 어떤 점에서 한국인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위_____ 2 순위_____)

①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
②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 때
③ 한국의 명절을 이해하고, 한국 음식 등을 즐길 때
④ 한국의 관습 등을 잘 이해할 때 (한국의 예절이나 노인 공경 등)
⑤ 양로원 및 고아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⑥ 텔레비전에서 한국인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⑦ 기타_____

2. 귀하께서 보시기에 외국인과 이주민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생활 속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순위_____ 2 순위_____)

① 언어문제 등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② 취업 기회의 제한 및 근로조건의 불평등 같은 경제활동상의 어려움
③ 시청·구청·동사무소 같은 공공 행정 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
④ 문화·정서적 차이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예: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⑤ 외국인 자녀들의 제한된 교육 기회 ⑥ 주택의 구입 및 임대의 어려움
⑦ 은행 계좌,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 ③ 외국인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⑧ 기타 _____

Ⅳ. 사회적 문제와 갈등

1. 귀하가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지역 내에 외국인 및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갈등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 문제 (청소년 일탈, 비행 등)
② 범죄 (폭력, 사기, 마약 등)
③ 다문화 가정의 문제 (가정폭력, 위장 결혼)
④ 지역사회의 문제 (슬럼화, 집값하락, 교육문제)
⑤ 성 의식의 혼란 및 문란
⑥ 기타 _____

2. 귀하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 및 이주민과 접하면서,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언어 소통의 부족 및 어려움으로 인하여
② 상호 간 이해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웃 간의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③ 문화·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
④ 아이들 간의 충돌로 인하여
⑤ 금전 거래 등 경제적인 습관 차이로 인하여
⑥ 기타 _____

3. 귀하께서는 외국인 및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인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②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③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④ 외국인 출신 가정의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
⑤ 기타 _____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영 문 요 약
(Abstract)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Social Cohesion Policy for Foreigner in Seoul

Suk-Ki Hong, Sun-Ja Kim, Hae-Suk Lee
Eun-Jung Lee, Hwa-Jin Kim

Seoul joined global city level party based on its volume and economic capacity, However, it has mainly focused on it's visible facility expansion in process of development. In order to be one of the world-famous global cities, above all, different strategic approach focusing on the human resource is requested. 300,000 immigrant residents from overseas are no longer aliens in Seoul They are neighbors who has right to live together, equally guaranteed by the law in regardless of their race, language, religion, cultural background. It is time for the tolerance. Seoul, as capital city which represent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mbrace the citizen from under-development nations Hence, it is necessary for Seoul to make diverse efforts to become an hopeful city. They come to Seoul not only for their personal reason but also for achieving success, supporting their family and contributing their nations. Namely, Seoul is space for them to make their dream come true. Hereupon, Seoul needs to prepare the policy in which it supports their stabilization, social adop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for soci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is a keyword of this research, interpreted as a sense of belonging, mutual interest and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ommunity members. This research was developed through three approaches (spatial change, social system change and awareness change) for solving problems of social cohesion and it's improvement. In Chapter 1, we introduce the necessity and the primary aim of this research and briefly describe its research method. Chapters 2 adopts chronicle approach to summarize the immigrant history in Seoul. It also analyzes formation proces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er's

communities from spatial point of view and estimates their change in the future. Chapter 3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ws and social systems (which is) supporting the foreigners and analyzes the alternative for development of social recognition of global culture by including programs for native Korean. In chapter 4, we present the result of survey focusing on mutual consciousness among foreign residents and interviews with Koreans, foreigners and related institute's employees. Lastly, in chapter 5, we proposes the object and alternative action plan to grow Seoul as a leader class global city. In order to make Seoul as a leader class global city,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system which not only supports foreigner's stable settlement in Seoul but also guarantees their active participation same as natives. If these processes are executed step by step, Seoul gives many chances to the foreigner and they are willing to contribute their assets for developing our society.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New Paradigm for Foreigner in Seoul

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2. Contents and Method of Study
3. Review of Related Theory

Chapter 2 Yesterday, Present and Future of Forigner in Seoul

1. History
2. Foreigner and Their Communties
3. Future of Foreinger in Seoul
4. Conclusion

Chapter 3 The Issue of Seoul Foreigner Policy

1. Related Laws
2. Supported Agency and Programs for Foreigner Citizen
3. Foreigner Children's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4. Conclusion

Chapter 4 Lived Ensemble in Seoul

1. Draft for Survey
2. Survey Analysis
3. Interview
4. Conclusion

Chapter 5 Conclusion : Finding a Way for Global Seoul with Foreigner

1. Limitation of Foreigner Policies in Seoul
2. Turning Point for Newly Oriented Foreigner Policy

References

Appendices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시정연 2010-PR-19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10년 10월 29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10,000원 ISBN 978-89-8052-765-6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